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과학관 전시해설에 대한
경력 도슨트의 생애사 연구

A Life History Study on the Science Museum
Exhibition Interpretation by Experienced Docent

2012년 8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지구과학과

이 정 화

과학관 전시해설에 대한
경력 도슨트의 생애사 연구

지도교수 박 영 신

이 논문을 지구과학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지구과학과

이 정 화

이정화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신인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조교수 안경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조교수 조광희 (인)

위 원 조선대학교 조교수 김선영 (인)

위 원 조선대학교 조교수 박영신 (인)

2012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vii
I.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1
B.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6
C. 용어 정리	8
II. 이론적 배경	10
A. 새로운 과학교육의 필요성 및 21세기 과학교육의 변화	10
B. 비형식 교육기관으로서의 과학관	14
1. 과학관의 정의, 분류 및 기능	15
2. 과학관의 실태 및 인식	18
3. 과학관의 구성 - 교육 및 교육담당자를 중심으로	21
C. 과학관 도슨트	36
1. 도슨트의 개념 및 역할	36
2. 국내 과학관의 도슨트 현황	42
3. 학습자로서의 도슨트	44
4. 교수자로서의 도슨트 - 실천적 지식의 형성	46
III. 연구 방법	55
A. 연구 방법론 - 생애사적 연구	55
B. 연구 과정	60
1. 들어가기	62
2. 연구 참여자 선정	63
3. 자료 수집 및 분석	68

4. 연구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80
C. 연구자에 대하여	83
IV. 결과	86
A. 항해를 위한 돛을 달다 - 신념의 형성 및 도슨트 입문	86
1. 자원봉사 및 교육에 대한 신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 생애사적 사건	86
2. 과학관 도슨트 입문에 영향을 미친 생애사적 사건	93
3. 도슨트 양성과정과 운영관리 현황	102
4. 초창기 인식된 도슨트 정의 및 역할 - 체계적이지 않은 인식	120
B. 거친 바다로 - 도슨트 활동과 진정한 도슨트로서의 성장	125
1. 좌절 - 도슨트 활동의 시련	126
2. 성공 - 도슨트 활동의 즐거움	133
3. 도슨트 활동을 통한 지식형성 -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	141
4. 현재 인식되는 도슨트 정의 및 역할 - 인식의 변화	202
C. 키를 잡다 - 전문가로서의 도슨트	208
1. 도슨트 전문성의 정의 및 필요성	208
2. 도슨트 전문성의 내용	215
3. 도슨트 전문성을 위한 선배 도슨트로서의 역할	247
4. 전문가로서의 도슨트 정의 및 역할 - 인식의 정착	254
V. 결론 및 제언	260
참고문헌	280
부 록	294

표 목 차

Table 1 연구자에 따른 비형식 학습 환경의 분류	13
Table 2 국·공·사립 과학관 현황(2011. 12월 기준)	19
Table 3 선진국과 국내 과학관 수 비교	19
Table 4 국내 과학관의 도슨트 명칭 사용의 예	38
Table 5 국내 박물관·과학관 도슨트의 역할 및 활동	39
Table 6 교사의 실천적 지식 구성요소(Elbaz, 1981)	49
Table 7 연구 참여자의 활동	68
Table 8 면담 대상자의 특징	69
Table 9 면담Ⅱ, Ⅲ의 질문 내용	73
Table 10 자연사를 테마로 한 과학관의 도슨트 양성교육과정 중 전문지식교육 내용 ..	106
Table 11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에 관한 신념	143
Table 12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지식 습득 방법	154
Table 13 전시해설 방법에 대한 지식 습득 방법	162
Table 14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 구성요소에 따른 양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 내용 ..	172
Table 15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에 대한 준비	177
Table 16 전시해설과 관련된 양 도슨트의 전략들	202
Table 17 과학적 전문내용에 대한 전문성의 필요성에 관한 도슨트의 인식	212
Table 18 관람객에 대한 전문성의 필요성에 관한 양 도슨트의 인식	213
Table 19 전시해설 기법에 대한 전문성의 필요성에 관한 양 도슨트의 인식	214
Table 20 자원봉사자로서 전문성의 필요성에 관한 양 도슨트의 인식	214
Table 21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의 마무리와 반성	225
Table 22 여러 가지 돌발 상황	229
Table 23 돌발 상황을 수습한 양 도슨트의 사례	231
Table 24 전문가와 도슨트의 오프라인(off-line) 의사소통 - 워크숍 일정	237
Table 25 도슨트 양성교육과정	264

도목차

Fig. 1 연구의 개요	7
Fig. 2 박물관에서 과학관의 위치(문성채, 2007에서 변형)	16
Fig. 3 박물관의 기본 조직도	22
Fig. 4 박물관의 교육요소(Caston, 1989에서 변형)	24
Fig. 5 국립 A, B과학관 웹사이트 - 교육 프로그램 안내	32
Fig. 6 공립 C자연사박물관 웹사이트 - 교육 프로그램 안내	32
Fig. 7 국내 박물관 교육 담당자 유형(황지영, 2004에서 변형)	35
Fig. 8 국외 전시관련 주요 교육기관 비중	42
Fig. 9 실천적 지식과 교사 지식 기반의 비교(문공주, 2009)	47
Fig. 10 연구 과정	61
Fig. 11 연구 대상 선정 근거	65
Fig. 12 연구문제에 따른 양 도슨트와 그 외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71
Fig. 13 수집된 문서자료	77
Fig. 14 양 도슨트의 생애주기에 따른 자원봉사[신념1, 3, 4] 및 교육[신념 2, 5]에 대한 신념의 형성	92
Fig. 15 천정에 매달린 엘라스모사우루스	95
Fig. 16 양 도슨트 아들의 야외 해설하는 모습	98
Fig. 17 양 도슨트의 도슨트 활동의 계기	102
Fig. 18 S과학관의 도슨트 양성교육과정	103
Fig. 19 관람객과의 첫 대면	110
Fig. 20 도슨트 양성교육과정 편성	116
Fig. 21 도슨트 운영 관리	119
Fig. 22 2004년 박물관 대회 참여 명찰	121
Fig. 23 과학관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학습	130
Fig. 24 양 도슨트가 가족과 함께 하는 다양한 모습	140
Fig. 25 “좋은 전시해설은 무엇인가?”에 대한 양 도슨트의 신념 1의 원천	145

Fig. 26 부모와 아이가 함께 전시해설을 듣는 모습	148
Fig. 27 학예사와 도슨트가 함께 만든 활동지	152
Fig. 28 TV를 통한 정보습득의 장점	155
Fig. 29 과학관 및 박물관 관람을 통한 다양한 자료 수집	156
Fig. 30 과학관 전시물의 현 교육 과정에 따른 특징 설명	160
Fig. 31 초등학교 3학년의 교과내용을 반영하는 전시물(참나무)	160
Fig. 32 곤충의 특징이 생활에 적용된 사례(펜치)	161
Fig. 33 양 도슨트의 체험을 통한 전시해설 방법 습득 자료	167
Fig. 34 곤충의 비행 특징 적용사례를 통한 과학관 건립목적 설명	169
Fig. 35 전시물(미쓰김라일락)이 갖는 사회적 의미 설명	170
Fig. 36 편의시설을 안내하는 양 도슨트	171
Fig. 37 양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과 그 인식에 대한 변화	174
Fig. 38 과학관을 소개하는 양 도슨트	180
Fig. 39 운석 만져보는 장면	184
Fig. 40 전시해설과 연관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	188
Fig. 41 홍조식물의 전시해설	190
Fig. 42 거미 모형의 전시물	191
Fig. 43 전시해설 도중 칭찬을 하는 양 도슨트	193
Fig. 44 전시물에 기대어 있는 어린이와 관람예절을 알리는 양 도슨트	195
Fig. 45 학부모와 면담 하는 장면	197
Fig. 46 학습자료를 준비해 온 양 도슨트	199
Fig. 47 여러 가지 활동지	201
Fig. 48 엘리베이터 안전한 탑승을 돕는 모습	204
Fig. 49 O박물관 홍보방송	204
Fig. 50 도슨트 전문성에 대한 인식	211
Fig. 51 내용학적 전문지식 습득 방법(예; 양 도슨트의 방법)	216
Fig. 52 자료 수집 방법과 정리	218
Fig. 53 수집된 자료의 정리	218

Fig. 54 정리된 자료의 다양한 응용	219
Fig. 55 전시해설의 시작 방법	221
Fig. 56 전시해설의 시작(도입)	222
Fig. 57 전시해설의 진행 방법	223
Fig. 58 전시해설의 진행(해설)	223
Fig. 59 전시해설의 마무리 방법	224
Fig. 60 동료 도슨트의 정기모임	234
Fig. 61 과학교육 전문가가 운영하는 블로그	235
Fig. 62 온라인(on-line) 상에서 전문가와 도슨트의 상호작용	236
Fig. 63 전문가와 도슨트의 오프라인(off-line) 의사소통 - 1:1 토론	238
Fig. 64 전시해설 과정에 대한 메뉴얼	238
Fig. 65 국내 과학관 내 도슨트 관리 현 상황과 효율적 관리방향	242
Fig. 66 도슨트 활동의 삼위일체(도슨트, 관리자, 가족)	246
Fig. 67 후배 도슨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양 도슨트의 자료 제공	249
Fig. 68 이메일(E-mail)을 통한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 내용에 대한 피드백	251
Fig. 69 양 도슨트가 운영하는 블로그	252
Fig. 70 O박물관 교육과정 일부로 양 도슨트가 개편한 교육프로그램	255
Fig. 71 도슨트의 역할	259
Fig. 72 도슨트 전문성 발달의 순환 모델	274

ABSTRACT

A Life History Study on the Science Museum Exhibition Interpretation by Experienced Docent

Lee, Jung Hwa

Advisor : Prof. Park, Young-Shin, Ph.D.

Department of Earth Scienc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se days, Korean science education is expanding and consolidating a variety of learning based on individual students' aptitude and ability so that it can produce talented persons with creativity and literated character. Accordingly, informal science education becomes to be emphasized and science museums are said to be the representative of informal science educational institutions. Science museums are making efforts to meet educational needs of visitors by developing a diversity of educational programs in line with the waves of this current education. In such a context, the studies of science museums are undergoing a shift from their roles of displaying exhibition materials and managing facilities to those of training educators like curators and docents to enhance visitors' learning science. Due to a recent increase in interest in science museum education including docent education, the number of studies are being reported to ensure internal stability of science museums. With the current issues in science museum education, this study was designed and investigated to explore the current status quo of docent system in science museum and the way to make docent training system professional through on the life-historical approach, one of the qualitative studies. With Ms. Yang as main informant of this study who has been working as a docent for 8 year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determine her professionalism as the docent during her lifetime.

The research period ranged from December, 2009 to April, 2011. During this period, Ms. Yang was observed and interviewed before and after her interpreting exhibition regularly, and she and the researcher had irregular conversation when they had chances. The total recorded time taken was 14 hours from 11 regular interviews with Docent Yang only and another 12 hours from 25 irregular interviews with Docent Yang's acquaintance including her family, curators, her docent manager, experts on science education, and other docents as peers as well as two parents who visited science museums. Docent Yang was also observed four of session lasting 2 hours for her exhibit interpretation. Document artifacts including the educational materials that Docent Yang produced during her docentship, her speech materials submitted to a docent speech contest, e-mails exchanged between the docent and the researcher, materials and writing posted on internet blogs and cafes run by docents, educational materials used for docent training and supplementary programs and her chronology as well as field notes, were also collected and consulted. The data collected were categorized and analyzed according to research question of what the current docent system looks alike and how it can be promoted for the most internal stabilization of science museums. To construct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data interpretation on the basis of collected and analyzed data, procedures as theoretical sample extraction, triangulation of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validation by the participant, and consultation with experts as well as co-researchers, were followed. The results were described according to the stages of the life cycle where docent Yang experienced events influencing her to become a doc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ocents as volunteer who are responsible for science museum education by interpreting exhibition, must be differentiated themselves from ordinary volunteers, in terms of educational beliefs, which exerts the greatest influence

on docents' activities in that the beliefs can appropriately be formed through life-historical experiences, even though it can partially be acquired through the training curriculum. Once people apply for docentship, they are required to take training program consisting of basic literary education, professional content knowledge education(knowledge about exhibit content, knowledge about visitors, and knowledge about interpreting strategies), and practical field experience. Yet, there is some to be improved: there are some institutions which do not conduct basic literary education but content knowledge about exhibition; the education of expertise is limited to exhibit contents studies; the various experiences of senior docents are restricted to interact with new docents because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the education of field practice are mainly curators.

Second, docents become to acquire and organize their practical knowledge of exhibit interpretation through their real activities. Docent's practical knowledge is formed in the context similar to that of teachers, but the former is different from the latter in terms of knowledge of interpreting strategies and knowledge of the context environment for exhibit interpretation. Docents' knowledge of interpreting strategies is corresponding to that of teachers' teaching in the classroom.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the latter is directed toward the homogeneous learners at similar levels or grades in the classroom, while the former is aimed at the heterogeneous learners, varying in their age and culture with various visiting purpose in science museum. On the other hand, knowledge about the exhibition interpretation environment is to be contrasted to that of the teaching environment. The teaching environment is made up of classrooms, or closed space, whereas the exhibition interpretation environment consists of open space where some visitors listening to exhibition interpretation co-exist with others watching the exhibition individually. Accordingly, docents' knowledge under these circumstances, distinguished from that of teachers, is thought to be so practical as to deal with a variety of

unexpected accidents and as to contribute to the convenience of visitors. Docents' practical knowledge can be formed or altered to be further systematized while docents interact with visitors, which may be referred to as a strategy for exhibition interpretation. Docent Yang's exhibition-interpreting strategies were divided into three stages. First stage was pre-interpretation one where docent Yang got materials ready for what and how to interact with visitors in advance by taking into account various aspects associated with exhibition interpretation. Second stage was the exhibition interpretation one where docent Yang displayed a variety of interpreting strategies while she interacted with visitors with the consideration of visitors' psychological aspects, such as how to motivate them to be engaged in her interpretation. Third stage was post-interpretation one where docent Yang wrapped up the exhibition interpretation what was assigned to her and added what she missed that day due to the time limitation. Additionally docent Yang reminded visitors of visiting that museum again with courtesy. Docent Yang had a chance to reflect on what she did with visitors and wrote a reflective journal of her activities in order to make a better exhibit interpretation next time.

Third, docents must be regarded as experts with professional knowledge different from those of ordinary volunteers. Hence, docent Yang tried to develop herself as a professional docent in two areas; one is internal area where she acquired content knowledge of what to know about the exhibition, pedagogy knowledge of how to interpret exhibition, and context knowledge of how to deal with unexpected accidents. The other one is external where she promoted her practical knowledge related to exhibit interpretation by interacting with docent peers and science educators regularly as a vehicle for achieving professionalism more effectively. Docent Yang added tha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close rapport between novice and experienced docents in that they can learn each other to promote themselves professional. Realizing the substantial educational

effect of the mentorship of experienced docents with ample experiences on novice docents, docent Yang did her best to share her expertise with the novices by providing them with useful materials and interacting them through the Internet. The conclusions could be made as follows on the basis of results mentioned in the above.

First, it is about structured doc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set a concrete regulations for recruiting docents in science museums. The recruitment of docents should be limited to those who majored in science-related studies, those who have ever had work experiences at science-related institutions and those who have ever taught professional knowledge on science, allowing for applicants' motivations and enthusiasm for educational activities. After recruiting appropriate docents in any museum, they need to offer the systematic docent training program where pre-docents experience the integration of theoretical informal learning and practical informal learning as well as general literacy with visitors. Additionally, docent evaluation system must be constructed to run professional docent program with the collaboration between curators and experienced docents.

Second, it is about how to run docent system effectively. Specific and concrete docent running program should be planned, made, and recorded in regard to docents' effective activities. Docents need to keep a journal where they indicate what many activities they run, how long each activity lasts, how many visitors docents interact with, and what to modify to implement it better next time. Docents as educators should keep equipping themselves with the high quality of education by forming practical knowledge for exhibition interpretation through their activities and strengthening it while interacting with docent peers or experts such as curators and science educators. Systematic management to run docents effectively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supplemental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offered during regular workshop

by curators and docent managers or experts in science or science education. Furthermore, regular evaluation can be given to them in order that they can get motivated to keep learning on their own in an effort to enhance their qualities.

Third, supporting system for docents' current activities should be established in terms of environmental conditions. Docents should be provided with their own rooms full of professional books as well as material, uniforms, microphones, laser pointers, and transporting carts. Docents should be supported in food expenses, free parking permits and frequent prize or rewards, all of which motivate docents to engaged themselves in having affection in their working as docents. In terms of psychological support, docents managers, co-workers and families should fully understand and support them so that they can feel proud of their own activities. Besides environmental and psychological supports, if economical supports, such as in full degree of covered transportation fee and meals, must be established for docents to run their current working activities effectively.

Last, to run effective and professional docent system, docent preparation program can be established in one of curriculums at college of education and docent professional program can be established in one of curriculums at school of continuing education of universities. The prepared docents can be substituted as educators in science museum, while the prepared teachers are assigned as educators in schools for science learning. As long as the prepared docents start to work as educators interacting with visitors at science museum, they can also be trained to be professionals by taking additional courses at school of continuing education curriculum.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may hopefully be used as a basic research for such an activation for docent education at science museum.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21세기의 인류는 세계화·정보화의 거센 물결과 함께 치열한 무한 기술 경쟁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저탄소 녹색 성장의 꿈을 실현시키면서, 동시에 과학기술과 관련된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창의성과 인성을 모두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필요하게 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윤현진 등, 2007; NRC, 1996). 이에 우리 교육은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해 ‘열린 교육사회, 평생 학습 사회’의 건설을 위한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습으로 확대 지향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즉, 평생학습, 비형식적 교육, 구성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창의적이며 유연한 사고를 갖도록 학교 밖 활동을 요청하고 있다(박승재 등, 2000).

위와 같은 교육과정의 학교 밖 체험활동의 권고와 2005년부터 월 1회를 시작으로 2012년 매주 시행되는 주 5일 수업제로 학생들은 학교 활동이 아닌 체험 할 수 있는 학교 밖 활동에 접근할 기회가 늘어났다.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및 체험활동 형태라면 형식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이외 책, 신문, TV방송, 인터넷, 과학관 등의 비형식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형식적 교육은 일정한 교육의 이상과 목적이 설정되어 있고 일정한 장소에서 자격을 갖춘 교사가 동질의 학생들에게 일정기간 표준화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으로 그 특징이 폐쇄적이며, 규정적이고 선발적이며 경쟁적이다. 이에 반하여 비형식적 교육은 비의도적 교육이라고도 하며 개방적이며 비규정적이고 선택적이며 비경쟁적이다. 또한 학습자 자신의 자기선택에 달려있는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비형식 기관이야 말로 7차 교육과정 및 2007년 개정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열린 교육사회, 평생 학습 사회’를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현재 형식적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현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바를 반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에 비형식적

교육기관으로의 학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비형식적 교육기관은 형식적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성이 배제된 학습자의 자발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습의 장으로 그 교육의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실물을 통한 직접교육과 직접체험의 장이 될 수 있고 학교를 졸업한 성인에게는 평생 교육의 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다(김소희, 송진웅, 2003; 박승재, 유준희, 1999; 박영신, 이정화, 2011).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비형식적 교육기관으로 기초과학, 첨단과학, 자연사, 전통과학 등의 과학 내용을 다양한 전시 매체로 전시하고 있는 과학관은 대표적인 비형식적 교육기관 특히, 과학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박승재, 2006; 한문정 등, 2010). Song & Cho(2004)에 의하면 2002년 현재 전국적으로 과학관 및 과학관련 전시관이 350곳 분포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과학연구원, 과학박물관 및 자연사박물관, 과학 놀이시설, 동·식물원 및 수목원, 주제별 과학박물관, 전통과학 관련기관 및 시설, 과학 전문기관 등이 포함된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로 국내에는 과학관이 운영되고 있다.

과거 과학관은 단순히 수집품을 전시하거나 학생들이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체험실 설치 및 전시에 그쳤지만 근래 과학관에 대한 일반대중 및 학생들의 교육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단위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학생들이 과학을 더 잘 이해하고 흥미를 갖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정기주 등, 2010; Osborne & Dillon, 2007; Rennie et al., 2003). 이에 맞춰 국내외 과학관에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관람객들의 교육적 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관에 관한 연구도 과학관 건립과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으로의 접근에서 교육적 활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논제로 이어지고 있다. 기존 과학관에 관한 연구를 주제별로 분류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를 기점으로 과학관 건립에 대한 연구가 대두되었다. 세계 각국의 박물관 창설과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한 유럽에선 이미 18세기에 박물관의 수집물이 일반인에게 공개되면서 자연사박물관의 교육적 접근이 시작되는데(이선경 등, 2004)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이후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을 위한 심포지움 및 추진위원회가 발족됨으로써(안희수 등, 1993) 자연사박물관의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우리 주변에 분포하는 자연물 및 과학 자료들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분류·기

록·보관과 이들 자료에 대한 연구와 조사의 결과를 전시함으로써 대중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 유발, 교육 활동을 통해 과학의 대중화 등 다방면의 역할을 수행해 낼 기관으로서 과학관의 건립이 요구됨에 따라 과학관 건립에 대한 기초 자료를 위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박상달, 1983; 안희수 등, 1993; 이윤경, 1990; 이용남, 2002; 이창진, 1999; 조준오, 이창진, 2010). 특히, 김항목 등(1996)은 우리나라의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로 분야별 전시물의 수집, 다양성 및 입지조건 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 했다. 즉, 국제적 스케일의 자연사박물관, 21세기를 대비한 국립자연사박물관, 한국의 명소로서의 국립자연사박물관, 자연과학의 총본산으로서 국립자연사박물관, 통일 후를 대비하는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제안했다.

둘째, 과학관 전시물에 관한 특징 및 활용에 관한 연구이다. 과학관의 기본 역할 중의 하나인 전시물 설치에 관한 효과적인 최적화 연출의 전략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과학관 전시물의 교육적인 관점과 관람객의 관심도와 흥미를 충분히 고려한 전시물의 고안으로 수적으로 많은 전시물들이 더 이상 좋은 박물관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님으로(신명경, 이창진, 2003) 과학관에서 관람객과의 소통을 위한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호기심을 유발하는 공간, 체험적인 요소를 결합한 표본 자료, 각종 모형과 그림이 적절히 어우러진 설명 자료를 제시하여 전시커뮤니케이션 효과 증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송기혜, 2010). 한편 김도희(2009)는 국내 과학관의 전시물이 학교과학을 보조하는 교육 자료로 충분히 활용 가능할 정도로 생물교과 지식내용이 높은 비율로 반영되어 있었으나 학습효율성과 동기적 측면을 고려하여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오디오·비디오 매체와 호기심을 유발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연결하는 조작형·놀이형 매체는 아직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에 이미 확보된 전시물에 대한 학년별 수준을 고려하여 과학교과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전시, 자율적인 참여를 기본토대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제안했다.

셋째, 과학관의 인식조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즉, 과학의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과학의 발달과 생활권에 과학관이 들어옴에 따라 대중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과학관에 대한 인식조사가 활발히 이

루어졌다. 중등학교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교사들은 과학관으로 부터 제공되는 풍부한 학습 자료에 대해 만족을 보이고 현장학습이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들 또한 과학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활동지를 겸한 현장체험활동을 함으로서 과학에 대한 높은 흥미와 만족을 나타내고 있었다(윤소현, 2008; 정세진, 2003). 한편,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교사, 학생, 학부모)은 자연사와 자연사박물관이란 말을 들었을 때 ‘공룡, 생태계’ 등을 많이 연상했고 낯설지만 관심 있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었지만, 배워보고 싶은 욕구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윤아연, 2008; 최지은 등, 2004).

넷째, 과학관의 교육적 효과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었다. 과학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교육적 역할의 기대로 이어지고 하드웨어적이라 할 수 있는 과학관의 건물, 전시물, 편의시설 등이 충분히 제공됨에 따라 질적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접근으로 과학관 교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 과학관의 교육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과학관 내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강사의 부재, 각 프로그램에서 자연사와 관련된 전시물의 낮은 활용도 실정에 대해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과학관 전시물을 이용한 교육활동 강화와 함께 직접 조작하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용 자료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한은희, 2007) 함이 주장되었다. 또한 과학관의 교육에 있어서 학교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학교 과학수업의 보조 자료로 과학관의 전시물 활용을 제시함으로써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일환으로 즉, 교실 외 과학수업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김현빈, 김찬중, 2005; 김혜원, 2004; 이선경 등, 2004; 최경희 등, 2006). 위 같이 제안된 과학관 교육프로그램의 교육적 활용가능성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숙희(2006)의 자연사박물관의 환경교육에 대한 현장체험학습 실험에서 잘 나타났다. 즉,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교육과 현장체험학습을 병행하여 프로그램의 적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와 학습결과물을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적용 전과 적용 후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 인식 그리고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됨이 보였다.

다섯째, 과학관 전시물 교육에 관한 효과적인 교육방법의 강구에 대한 연구이다. 설립 초창기부터 과학관의 전시물에 관한 교육은 전시물 앞에 놓인 패널을 통한 간단한 설명에 불과했다. 즉 전시물명(한국명, 영문명), 화학기호(광물 전시물 등에), 출처 등으로 전시물 설명을 갈음 했는데, 최근 들어 전시물 설명을 교육의 한 분야로 보면서 전시해설사 즉, 도슨트¹⁾에 관한 연구가 점차 진행 되고 있다(박영신, 이정화, 2011). 우선, 선호하는 전시물 교육방법과 비선호하는 전시물 교육방법에 대해서 학생들은 전시물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패널을 읽는 것보다 전시물을 설명해주는 방식에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해되었다는 응답(김소희, 송진웅, 2003)을 보였다. 한편, 전시물 교육방식이 서로 다른 과학관에서 전시물을 관람케 함으로서 사전 사후 인식변화를 보였는데, 선호하는 과학관 관람 방식에 있어서 사전엔 자신이 보고 싶은 내용이나 전시관을 자유롭게 둘러보는 관람 방식을 선호하였으나 사후엔 방문한 곳에 있는 도우미가 안내를 해주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게 되었다(장현숙, 최경희, 2006; Cox-Peterson et al., 2003).

국내 과학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우리나라 과학관의 역사가 짧은 만큼 그 연구 또한 건립, 운영, 전시, 교육 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학관의 교육적 역할이 충실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방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일 것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된 도슨트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타내 주고 있듯이 과학관은 관람객과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관람객이 선호하는 과학관의 관람 방식이기도 하다.

과학관에서의 도슨트에 대한 기대와 역할이 커지는 만큼 도슨트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과학관의 도슨트에 관한 연구는 관람객의 도슨트 해설에 대한 선호도 조사, 필요하나 체계적이지 못하는 관리 및 운영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슨트의 순기능 역할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일 필요가 있으며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 도슨트로

1) 도슨트(docent)는 ‘가르치다’라는 뜻의 라틴어 ‘docere’에서 유래한 용어로, 미술전시관이나 박물관에서 일반 관람객들의 전시물 및 작가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는 안내인을 말한다(이보아, 2002; 김현정, 김창희, 2005). 1845년 영국에서 처음 생긴 뒤, 1907년 미국에 이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었는데 한국에는 1995년 미술관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경력 도슨트를 대상으로 생애에 걸쳐 전문화 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 도슨트 전문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B.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도슨트 1인을 대상으로 도슨트(docent) 활동을 bottom-up의 접근 방향으로 생애사적 접근법으로 모색하였다. 현재 국내 과학관 도슨트 활동은 체계적인 양성교육과정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박영신, 이정화, 2011), 도슨트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도슨트를 조망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도슨트 관점을 통해 도슨트 활동에 필요한 합의점 및 협의를 알아내기 위해 bottom-up의 접근방향을(van Driel et al., 2001) 취했다. 연구 방법으로는 생애사에서 드러나는 개인의 주관적 의미세계는 그가 속한 문화를 이해하는 단서가 되어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가 속한 보편적인 문화를 드러내게 되므로(최영신, 1999) 도슨트 활동에 따른 문화를 알아내기 위해 생애사적 접근방법으로 연구하였다.

bottom-up의 접근방향을 위해 현재 도슨트로 활동하는 한 경력 도슨트를 제외하고 생애사적 접근방법을 통해 도슨트가 유년시절과 도슨트 활동 초기부터 수년의 활동을 통해 전문가로 형성되는 과정들을 살펴보았다. 이에 도슨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 생애배경과 도슨트 활동을 위해 어떠한 지식을 함양하였는지 알아보고 도슨트 활동을 통해서 형성되는 실천적 지식과 환경의 영향(기관, 기관장, 학예사, 관람객, 동료 등)을 알아봄으로서 도슨트가 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위한 도슨트 전문화 방안을 모색하였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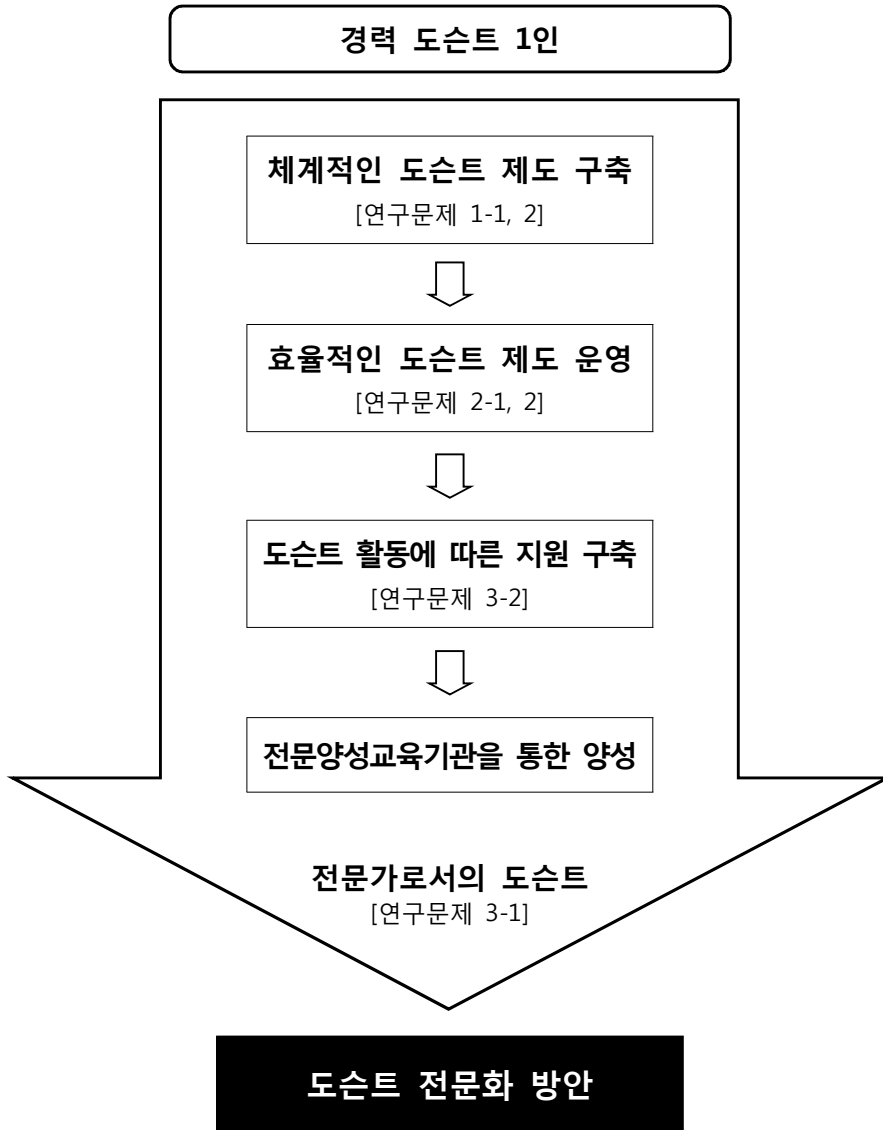


Fig. 1 연구의 개요

이상의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정리하였다.

1. 도슨트 활동 이전의 생애사적 경험은 무엇인가?
 - 1-1. 도슨트 이전의 생애사적 경험은 도슨트에게 어떠한 신념으로 작용하는가?
 - 1-2. 도슨트는 어떠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는가?

2. 도슨트 실천적 지식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2-1. 실천적 지식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는 어떠한 맥락으로 형성되는가?

2-2. 실천적 지식의 적용 전략은 무엇인가?

3. 도슨트의 전문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3-1. 도슨트가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은 무엇인가?

3-2. 후배 도슨트의 전문성을 위한 선배 도슨트의 역할은 무엇인가?

C. 용어 정리

· 비형식 과학교육(Informal Science Education)

우리 주변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형식적인 과학교육 외에 다양한 형태의 과학 관련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과학 관련 교육과 학습이라고 하면 과학관에서의 학습 및 교육, 미디어를 통한 교육, 클럽활동 등의 비형식적 과학 교육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형식 과학교육 중 과학관의 전시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방법의 하나인 도슨트의 전시해설에 대해서 주로 논하였다.

· 도슨트(Docent)

도슨트는 과학관 및 박물관, 미술관에서 전시물을 설명하며, 박물관을 안내하면서 특별히 관람객을 인도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Sue Mccoy, 1989). 특히 과학관에서는 전시물을 해설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시해설사, 전시전문해설사, 사이언스캐스터, 안내봉사자 등 다양한 명칭을 쓰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과학관에서 전시물을 해설 하는 모든 사람을 도슨트로 한정한다.

· 생애사적 연구(A Life History Study)

생애사적 연구란 개인에 대한 연구로서, 일상의 삶을 살아오면서 한 개인이 경험

한 인식과 행위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질적연구의 한 분야이다(Roberts, 2002). 본 연구에서는 교육학 관점에서 한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개인의 시각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생애사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

실천적 지식이란 교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기초하여 실제 교수 상황에 맞도록 종합적으로 재구성한 지식으로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근거를 제공해주며, 교사행동의 근원이 되는 지식을 의미한다(이춘자, 2003; Fenstermacher, 1994). 본 연구에서는 도슨트가 전시해설을 위해서 이론적 지식을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기초하여 전시해설 상황에 맞도록 재구성한 지식으로 실천적 지식의 의미를 논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국내외의 과학교육의 현황에 따른 과학관 도슨트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았다. 즉, 새로운 과학교육의 필요성 및 21세기 과학교육의 변화에 관한 연구자들의 연구 경향을 알아보고 이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과학관에 대해서 탐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주체이면서 과학관을 교육의 무대로 두고 있는 과학관 도슨트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헌 고찰을 통해 도슨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도슨트의 전문화 방안을 위한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도슨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다.

A. 새로운 과학교육의 필요성 및 21세기 과학교육의 변화

21C는 과학기술시대를 대비한 전 국민의 과학 소양교육과 세계화·정보화의 거센 물결과 함께 치열한 무한 기술 경쟁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저탄소 녹색 성장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창의성을 발휘하는 인재를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과학기술과 관련된 복합적인 사회 문제 즉, 댐 건설로 인한 환경문제, 황우석 사태에서 보여준 생명윤리적 문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인성을 갖춘 인재를 필요하게 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따라서 글로벌시대에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로 단순히 학업성적만 우수한 사람이 아니라, 미래 과학기술로 인해 발생하게 될 문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발생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학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은 사회와 연결된 과학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조희형, 박승재(1994)는 현대 사회는 과학의 발달과 과학적 기술²⁾의 개발이 반드시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사회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어 과학과 과학적 기술은 사회 및 생활과 관련하여 통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했고, 최경희(1996)는 과

2) 기술 : 본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술은 과학이 응집된 산물을 의미한다(조희형, 박승재, 1994).

학과 기술의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과학과 기술에 관련된 사회문제들을 주지시켜 과학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킴으로서 학생들이 장차 사회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르는 과학-기술-사회 접근에 의한 과학교육을 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김정훈, 박정희(2006)는 우리의 과학교육 내용 구성에 있어서 과학, 물리, 생물, 지구과학이라는 학문적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과학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과학을 실생활과 연관하여 이해하거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 사회의 다른 영역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함을 지적하여 과학교육에 있어서 ‘과학과 사회를 잇는 교육’으로 STS(Science-Technology-Society)교육을 강화해야함을 강조 하였다. 이러한 사회와 통합된 과학교육을 위해서 형식기관은 점차 변화를 비형식기관은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 교육은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교육과정을 통해 전인적인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 있고 창의적인 인간상을, 2009 개정교육과정을 통해서 세계 환경과 국가 위상의 변화에 맞춰 창의적이며 글로벌한 인재상을 제시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했다.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교육과정은 교육과정에 있어서 주 5일 수업제를 월2회 시행 기준을 적용하였고, 재량활동을 신설·확대하였다. 주 5일 수업제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활동이 아닌 체험을 할 수 있는 학교 밖 활동에 접근할 기회가 늘어났고, 재량활동으로 학생들에게는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이 촉진되었고 학교에서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보장되었다. 재량활동의 내용을 보면 재량활동은 선택과목학습과 국민공통 기본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교과 재량활동’과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³⁾과 자기주도적 학습⁴⁾을

3) 범교과 학습 :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할 ‘국가 사회적 요구 사항’ 중 학교와 교사,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범교과 학습의 영역으로는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등’을 교육과정에 예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지도할 영역의 선정은 학교 실정, 사회적 여건, 학생의 희망을 고려함으로써 학교에 따라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4) 자기주도적 학습 : 학습자 스스로 학습의 참여 여부에서부터 목표 설정 및 프로그램의 선정에 이르기까지

위한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학교의 교육환경엔 그 한계가 있으므로 학교 밖 현장학습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물론 학교 밖 교육환경이 학교 교육의 보완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009 개정교육과정⁵⁾은 교육과정에 있어서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 주당 4시간으로 시수를 확대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더욱 다양한 학습환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 변화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재량활동을 위한 기반(주 5일 수업제,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수업시수 확대 등)은 21세기 글로벌 창의적 인재 육성, 과학적 소양함양을 위한 과학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형식기관(학교)이 학교 밖 교육을 기대하고 있음을 즉, 형식기관이 비형식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비형식교육의 형태로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비형식교육의 형태는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형태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박물관 및 과학관에서의 학습 및 교육, 미디어를 통한 교육, 클럽 활동 등이 비형식교육이 될 것이다. 미국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비형식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비형식 학습이란 자발적이고 자기 주도적이며, 평생교육이면서 내재적 흥미와 호기심, 탐구심, 환상, 과제의 완수, 사회적 상호작용 등에 의해 동기부여가 된다.’고 했다(김찬중 등, 2010). 이러한 비형식학습이 일어나는 환경은 종류와 특성이 매우 다양하며, 과학의 발달로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Table 1은 연구자에 따른 비형식 학습 환경의 분류로 비형식 학습 환경은 연구자에 따라서 다소 용어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크게 기관의 주도아래 이루어지는 비형식 학습 환경과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 학습 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의 전 과정을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행하게 되는 학습 형태로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되, 교사의 지도로 학습자 스스로 학습 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학습 과제에 따른 탐구와 해결을 자신의 힘으로 전개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5) 2009 개정교육과정의 배경 : 첫째, 경직된 교육과정 체제 개선을 위한 학교의 자율적이고 다양화를 추구 하면서 학생의 관심과 수준을 고려 둘째, 공급자 위주의 교과편성을 개선하여 학습에 흥미를 유발 셋째, 형식적 비교과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배려와 나눔 실천(교육과학기술부, 2009)

특히, 기관의 주도아래 이루어지는 비형식 학습 환경 중에서 과학관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과학의 기초적인 소양을 포함한 통합 과학교육을 제공하는 일반대중을 위한 ‘과학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Table 1 연구자에 따른 비형식 학습 환경의 분류

연구자	비형식 학습 환경
Schauble & Glaser(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 방과 후 활동 • 가족 학습 프로그램
Crane et al.(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와 시범 : 박물관, 수족관, 동물원 등 • 언론 매체 : 텔레비전, 라디오 •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 과학캠프, 문화센터, 동호회, 과학전람회, 과학 탐구대회, 과학 올림피아드 등 • 책, 잡지, 취미, 신문 등
Bell et al.(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인 가족 학습 환경 • 설계된 환경 • 방과 후와 성인 프로그램
김찬종 등(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 가족 학습 환경 : 사람들의 일상생활 즉 대화나 대중매체의 시청 등에서 일어나는 비형식 학습 환경으로 평생 동안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남 • 지역사회 기반 비형식 학습 환경 : 방과 후 활동이나 성인 학습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비형식 학습 환경으로 특정 연령대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흔히 협동 학습을 강조 • 설계된 비형식 학습 환경 : 학습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하며 개발된 비형식 학습 환경으로 박물관, 과학관,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식물 정원, 도서관 등이 해당됨

실제로 과학관을 통해서 일반대중 및 학생들은 과학에 더 큰 흥미를 갖게 되는 기회가 된다. 왜냐하면 과학관 방문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동기가 자발적이어서 방문자의 과학적 욕구와 흥미를 충분히 이

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관을 이용한 학교 밖 교육은 학교 교육이 그 물리적 환경과 통제적 분위기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실제 문제 상황을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을 보완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과학관은 연령과 배경이 다양한 관람객 즉, 일반대중, 학생, 학령기 이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과학적 흥미와 관심을(최경희, 장현숙, 2005b)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연구결과를 보면, 프랑스 파리에서 조사한 과학자들의 직업선택 요인으로 과학 관련 박물관(라빌레뜨과학기술산업관, 발견의 성당 등)에서의 경험을 꼽은 경우가 30대 이상 과학자의 경우 71%, 30대 이하의 경우 92%에 달했다(Zana, 2006).

과학관의 이러한 교육적 효과로 인해 과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의 향상,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 청소년에 대한 기초 과학지식 및 과학원리의 체험 교육, 자연사적 지식전달을 통한 탐구정신 함양, 청소년의 과학기술 진출을 촉진시키는 등 이공계 기피 해소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에서는 비형식 교육기관으로서 과학관은 어떠한 곳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B. 비형식 교육기관으로서의 과학관

기관의 주도아래 이루어지는 비형식 학습 환경은 학습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하며 개발된 학습 환경으로(김찬중 등, 2010) 과학관이 그 대표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환경에서는 학습자의 경험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흔히 실물이나 실물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인공물, 매체, 신호체계를 이용하기(Bell et al., 2009) 때문에 형식기관에서 느끼는 과학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에 충분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과학관은 일반인들이 과학기술을 접하고 논의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과학기술과 대중과의 관계를 ‘눈으로 보는 과학(eyes-on science)’, ‘체험하는 과학(hands-on science)’, ‘이해하는 과학(minds-on science)’, ‘느끼는 과학(feels-on science)’ 등 다양한 개념으로 표방하고 있다(송성수, 2009). 즉, 과학관은 다양한 교육매체를 통해 오감으로 느끼고 몸소 체험하는 과학교육기

관으로서 그 역할이 기대되는 비형식 학습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비형식 학습 환경으로서의 과학관에 대하여 과학관의 정의를 비롯하여 현 국내 실태를 알아보고 교육을 중심으로 과학관의 구성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1. 과학관의 정의, 분류 및 기능

과학관은 박물관의 탄생과 변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즉, 17세기에 영국에서 최초의 공공박물관이 탄생한 후, 18세기에 전문 박물관으로서 자연사박물관이 분화 건립되었으며, 20세기 전반에는 과학, 기술, 산업의 발전과 그로 인한 대규모 박람회를 바탕으로 또 하나의 전문 박물관인 과학기술산업관이, 후반에는 과학탐구관이 서구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과학, 기술, 산업 등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상황 및 모든 사람을 위한 비형식교육 등과 관계되는 독특한 성격의 ‘과학관’이 탄생하게 되었다(정기주 등, 2010).

과학관은 박물관의 범주에 속하는 비형식 교육기관으로 전시 분야의 범위에 따라 분류된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 중 전문박물관에 속한다. 그 하위분류로 과학관은 과학박물관(Science Museum)과 과학센터(Science Center, Science Hall)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The Science Times, 2005), 과학박물관은 오브제⁶⁾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며 그 소장품을 기반으로 교육적 활동을 펼치는 곳이다. 반면, 과학센터 역시 소장품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집이 의무적인 기능은 아니며, 그보다는 전시와 일반 대중을 위한 프로그램에 비중을 둔다(Burcaw, 1997). 그러나 과학박물관과 과학센터는 과학이라는 테마로 묶을 수 있다(Fig. 2).

Fig. 2 같이 박물관에 근원을 두고 있는 과학관은 기능과 내용에 있어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존재하여 정의와 개념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정기주 등, 2010)이다. 따라서 몇 개의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센터연합회(ASTC : Associ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는 ‘과학관은 모든

6) 오브제 : 물질적이고 삼차원의 형태를 가진 모든 종류의 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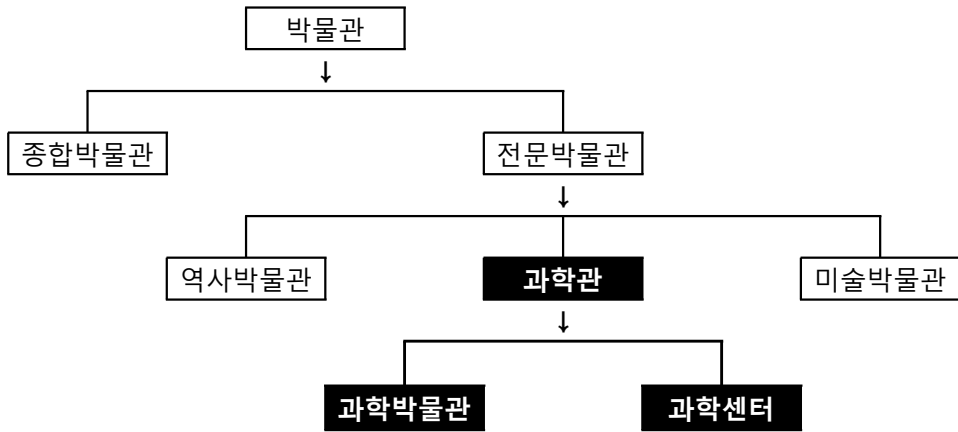


Fig. 2 박물관에서 과학관의 위치(문성채, 2007에서 변형)

사람을 위한 것으로 과학센터, 과학탐구관, 과학박물관, 과학기술관 뿐 아니라 광의의 과학이나 기술 관련 일부 분야 또는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 관련 기념관이나 박물관 등을 비롯하여 어린이 과학관, 천문관, 우주관, 플라네타리움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 자연관,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고(이효은, 2007), 과학관육성법(법률 제8976호)에서는 ‘과학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자료⁷⁾를 수집 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과학기술자료·전문직원 등 등록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박승재 등(2007)은 ‘과학관은 자연과 과학 및 기술의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보존·전시하며, 모든 사람을 위한 자연환경과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고 과학의 정신과 탐구능력을 함양하는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과학관의 분류 또한 과학관의 정의와 같이 아직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확실하게 통용되는 하나의 분류 체계를 제시하기 어렵다. 즉,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과학관의 명칭을 보더라도 과학박물관(Science Museum), 과학기술박물관(Science and Technology Museum), 과학산업박물관(Science and Industry Museum) 등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아직도 그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

7) 과학기술자료 :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학관의 분류 체계 또한 통일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류 체계를 몇 가지 제시하면(정기주 등, 2010)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관은 설립 주체에 따라 분류 할 수 있다. 국가부처가 설립 주체가 되어 건립하고 운영하는 ‘국립과학관’, 시·도·군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이 설립 주체가 되어 건립하고 운영하는 ‘공립과학관’, 개인·단체·기업체가 설립 주체가 되어 건립된 ‘사립과학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과학관 육성법, 2008). 둘째, 과학관은 과학관의 기능 범위⁸⁾와 대상에 따라 분류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첨단과학 등 여러 분야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과학관’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속해 있으면서 학생 중심의 과학 탐구관의 ‘교육전문과학관’, 천문학을 다루는 ‘천문대’와 농업분야를 다루는 ‘농업과학관’과 같은 특정 분야가 특화되어 운영되는 과학관인 ‘테마전문과학관’, 이화여자 대학교자연사박물관과 같이 대학에 부설로 설립 운영되는 ‘대학전문과학관의 전문과학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박승재 등, 2005a). 셋째, 전시면적 즉 규모의 기준에 따라 대형과학관, 중형과학관, 소형과학관으로 분류 할 수 있다(박승재 등, 2007).

다양한 종류의 많은 과학관이 존재하면서 그에 따른 기능 또한 다양하다. 다음에 제시한 과학관의 기능은 어느 한 과학관에서 모두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대표적인 과학관의 기능이다. 따라서 과학관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서 하나의 기능이 더욱 부각되면서 수행되기도 한다. 과학관의 기능 그 첫 번째로, 과학관은 박물관 고유의 기능으로 ‘자료 보관·보존의 기능’을 갖는다. 이는 과학관의 태동이 박물관의 뿌리를 둠으로 인해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이다. 두 번째, 자연과학과 관련된 학술적 순수 연구뿐만 아니라 과학관 소장 자료를 보존하는 보존과학 연구, 과학전시의 연구, 과학교육학적 연구, 과학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영연구, 과학관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박물관학 연구 등의 ‘연구 기능’이다. 이것은 과학관에 관한 사회적 욕구가 다양해지고, 과학관으로서도 사회에 대한 적응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뜻한다. 세 번째, 관람자가 과학관을 찾아와 즐겁게 전시물을 보고 그것에 대해 깊이

8) 전시 분야의 범위에 따른 분류는 과학관육성법에 종합과학관과 전문과학관으로 구분하였고, 통상적으로 한 분야에 한정된 비교적 소규모의 경우 테마과학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과학관의 성격상 ‘전문’이 적합하다. 또한 외국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박승재 등, 2007).

생각하며 또다시 와서 봐야겠다고 생각하게 하는 ‘전시 기능’이다.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성격이 강한 과학관이라고 할지라도 전시 기능은 과학관이 반드시 수반해야 하는 특수한 기능이다. 네 번째,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기능과 일반시민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과학적 소양을 증진시키는 ‘교육 기능’이다. 이는 초·중등학생의 학교 밖 과학교육 및 일반인의 비정규 과학교육의 장으로 활용됨으로서 인류의 미래와 전주기적인 생애교육에 과학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기능이기도 하다. 다섯 번째, 과학관은 현대인들이 여가 시간에 방문하여 정신적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장소로써 문화적 공간으로 태어나는 ‘문화 기능’을 가진다. 과학관은 문화 기능 수행을 통해 과학문화 거점으로써 문화적 상황 속에서 과학융합문화 창출과 과학문화 창달의 선봉으로서 공헌해야 한다. 여섯 번째, 과학관은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과 국내 과학기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내·외에 우리 자연과 과학기술의 역사, 현황, 전망을 보이는 국가 ‘정체성 확립 기능’의 장소라 할 수 있다. 일곱 번째, 과학관은 과학기술문화 연구개발, 교육, 활동 모임, 대회의 주관, 지원 및 공간의 대여 등과 더불어 과학 문물 교류와 과학, 기술, 산업의 연계 및 취업의 ‘경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과학관내 상점은 소장된 전시물의 캐릭터 상품, 과학 관련 도서, 기념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과학관의 경제적 자립과 운영에 도움을 준다(정기주 등, 2010).

위와 같은 과학관의 다양한 기능은 과학관의 건립목적에 따라 좀 더 부각 되는 기능이 있지만 과학관의 기능은 과학관의 존재의 가치이며 관람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과학관의 서비스이다. 다음 장에서는 관람객이 과학관의 다양한 기능을 접할 수 있도록 현재 우리 생활권에는 얼마나 많은 과학관이 존재하고, 21세기 과학관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과학관의 실태와 인식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2. 과학관의 실태 및 인식

20세기 후반 과학, 기술, 산업 등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탄생하게 된 과학관은 고도로 발달된 과학이 생활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현재, 우리의 생활

권에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가를 과학관의 실태를 통해 파악해 보면, 현재 국내 과학관은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과학관과 비교하여 여전히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 즉, '03. 12 수립된 제1차 과학관육성기본계획('03 ~ '07)과 '09. 6 수립된 제2차 과학관육성기본계획('09 ~ '13)에 의해 점차 과학관이 건립되면서 국립과학관은 8개 설립, 공립과학관으로는 60개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사립과학관은 27개가 운영되고 있으면서 2011년 12월 기준 국내에는 95개의 과학관이 운영되고 있다(Table 2). 이러한 과학관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Table 2 국·공·사립 과학관 현황(2011. 12월 기준)

구분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국립	7	1	-	-	-	8
공립	35	4	10	6	5	60
사립	20	3	2	2	-	27
계	62	8	12	8	5	95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2

선진국의 과학관 1개에 따른 국민의 비율을 보면 Table 3의 자료가 2010년의 통계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52만명당 1개의 과학관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실정과 비교했을 때 국내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은 수의 과학관을 보유하고 있다.

Table 3 선진국과 국내 과학관 수 비교

항 목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과학관 수	1,950	485	617	628	794	72
과학관 1개당 인구(만명)	14	12	13	10	16	33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

또한 이 낮은 비율은 1998년 기준으로 미국이 16.3만 명당 1개의 과학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밖에 일본은 15만 명당, 영국은 13만 명당, 독일은 7만 명당, 프랑스는 12만 명당 1개의 과학관을 가지고 있는 12년 전의 다른 OECD국가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고상원, 1998) 열악한 국내 과학관의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관 실정의 열악함은, 자연사 박물관의 1/3정도가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오랜 역사를 갖고 발전해 온 선진국의 자연사박물관에 비해 우리나라 자연사박물관은 그 역사가 짧고 대학 내 연구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으로 물적, 인적 자원에서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이선경 등, 2004). 이러한 현 실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제1·2차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관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꾸준히 건립지원 하고 있다.

과학관의 건립지원으로 우리 생활에 점차 들어오고 있는 과학관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첫째, 학습자료로 활용이 용이함을 인식하고 있다. 현장학습에 참여한 교사들은 자연사박물관에서 생물의 다양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때 학습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음에 만족하고 있었다(윤소현, 2008). 둘째, 과학에 대한 학습 의욕이 향상됨을 인식하고 있다. 과학관 현장학습에 참여한 초등학교생이 과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문제 해결력과 원리이해 면에서 학습 의욕이 향상되었으며 과학 학습의 이해도와 참여도에서도 효과적으로 나타났다(한국인, 2007; 윤소현, 2008). 또한, 자연사박물관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교생에서는 교육과 현장체험학습을 병행한 프로그램의 적용전과 적용후의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 인식, 그리고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됨을 보였다(조숙희, 2006). 셋째, 사고력 개발에 있어서 좋은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과학관을 방문하는 등의 과학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대해 학부모들은 실제적인 경험을 체득시켜 주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저학년 학부모는 다양한 경험을 체득시키기에, 중·고학년 학부모들은 다양한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데 좋은 교육환경으로 인식하고 현장체험학습에 자녀를 참여시키고 있었다(김중안, 2007).

이러한 과학관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과학관육성에 대한 필요성의 중요한 이유

가 될 것 이다. 즉, 단순히 국내 과학관이 선진국 수준의 수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확충을 하기 보다는 과학관을 통해서 학습 자료로서 충분한 교육적 가치와 과학에 대한 학습 의욕 향상, 사고력 개발을 위한 좋은 환경이 되므로 이러한 것들이 과학관 확충의 필요성에 근거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과학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오게 하는 과학관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에서 알아보자.

3. 과학관의 구성 - 교육 및 교육담당자를 중심으로

박물관(과학관 포함) 구성의 3요소는 일정한 박물관자료, 전시공간과 운영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박물관자료는 박물관이 연구나 참고를 위한 잠재적인 가치 때문에, 또는 미학적·교육적 중요성으로 인해 취득되어 보존하고 있는 수집된 물품이고(안예진, 2009), 전시공간은 ‘고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고정’되어 있는 전시물을 관람객이 ‘이동’하며 감상하는 곳으로 사람과 전시를 포괄하는 곳이다(권영훈, 2008). 마지막 운영인력은 박물관이 원활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자원으로 박물관의 발전과 함께 역할이 세분화·다양화되었다.

고대 로마시대로부터 수세기 동안 박물관이 수장고의 기능을 수행했던 시기에는 박물관 종사자의 종류나 역할이 비교적 단순했으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전문화되면서 다양해졌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박물관의 수가 급증했고 그 종류도 다양해진 만큼 미국박물관협회(AAM)와 Glaser & Zenetou(1996)⁹⁾가 제시한 것처럼 전문 운영 인력의 종류와 숫자도 증가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Weil(1990)의 진정한 박물관 전문직이 되기 위한 요건에 따르면 이 모두를 전문직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따라서 Weil(1990)의 박물관 전문직이 되기 위한 요건에 따른 관점에서 박물관 전문 인력을 다시 구분 짓자면 ① 관장(Director) ② 학예사(Curator) ③ 교육담당자(Educator) ④ 등록담당자(Register) ⑤ 보존처리사(Conservator) ⑥ 전시기획자(Exhibition designer) ⑦ 소장품관리자(Collection manager)로 나눌 수 있다.

9) Glaser & Zenetou가 제시한 전문인력 부록 참조

다음 Fig. 3은 박물관의 기본 조직에 Weil(1990)의 관점에 따라서 박물관 전문 인력을 통합 분류한 것이다.

- ① 관장(Director) : 박물관 운영의 핵심인 관장은 책임자로 박물관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최선영, 2009).
- ② 학예사(Curator) : 학예사¹⁰⁾는 박물관 전문 인력 중 가장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전문인력으로, 박물관의 핵심 업무인 자료수집, 전시구성, 교육, 홍보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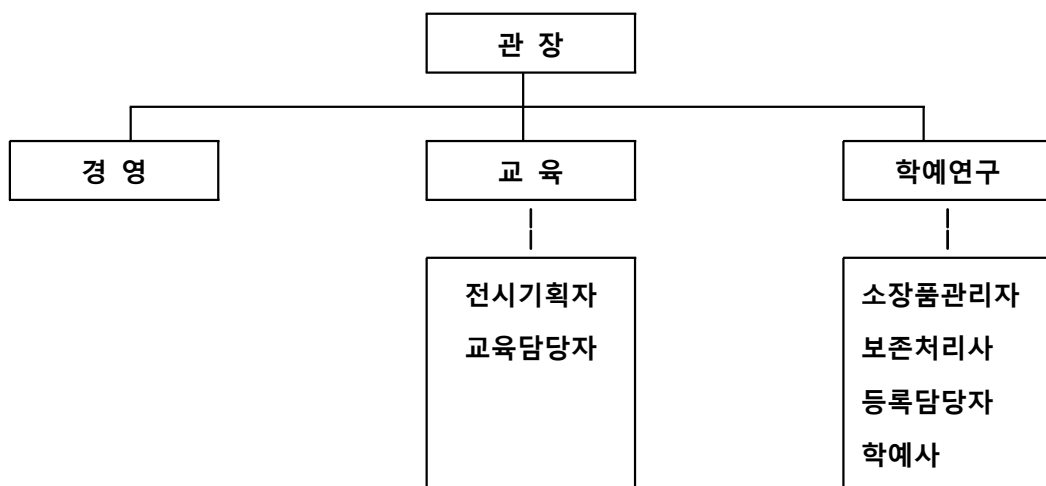


Fig. 3 박물관의 기본 조직도

- ③ 교육담당자(Educator, museum specialist) : 교육담당자는 교육전문가, 교육담당학예사, 에듀케이터(educator)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담당자’로 사용하고자 한다. 교육담당자는 박물관 교육의 중심에서 교육 실행자로 과학문화에 있어서 그 저변을 확고하게 할 수 있다.
- ④ 등록담당자(Register) : 박물관 등록담당자는 작품의 수집, 취득, 목록 작성, 대여, 포장, 총목록 작성과 관리, 보험, 소장품의 관리, 보관, 통제하는 업무

10) 학예사는 학예사, 학예 연구원, 학예관, 큐레이터, 키퍼(keeper), 콘서베이터르(conservateur)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예사’로 부르코자 한다.

에 관련된 일련의 정보검색시스템 구축과 이와 관련된 법률 서류를 만들고 체계화하며 유지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 ⑤ 보존처리사(Conservator) : 보존처리사는 과학적으로 박물관 소장품을 조사하고 훼손을 방지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복원하기도 한다.
- ⑥ 전시기획자(Exhibition designer) : 전시기획자는 학예사와 교육담당자의 아이디어를 상설 전시, 기획 전시, 순환 전시의 형태로 발전시킨다.
- ⑦ 소장품관리자(Collection manager) : 소장품관리자는 소장품의 관리 감독, 목록 작성, 일련번호의 작성 그리고 소장품들을 개별 부서에 보관하는 업무 등의 책임을 맡는다(이보아, 2002).

박물관은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고, 그러한 전문가들의 협업 하에 운영되어야 박물관이 지닌 역할 이행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박물관 교육담당자는 그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박물관에 있어서 교육은 미국에서는 많은 박물관이 대중교육을 목표로 세워졌을 정도로 교육적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고 (Melber & Abraham, 2002), 자연사박물관은 일반 대중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 밖 교육 활동인 비정규 과학교육의 장으로서 그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이선경 등, 2004). 이러한 박물관 교육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박물관 교육담당자는 그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상 학예사 하나의 직위만이 존재할 뿐이고, 박물관 전문 인력에 관한 구분과 개념이 모호하여 박물관 관련 종사자들조차도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박물관에 대한 이해부족과 더불어 전문인력 필요에 대한 인식의 결여, 즉 박물관 전문인력 개념을 포함하는 제도의 부재가 바탕이 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박물관 전문인력의 개념을 정립하여 각 박물관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박응희 등, 2009). 박물관 전문인력 특히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들에게 기대하는 과학관의 교육은 무엇이 있는지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a. 과학관의 교육

초기 과학관의 기능은 박물관에서 출발하여 과학관학적으로 가치 있는 유물을 수집, 기록, 보존, 전시, 교육활동의 기능을 수행하였다(임성택, 이병훈, 1978). 그러나 근래에 와서 점차 과학관은 직접 체험하면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어 갔고 나아가 과학적 원리를 이해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바뀌어 갔다(임경미, 2000). 또한, 학교 정규교육의 보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강시킬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었다. 즉, 박물관교육은 박물관의 중요한 기능이자 박물관의 존재이유가 되었다(Hooper-Greenhill, 1992). 이렇게 박물관에서 교육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박물관이 제공하는 특수한 환경에 기초한 것이기도 한데, 박물관은 실제적인 자료들이 수집 보존되어 있는 장소로 박물관을 매개로 하는 활동들은 전통적인 학교 교육이나 일반 문화기관의 교육과정에서는 얻을 수 없는 특수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게 되기 때문이다(양지연, 1999).

부각되는 박물관교육 즉 과학관교육이 효과적으로 발현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박물관 교육요소의 유기적 결합일 것이다. 박물관의 교육요소는 박물관요소(Museum component), 교육요소(Education component), 그리고 주제요소(Subject component) Fig.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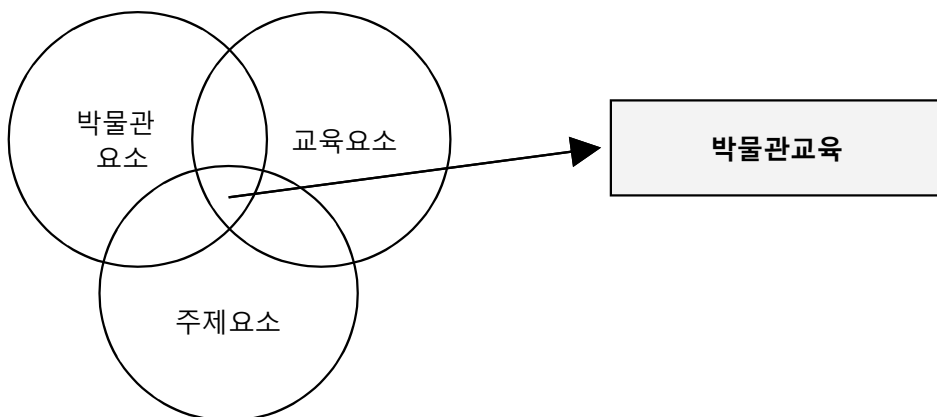


Fig. 4 박물관의 교육요소(Caston, 1989에서 변형)

여기서 박물관요소는 박물관이 관람자에게 경험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실제의 작품을 말하며, 교육요소는 박물관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적 목적을 가진 교육전략 및 교육방법을 의미한다. 또한 주제요소는 박물관 교육이 내용으로서 연령층과 성별, 계층, 관심, 경험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될 수 있는 학습을 의미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박물관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박물관 교육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대상 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이에 적합한 교육목표와 교육방법을 갖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Caston, 1989).

실제 교육요소가 유기적으로 잘 결합된 과학관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첫째, 자발적이고 자신의 속도에 따라 학습할 수 있으며 실험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기관으로서, 학교학습을 이해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희망을 제공한다 (Weiss, 1992). 둘째, 학생들에게 기초 과학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과학원리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고 자연현상과 사물을 해석하며, 과학의 발견, 발명, 탐구력, 창의력을 함양시킨다(최경희 등, 2006; 문성채, 2007; 김태형 등, 2005; 박승재 등, 2000). 셋째,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사소한 것을 과학기술과 연관시켜 학교과학교육에서 다루지 못하는 넓은 의미의 과학교육과 과학적 소양에 기여를 한다(장현숙, 최경희, 2006). 넷째, 과학적 탐구활동을 통해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고조시키고 과학 태도와 가치관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박승재 등, 2007). 다섯째, 범국민적인 ‘생활의 과학화 및 사고의 합리화’를 통해 21세기 합리적인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에 기여를 한다(김태형 등, 2005). 이러한 과학관의 긍정적 평가는 과학관에서 실행되고 있는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교육의 실체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현재 과학관에서 편성·운영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b. 과학관의 교육 프로그램

과학관 교육프로그램은 과학교육의 특성을 기본으로 다음의 4가지 유형(전시 중심, 대상 중심, 교육 이벤트, 도슨트 교육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백령, 2005). 전시

중심 교육프로그램은 과학관의 전시물에 대한 이용객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전시물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도희(2009)의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과학관의 전시물 내용은 학교과학을 보조하는 교육자료로 충분히 활용 가능할 정도로 생물교과 지식내용이 높은 비율로 반영되어 있었으나 학습효율성과 동기적 측면을 고려하여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오디오·비디오 매체와, 호기심을 유발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연결하는 조작형·놀이형 매체는 아직 부족함을 보였다. 따라서 과학관을 방문한 관람객의 1차적인 목적인 전시물 관람을 통한 지식습득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전시 중심 교육프로그램은 표제, 설명글의 제작과 이용객 스스로가 관람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 책(self-guide book)의 제작·보급을 통한 정보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상 중심 교육프로그램은 ①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 ② 어린이 프로그램, ③ 어린이 탐구-탐험 체험과 프로그램, ④ 가족 프로그램, ⑤ 학교연계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중 학교 연계 프로그램의 국내 실정에 대해 김혜원(2004)은 외국의 과학관과 비교를 하였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국외의 경우 일본의 국립과학관, 영국의 런던과학관과 미국의 보스턴과학관의 교육프로그램은 교육담당자들에 의해 계획된 강연, 강의, 실험실습, 야외학습, 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교교육과 잘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우리나라 과학관(서울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운영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은 예전에 비해서 매우 다양해졌으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학교에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제한된 활동이 교사들로 하여금 학교 교육과 연결되어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연계프로그램으로 과학관 어린이 프로그램의 경우 전시 중심의 학교연계프로그램과 교과연계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교육 이벤트 교육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층을 수용할 수 있으며 과학을 주제로 놀이와 과학의 원리를 동시에 수용함으로써 참여자와 함께 호흡하는 과학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과학관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과거 과학관은 전시물을 통한 교육에 치중 했지만 현재의 과학관은 좀 더 적극적인 교

육프로그램을 강구하고 있다. 일례로 국립과천과학관의 발명과학캠프, 과학교실, 유아과학탐구교실과 국립중앙과학관의 전국학생발명품 경진대회, 창의과학교실, 자연탐험단과 같은 전시물 교육 외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과 호흡하는 과학관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이벤트 교육 프로그램은 참여자로 하여금 과학에 대한 신선한 충격을 줌으로서 과학에 대한 지적 호기심 유발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도슨트 교육활동 교육프로그램은 전시 중심 교육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람객과 소통을 하는 전시 중심 교육의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도슨트의 전시물 해설에 대한 교육은 과학관 관람의 선호도에서도 반영된 것처럼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장현숙, 최경희(2006)는 중학생 32명을 대상으로 전시물 주제 및 관람형식이 다른 과학관을 관람케 함으로서 그 선호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사전엔 자신이 보고 싶은 내용이나 전시관을 자유롭게 둘러보는 관람 방식에 대해서 선호하였으나 사후엔 방문한 곳에 있는 도우미가 안내를 해주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 과학관의 도슨트 교육활동은 아직 시작단계로 관람객의 선호도를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한 실정이다.

위 같은 과학관 교육은 국내의 경우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정세진(2003)은 고등학생 1학년 46명을 대상으로 과학관에서의 현장체험에 대하여 설문조사와 활동지를 통하여 과학관의 방문 전후에 학생들의 과학관에 대한 흥미도와 과학적 태도변화를 알아보았다. 설문지는 과학관에서 현장학습 활동 후 흥미도와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태도검사는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TOSRA(Test of Science-Related Attitude, Fraser, 1981)에서 과학의 사회적 의미(10문항)와 과학의 취미적 관심 영역(10문항)을 발췌하여 전체 20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였다. 설문지 분석 결과 학생들은 과학관 방문에 대해 높은 흥미와 만족을 나타내었고, 사회적 의미영역과 취미적 관심영역에서 사전에 비해 사후에 더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조숙희(2006)는 초등학교 5학년 2개 학급을 대상으로 실험집단(40명)과 비교집단(40명)을 구성하여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험도구로는 과학관 체험학습에 관계된 설문지 40문항을 리커트척도 5단계로 5학

년 수준에 맞는 어휘로 구성하여 안면 타당도를 거친 후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박물관 체험학습에 관한 것으로 체험학습의 중요성, 체험학습의 성과, 학습의 효율성으로 주제를 나누어 각 주제별 하위영역으로 환경체험학습의 인식, 중요성, 필요성, 효과, 흥미, 의의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이때 결과는 환경교육에 대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학생들은 환경운동 등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태도를 취하겠다고 응답했고 환경을 바라보는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환경보호에 관심이 생겼다고 응답하였다. 한문정 등(2010)은 서울지역의 초등교사와 중등과학교사를 대상으로 과학관을 활용한 교수·학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1)교사들의 배경 변인 및 과학관 학습 관련 교수·학습 경험, 2)과학관 학습의 이행 및 실행에 대한 자기 인식, 3)과학관 학습의 효과, 교수전략 및 본성에 대한 인식, 4)과학관 학습 실행 의향, 5)과학관 학습 관련 교육 요구의 5개 범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결과 과학관 학습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과학관 학습이 과학에 대한 흥미나 호기심을 유발하고 과학 지식이나 개념을 더 잘 이해하고 오래 기억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여러 연구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과학관의 교육 효과는 여러 계층의 관람객들에게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과학관의 독특한 교육환경이 관람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이는 곧 거부감 없이 교육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형식기관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교육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관 교육의 효과가 실제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실현되고 있는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내외 과학관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2004년 ASTC(Association of Science Technology Centers Incorporated)와 박승재 등(2005b)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외국의 대부분 과학관은 미국을 중심으로 수업과 시범, 학교 방문, 현장 학습, 교사를 위한 워크숍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방과 후 프로그램이 2002년 47%에서 2004년 57.8%로 증가하였고, 자택학습자가 증가하는 추세와 맞추어 68.2%가 자택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인구 증가 추세와 맞물려 전체 과학관 중 26.5%가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학생위주의 그리고 과학관내 교육프로그램 편성에 치중하는 우리나라 과학관과는 다르게 외국과학관은 다양한 연령층과 여건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편성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외국의 경우 학교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과학관이 83.3%, 교육과정 자료를 개발 하고 있는 과학관이 75.7%인 것은 과학관이 학교 과학교육에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과학관의 경우, 학교교육과 연계한 과학관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요구되는(최경희 등, 2006)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계에 따른 구체적인 국내외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미국의 과학관은 작은 크기의 과학관부터 시카고의 과학산업박물관(Museum of Science and Industry)과 같이 대규모의 과학관들이 다양하게 분포한다. 대부분의 과학관은 박물관으로서의 전시물과 전시 환경 등도 뛰어나지만, 전시물의 면면을 살펴보면 미국인의 정서와 자긍심이 부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중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의 U505 잠수함은 나포된 독일의 잠수함으로 이를 통해 시카고과학관은 잠수함과 관련된 과학을 소개하지만,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이 회상하는 내용을 녹음하여 들려줌으로써 은연중에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 중서부의 대표적인 산업(철도, 농장 등)에 대한 전시물을 구성하고 친근한 전시물(인형, 크리스마스트리)들을 첨단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시물과 함께 전시함으로써 친근감과 미국의 위대성 등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하고 풍부한 전문가 집단이 과학관의 전시물, 책자, 교육용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샌프란시스코 과학탐험관(Exploratorium)은 선도적이고 독자적인 과학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고, 상호작용적인 전시물을 개발하여 미국 내 다른 과학관 뿐 만 아니라 외국의 과학관에도 장기간 대여하고 있으며,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안내자(Explainer)’는 14-19세 학생들이 박물관의 현장 스테프(staff)들이 입는 오렌지색 조끼를 입고 청소년 안내자로 활동하고 있다. 학생들은 방문객들의 질문에 대답해주고 여러 흥미로운 시범 시험을 보여주는 책임을 맡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해 배우게 된다. 또한 교사 및 전문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사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단체관람을 왔을 때 학생들에게 과학적인 부분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과학내용과 교육학에 대한 워크숍을 제공하는 한편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교육자, 과학자, 연구자를 위한 박사과정, 박사 후 과정,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과학교육을 강화시키고 비정규 학습, 비정규 기관에서 일어나는 학습, 비정규 교육기관과 정규적인 교육기관과의 연결을 위해 이러한 영역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차세대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Museum of Science and Industry)은 학생과 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심장으로부터... 삶을(Live... from the Heart)’ 통해서 8학년에서 12학년의 학생과 교사에게 병원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심장개폐 수술의 화상회의를 보여주고 있다. 수술하는 동안 내내 학생들은 해부학, 도구와 기술, 수술팀의 개인별 역할과 책임, 진단과정과 치료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심장수술팀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일반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과학반(Science Club)’을 통해서도 조기 퇴학자가 팀원의 공동 작업 속에서 호기심을 키우도록 하는 비정규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런던을 비롯하여 전국 방방곡곡이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어디에 가나 여러 형태의 박물관과 다양한 과학관이 있다. 그 대표적으로 런던과학박물관(London Science Museum)은 농업과 음식관(Agriculture & Food Technology), 천문과 우주관(Astronomy & Space), 생활과 레이저기술관(Domestic & Leisure Technology)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한 전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지구촌 정원(Our Global Garden)’ 전시관은 3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들이 핸즈 온(hands-on)과 상호작용 학습법을 사용해 자기 자신과 그들 주위의 세계 그 이상을 발견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위 전시 프로그램에서는 400가지 이상의 핸즈 온(hands-on) 전시물을 통한 탐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전시를 중심으로 한 도슨트 활동이 활발하다.

호주는 나라가 크고 도시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전시물들을 직접 신고 각 지역을 순회하는 이동 전시가 잘 발달해 있다. 특히 국립과학기술센터(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re-Questacon)에서는 지방을 순회하는 이동 전시 프로그램으로 ‘과학 서커스(Shell Questacon Science Circus)’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센터의 이동식 전시물을 트레일러에 싣고 이동하다가 미리 정해진

전시 장소에 정착하여 50여 가지의 흥미 있는 각종 시범을 보이고 있다. 시범자는 호주 국립대학(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의 과학 커뮤니케이션(Science Communication) 과정에 있는 학생들로 이들은 과학 서커스에 참여하고 연구의 기회도 주어지게 된다. 또한 학생교육프로그램으로 과학관 내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 과학관 소속 시범인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외 ‘스마트 무브(Smart Moves)’라는 보다 적극적인 학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연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을 과학기술 분야로 안내하고 있다(박승재 등, 2005b).

각국 과학관의 특징은 다양하고 역동적이며 학교 과학교육과 연계되어 있고, 이용객과의 상호작용 등으로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과학관은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일반인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과학관과 과학센터들은 수업을 교실 밖으로 확장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과학 대중화와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학 유도의 역할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 현황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역할까지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Cho, 2003).

국내 과학관도 과학관의 한정된 자원으로서는 교육적 만족을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국민의 과학관에 대한 교육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다. 국립 A과학관은 가족 프로그램으로 ‘자연탐험단’과 ‘과학문화재탐방’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과학문화재탐방’에서는 학생과 엄마, 아빠가 함께 과학문화재 탐방에 직접 참여하여 우리 고유 과학문화재에 담긴 과학슬기와 창의성을 체험하고 우리 선조들이 일구었던 과학기술문화의 맥을 계승케 하고 있다.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창의과학교실’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을 이용해 과학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게 한다. 이 외에 초·중등교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학교 밖 자연탐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을 위해 ‘자연사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Fig. 5).

국립 B과학관은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유탐구학습’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탐구하고 싶은 분야를 주제의 선정에서부터



Fig. 5 국립 A, B과학관 웹사이트 - 교육 프로그램 안내

계획 수립, 탐구 수행,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자기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탐구활동으로 학생들은 ‘과학’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자유탐구학습 계획을 세우고 1년 동안 자유롭게 탐구활동을 진행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다(Fig. 5).

공립 C자연사박물관은 박물관 투어를 통해 과학에 대한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도슨트 전시해설을 실시함으로써 관람객이 전시물을 관람하는데 있어서 좀 더 쉽고 정확한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어린이 도슨트를 운영함으로써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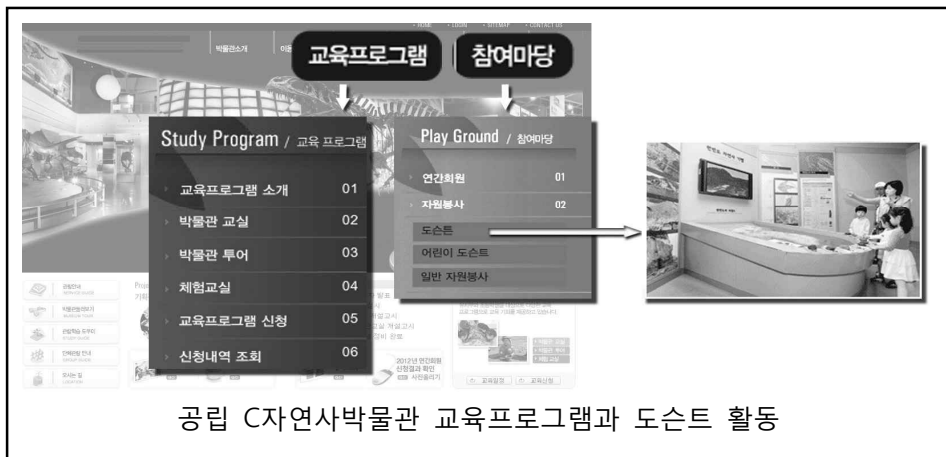


Fig. 6 공립 C자연사박물관 웹사이트 - 교육 프로그램 안내

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사고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ig. 6).

국내 과학관도 외국 못지않게 체험 활동, 교육활동프로그램, 과학행사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나 이는 국립과학관과 이에 준하는 큰 규모의 과학관에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다른 과학관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한은희 (2007)의 국내 자연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는데 그녀는 자연사 박물관 내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의 부재, 각 프로그램에서 자연사와 관련된 전시물의 낮은 활용도 실정에 대해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또한 초등학교 4, 5, 6학년 총 150명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설문을 통해 전시물과 관련된 조작 활동과 활동을 위한 학습지 및 자료 제공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사박물관의 전시물을 이용한 교육활동 강화와 함께 직접 조작하면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용 자료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해준다.

현대의 과학관은 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관람객의 체험, 관람객과의 소통 (communication)을 강조하고 있고 이는 교육을 통하여 실현된다고 할 수 있겠다.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은 본질적으로 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는 소장품들을 인식하여 다양한 관람자들과 대중들에게 다양한 대상물(objects)의 가치와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경험시키느냐에 관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김영수, 2009). 그러나 국내 과학관은 교육 내용의 다양성과 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 대중을 위한 과학 강연 및 강좌, 이용객과의 상호소통, 지속적인 방문 유도 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새로운 과학교육 패러다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박승재 등, 2007). 이에 교육담당자는 그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과학관에서의 교육담당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역할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c. 과학관의 교육담당자

근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박물관의 교육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해 오면서 박물관의 전문인력 중 교육담당자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게 되었다. 교육 담당자는 박물관의 소장품과 전시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평가하는 연구원으로, 박물관에 대한 일반 관람객과 잠재된 관람객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담당자는 박물관의 다른 어떠한 전문 인력보다 관람객의 성향을 깊이 파악하는 것에 심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교육담당자는 도슨트의 관리와 더불어 박물관 전문 인력을 희망하는 자가 실무교육을 하고자 할 때 분야에 맞게 인턴쉽 프로그램을 작성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특정 대상과 교육 목적에 따라 기획되는 교육용 전시를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일반 전시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담당자가 전시기획에 참여하는 경우도 일반화 되어 가고 있다. 국내 교육담당자는 직접 교수활동을 수행하기 보다는 기획 관리 업무만을 수행하고 교육은 외부 강사를 섭외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과학관은 다양한 체험 및 실험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에 외부 강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박물관 교육담당자는 소장품과 대중의 의사소통을 돕는 매개자,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박물관 전문인력으로 박물관 교육인력에는 교육을 담당·운영·관리하는 교육프로그램 관리자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자, 교육을 진행하는 박물관교사(museum teacher)와 전시설명을 담당하는 도슨트는 교육프로그램 실행자에 포함된다. 이러한 교육담당자의 유형을 구분하면 Fig. 7와 같다.

- ① 교육프로그램 관리자 :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관리자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담당하는 인력을 의미하는데 국내 국·공립박물관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관리자에 해당하는 인력이 가장 많다 특히 국내 국·공립박물관은 행정직공무원이 교육부서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교육프로그램 관리자에 해당된다. 교육프로그램 관리자는 박물관 교육의 정책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때로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한다 (황지영,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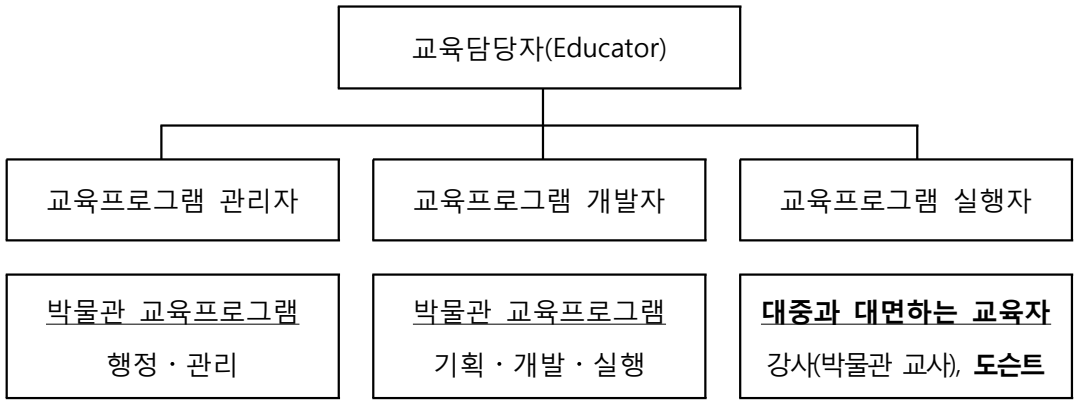


Fig. 7 국내 박물관 교육 담당자 유형(황지영, 2004에서 변형)

- ② 교육프로그램 개발자 :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자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직접 담당하는 인력을 말하며, 이들은 직접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와 교육프로그램 실행자를 교육, 훈련시키는 역할만을 수행하기도 한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자는 박물관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인식하고 박물관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교육을 개발해야 한다. 단순한 교육전공자가 아닌, 박물관이라는 공간을 이용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성에 역점을 둔 교육이 개발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황지영, 2004).
- ③ 교육프로그램 실행자 : 교육프로그램 실행자란 연구직이 아닌 운영 인력으로 대중과 소장품을 직접 연결해주는 다리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은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좌우한다. 특히, 특정 교육 목표를 가진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칭하며, 크게는 전시해설을 담당하는 도슨트(Docent)와 교육프로그램 강사(박물관 교사)로 구분될 수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처럼 일찍이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교사의 능력이 강조되어 왔다. 박물관 교육에서도 대중을 직접 대면하는 교육프로그램 실행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행자의 이미지가 곧 박물관의 이미지로 작용하고,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황지영, 2004). 강사(teacher, instructor, lecturer)는 박물관의 교육 담당자와 협의하여 기획된 주제와 내용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직

접적인 교수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관련 주제에 대한 전문성과 교수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설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기도 하며 드물게는 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나유미, 2008). 도슨트(Docent)는 전시해설 자원봉사자로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시물에 대한 정보를 설명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관람객들의 쾌적한 관람체험을 위해 흥미로운 전시설명을 고려해야 한다(송한나, 2010).

과학관에서의 교육담당자는 위와 같이 세분화 될 수 있으나 실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큰 규모의 국립과학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예사가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즉, 행정·관리, 기획·개발·실행, 교육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그 역할에 따른 인력을 충원하기엔 제정상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관에서 도입되고 있는 것이 전시해설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도슨트들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도슨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C. 과학관 도슨트

최근 박물관을 비롯하여 과학관은 전시물이 한정된 상황에서 관람객이 꾸준히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에 도슨트 제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도슨트는 관람객의 전시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과 해설을 하는 자원봉사자로 일반자원봉사자와는 다른 교육적 마인드를 갖고 교육을 실행하는 전문자원봉사자이다. 본 장에서는 과학관 교육을 실현하는 자원봉사자인 도슨트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 국내 과학관 도슨트 현황을 알아봄으로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학습자로서의 도슨트와 교육을 실천하는 교수자로서의 도슨트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1. 도슨트의 개념 및 역할

도슨트는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오면서 생겨난 제도로, 박물관의 역할이 수장품 저장에서 대중들과 소통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기대되면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출연하게 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도슨트는 원래 대학의 정규 교수가 아닌 강사를 지칭하는 용어로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박물관의 작품을 설명하는 자원봉사안내원으로 사용되고 있다(Burcaw, 1997).

용어의 유래를 보면,

- ① ‘가르치다’의 의미인 라틴어 ‘docere’에서 파생된 독일어 ‘Dozent’에 해당하는 말로(김찬중 등, 2010), 1800년대 후반 미국에서 docent는 명사로 사용되었고 봉급을 받는 스텝이 아닌 그들의 개인 교육을 위해 학생들에 의해 지불되는 인정된 교사나 강사들을 의미하기 위해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에서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용은 오늘날 유럽의 많은 대학들에서 유사하다(Glaser & Zenetou, 1996).
- ② 1915년 보스턴의 파인아트 뮤지엄(Museum of Fine Arts) 소속의 Benjamin Lives Gilman은 처음으로 ‘도슨트(docent)’라는 말이 박물관의 교육에 있어서 그 의미가 어떻게 습득되었는지 묘사하였다. ‘박물관은 보존, 전시, 가르침으로 그 완전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박물관의 의무는 그들의 내용에 있어 구두의 교육을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 뒤에 보스턴 박물관은 ‘docent’를 적용시켰다. 그 후로 ‘도슨트’라는 단어는 보이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해설자보다 새로운 의미로 미국 전체의 박물관에 폭넓게 채택되었다(Glaser & Zenetou, 1996).
- ③ 1987년도 랜덤 하우스의 영어 사전(The Random Hous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에서는 ‘전시회의 설명을 하며, 박물관을 안내하면서 특별히 관람객을 인도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 되어 있다(Sue Mccoy, 1989).
- ④ 국내에서 도슨트는 1995년 삼성미술관에 의해 처음 도입된 이후로, 미술관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그 활동이 확대되면서 최근 과학관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국내 과학관에서 도슨트라는 명칭의 사용과 관련하여 그 현황을 보면, 아래 Table 4와 같이 부르고 있다.

Table 4 국내 과학관의 도슨트 명칭 사용의 예

과학관	도슨트 용어 사용
경희대학교자연사박물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가이드
국립서울과학관	전시해설사
수산과학관	과학해설사
이화여자대학교자연사박물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도슨트

아직 국내에서는 도슨트라는 용어를 정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과학관이 많지 않지만 점차 과학관내 도슨트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그 활동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도슨트라는 용어가 보편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물관 운영 방식이 전시에서 소통으로, 운영자에서 이용자로, 학예사 인력에서 세분화된 전문인력으로 전환되면서 박물관에서는 관람객 중심의 해설제공을 통한 적극적인 관람객 유치를 위한 방편으로 전시해설 자원봉사자(김영수, 2009) 즉, 도슨트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의 박물관·미술관의 생명은 관람객과의 소통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의 최접점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도슨트이다. 도슨트는 박물관·미술관의 전시물을 관람객에게 언어적으로 전달하는 최후의 전달자이자 해석자인 것이다(신응철, 2008). 전시를 설명하는 도슨트는 박물관과 관람객의 중간에서 사람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기계와는 달리 관람객의 다양한 계층에 따라 언어의 사용과 구사표현이 달라진다. 도슨트는 대중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소장품들과 전시품들을 연결시키고 중재하는 감독, 큐레이터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대리자이다. 그들은 작품과 관찰자 사이의 상호 촉매자 역할을 한다(Glaser & Zenetou, 1996). 이 역할은 전시물을 이해하는 관람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데, 박물관의 전시물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관람객 특히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다양한 시·지각적인 전시매체의 활

용과 참여전시 프로그램을 반영한 전시를 관람하더라도, 내용의 이해와 관심보다는 전시매체가 주는 흥미감과 오락성에 빠질 염려가 있다. 따라서 아무리 전시주제를 표현하는 전시매체가 다양하더라도 초·중·고등학생 스스로가 해당 전시주제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배봉균, 2006). 특히, 과학관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은 신비한 과학의 세계를 안내하기 위한 전시물로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기 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과학의 신기함, 조작을 통해서 전시물들이 반응을 하는 재미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람객들의 전시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도슨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박물관이나 과학관에서 이루어지고

Table 5 국내 박물관·과학관 도슨트의 역할 및 활동

기관명	교육 내용	역할 및 논의
'가'자연사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슨트의 역할 • 자연사 일반 이론 • 기관 전시물의 전문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으로 모집 육성된 도슨트가 상설 전시장을 운영하고, 특별전시전이 열리면 별도로 모집 양성된 도슨트가 전시해설을 담당 ➔ 기존 도슨트가 약간의 보충교육을 통해서 특별전시전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나'자연사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 박물관 개요 • 기관 전시물의 전문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설명 ※ 분야별 자원봉사자 선발 ➔ 모집 단계에서 분야별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양성함으로써 도슨트로 선발된 자들은 전시해설에 좀 더 충실해 질 수 있음
'다'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 소방교육 • 기관 전시물의 전문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장 안내 및 질서 유지 • 전시설명 및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지원 ➔ 전시해설 외에 과학관에 업무지원 등 다방면의 역할을 기대함으로써 다소 전시해설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음
'라'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에 관한 일반 이론 • 일반 과학관 전시물의 전문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 파견 전시해설 ➔ 양성교육 이수 후 각각의 과학관에 파견되는 형태로 파견된 과학관에서 별도의 이론 교육이 필요

있는 국내 도슨트의 전시해설을 위한 도슨트 양성교육과 그에 따른 활동 범위 및 역할을 보면 전시해설을 주목적으로 하나 부가적으로 업무지원을 기대하거나, 개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직접 활동하는 과학관에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전시해설에 충실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Table 5). 이는 박영신, 이정화(2011)의 연구에서도 언급되기도 했다.

관람객과 같이 호흡하는 도슨트는 전시의 해석자이고 전시 속의 전시품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며, 동시에 전시의 목소리인 것이다. 따라서 설명을 하는 이로서 전시에 대한 이해는 물론 관람객과의 대인기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백령, 2004). 즉,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동시에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Anne El-Omami, 1989). 또한, 도슨트는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람객들에게 그들의 수준에 맞고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 전략적인 방법으로 도슨트의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적 소통능력과, 비언어적 소통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한주연, 2002). 언어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하는 의사소통은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것을 실제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언어(말)’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시 설명 시 관람객들은 말을 듣고 생각하면서 그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과 연결시킨다. 그러므로 이 도중에 해설이 간단·명료하지 못하거나 발음이 불분명하고 너무 빨리 이야기하며 작은 목소리 등의 이유로 상호 소통의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도슨트는 관람객의 특성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가지고 어떠한 관점으로 전시를 설명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성공적으로 학습을 이끌기 위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 즉, 관람객은 남녀노소 다양하다 따라서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쉽게 설명하여 정확한 의미 전달이 이루어지게 하고, 짧은 문장으로 간단명료하게 말을 하되 설명할 내용을 미리 모두 외워서 하는 것보다는 전시 개요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당하게 살을 붙여 가면서 이야기 하듯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적절한 목소리로 말을 함으로서 뒤에 있는 관람객들까지 잘 들리도록 해야 하며 그렇다고 너무 큰 소리로 하는 것도 좋지 않다. 목소리가 작아 뒤에 있는 관람객들이 설명을 듣는 것을 포기하는 일

이 없도록 해야 한다.

도슨트에게 있어서 전시 설명 중 말 이외의 의사소통 수단인 몸짓, 자세, 얼굴표정을 관리하는 기술인 비언어적 소통능력 또한 중요하다. 실제로 의사소통 시 음성 언어의 정보 전달량이 30%~35% 정도인 반면 비언어의 정보 전달량이 65%~70%를 차지한다는(전은주, 1999) 통계도 있다. 또한 비언어적 메시지는 언어적 메시지를 보완하거나, 대치하거나, 강조하거나 아니면 언어적 메시지와 모순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상충될 때 사람들은 언어적 메시지보다는 비언어적 메시지에 더 의존하게 된다(임철성, 2002). 따라서 도슨트는 언어로서 전시 해설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비언어적 소통의 전략도 병행해야 될 것이다. 즉, 비언어적 소통은 언어적 소통과 마찬가지로 의사전달의 기능을 가지므로 일시적이고 아주 작은 움직임일지라도 개개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시해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언어적 단서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비언어적 소통은 표현의 강도에 따라 전달 의미의 단호함을 나타내고 확인의 정도를 전달할 수 있고 같은 행위일지라도 상황에 따른 의미 해석이 전적으로 달라짐으로 적절한 제스처를 사용함으로써 전시해설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 되도록 해야 한다.

도슨트들의 가장 주된 활동은 관람객을 위해 전시와 소장품들에 대한 해설을 하는 것이다. 이는 전시 속 전시품에 의미를 부여하고, 관람객들이 전시유물과 박물관 자체에 흥미를 느끼도록 해주는 활동이다. 이들은 관람객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서비스함으로써 박물관과 관람객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하고, 관람객들은 관람과 휴식을 즐기면서 동시에 박물관의 전시품과 서비스를 통하여 가장 직접적인 감동을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관람객들이 박물관을 이해하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설득력 있는 홍보 경로가 된다(최주영, 2009). 또한, 도슨트들은 관람객들을 직접 대면하는 박물관의 인력으로 관람객의 즉각적인 반응을 접하게 된다. 그렇기에 이들이 관람객에게 전시와 전시물에 대해 설명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전시기법과 운영방법에 대한 이용객의 호응은 물론 질책까지도 감수해야 한다(백령, 2005). 이러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도슨트의 현재 국내에서 활동은 어떠한지 다음 국내 과학관의 도슨트 현황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2. 국내 과학관의 도슨트 현황

과학관의 교육적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 과학관은 다양한 교육방법을 시도하면서 전시물 교육에 있어서 적극적인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해설을 위한 도슨트를 활용하고 있다. 즉 전시물과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관람객들에게 직접 전시물을 설명해주는 도슨트를 활용하고 있다.

박물관의 오랜 역사를 이어온 국외 과학관은 오랜 역사와 함께 전시교육과정이 체계적 양성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전시수요의 충족을 위해 다양한 전문교육기관이 형성되어 각 요소에 필요한 전시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08)에서 조사된 국외 전시관련 주요교육기관 비중 분석결과를 보면 전시전문교육기관으로서 과학관이 7곳으로 21.2%, 전시협회는 9곳으로 27.3%, 대학이 14곳으로 42.4%, 과학관 및 대학연계 프로그램이 3곳으로 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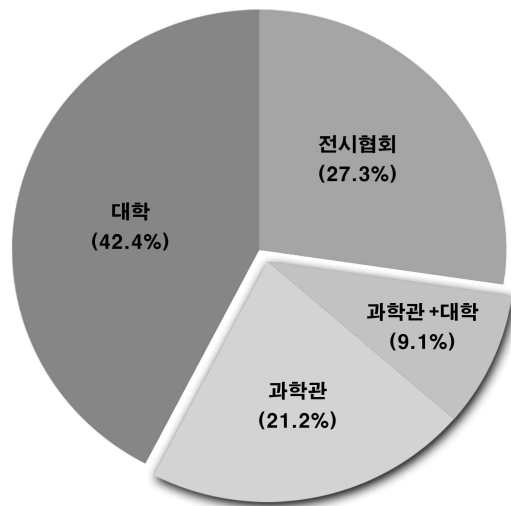


Fig. 8 국외 전시관련 주요 교육기관 비중

또한, 국외 과학관 및 대학연계 교육프로그램의 특징은 과학관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과 과학관 및 대학연계 프로그램이 전체 범위의 36%를 차지하며 전체 전시전문인력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과학전시의 효율적인 운영전략 및 인력양성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체계적으로 양성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 몇몇 과학관에서 자체적으로 도슨트를 양성하고는 있지만 아직 체계화 되지 못하고 있고, 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과학해설사를 양성하고 있지만 그 활동이 미흡하다. 이러한 국내 도슨트 활동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박영신, 이정화(2011)는 도슨트 동호회는 있으나 재정적인 지원이 미약하여 교재개발에 있어서 한계, 내용지식이나 전략에 있어서 전문가를 섭외해서 스터디를 할 수 없다는 것, 더욱더 안타까운 점으로 누구를 섭외해야 한다는 정보도 미약함을 지적하였다.

도슨트 제도는 처음 도입된 미술관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고, 각종 전시회 등에서 행사 성공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도슨트가 관람객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장현숙, 최경희(2006)와 최지은(2004)연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인 영향은 이철희(2009) 연구 결과가 말해주듯이 과학관의 추천과 재방문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도슨트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도슨트 제도는 Table 4와 같이 다른 이름으로 공공 박물관 및 과학관에서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각 박물관 및 과학관에서 나름대로 육성하고는 있으나, 아직 명확한 육성제도나 교재가 확실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으로 도슨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과학관의 담당자 및 학예사들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못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현 국내 실정에 대해서 이철희(2009)와 박영신, 이정화(2012)는 우선 과학관 직원들이 도슨트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모집 단계부터 기존 봉사자의 추천이나 퇴직 교원이나 문화단체 소속원 그리고 문화교육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우선하여 모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관련 대학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슨트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고, 안내를 받는 관람객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도슨트 자체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업무 분장, 전담 직원의 배치 그리고 다양한 보상체계 구축과 활동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 학습자로서의 도슨트

도슨트는 전시해설사이기 이전에 학습자로서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슨트는 단순한 학습자가 아닌 성인학습자로 일반적인 학령기의 학습자와 비교했을 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학습의 목적, 동기, 학습 환경, 학습 과정, 학습 결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권대봉, 1999).

성인기는 학교교육에서와 같은 학습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가 약화되고, 학습의 개인화(individualization)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면서(Merriam & Caffarella, 1991), 성인은 생활 속에서 쌓여진 경험과 목적의식을 갖고 교육장면으로 들어오는 성인학습자집단으로 학교교육 중심 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개념 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이지혜, 2000). 즉, 아동학습자와 구별되는 성인학습자의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인간은 성장해가면서 그의 자아개념은 의존적인 것에서 자기 주도적인 것으로 변화하게 된다. 둘째, 성인은 많은 경험을 누적시키게 되는데, 누적된 경험은 학습의 풍부한 원천이 된다. 셋째, 성인의 학습 준비도는 여러 가지 새로운 사회적 역할수행에서 요구되는 발달과업과 관련된다. 넷째, 사람은 성장하면서 자신이 배운 지식을 적용하는 시점을 미래에서부터 즉시적인 것으로 바꾸어가게 된다. 따라서 어린 시절의 학습은 교과중심이지만 성장해가면서 점차 문제중심 지향의 학습으로 옮겨가게 된다. 다섯째, 성인들은 학습을 하는데 외적인 요인보다는 내적인 요인에 의해 동기화 된다(Knowles, 1984).

이러한 특성을 지닌 성인학습자는 도슨트로서의 활동을 위해 과학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된다. 이 교육은 사회에서 기대하는 과학관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과학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전시해설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과학관은 방문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사소한 것들을 과학 기술과 연관시켜 학교 과학교육에서 다루지 못하는 넓은 의미의 과학교육과 과학적 소양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또한 과학관은 과학관 기술을 윤리적·정치적 문제와 관련시킴으로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의 논쟁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최경희, 장현숙 2005a; Beetlestone et al., 1998). 따라서, 과학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부합될 수 있도록 도슨트 교육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과학관에서 전시해설을 하고 있는 도슨트는 주로 비전공자 이면서 자원봉사자로서의 성인학습자이다. 이런 특수한 환경의 성인학습자에 대한 교육방법은 다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전문가에 의한 강의식, 체험으로서 현장감을 익히는 실습, 멘토링 등이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장에서 산 경험을 갖고 있는 선배 도슨트에 대한 멘토링은 후배 도슨트에게 직접적인 교육효과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방법은 주로 전문가에 의한 강의식이 주를 이루고 있고 선배 도슨트에 의한 멘토링은 개인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 교육과정 중에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 외국의 경우 선배 도슨트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박영신, 이정화, 2011).

도슨트는 교육과정 이수 후 학습자로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교육의 성과 혹은 결과를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데는 여러 방법과 기법이 있으나 특히, 평가는 교육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고 타당하게 그리고 신뢰롭게 측정하고 사정해야 한다. 평가기법은 평가대상과 평가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인학습자에 대한 학습 성과 사정에서는 성인학습자라는 특수한 대상과 평생교육기관의 목적과 방침에 맞는 방법을 채택하고 적용해야 한다(김애련, 2004). 박영신, 이정화(2012) 연구에 따르면 도슨트로서 자격이 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방법으로는 61%의 28명이 필기시험과 실습 시연이 동시에 이뤄지는 평가법을 가장 선호하였다.

성인학습자로서 도슨트는 학습자이기 이전에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이면서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학습을 꾸준히 하는데 있어 많은 장애요소를 볼 수 있다. Cross(1981)는 성인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방해하는 장애요인들로써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상황적 장애는 삶을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즉, 경제력부족, 시간부족, 양육문제, 교통문제, 가족지원이 있고, 기관적 장애로는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위치, 프로그램 일정, 교육의 비용, 과목의 내용 등이 있다. 성향적 장애는 학습자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부

분으로서 태도와 자아개념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습에 대한 감정상태, 자신감 부족 등이다. 만일 이러한 지원 부족이 지속되면 성인 학습자들은 교육을 중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4. 교수자로서의 도슨트 - 실천적 지식의 형성

학교 과학교육이 변화,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학교사의 교실수업이 내실화되어야 하며, 과학교사의 개별수업 내실화를 위해서는 그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 교사의 수업 능력에 대한 질적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듯이(이희원, 김영수, 2004) 과학관의 교육적 역할이 충실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학관의 1차적인 목적, 즉 전시물을 통한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 져야 하며, 이 전시해설을 담당하는 도슨트의 전시해설 내실화를 위해서는 도슨트의 전시해설에 대한 질적 향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 질적 향상은 과학교사 및 도슨트의 지식이 실행과 연관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Carter(1990)의 교사의 실행을 안내하는 지식에 관한 3가지 연구 영역 중 정보처리과정 및 초심가-전문가 연구를 제외한¹¹⁾ 교수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 PCK)과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 Elbaz, 1981)에 관한 연구의 관점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이선경 등, 2009). 먼저, 교수내용지식(PCK)은 교과 지식(Subject Matter Knowledge : SMK)과 교육학 지식(Pedagogical Knowledge : PK)이 통합되고 변형되어 상황에 대한 지식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지식으로서 과학교사의 전문성을 제시하는 방향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이선경 등, 2009; 유은정 등, 2010; Magnusson et al., 1999; 98). 한편,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은 교사와 외부 환경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는 지식으로 과학교사 자신의 가치와 삶이 갖는 의미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유은정 등, 2010; Carter, 1990). 결국 두 연구의 관점은 어느 곳에 더 관심을 두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고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은 교

11) 정보처리과정 및 초심가-전문가 연구는 교수내용지식 혹은 실천적 지식의 범주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Carter,1990).

수내용지식(PCK)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Lee, 2007). 또한 교수내용 지식을 포함한 교사 지식 기반의 지식 영역은 Elbaz(1981)가 제안한 실천적 지식의 내용과 유사하다(Fig. 9).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은 교과지식, 교수에 대한 지식은 교육학지식, 교육 과정에 대한 지식은 교수내용지식, 교수 환경에 대한 지식은 맥락지식과 유사한 개념이며, 실천적 지식의 내용 중 교사 자신에 대한 지식은 교사 지식 기반 연구에서는 유사한 개념이 없음을 알 수 있다(문공주,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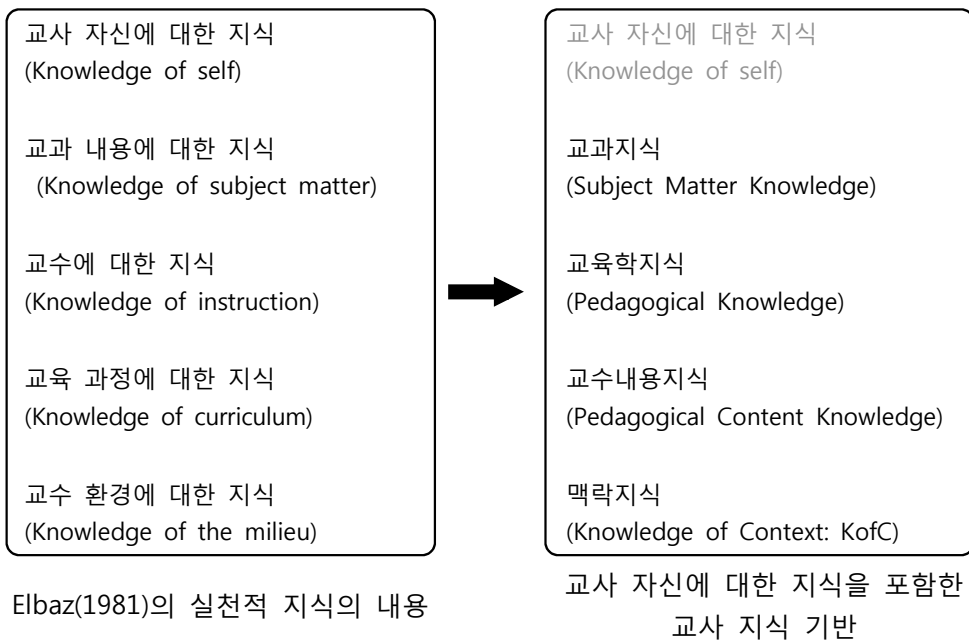


Fig. 9 실천적 지식과 교사 지식 기반의 비교(문공주, 2009)

두 연구의 관점 차이에 따라 도슨트의 질적 향상은 실천적 지식의 형성으로 반영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도슨트의 전시해설은 변수(연령 · 지적수준 · 목적이 다른 관람객, 오픈되어 있는 공간 등)가 많은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만큼 불확실한 상황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바탕으로 이론적 지식을 잘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 지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학관을 방문하게 되면 과학이라는 지식을 접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누

구에게도 이해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이 지식은 하나의 물리적인 사실에 불과하다. 어떤 면에서 지식은 누군가에게 이해되어지게 되어야 의미 있는 지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관람객이 방문하는 과학관의 전시실에 있는 전시물이 의미한 지식이 의미 있는 지식으로 관람객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 도슨트는 전시물 특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식들을 고안하여 활용한다. 이렇게 고안된 지식을 우리는 실천적 지식이라고 한다. 실천적 지식은 교사가 실제 교수 상황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식으로, practical knowledge, working knowledge, craft knowledge, tacit knowledge 라고 일컬어진다. 이것은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반성적 사고의 결과로서 만들어지거나, 실제적인 상황에서 기존의 객관적 지식을 주의 깊게 적용해 본 경험의 결과로서 만들어 진다(Marland, 1997).

실천적 지식이란 이론적 지식·학문적 지식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형식적인 학교 교육보다는 직업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학습한 결과로 얻어진 지식을 의미하기도 한다(허미애, 2007). 이에 대하여 배소연(1993)은 실천적 지식에 대해 교사양성과정의 강의나 교과서 등을 통해 배운 이론들과 여러 종류의 직·간접적인 현장경험들을 바탕으로 하여 교사 스스로가 특정한 교수 상황에 맞게 재구성, 재조직하는 전문가적인 지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한편, 이춘자(2003)는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란 교사들이 현장에 바탕을 둔 맥락의 특정한 지식으로 교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Fenstermacher(1994)는 ‘교사의 체험과 체험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지식’이라고 하였다. Elbaz(1981)는 실천적 지식이란 ‘교사 개개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기초하여 실제 교수 상황에 맞도록 종합적으로 재구성한 지식’이라고 정의하고, 교사는 복합적이고 실제적인 전문적 지식 즉, 실천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지식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교육의 방향과 교수방법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즉 ‘실천적 지식’은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근거를 제공해 주며, 교사행동의 근원이 되는 지식을 의미한다.

Elbaz(1981)는 교사들의 실천적 지식을 그 내용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수업에서 드러나는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명확하게 다섯 가지 중 하나로 구분될

Table 6 교사의 실천적 지식 구성요소(Elbaz, 1981)

지식의 구성요소	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내용
교사 자신에 대한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개인적 가치와 목적에 관한 지식 • 전문인으로서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지식 • 타인과의 관계 속에 놓인 자신을 이해하거나 판단하는 능력에 관한 지식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를 가르치는데 필요한 기능(지식, 이해, 가치, 태도)과 관련된 지식 • 학습자가 꼭 알아야 하는 지식은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지식 • 선택한 내용이 왜 알만한 가치가 있는 것 인지에 대한 지식
교수에 대한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에 맞게 가르치는 지식 • 상황과 학습자의 필요에 맞게, 교사에 의해 의도된 방향으로 학습자를 이끌기 위해 특별한 교수방법을 사용하는 지식
교육 과정에 대한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과정 개발 과정, 방식 및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된 지식 • 문제를 개념화 하고 학생의 요구를 조사, 조직 및 평가 하는데 필요한 지식 • 교과를 지도함에 있어 가능한 대안 교육 과정의 이해에 대한 지식
교수 환경에 대한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를 둘러싼 사회, 문화, 정치, 경제의 이해에 대한 지식 • 체험학습의 장으로서 지리적 공간에 대한 지식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즉 실천적 지식을 표현할 만한 어떤 전체적 형상이 각기 다섯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인 수업 상황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실천적 지식을 다섯 가지 내용의 복합적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홍미화, 2005). 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내용 다섯 가지 범주에서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교수에 대한 지식’, ‘교육 과정에 대한 지식’은 교사의 교수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며, ‘교사 자신에 대한 지식’, ‘교수 환경에 대한 지식’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활동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지는 않으나, 교수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의미한다(Table 6).

한편 실천적 지식은 단순한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마치 책략과도 같이 극히 일부분이 단편적으로 사용되어질 뿐이지만, 좀 더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통합된 형태로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경우 실천적 지식은 어떠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내기 위한 지침이나 비법 이상의 것, 즉 교수 상황을 이해하고 다음에 일어날 상황을 예측하여 적절한 의사결정과 계획을 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 이때 실천적 지식은 사실상 하나의 이론으로서의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Marland, 1997). 이러한 실천적 지식에 대해, Elbaz(1981, 1983)는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는 근거이면서, 실천적지식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 ① 상황적 근거 : ‘상황적 근거’란 교사가 부딪치는 독특한 상황에 따라 그 때마다 교사에게 새로운 실천적 지식, 즉 사고를 주문하며 또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전시해설은 과학관의 전시관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실천적 지식은 그런 특수한 상황, 예를 들어 과학관의 상황, 자신의 상황, 관람객의 상황 등에 따라 지식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실천적 지식’은 특정한 상황에 맞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동일한 도슨트가 전시해설을 하더라도 집단이나 상황이 바뀌면, 도슨트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상황에 맞게 새롭게 설정된 목표에 따라 자신의 지식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여야만 하며, 그 결과 또 다른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 ② 개인적 근거 : ‘개인적 근거’란 교사가 자신의 지식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수업에서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와 같은 개인적인 요인을 의미한다. 개인적 근거는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도스트의 느낌, 목적, 가치, 지적 신념과 관련하여 실천적 지식의 정의적 영역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전시해설 상황에서 언제·누구에게·무엇을·얼마나 실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도슨트이며, 어느 누구도 의사결정자로서의 도슨트 역할을 대행하거나 도슨트의 권한을 빼앗을 수는 없다. 이에 대해 Elbaz(1981)는 ‘교사의 실천적 지식은 교사의 권위에 의한 산물이며, 동시에 교사의 권위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 ③ 사회적 근거 : ‘사회적 근거’란 교사가 실천적 지식을 구성할 때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을 의미한다. 도슨트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기존의 사고를 재구조화 하게 된다. 이 근거는 도슨트의 교육적 신념이 사회의 요구에 대립하거나 특별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해설을 하는 상황, 혹은 도슨트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숙고하는 상황 등에서 나타난다. 사회적 요구 자체가 도슨트가 전시해설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실천적 지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④ 경험적 근거 : ‘경험적인 근거’란 교사가 ‘실천적 지식’을 구성할 때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경험을 의미한다. 도슨트가 경험의 의미를 새롭게 구조화하거나 또 다른 전시해설 상황에서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근거로 현상을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구실을 한다. 경험적 근거는 과거의 특별한 경험이 현재의 전시해설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으로 도슨트가 현재 선호하는 가치, 교수 방법 등 도슨트가 전시해설을 형성하는데 직접적인 배경이 되면서 또 다른 상황에서는 새로운 실천적 지식의 형성을 좀 더 용이하게 해준다.
- ⑤ 이론적 근거 : ‘이론적 근거’란 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영향을 주는 이론이나 지식을 의미한다. 도슨트는 자신의 교육적 가치와 적용에 확신을 갖기 위하여 이론에 의지하려 하며 이론적 근거는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을 형성

하는 데 영향을 주었던 이론이나 지식과 관계되기 때문에 양성교육과정, 심화교육과정에서 배우고 습득한 이론과 관계가 깊다. Elbaz(1983)는 교사가 어떠한 교사양성과정을 거쳤는지에 따라 실천적 지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과 지식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McCutcheon(1995)은 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출처를 다음 3가지로 말하고 있다. 첫째, 교수 이전의 개인적인 삶은 그 개인만의 독특한 지식 형성에 영향을 준다. 이들 개인적인 삶에는 성장하면서의 경험, 여행 경험, 일을 했던 경험, 사람들과 상호작용했던 경험 등이 포함된다. 이는 도슨트에 있어도 도슨트 이전의 개인적인 삶과 일맥상통한다. 둘째, 교수적 맥락 역시 교사의 실천적 지식 형성에 주요 요인이 된다. 교수적 맥락에는 교육정책, 가르치는 학년, 사용하는 자료, 처해있는 교실환경, 동료의 실천적 지식, 전문적인 담화의 기회, 학습자의 문화적 인종적 특성 등이 포함된다. 도슨트에 있어서 교수적 맥락은 과학관의 미션, 관람객, 전시물, 처해있는 전시실 환경 부분이 교사와는 상이한 교수적 맥락으로 실천적 지식 형성에 주요 요인이 된다. 셋째, 교수경험은 실천적 지식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원천이 된다. 가르치는 동안 교사들은 실천을 통해 꾸준히 아동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교수행위를 반성한다. 이러한 교사의 반성적 사고는 교수행위 전이나 교수행위 후에도 이루어지는데, 교사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고자 노력함으로써 실천적 지식을 발전시키게 된다. 도슨트의 교수경험은 구체적으로 전시해설이라고 일컬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도슨트는 관람객이 전시해설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전시해설에 대해 반성을 함으로서 도슨트로서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실천적 지식을 발전시키게 된다.

한편, 위와 같은 실천적 지식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면 즉, 도슨트들의 고유의 소리가 이론을 형성하고 지식을 창출하는데 반영되지 않는다면 과학관에서의 관람객을 위한 교육의 방법지(know-how)를 축적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개인적인 형태의 암묵적인 지식으로 남아 있는 한 새로운 지식 창출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박은혜, 1999). 따라서 도슨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도슨트 양성교육에 있어서 그 분야의 구성원과 공유될 수 있도록 언어나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실천적 지식을 기록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두 가지 중요한 요인으로부터 기인한다. 첫째는 교사가 지닌 실천적 지식의 어떤 부분은 함축적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교직 이전의 생활 경험 속에서 형성되어졌고 따라서 교수 경험과는 무관하게 직관적으로 형성되었거나 무비판적으로 형성되어져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이미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는 더 이상 그러한 행동의 기준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함축적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교사들은 그들의 실천적 지식을 명료화시킬 수 있도록 그들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경험의 기록화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유는 교육계가 이전까지는 교사가 알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교사들은 기록의 필요성과 가치를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록화와 관련된 기술도 축적해 놓지 못했기 때문이다(Marland, 1997).

도슨트들이 지닌 실천적 지식을 명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슨트 자신에게서 탐구동기가 유발되어야 하며, 도슨트 스스로 자신의 교수행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신의 실천적 지식을 타인과 공유하고,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통해 개인적 이론을 공공의 이론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탐구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도슨트가 지닌 실천적 지식이 새로운 실천적 지식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도슨트들이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록화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McLean(1993)은 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발달은 반성적 사고와 개인적인 경험이야기를 서로 나눔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전시해설에서 도슨트들의 실천적 지식 형성을 돕기 위해 개인적 경험에 대한 이야기(narratives)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본 연구에서는 한 경력 도슨트의 생애를 통해 전시해설 경험을 분석하여 실천적 지식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슨트의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통해 수집된 전시해설사례들을 기록화 하는 작업을 하고, Elbaz(1981, 1983)가 제시한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는 근거 영역 가운데 하나인 경험적인 근거(Elbaz, 1981, 1983) 즉, 경력 도슨트의 생애를 통한 교수경험을 근거로 하여 도슨트가 이야기 한 실천적 지식을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도슨트의 생애를 통한 실천적 지식’과 그것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밝힘으로서 도슨트가 지닌 실천적 지식가치의 중요성 및 전문성을 갖기 위한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과학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슨트가 비행식기관의 교육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한 전문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효과적인 전시해설을 위한 교수 전략을 발휘하기 위해서 도슨트에 대한 신념은 어떠하고, 도슨트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실천적 지식을 분석하여 전문가로서 도슨트의 충분조건을 구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의 한 가지 방법으로 삶의 주체인 개인을 연구하는 생애사적 연구방법을 적용했다. 이는 연구 참여자의 전문가로서 도슨트의 완성이 전 생애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즉, 유년시절 삶의 경험 및 환경의 영향과 도슨트 활동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실천적 지식이 도슨트가 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위한 노하우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를 생애사적 접근법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A. 연구 방법론 - 생애사적 연구

질적 연구가 개별 사례에 대한 직접 관찰과 심층적인 면접을 적용하여 타당성이 높고 구체적인 지식을 제시해주는 대신에 연구 방법의 다양성으로 연구 절차의 공통된 기본 틀이 없는 것이 특징인(성태제, 2010) 것처럼 생애사 연구방법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생애사 연구방법은 연구 참여자의 연대기적 순서 없이 제시한 자신의 이야기를 연구자가 이야기를 재구성하면서 연속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는 곧 생애사적 연구를 다른 장르의 연구방법과 구분되게 하는 큰 특징이다(Creswell, 1998),

생애사 연구방법은 연구 참여자의 입장과 연구자가 개입함으로써 가지는 의미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연구 참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생애사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아닌 경험의 당사자인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 근거한 이해의 과정이다. 따라서 생애사적 탐구에서 연구자는 비록 관찰자로서 한 사람의 생애사를 분석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 본인에 의한 자기 경험의 분석과 자신의 주

관적 삶에 대한 조망이 가능하게 된다(Polettini, 2000). 생애사적 면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그 과정에서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특정 경험을 구성해낸다. 그 특정 경험이 불연속적인 시기와 급격한 도약의 한 상태로 다른 상태로의 전이되는 ‘결정적 사건(critical incident)’ 즉, 생애사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영역(Sikes et al., 2001)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일생에서 과학관에서의 도슨트 활동을 결정적 사건으로 보고 삶에서 일어난 변화를 조면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생애사 연구에서 연구자 개입은 개인의 경험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게 될 문화적 의미가 되게 한다. 생애사는 개인의 경험에 대한 역사로서 그 개인의 관점, 그 삶의 상황, 세계에 대한 그 개인의 이해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자서전, 전기, 일기, 편지 등과 같은 일반적 범주로서의 ‘개인에 관한 기록(personal document)’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생애사는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나 면담 기록자와 같은 다른 사람의 개입으로 인해 그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는 일차적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개인에 관한 기록과 구별된다. 생애사는 연구 참여자의 해석을 연구자가 다시 재해석한 것이다. 생애사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개별적인 개인의 경험이 문화적 의미를 갖게 되고 공유될 수 있게 된다(최영신, 1999; Watson & Watson-Franke, 1985). 그러므로 생애사 연구에서 개인의 관점을 드러낸다는 것은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가 속한 보편적인 문화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연구자는 도슨트의 주관적인 관점을 통해서 개별 도슨트의 특수한 활동 상황을 이해함과 동시에 도슨트가 공유하고 있는 도슨트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한편 생애사적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속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먼저 경험의 사실 여부 자체가 아닌 연구 참여자에게 있어 그 경험이 가지는 의미에 초점이 있기에 내러티브적(narrative)이고, 연구 참여자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구성주의적(constructivistic)이며, 그 이야기가 항상 사회적·문화적·조직적 맥락 속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맥락적(contextual)이다. 또한 행위가 환경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기인한다는 점에서 상호작

용적(interactionistic)이며, 마지막으로 특정 시점의 관점과 행위는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상에서 파악된다는 점에서 역동적(dynamic)이다(Kelchtermans, 1993).

이러한 생애사 연구는 최근 교육분야에 있어서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데(박성희, 2003; Pinar, 1978), 교육학 관점에서 생애사적 연구방법은 사회 속에서 겪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인 학습변화를 그들의 삶 속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연구 대상자의 삶 속에서 연구자가 공존하여 연구 참여자와의 대화를 통해 학습체험에 관한 의미를 재해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최운실 등, 2005). 교육학 관점에서 생애사적 연구방법의 의의를 설명하면, 첫째, 생애사적 연구는 구술자 자신뿐만 아니라 남의 생애사를 듣는 타인에게 간접적인 학습효과를 나타내주어 생활세계를 이해해주는 학습의 기회를 만들어준다(박성희, 2004). 과학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도슨트는 교수자이기 전에 학습자이다. 따라서 선배 도슨트의 경험들이 후배 도슨트에게는 산 경험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전시실에서 관람객과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거나 교수방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둘째, 내러티브 탐구 방법은 교사와 학생들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의미를 끌어낼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 연구자는 교사가 실천하고 있고, 개발해 놓은 ‘가르침’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규명하고 이론화시킬 수 있다(Connelly & Clandinin, 1987). 과학관에서의 교육과정 연구자는 학예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도슨트가 현장 경험에 의해서 개발해 놓은 전시해설에 관한 노하우를 분석하여 도슨트 양성교육 과정에 실질적 이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생애사적 연구방법은 교육연구자와 행정가들에게 교육현장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시킬 수 있다. Miller(1995)는 기존의 교육과정과 수업분야에서 ‘교사의 목소리’가 주요한 탐구 주제로 다루어지지 못한 도외시는 교육연구자와 현장교사 사이의 거리를 확장시켰으며 교육과정 연구의 수준이 상처받게 되도록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장 교사들이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을 연대기적 방법 또는 자서전적 방법으로 기술하여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연구자와 행정가들이 교실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최적의 길이라고 확신하였다. 과학

관의 도슨트 양성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교육프로그램(학예사 및 담당자) 또한 전시실이라는 교육현장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라 할 수 있는 도슨트의 목소리를 통해 전시실의 실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생애사적 연구방법은 교육과정의 이론과 현장의 괴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교사의 삶 모델, 그리고 전문성 발달과정에 대한 이론화를 위해서 교사의 목소리를 신중히 듣기위한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이론이 추상적으로 교육실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지만, 한 개인 교사가 실제적인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은 그 교사가 경험한 인상적인 사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교사의 그러한 사례가 바로 판단을 위한 최후 자료로서 활용되고 아울러 교사의 삶은 그 삶 나름대로 본성, 정신, 의미, 리듬이 있고 교육현상을 알 수 있는 우리들의 한계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Bullough, 2001). 이러한 형식기관의 교육과정 이론과 현장의 괴리는 비형식기관의 과학관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대상과 장소가 정해진 정적인 형식교육과는 달리 비형식기관의 과학관은 다양한 관람객과 동선을 따르는 전시해설인 만큼 오히려 이론과 현장의 괴리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가 전 생애를 통해 도슨트 활동을 하면서 전문성을 갖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탐색함으로써 현장의 실정이 잘 반영된 도슨트 전문화를 위한 이론적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생애사적 연구방법은 개인의 교육적 경험사를 외부에 노출시킴으로서 진정한 교육과정 탐구를 이룰 수 있게 한다. 학교의 교육과정 현상 속에서 한 개인이 갖는 구체적인 경험이 무엇인지를 연구의 초점에 맞춘 교육과정연구는 한 개인이 학교경험의 역사를 통하여 자신이 누구이며, 자아의 의식과 억압을 성찰할 수 있는 해방적 기회가 되고, 개인의 교육적 경험사를 기술하고 해석함으로써 교육과정 연구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한 개인의 삶에서 억압되고 체포된 의식을 노출시키고 고양시켜 교육과정 탐구의 진정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Pinar, 1978). 과학관에서의 도슨트 활동이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고 그 활동이 확대 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 그 양성교육과정의 정착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인이 도슨트 전문인으로서 형성되기까지의 노력과 갈등을 표출함으로써 도슨트 양성 교육과정 탐구는 가능하게 된다.

생애사적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제한되지 않은 연구 범위를 가지고 연구 대상자의 삶속에 비추어진 연구 대상자의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토대로 연구자가 연구문제에 맞게 분석해내는 것이다. 이 연구방법은 연구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연구 대상자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분석을 연구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얻게 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연구 대상자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자신의 정체성 문제 해결에도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것으로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박성희, 2003).

그러나, 생애사적 연구방법 역시 질적 연구방법들의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첫째, 연구자의 주관적인 시각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생애사적 연구방법은 자료의 수집으로부터 글쓰기의 과정까지 연구의 전 과정을 도식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자는 항상 불명료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고 연구자 스스로 연구의 과정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란(최영신, 1999) 말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연구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고 이런 판단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시각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말에 대한 객관성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가 말하는 주관적인 상황들과 눈에 보여지지 못하는 결과들은 결국 연구대상자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생애사적 연구방법은 현재의 위치에서 과거의 경험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끌어내기 때문에 연구대상자가 이야기하는 자신의 과거나 현재가 부풀려지고 과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한계점에 비추어 볼 때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간의 밀도 있는 관계유지와 객관적인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진솔한 태도, 성의 있는 관심과 열정으로 연구대상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연구대상자의 섬세한 감정들을 읽을 수 있도록 배려와 수용하는 자세를 지닌 좋은 의사소통능력을 갖추어야 한다(임현숙, 2007).

이러한 장단점 속에서도 개인의 생애를 다룬 생애사적 연구방법은 현대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더욱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현대는 형식적 교육과 더불어 비형식적 교육의 범위가 커지면서 더욱 개개인의 사고를 중시하며 개개인의 질적 향상을 꿈꾸기 때문이다. 개인의 질적 향상은 학습경험의 정도와 관련이 깊는데 학습경험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영성적, 심리적 차원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

습이라는 행위는 그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그를 둘러싼 문화의 영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이기연, 2006).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자는 도슨트의 관점을 통해서, 자신의 지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학습자 입장에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관이라는 문화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는 활동을 탐색하고, 교육활동을 하는 교육자 입장에서 도슨트가 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은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B. 연구 과정

본 연구에서 선택한 생애사적 연구방법은 생의 구술 과정에서 개인의 내적 가치관, 자신의 삶의 주제화 등이 삶의 갈등으로 표현되고, 그 속에서 실천하고 개발해 놓은 문화의 기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연구자는 과학관에서 교육활동을 통해 생애를 걸쳐 끊임없는 자기 연찬과 교육활동을 해온 도슨트 1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 연구 참여자가 생애에 걸쳐 형성한 개인적이고 특수한 도슨트 문화를 드러내어 여러 사람이 공유하게 될 도슨트 문화로 재해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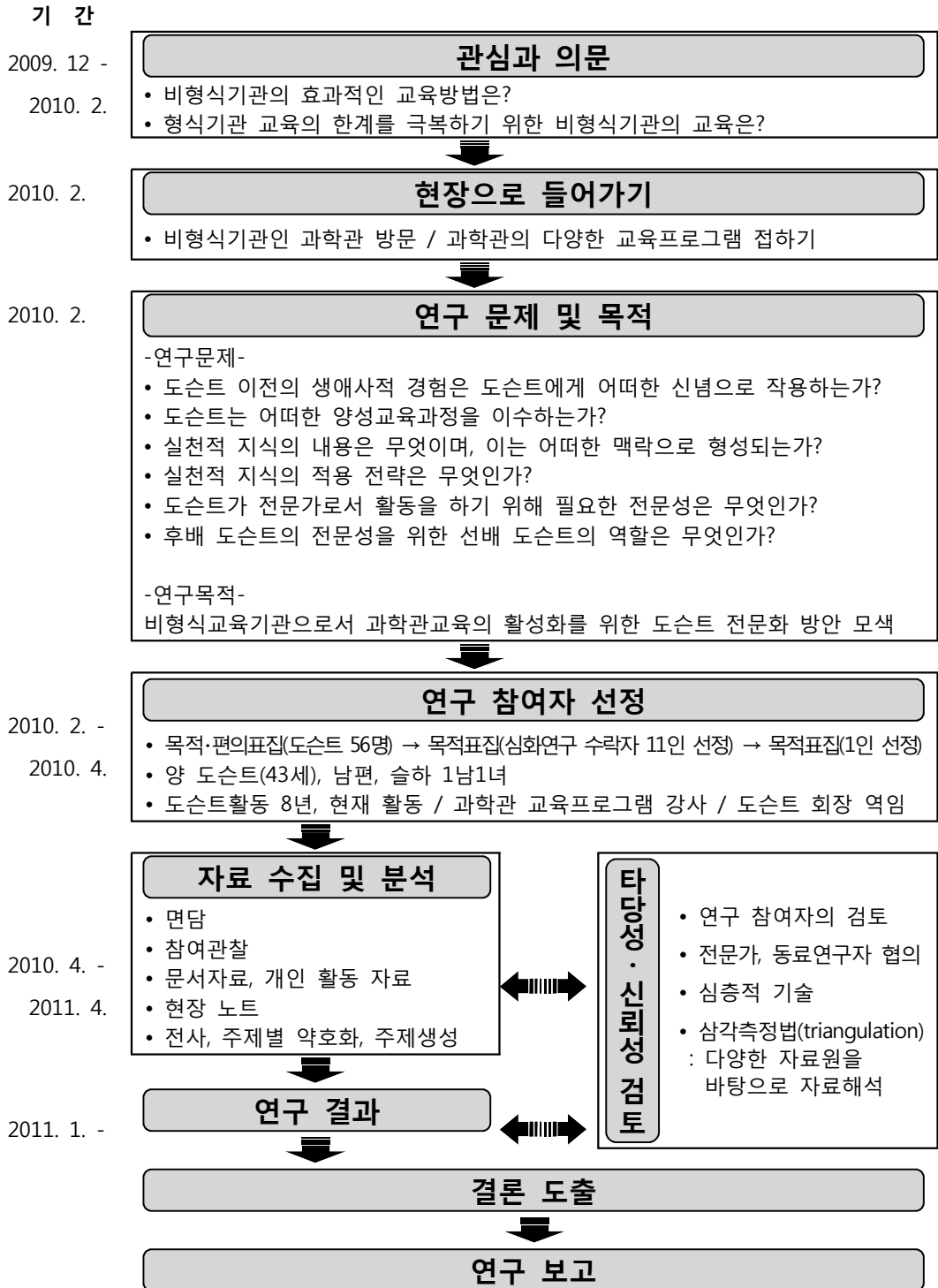


Fig. 10 연구 과정

1. 들어가기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특징인 순환적 과정을 따라 진행되었다. 즉, 연구자는 ‘과학관의 교육’이라는 큰 가주제를 가지고 연구 현장에 들어갔으며, 이후 순환적인 과정을 거쳐 연구 초점 및 연구 문제의 명료화,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해석, 글 쓰기 등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 의해서 설정 되었다. 연구자는 지난 6년 동안 천문대에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망원경을 통한 천체관측과 천문학 교육을 하고 있던 중 천문대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다양한 반응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 천문대는 유치원생에서부터 초·중등학생, 대학생, 학부모, 연인, 노인 등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을 하게 되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관람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학교교육이 아닌 학교 외의 교육 즉, 비형식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교실에서의 교사의 역할에 대한 전문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데 연구자와 같은 비형식기관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무엇이 있으며 얼마나 연구가 이루어져있는지가 궁금해졌다. 연구자의 환경, 선행적 경험 즉 비형식기관(천문대)에서 교육자로서의 역할 경험, 비형식기관에서의 교사의 역할에 대한 연구에 관한 궁금증이 본 연구의 최초 연구 질문 내지 연구 주제가 설정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관심을 갖고 2010년 2월 비형식기관인 과학관을 방문, 학예팀장과 과학관 교육에 관한 면담 및 과학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을 관찰하였다. 방문한 과학관은 공립 과학관으로 여느 과학관과 같이 안내 데스크에는 과학관 시설물과 교육을 안내하는 리플렛이 놓여있었다. 먼저 연구자는 과학관을 둘러보기 전에 리플렛을 통해서 방문한 과학관은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로 무엇이 갖춰져 있고,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과학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은 전시물 해설, 박물관 교실, 박물관 투어, 체험교실, 단체교실 등으로 연구자는 여러 교육프로그램 중 전시물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전시물은 어느 과학관이나 갖추어져 있는 시설물이고 과학관의 기본적인 교육자료 이면서 과학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1차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료이다. 따라서 전시물을 통한 교육은 과학관의 기본교육이 될 것이며 연구자의 비형식교육기관의 교육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되기를 기대하였다. 방문한 과학관은 전시물을 통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패널, 오디오가이드, 도슨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다양한 교육방법 중 연구자가 흥미를 갖게 된 교육방법은 도슨트에 의한 전시해설로 과학관을 둘러보던 중 관람객들의 자유로운 관람 속에서 핸드 마이크를 잡고 전시물을 설명해주는 사람과 그의 해설을 열심히 듣는 관람객 그룹이 눈에 들어왔다. 연구자도 그 그룹에 들어가서 전시물 해설을 들었다. 전시물 해설을 들은 연구자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즉, 일반적으로 전시물에 관한 정보는 패널을 통해서 얻고 그에 따른 궁금증은 차후 스스로 자료를 찾아봄으로서 해결했는데, 도슨트의 전시해설을 경험한 연구자는 패널에서 제공한 정보 이외에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전시물에 관한 궁금증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면서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교육경험을 했다.

이러한 신선한 교육경험은 도슨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좀 더 도슨트 전시해설에 관한 관찰을 하게 되었다. 관찰을 통해서 연구자는 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듯이 도슨트에게도 전문성이 필요함을 느꼈고, 일부 과학관에서 도슨트 전시해설을 시도하지만 그 체계적 관리의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장 속에서의 이러한 문제인식은 본 연구 목적 설정의 근거가 되었고 연구자는 연구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구체화 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수차례의 전시해설교육 관찰을 통해 비형식교육기관으로서 과학관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도슨트 전문화 방안 모색이라는 본 연구목적에 충족시켜 줄 연구 참여자

1인을 선정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큰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일반화 도출이 질적 연구의 목표도 아니므로 연구 참여자 선정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절한 대상자로 목적성 있게 선정하면서 그곳에서 풍부한 정보를 얻어 연구 목적에 중요한 논점들을 얻게 된다(Glesne, 2006; Goetz & LeCompte, 1984; Patton,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단계 목적표집¹²⁾, 편의표집¹³⁾을 통해 56명의 도슨트를 선정, 2단계 심화연구 수락자를 기준으로 목적표집을 통해 11명의 도슨트를 선정했다. 1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분석과 심층면담을 거쳐 본 연구에 적극적인 1인을 3단계 목적표집을 통해 2010년 4월경 선정하였다(Fig. 11).

[1단계 - 목적표집 및 편의표집]

1단계에서는 목적표집 및 편의표집을 실시하여 과학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슨트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차적으로 대도시 소재 국립과학관 2개관, 공립과학관 1개관, 중소도시 소재 공립과학관 1개관으로 총 4개관을 선정하여 4개 기관을 통해 도슨트 대상 설문을 실시하였다.

4개의 과학관을 선정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과학관 협회에 등록 되어 있거나 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이 알려져 있는 과학관을 대상으로 과학관 모집단을 형성하였다. 형성된 과학관 모집단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및 전화 문의를 통해 도슨트 활동 여부를 확인하였다. 도슨트 활동이 확인된 과학관은 대도시 소재 3개관과 지방 1개관이었다. 선정된 4개관에 설문지를 배포하기에 앞서 과학관의 학예사 및 담당자, 도슨트에게 개인적 구두, 메일 등 약식으로 연구 동의를 얻었다.

설문은 ① 도슨트로서 활동하게 된 계기, ② 도슨트 양성교육과정, ③ 도슨트 전문연수, ④ 기관에 대한 이해 및 보상, ⑤ 도슨트의 실질적인 교수활동, ⑥ 도슨트 활동의 만족도에 관한 내용의 6개 대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은 5-6개의 작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약 1개월 동안 4회에 걸쳐 회수된 설문지는 총 56부로 회수

12) 목적표집 :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것으로 연구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표본을 추출하여 연구를 진행[예:역사연구, 인류학연구](성태제, 2010)

13) 편의 표집 : 연구의 편의상 연구대상을 임의로 선정하는 방법[예:대학가 주변의 문화에 대한 의견 조사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강의실에서 연구대상을 얻는 방법](성태제, 2010)

율은 56%였다. 설문지 회수에 시간이 소요된 이유는 과학관에서 도슨트 전시해설은 매일 이루어지나 그 활동을 하는 도슨트는 매일 바뀌므로 한 기관에서 도슨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한자리에 모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1개월 정도는 최소한 1번씩 전시해설을 하게 되므로 이 기간이 걸렸고, 설문지는 4개 기관을 통해서 회수가 되었으나 설문지에 응답한 도슨트는 선정된 기관에서 현재 활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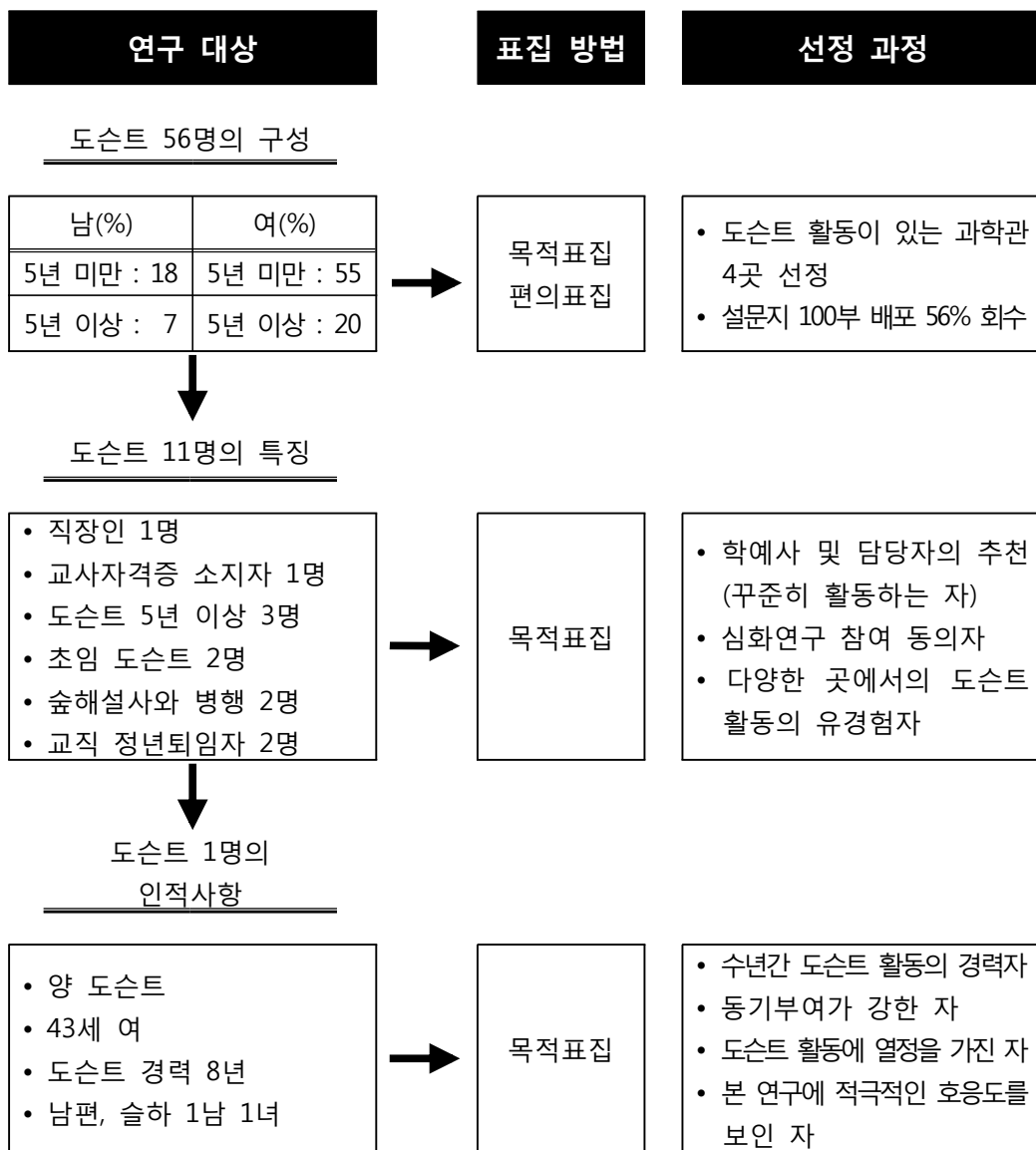


Fig. 11 연구 대상 선정 준거

하고 있거나 과거에 그 기관에 소속된 도슨트였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1단계에서 선정된 도슨트는 총 56명이었다.

[2단계 - 목적표집]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선정된 56명을 대상으로 목적표집을 실시하여 차후 인터뷰나 본인의 도슨트 활동과 관련하여 심화연구를 할 때 참여여부에 동의한 응답자 중 학예사 및 담당자가 꾸준히 활동하는 자로 추천하거나 다양한 곳에서 도슨트 활동의 경험이 있는 자로 11명을 선정하였다(Table 8).

[3단계 - 목적표집]

본 연구는 경력 도슨트의 진 생애를 분석하여 그 과정에서 형성된 도슨트 전문성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3단계에서는 본 연구에 적합한 1인을 선정하기 위해 2단계에서 선정된 11명의 도슨트를 대상으로 목적표집을 실시하여 1단계 설문응답을 기초로 약 20분간의 개인면담 및 3-4명씩 그룹면담을 실시하고 이메일(E-mail)을 통해 본 연구의 관심도를 알아보았다. 위 과정을 거쳐 선정된 1인은 동기부여가 강하고 도슨트 활동에 열정을 가지면서 수년간 도슨트 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으며 본 연구에 적극적인 호응도를 보였다.

3단계에 걸쳐 선정된 도슨트 1인은 도슨트 활동을 8년간 해온 양 도슨트이다. 양 도슨트는 43세 여성으로 남편과의 사이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양 도슨트는 평범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다. 넉넉하진 않지만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부모님은 국가에서 표창을 받기까지 하나 그로 인해 양 도슨트는 자식들에게 다소 소월해진 어머니에게 서운함을 느낀다. 성인이 된 양 도슨트도 부모님의 그런 영향을 받고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양 도슨트의 자원봉사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다. 부모님처럼 사회봉사활동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소월해지지 않도록,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녀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삼고 활동을 하고 있다.

양 도슨트의 봉사활동은 이미 어릴적 부모님의 모습에서 습득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양 도슨트의 첫 직장은 관공서로 민원을

상대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 후, 88서울올림픽이 확정되면서 양 도슨트는 88서울올림픽 자원봉사단 모집 공고를 보게 되고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까지 자원봉사 활동에 지원 및 활동을 하게 된다. 양 도슨트의 이러한 자원봉사의 열정은 88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88서울올림픽이 끝나고 양 도슨트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 전업 주부로 약 10여년을 지낸 양 도슨트는 자녀가 유치원 입학시기가 되자 자녀학습에 도움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를 알아보다가 과학관의 자원봉사에 지원하게 된다. 도슨트로의 활동은 과학관 자원봉사 활동 중 관람객들이 전시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 못하고 오개념을 갖고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됨으로서 시작하게 되었다.

양 도슨트는 도슨트 양성교육을 받은 이래로 8년 동안 도슨트 교육활동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연찬과 노력을 통해서 교육활동에 적극성을 가지고 과학관을 방문한 관람객이 지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된다. S과학관에서 도슨트 양성교육을 받고 첫 도슨트 활동을 시작으로 O박물관, I과학관, G과학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과학관에는 전시해설이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도슨트 활동에 열정을 쏟고 있다. S과학관에서 도슨트 회장직을 맡으면서 동료 도슨트들의 전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실력향상을 위해 배움과 활동을 늦추지 않고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형성된 전문성이 인정 되면서 도슨트 평가자로, 대학에 특별 강연의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상을 볼 때 그녀는 연구자의 연구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적절한 연구 대상자로서 과학관의 도슨트가 활동을 통해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고 이로써 전문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도슨트의 전문화 방안을 알아보기에 적당하다는 판단 하에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Table 7은 연구 참여자의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 및 다양한 도슨트 활동 등을 정리한 것으로 도슨트 활동을 기본으로 다양한 체험학습과 도슨트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 등 여러 방면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7 연구 참여자의 활동

활동 영역	활동내용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010년 '청소년문화존' 체험부스 운영(도자 목걸이 외 다수) • ○○○ 사이언스캐스터 동아리 활동 지원(체험교제 및 교구) • ○○○ 우수동아리 사업 활동(2009년부터 현재) • 기타 봉사단체 교육봉사 협력 및 지원(체험교제 및 교구 지원, 대여)
도슨트 활동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학문화 ○○○ 대표 • 자연과학체험교실 대표 • ○○○대학교 ○○○센터 도슨트 연구 자문위원 • ○○○ 전문전시해설사 • ○○○ 전시해설 자원봉사 • (사)전국과학관협회 과학해설사('○○○자연생태체험관' 지원활동) • ○○○박물관 도슨트('아빠와 함께하는 전시체험' 진행) • ○○○자연사박물관 도슨트 및 강사(전시해설 및 박물관투어 강의) • ○○○과학관 2010년 도슨트 대회 심사위원
수상 및 당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장 : 우수봉사자상, 효행상 • ○○○자연사박물관 도슨트 운영 공로상 • ○○시 실학박물관 다산축제 : 체험공모 (‘나만의 탄생별자리’ 만들기) • ○○○과학관장 : 2011년 해설컨테스트 우수상 • 문화재청 : 2011년 궁궐 테마해설 공모 은상

3. 자료 수집 및 분석

질적연구의 생애사적 연구방법은 사회 속에서 겪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인 학습변화를 그들의 삶 속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연구 참여자의 삶 속에서 연구자가 공존하여 연구 참여자와의 대화를 통해 학습체험에 관한 의미를 재해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최운실 등, 2005). 즉,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연구가 진행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수집을 완료한 후에 분석을 하는 순차적인 진행을 하지 않고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함께

진행하는 ‘해석학적 순환과정’을 거쳤다. 이 해석학적 순환과정으로 자료의 분석과 해석이 질문을 발전시키고 관찰의 초점을 제한하는 반복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도슨트라는 큰 가주체가 구체화 되고 연구 문제가 설정,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질 좋은 자료의 수집을 촉진하여 자료를 목적성 있게 수집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은 2010년도부터 약 13개월 동안 3단계로 진행되었다. 1차는 2010년 4월에 이루어 졌으며,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면담으로 실시하고 초기 분석을 하였다. 그 후 면담과정에서의 이론적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문헌연구를 깊이

Table 8 면담 대상자의 특징[‘성씨’는 모두 임의적 임]

대상	대상자 특징	
양 도슨트 남편	아내의 도슨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	
양 도슨트 아들, 딸	엄마의 도슨트 활동에 긍정적 반응	
학예사 및 담당자	이 학예사	도슨트 관리 학예사
	최 학예사	외국 도슨트 운영 및 관리 수학(受學)
	신 담당자	도슨트 담당자로 활성화를 위해 노력
	강 담당자	과학관 교육담당자
	주 담당자	구)과학관협회 과학전시해설사 관리 업무 담당자 현)과학관 교육담당자
동료 도슨트	백 도슨트	과학관 및 박물관 등 다수 도슨트 유경험자, 경력 8년
	박 도슨트	도슨트 경력 6년, 적극적인 활동
	전 도슨트	사범대 학사로 교육에 상당한 관심, 도슨트 활동에 적극적
	신·정 도슨트	교직(과학전공) 정년퇴임 후 도슨트 활동
	홍·고 도슨트	숲해설가와 도슨트 활동 병행
	김 도슨트	직장생활과 도슨트 활동 병행
	조·최 도슨트	초임 도슨트
학부모 2인	과학관의 교육활동에 상당한 관심	
과학교육 전문가	형식 및 비형식 과학교육 전문가	

하였으며 2차는 2010년 9월에 실시되었다. 2차에서는 연구 참여자 및 연구 참여자의 동료 도슨트 10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고 면담 시 수업관찰이 동시에 이루어 졌다. 1, 2차면담을 통해 자료의 범주를 확장하고 구조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이론적 포화가 일어날 때까지 동료 도슨트 10인, 학예사 및 담당자 5인, 과학교육 전문가 1인, 학부모 2인, 가족(남편, 아들, 딸)을 추가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Table 8). 위 같이 본 연구의 질적자료 수집은 면담을 중심으로 참여관찰, 문서자료, 현장노트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전사와 코딩 작업을 거쳐 범주화, 조직화 되었으며 이를 귀납적으로 발전시켜 이론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a. 자료 수집

생애사는 개인적인 동시에 집단적인 경험의 텍스트이다. 이러한 텍스트에서 개인적 특수성과 집단적 보편성을 변별하고 양자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한 시대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류태호, 2000). 따라서 연구 자료는 연구 참여자의 삶 전체를 다각도로 조명해줄 수 있어야 하므로 본 연구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면담, 참여관찰, 문서자료, 현장노트를 통해 이루어졌다. 개인의 생애사를 알기위해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의 회고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면담이라는 자료 수집방법으로 연구 목적에 맞게 구체화된다. 그러나 면담이 전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구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의견이 과생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주관성은 참여관찰, 문서자료, 연구자의 현장노트를 통해 자료해석의 타당성을 높였다.

· 면담

생애사적 연구의 특징은 연구 참여자의 일생을 통해 변화된 시대성과 역사성을 함께 생각하면서 진행되는 역동적인 연구 방법으로서 연구 참여자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 되어 지는 경험의 세계를 연구자의 틀을 통해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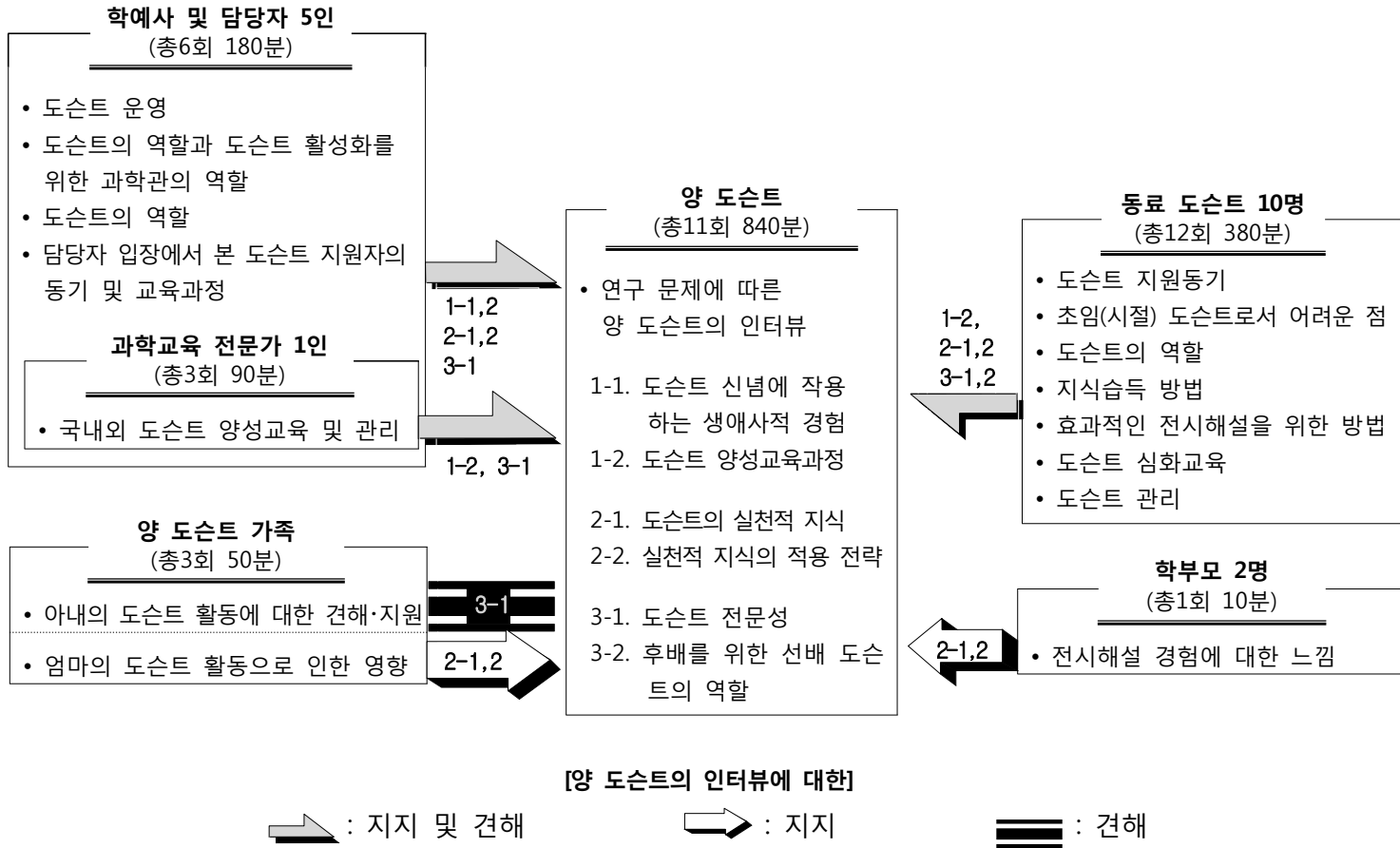


Fig. 12 연구문제에 따른 양 도슨트와 그 외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는 면담을 통해 자세하게 구체화 될 수 있었다.

면담은 연구자가 제보자로부터 연구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 지닌 대화’로 특히, 심층면담 방법은 ‘관찰할 수 없는 과거의 사건, 연구자가 이해할 수 없는 관찰 내용, 관찰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제보자의 생각, 의도, 감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때 유용하므로’(Burgess, 1982; 홍용희, 1998) 연구자가 제보자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 면담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연구 참여자인 양 도슨트를 대상으로 총 11차례, 14여 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보충자료로 양 도슨트의 남편, 아들, 딸, 학예사 및 담당자, 과학교육 전문가, 동료 도슨트, 학부모 2인과는 총 25회 12여 시간 정도의 면담이 이루어졌다(Fig. 12).

본격적인 면담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 참여자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구자는 양 도슨트와 만남을 갖기 전에 자주 이메일(E-mail) 교환과 전화 통화를 하였고, 보충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면담 대상자와는 사전에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실시했다. 면담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편의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 공방, 식당 등에서 open interview를 실시하고 과학관 도슨트 실에서는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심층면담은 3단계에 걸쳐 실시하였다. 면담 I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한 현상에 관한 적절한 질문들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거나 어떤 현상에 대해 탐색적인 태도를 취할 때 유용한 질문(Bernard, 1994; Merriam, 1988)인 비구조화된 질문(unstructured question)으로 시작했다. 즉 연구 참여자와의 친밀감 형성을 목적으로 질문지 없이 비교적 느슨하게 대화하는 기분으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공동의 관심사인 도슨트에 관한 이야기 즉, 과학관에서의 도슨트 활동의 계기, 어려운 점, 전시해설과정 중 관람객들과의 상호작용 등 연구자(천문과학관에서 천문교육 담당자로 근무 중)가 평소에 직장에서 느꼈던 사항을 시작으로 연구 참여자의 생애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면담노트를 작성하여 후반부 면담의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다. 다음 면담 II에서는 그 동안 진행된 면담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고 보다 깊이 있는 질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자는 이전의 면담 내용에 기초하여 반구조화된 질문(semi-structured question)을 하였다. 면담 I 을 근거로 면담 내용을 주제별 특성에 따라 내용을 분류하여 활동계기, 도슨트 양성

Table 9 면담Ⅱ, Ⅲ의 질문 내용

면담Ⅱ[반구조화된 질문]	면담Ⅲ[구조화된 질문]
활동계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슨트에 대해 알게 된 계기 2. 도슨트 활동을 하게 된 동기
도슨트 양성 교육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슨트 양성 교육과정 이수 후 가장 적합한 평가방법 2. 도슨트 양성 교육과정 이수 후 현장 실습 평가 시 평가자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
도슨트 보충 교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충 교육으로 가장 필요한 교육 2. 보충 교육으로 가장 적합한 교수방법 3. 보충 교육의 강사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해도 및 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 직원들(관장, 학예사 등)의 도슨트에 대한 이해정도 2. 활동의 지속성에 도움이 되는 인정 및 보상제도
도슨트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슨트의 전문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 2. 도슨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활동의 만족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슨트 활동에 불만족한 부분의 이유

교육과정 및 운영 체제, 도슨트 활동과 이에 따른 만족도 등에 초점을 맞춰 면담을 하였다. 면담Ⅱ의 종료 시기는 현장에서 연구 목적에 적합한 새로운 정보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때 까지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사정에 따라 이메일 (E-mail) 면담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마지막 단계 면담Ⅲ에서는 설정된 질문 및 얻어진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주로 수집이 종료되는 단계에서 하게 되는 구조화된 질문(structured question)을 실시하였다. 즉, 본 연구 목적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의 자원봉사 및 도슨트에 대한 신념, 도슨트 교육과정에서의 장단점과 운영체계에 대해서 본 연구자가 정확히 해석했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Table 9). 또한 연구자가 미처 하지 못한 질문을 할 기회가 되기도 했으며 연구 참여자에게는 면담 당시 충분히 하지 못했던 삶의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되었다. 전체적으로 면담은 어느 한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고 면담 내용의 영역 분류에서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음 인터뷰 시간에 보충하여 질문하였다.

양 도슨트는 8년 이상의 경력자로 평소 도슨트 전문성을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여러 과학관의 도슨트 활동 및 직장생활의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었으면서도 적극적인 호응으로 첫 번째 면담부터 빠르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좀 더 정확한 자료정리를 위해 면담 시 미리 양해를 구해 목소리를 녹음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심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작은 캡코더를 준비하여 목소리를 녹음하였고 중심내용은 따로 적으면서 진행하였다. 1회 면담시간은 1시간을 계획했으나 평균 1시간 15분 진행되었다. 면담은 매우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 참여관찰

참여관찰은 하나의 활동, 사건, 상황이 직접 관찰될 수 있을 때, 참신한 시각이 요구될 때, 혹은 연구 참여자가 연구되는 화제를 논의 할 수 없거나 논의를 원치 않을 때 사용될 수 있는 기법이다. 특히 연구자는 관찰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이미 일상적이 되어 면담에서는 얻어질 수 없는 일들, 그리고 맥락을 이해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일들’을 인식할 수 있다(Merriam, 1998). 따라서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통해서 양 도슨트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전시해설 현장에서의 양 도슨트의 활동과, 동료 및 과학관 학예사·담당자와의 관계, 그들과의 진솔한 이야기를 알 수 있었다.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관찰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활동에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에 따라 참여의 유형이 달라지고 참여관찰자의 역할이 달라진다. 즉, 연구자가 관찰하는 사람들의 활동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비참여로부터 완전참여까지 몇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Spradley(1980)는 참여의 정도를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완전 참여, 능동적 참여, 보통 참여, 수동적 참여, 비참여로 구분하였다. 이 참여의 정도는 연구 주제와 현장의 특성, 연구자의 성향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한 한 연구에서도 연구의 시기에 따라 참여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연구 초기에는 보다 관찰에 치중하다가 나중에는 참여의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의 후기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가능한 한 참여로부터 물러나 현장을 관찰하는 것이 좋다 (Bogdan & Biklen, 1982).

[전시해설의 비참여관찰]

연구자는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을 완전 비참여관찰 방법으로 4회 관찰하였다. 전시해설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전시해설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최대한의 조심성으로 전시해설을 관찰하여 비디오 및 오디오로 기록하고 현장 노트에 기록하였다.

2010년 4월 23일 S과학관에서 실시한 투어강의는 초등학생 및 유치부를 대상으로 하는 유료 수업으로 전시장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관람학습지를 풀어봄으로서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011년 2월 8일 O박물관 전시해설과 2011년 2월 19일 S과학관과 I과학관 전시해설은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전시해설에서 본 연구자는 양 도슨트가 효과적인 전시해설을 하기 위해 구성한 전략이 어떻게 표현 되는지 관찰하였다.

[대화의 비참여관찰]

연구자는 양 도슨트의 수업관찰 외에 학예사·담당자 및 동료 도슨트와의 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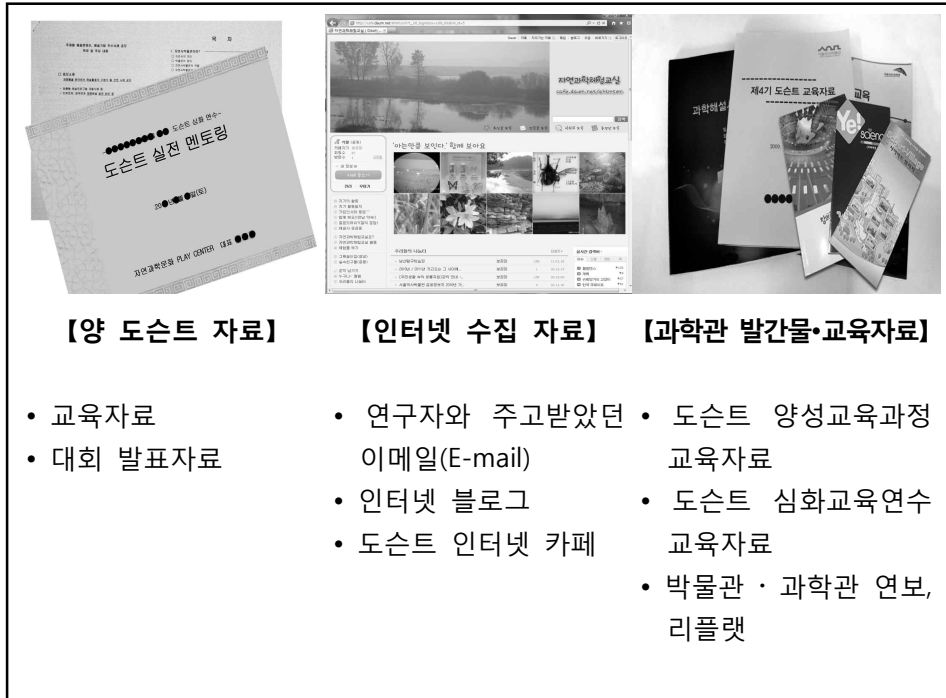
작용, 도슨트 활동에 따른 양 도슨트와 가족과의 관계를 관찰하였다. 학예사·담당자 및 동료 도슨트와 양 도슨트의 대화관찰은 연구자가 그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고 한발 물러서서 관찰 하였다. 그들의 대화에서 연구자는 구조화된 면담에서는 알 수 없었던 동료 도슨트들의 양 도슨트에 대한 기대, 학예사 및 담당자와 양 도슨트의 갈등 및 협력은 무엇인지 관찰했다. 또한 연구자가 기대하지 않았던 도슨트 활동에 대한 성공과 좌절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양 도슨트와 가족의 일상 관찰을 통해서 연구자는 양 도슨트와 가족 관계에서 도슨트 활동의 매개체 역할을 알아보았다.

위 모든 관찰은 이후 면담에서 양 도슨트와의 반성적 과정을 통해 관찰된 행동의 진의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 문서자료

기존의 문서들은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이나 관찰과는 달리 지금의 연구 목적을 위해 생산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면담이나 관찰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럽게 못한 역할과 반응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가 만들어 놓은 기록물들은 이러한 제한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강묘숙, 2007). Holisti(1969)는 문서들을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의사교류’라고 정의하고, Goetz & LeCompte(1984)는 ‘인공물(artifact)’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문서자료는 연구 참여자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사항이나 전시해설 이외에 이와 관련된 활동 즉, 기관 주최 도슨트 대회 참가, 동호회 활동 및 현장답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집되었다.

문서자료들은 연구 참여자가 도슨트 활동 동안에 만들었던 교육자료, 도슨트 말하기 대회에서 제출했던 자료, 본 연구자와 주고받았던 이메일(E-mail), 인터넷 블로그에 소개된 자료 및 게시물, 도슨트 인터넷 카페, 도슨트 양성교육과정 교육자료, 도슨트 심화교육연수 교육자료, 연보 등으로(Fig. 13) 이 자료들은 만들어진 시기의 시대상과 실제성을 강하게 표현하는 생애사 자료로서 매우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양 도슨트 자료】

- 교육자료
- 대회 발표자료

【인터넷 수집 자료】

- 연구자와 주고받았던 이메일(E-mail)
- 인터넷 블로그
- 도슨트 인터넷 카페

【과학관 발간물·교육자료】

- 도슨트 양성교육과정 교육자료
- 도슨트 심화교육연수 교육자료
- 박물관 · 과학관 연보, 리플렛

Fig. 13 수집된 문서자료

연구 참여자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맥락적이고도 해석적인 생애사적 연구의 자료로서 문서자료는 연구 참여자의 삶의 족적을 알게 해 주고, 문서를 만들었던 바로 그 때의 교육적 신념과 교육활동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 교육과정에 대한 실제적 지식, 사회적 환경, 시대적 요구 등을 직·간접적으로 대변해 준다(강묘숙, 2007).

한편, 연구자는 인터뷰 및 관찰시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그 당시의 개인적 감정, 순간순간 떠오르는 연구에 관한 아이디어를 현장노트에 상세히 기록하였다. 현장노트는 연구자의 연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으로, Spradley(1980)는 현장조사 노트의 종류를 네 가지로 나누어 압축된 설명, 확장된 설명, 현지조사 일지, 분석과 해석 노트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로, 압축된 설명은 면담한 내용이나 관찰한 내용의 실마리를 연구자가 단어나 어구로 재빨리 기록하는 것으로, 가능한 한 연구 현장이나 현장을 떠난 직후 기록하여 연구자의 기억력을 자극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둘째로, 확장된 설명은 압축된 설명의 실마리에 근거해서 연구자가

연구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상세히 적은 것을 말한다. 셋째로, 현지 조사일지는 면담을 진행하거나 관찰을 하면서 얻은 경험, 제보자나 관찰현장에 대한 느낌, 개인적인 어려움, 연구의 문제점 등 개인적인 측면을 기록한다. 현장 조사를 준비할 때부터 시작하여 현장 조사를 한 직후, 그리고 자료를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과정 동안 기록한다. 현지 조사일지는 연구자 자신의 자기반성적인 기록으로서 연구의 과정에서 개인적인 편향이나 감정의 변화가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넷째로, 분석과 해석 노트는 어느 정도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후 본격적으로 작성되지만 질적 자료의 수집 과정의 특성상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도 순간순간 연구자가 자료를 기록하면서 얻게 되는 분석을 위한 아이디어, 이론적인 문제, 자료의 의미에 대한 해석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위의 네 가지 기록의 유형은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주로 현지 조사 일지 형태를 취하면서 연구과정 동안 연구활동 외에 개인적인 어려움과 갈등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자료 분석 시 개인적인 감정 등을 참고하여 편향된 분석을 피할 수 있었다.

b. 자료 분석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 과정 중 어릴적 가정환경, 도슨트로서 활동을 하게 된 계기, 도슨트 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생애사적 경험 등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에는 연구 참여자가 부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 연구자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한 가지 본 연구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 참여자의 해석과 의미부여 및 이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라는 것이다. 즉, 연구자의 해석은 면담자료가 분석되는 동안 부분적인 의미의 차이를 거쳐 왔다. 따라서 본론에서 제시된 분석이 최종 결과를 나타내나 이 또한 가변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발생한 해석의 차이는 객관적 자료인 문서자료와 함께 분석 과정을 거치면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첫 번째, 질적 자료를 문화적 의미로 범주화하기 위해 ‘문화적 영역(cultural domain)’을 찾아 영역분석(domain analysis)을 하고 두 번째, 영역분석에서 순환적 과정을 거쳐 수집된 자료를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분류분석(taxonomic analysis)(Spradley, 1980) 두 단계를 거쳐 분석하였다. 첫 번째, 영역분석(domain analysis)을 하기 위하여, 먼저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구술을 모두 녹음한 다음 그것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녹음 내용을 전사(transcription)하였다. 전사한 자료를 여러 번 정독하고 난 후 자료의 내용 중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시 가장 잘 요약해 줄 수 있는 제목으로 찾아내어 전사 기록물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연구주제의 영역(domain)을 찾아 나갔다. 연구주제의 영역은 도슨트 이전의 문화, 도슨트 문화, 앞으로의 도슨트 문화로 구분되었다. 이 때 보충해야 할 정보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메모하여 누락된 정보가 다음 면담에서 보완되도록 하였다. 상황에 따라서 전화 및 이메일(E-mail)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한편 면담, 참여관찰, 문서자료, 이메일(E-mail), 연구자의 현장 노트 등을 통해서도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자료의 주제 영역을 분석하였다. 면담, 참여관찰, 문서자료, 이메일(E-mail), 연구자의 현장 노트 등의 수집된 자료들 간의 일관성 있는 해석을 위해 자료에 연구주제 제목을 정하였고, 이러한 절차의 반복을 통해 의미 있는 자료의 영역주제를 정하였다. 자료의 영역분석은 자료수집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료의 주제영역을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분류체계도 조금씩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 두 번째, 분류분석(taxonomic analysis)을 하기 위하여 자료의 분류체계는 앞서 자료를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영역을 기초로 영역들의 일부를 포괄하는 중간 분류제목(도슨트 이전 생애사적 경험, 도슨트 양성교육, 도슨트 활동을 위한 지식, 전시해설의 전략, 도슨트 전문성, 선배 도슨트 역할)을 찾고, 다시 중간 제목을 포괄하는 대분류 제목(도슨트 입문에 대한 신념과 양성교육과정,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 형성, 전문가로서의 도슨트)을 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의 분류체계는 분류 유목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자료를 분류하는데 활용하였다. 그 후 자료 목록을 완성하고, 본격적인 자료 해석에 들어갔다.

연구자는 이렇게 주제별로 분류된 원자료를 심도 깊게 읽고, 분석, 추론하는 과

정을 거쳐 각 자료들이 가진 의미를 연구 문제와 관련시켜 나갔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연구 문제와 관련해 양 도슨트의 도슨트 활동에 대한 신념과 교육활동을 통해 형성된 실천적 지식 및 전시해설의 전략, 도슨트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을 알아낼 수 있었다.

4. 연구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질적 연구는 본질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도구가 되어 즉,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주관성을 기본 연구로 보고 이 주관성을 통해 자료수집의 방법 및 수집된 자료에 대한 해석 방법 등을 연구자 자신이 결정한다. 바로 여기에서 질적 연구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질적 연구는 연구자를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① 심층적인 자료와 자료 해석의 근거를 함께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양적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② 이는 타당도에 대한 통계적(과학적 연구의 객관성) 검증이 수반하지 않으므로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될 위험성에 상대적으로 더욱 노출 되어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나장함, 2006). 여기에서 제시된 질적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구가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성이 있고,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연구자의 설명은 근거가 있으면서 진실 되어 원래 기술하고자 하고 이론화하려고 했던 현상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Hammersley, 1987).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론적 표본추출, 이론적 타당성, 삼각측정법, 연구 참여자 검토, 전문가 및 동료연구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전이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 결과를 심층 기술하였다.

도슨트 활동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를 비롯하여 주변의 가족, 동료 도슨트, 학예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도슨트 교육자료, 리플렛, 개발된 학습지 등의 문서자료를 다양한 방식의 자료 수집에 의한 삼각측정법(Triangulation)와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 결과의 평가를(Denzin & Lincoln, 2005; Glesne, 1999; Merriam, 1998) 실시하였다. 삼각측정법에 의해 수

집된 자료는 장기간에 걸쳐 연구의 범주가 포화될 때까지 수집함으로써 이론의 밀도와 정확성을 확보하였고 확보된 자료를 상황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기술하여 숨겨진 의도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심층적 기술을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 결과의 검토는 양 도슨트의 생애사 전반, 교육활동과 그의 변천과정, 그리고 연구 대상자가 형성한 교육활동에 관한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과 실현과정 등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 졌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방법이 과학교육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없는 연구 참여자에게는 생소하고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 결과의 평가가 제한적으로 수행되었음을 밝혀 둔다. 이러한 제한 요인은 연구자가 연구 자료를 여러 차례 반복 분석하여 분석 결과의 모호함이나 이전의 분석과 상이한 분석 내용을 보이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여 연구자의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과학교육 전문가 1인과 동료연구자 1인이 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를 공유하며 분석 결과를 지속적으로 본 연구자와 만남과 대화를 통해 수정 검토 하였다. 과학교육 전문가는 대학원 과정 중 질적 연구 방법론을 수강하였으며, 현재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한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연구자로 연구의 설계, 개념·범주 탐색, 자료해석, 이론모형의 타당성을 검토, 진행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조언을 하였으며, 특히 코딩 절차와 같은 방법적인 부분에서 내용을 검토하였다. 동료연구자는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으로 코딩을 통한 자료 해석에 있어서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동료 연구자에 의한 조언과 검토로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 연구자의 편견이나 가정을 확인하고, 연구자가 방법적·해석적·절차적 오류를 범하는 것을 줄이기(Maxwell, 1996) 위한 노력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면담 수집은 생애사적 연구의 참여자인 양 도슨트의 면담을 심층 면담으로 실시했고, 부차적으로 가족, 학예사 및 담당자, 과학교육 전문가, 동료 도슨트, 학부모 면담도 이루어졌다. 면담이 시작되기 전에 면담동의를 약식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E-mail)을 통해 연구 목적과 내용에 대해 면담 대상자들의 연구 참여 의사를 묻고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시간과 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선호하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에는 참여자에

게 연구의 목적을 알려주면서 익명성과 비밀 보장 및 연구 철회의 자유와 권한을 알려주는 내용과 연구가 종료된 후 1년간 녹음 파일 및 전사 자료를 보관하며 그 후 폐기 할 것을 설명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언급된 과학관 또한 익명으로 처리 했다.

한편, 생애사적 연구에 따른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 구체적인 해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와 같은 과학관에서 관람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일’에 대해 둔감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연구자의 가치에 따라 취사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다. Glesne & Peshkin(1992)이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을 고찰하는 연구에서 주의할 것을 당부했듯이, 주변에 있는 사람 혹은 장소를 연구함으로써, 연구 참여자가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연구자가 듣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편향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었을 것이다(Creswell, 1998). 따라서 연구자는 과학관 방문을 통해 자료 수집 즉, 과학관의 교육프로그램, 전시해설에 대한 느낌, 과학관의 편의시설 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과학관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지인과 함께 자료 수집을 하면서 연구자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과 당연시 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는 도슨트 실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비어, 속어가 있는 그대로 노출되기를 꺼려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구절들이 연구의 검증 과정에서 논의를 통해 수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야기의 현장성이 다소 반감되는 경향이 있었을 것이다. 즉, 실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해설을 하는 도슨트 및 외부 교사들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직설적인 비판은 연구자가 언어순화를 시킴으로서 그 심각성이 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과학관 및 도슨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가 짧은 자료 수집 기간에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연구 참여자의 주관성이 내제된 비판적인 시각은 특히 과학관에서의 도슨트에 대한 낮은 인식에 따른 활동의 어려움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이 주관성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는 과학관의 학예사 및 담당자의 인터뷰와 동료 도슨트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 근거하여 그녀의 이야기를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연구 참여자의 생애사가 연구자에게 이야기되는 과정에서 각색되고 미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연구자는 인터뷰 외에 비참여관찰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진솔한 생각, 행동 등을 보도록 노력하였고 제 삼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특히, 도슨트 활동이 가족의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족 또한 연구 참여자의 도슨트 활동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긴다는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남편 및 자녀들과의 1:1 인터뷰를 통해 그들 또한 연구 참여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표집 한 것은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한정된 인식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하나의 특정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화에 충분히 젖어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통해서만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과학관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도슨트의 관점이 결코 개인적인 관점에 불과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C. 연구자에 대하여

질적 연구는 가설검증 보단 통찰, 발견, 해석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되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주요 인자들의 상호작용을 발견하여 총체적으로 서술하고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연구대상을 직접 만나고 참여하여 연구가 이루어지므로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과 직관이 탐구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현상의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Johnson & Christensen, 2004; Merriam, 1998). 즉, 질적 연구의 과정에 있어 연구자 자신은 가장 중요한 분석 도구가 된다. 따라서 질적 연구의 연구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선입견, 가치, 신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최정숙, 2003). 그러므로 여기서는 본 연구자의 경험과 관심 및 연구를 하게 된 동기를 서술하여 연구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학부 및 석사과정에서 지구과학교육을 전공하고 박사과정을 거쳐 현재 천문대에서 천문교육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과학교육에 대한 남다른 신념을

갖고 꾸준히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즉, 다양한 곳에서의 교육경험(학교, 사교육기관, 과학관)과 비형식기관에 관한 연구논문 등을 통해 과학교육의 방향과 효과적인 과학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늘 연구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의 교육환경은 연구자 주변에 과학교육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많은 동료 및 선후배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료 및 선후배들은 주로 초·중등학교 과학교사로 재직 중에 있거나 과학관에서 교육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과의 만남에서 연구자는 과학교육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늘 과학교육의 방향 및 과학관의 관람객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대해 서로 토의를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갔다. 이에 본 연구자는 과학관에서의 과학교육의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이해와 통찰을 가질 수 있었다. 한편 연구자는 2006년 3월부터 현재까지 약 6년간 천문대에서 관람객을 상대로 천문교육을 실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이 과학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슨트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즉,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천문대는 일반 과학관과 같이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배경지식,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천문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관람객의 천문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천체망원경과 천체라는 전시물을 통해 다양한 설명방법으로 천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것은 도슨트가 과학관에서 실현하는 전시해설 교육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념과 환경 즉, 꾸준한 과학교육에 대한 관심과 과학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동료 및 선후배와의 만남, 연구자의 근무환경은 도슨트의 활동을 이해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배경을 지닌 연구자는 질적 연구를 위해서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2학기에 걸쳐 질적 연구에 관한 수업을 수강하였고 질적 연구에 관한 다양한 연구논문을 분석 및 발표하였다. 여러 편의 연구논문을 작성하는 가운데 연구자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질적 연구 방법에 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한 연구자는 본 연구를 수행하는 중엔 시행착오에서 느꼈던 부분을 상기해서 반복적인 실수를 줄이고 자료 수집에 충실을 기했다. 즉, 면담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므로 연구 참여자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연구자에게 면담의 진행은 수집된 자료의 질을 결정하

는 중요한 능력이다. 본 연구자는 면담을 시작하기 이전에 질적 연구 과목의 수강 과정 중 수행한 과제와 다른 주제의 질적 연구 과정을 통해 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을 10여 차례이상 충분히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연구자가 면담과정에서 자주하는 실수는 질문을 하고나서 연구 참여자가 스스로의 생각을 탐색하고 대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한 점과 한 면담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너무 많은 질문을 함으로서 여유로운 면담이 되지 못했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스스로 대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며, 참여자의 답변이나 생각을 질문으로 중도에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도슨트 전시해설 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면담장소를 주로 연구 참여자가 활동하는 과학관의 도슨트 실과 과학관 간의 이동시간이 많이 걸린 관계로 이동 중 차안으로 정하였으며, 면담 시작 전에 과학관의 분위기와 현장 등에 대한 메모를 하였다.

본 연구자는 과학교육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학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의 형성에 대한 탐색이 도슨트의 전시해설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작용하여 도슨트들 간에 공유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연구 과정동안 마음에 두고 있었다. 또한 새로운 면담을 진행할 때마다 새로운 전시해설 현장과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즐거운 일이었다. 이처럼 본 연구자는 연구 주제와 대상에 애정을 가지고 수집된 자료를 끈기 있게 탐색하였다.

IV. 결과

본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유년시절부터 도슨트 활동을 하는 현재까지의 생애사적 경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즉, 도슨트 이전의 생애사적 경험이 도슨트에 입문하는데 어떠한 신념으로 작용하고 입문 후 받은 도슨트 양성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어서 도슨트 활동을 통해 겪게 되는 좌절과 성공 속에서 형성되는 실천적 지식을 탐색하고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위한 도슨트 전문화 방안을 모색하는 3단계로 서술하였다. 이와 더불어 도슨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과학관 도슨트 활동 초창기를 기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현재를 거쳐 전문가로서의 도슨트 모습으로 알아봄으로서 그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A. 항해를 위한 돛을 달다 - 신념의 형성 및 도슨트 입문

한 인간이 완성되기까지에는 주변의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된다. 그 영향력은 아직 미완성인 어린 시절에 크다고 할 수 있고 어린이가 받은 영향력은 그가 성인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직업을 선택하거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음에서는 도슨트라는 항해를 위해 돛을 달게 되는 양 도슨트의 삶을 알아보려고 한다. 즉, 양 도슨트의 유년시절부터 도슨트에 입문하기까지의 생애사적 사건을 통해 형성된 자원봉사자 및 교육자에 대한 신념과 도슨트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부여된 동기가 무엇이고, 양 도슨트가 이수한 도슨트 양성과정과 운영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초창기 도슨트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를 양 도슨트의 삶을 통해서 기술하였다.

1. 자원봉사 및 교육에 대한 신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 생애사적 사건

인간은 어떠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한 순간의 결정으로 활동을 하기보다는 그러한 활동을 하기까지에 많은 영향력이 작용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 경향이

크다. 본 장에서는 양 도슨트가 도슨트 활동을 하게 된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년시절에 양 도슨트가 가정과 학교에서 경험한 생애사적 사건은 무엇이고, 청년시절 직장에서 경험한 생애사적 사건은 무엇인지를 탐색한 후, 이러한 삶의 경험이 자원봉사와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신념으로 나타나는지 기술하고자 한다.

· 자원봉사와 교육에 대한 관심의 시작 - 가정 및 학교환경

한 인간이 성숙되는 과정에서 가정환경은 개인의 성장, 발달 및 자아를 형성하는 초기 환경이다. 인간은 가정환경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시간적으로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인간행동의 형성 시기에서 어느 시기보다도 주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어린시절을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에 가정환경은 한 인간이 성숙된 사회인이 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환경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환경이 개인에게 미치는 교육적인 작용을 고려할 때 결국 가정환경은 인간의 1차적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비심리적 또는 심리적인 특성이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정원식, 1990). 다음 인터뷰에서 나타난 양 도슨트의 유년시절 가정환경에는 어느 가정환경과는 달리 부모님의 특별한 사회 활동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엄마 아빠께서 옛날에 동네 봉사란 봉사는 다 했거든요? 대통령상까지 타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상타오면 저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대통령상 타느라고 가정에 소홀했으니까.

[양 도슨트 인터뷰]

부모님의 열성적인 봉사활동을 보면서 양 도슨트는 봉사활동으로 가족이 2순위로 물러난 것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불만을 갖는다. 그러나 양 도슨트 자신은 가정에 소홀해 지는 부모님의 봉사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면에 무의식적으로 봉사활동을 삶의 일부로 여기면서 이에 대해 자신 또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나름대로의 원칙 즉, 가족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자원봉사에 대한 신념은 양 도슨트에게 학창시절부터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일으키게 한다. 이러한 욕구 표출을 다음 인터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어렸을 때부터 자원봉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희상) 근데 고등학교 때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뭐. 집에 TV같은데 나오는... 왜 유치원? 유치원이 아니라 탁아소 같은데서 애 봐주고... 저는 애는 잘 봤거든요. 그런 거라도 하려면 교장선생님 도장을 찍어 오래요. 그래서 매번 못했거든...

[양 도슨트 인터뷰]

위 인터뷰에서 나타난 것처럼 학창시절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양 도슨트의 욕구는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좌절을 겪기도 했지만 타인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양 도슨트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봉사에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영향으로 아이들의 학습을 돕는 가이드에 관심을 갖기도 한다. 양 도슨트는 초등학교 6학년 때를 기억하며 “당시 선생님들이 해야 할 업무가 무척이나 많았던 것 같다.”면서 선생님을 도와 저학년 학생들을 지도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이야기한다. 다음은 학생 양 도슨트가 저학년 주임선생님을 대신해서 1, 2학년 학생을 지도했던 회상이다.

주임선생님이 답임을 맡았던 2학년 1반이나 1학년 1반의 경우엔 자주 (담임선생님이) 수업시간을 비우는 터라 우리가 돌아가며 자습도 시키고 시간 때우기 식 오락시간도 보내주었다. 그때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이 생겼던 것 같다.

[2010. 03. 31. 양 도슨트 인터넷 카페 게시물]

바쁜 선생님을 도와 저학년 학생들을 지도했던 경험이 어린 양 도슨트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오면서 선생님이 되고자하는 꿈을 갖게 했다. 즉, 교육(가이드와 가르침)을 통해 자기 만족감을 느꼈던 것이다.

· 직장생활 민원업무를 통한 관람객 응대 및 안내심 함양

학생 양 도슨트는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양 도슨트의 직장생활은 차후 양 도슨트가 자원봉사자로서 관람객에게 응대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다음 인터뷰에서 직장인 양 도슨트가 직장에서 맡게 된 업무들을 살펴보면,

쉬운 건 아닌데 저는 팔자인거 같아요. 첫 직장을 동사무소 사환으로 들어갔거든요? 첫 월급이 84년도에 7만 6천원이었거든요. 거기로 들어가서 민원을 상대했잖아요. 첫 직장이... 그러구 나서 수협중앙회를 들어갔어요. 거기도 민원 상대잖아요. 창구에 있었으니까.

[양 도슨트 인터뷰]

공공기관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상대하게 된다. 그러는 가운데 양 도슨트는 민원을 어떻게 안내하고 민원의 성향을 파악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한편, 봉사자의 자세를 직장생활 속에서 이미 익히고 있었다. 즉, 일반인을 상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원봉사자로서의 소양을 갖추게 된 것이다. 직접적인 자원봉사 활동은 아니지만 양 도슨트는 이미 직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 자원봉사! 여가 활용이 아닌 적극적인 시간 투자

직장생활을 한창 하던 1984년 양 도슨트에게는 그 토록 하고 싶었던 자원봉사활동의 기회가 주어진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사회는 경제수준의 향상, 국민의식의 증대, 가족구조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원봉사를 행정실무에 접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높아져 86아시안 게임과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1984년 종로지하도를 지나며 1986년에 있을 아시안게임과 1988년에 있을 올림픽 자원봉사자를 대대적으로 모집하는 광고가 양 도슨트의 눈에 들어온다. 중·고등학교 시절 자원봉사를 하려면 교장선생님의 승인이 필요해서 선 듯 하지 못했던 기억에 용기를 내어 지원을 하게 된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양 도슨트의 자원봉사에 대한 집념은 88서울올림픽 자원봉사자 활동을 통해 표출되는데 이는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강했다. 어렸을 때 그

토록 하고 싶었던 자원봉사를 어느 누구의 제재 없이 본인이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음은 성인 양 도슨트의 자원봉사의 첫 경험이다.

근데 그때 딱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으로 자원봉사 모집하고 그럴 때여서 '88년 올림픽 자원봉사 신청을 '84년도에 했었는데 연락이 오니 인제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도 (난) 정직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 나 직장 관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모집할 때 되게 후 했던 게 『우리나라에서 평생 1번 할까말까하는 올림픽에 당신이 참여하신다면...』 뭐 어찌고 저찌고 그랬거든요 문구가. 거기에 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었는데 연락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관두겠다. 나 이거 하겠다.' 아니 그때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 정말 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매번 못했는데... 근데 20살이 넘으면서 할 수 있어진 게 올림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자'했는데 다들 미쳤다고 하지 옆에서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여기를(=직장인 수협중앙회를) 그만뒀어요.

[양 도슨트 인터뷰]

특히 양 도슨트의 자원봉사에 대한 굳은 결심은 88서울올림픽의 자원봉사자를 뽑기 위한 광고 문구 『우리나라에서 평생 1번 할까말까하는 올림픽에 당신이 참여하신다면...』에서 더욱더 사명감에 가까운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양 도슨트는 이야기한다.

·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통한 완만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형성

짧은 자원봉사 활동을 마치고 양 도슨트는 새로운 직장에서 산악회, 성가대, 사내사보기자, 볼링 등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다음은 양 도슨트의 직장 생활에 관한 인터뷰이다.

가만히 있으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구. 들어오라구. 산악회 한 2년 산 다녀지, 성가대 했지, 사내사보기자 했지, 볼링도 했지 그리고 일본 이랑 합작 회사라서 직원들이 일본어를 점심시간에 가르쳐요. 근데 초급 일본어 강사가 없었어요. 저도 일본어 못하거든요. <중략> 그런데 (일본사람들이 드나드는 주재원의) 사람들을 사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제가) 일본어 잘한다는 거예요. 지금 초급강사가 없는데 좀 강사를 해 달래. 그래서 이거 어떡

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그냥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밥에 학원을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하자. 정말 그렇게 했어요. 두 달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저녁에 퇴근하고 (학원)가서 일본어를 배우는데.. 한 두 달인가 하고 서울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우~ 거기지만 했어요. 저 서울 간다고 환송회 해주고, 어.. 그거 (일본어 강의를) 두 달이 넘어갔으면 정말 다 탄로 났죠. 저는 인생이 다 드라마예요. 진짜 다 드라마예요.

[양 도슨트 인터뷰]

많은 동호회 활동에 대해서 양 도슨트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활동의 제의가 들어와서 하게 되었다고 하나 본인의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모습 속에서 대인관계의 완만한 형성이 직장동료에게 비춰졌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양 도슨트의 의사소통 능력은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내 일어강사의 경험에서 잘 보여지고 있다. 즉, 직장동료들의 오해로 일본어 강사를 맡게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함으로써 동료들의 교육적 만족을 이끌어내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양 도슨트의 유년시절부터 결혼 전 청년기과정은 자원봉사와 교육에 대한 신념의 형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부모님의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가정에서 다소 소홀함을 경험했던 양 도슨트는 자원봉사는 생활임과 동시에 여가 활용이 아닌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고, 가족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생각하게 된다. 학창시절 선생님을 도와 저학년들을 지도했던 경험은 교육(가이드와 가르침)에 대한 즐거움을 갖게 했다. 졸업 후 공공기관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했던 직장생활은 자원봉사자로서 일반인에 응대하는 태도 및 인내심 등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이었다. 한편, 직장에서 다양한 동호회 활동은 양 도슨트의 완만한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능력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양 도슨트의 생애사적 경험은 자원봉사와 교육에 대한 신념이 좀 더 확고하게 된 일련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Fig. 14). 생애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신념은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자원봉사 활동으로 처음 표출되는데 이는 학창시절 학생신분으로 좌절을 겪어야 했던 자원봉사에 대한 실현이었다. 다음 장에서는 양 도슨트가 과학관에서 도슨트로 활동하게 된 직접적인 생애사적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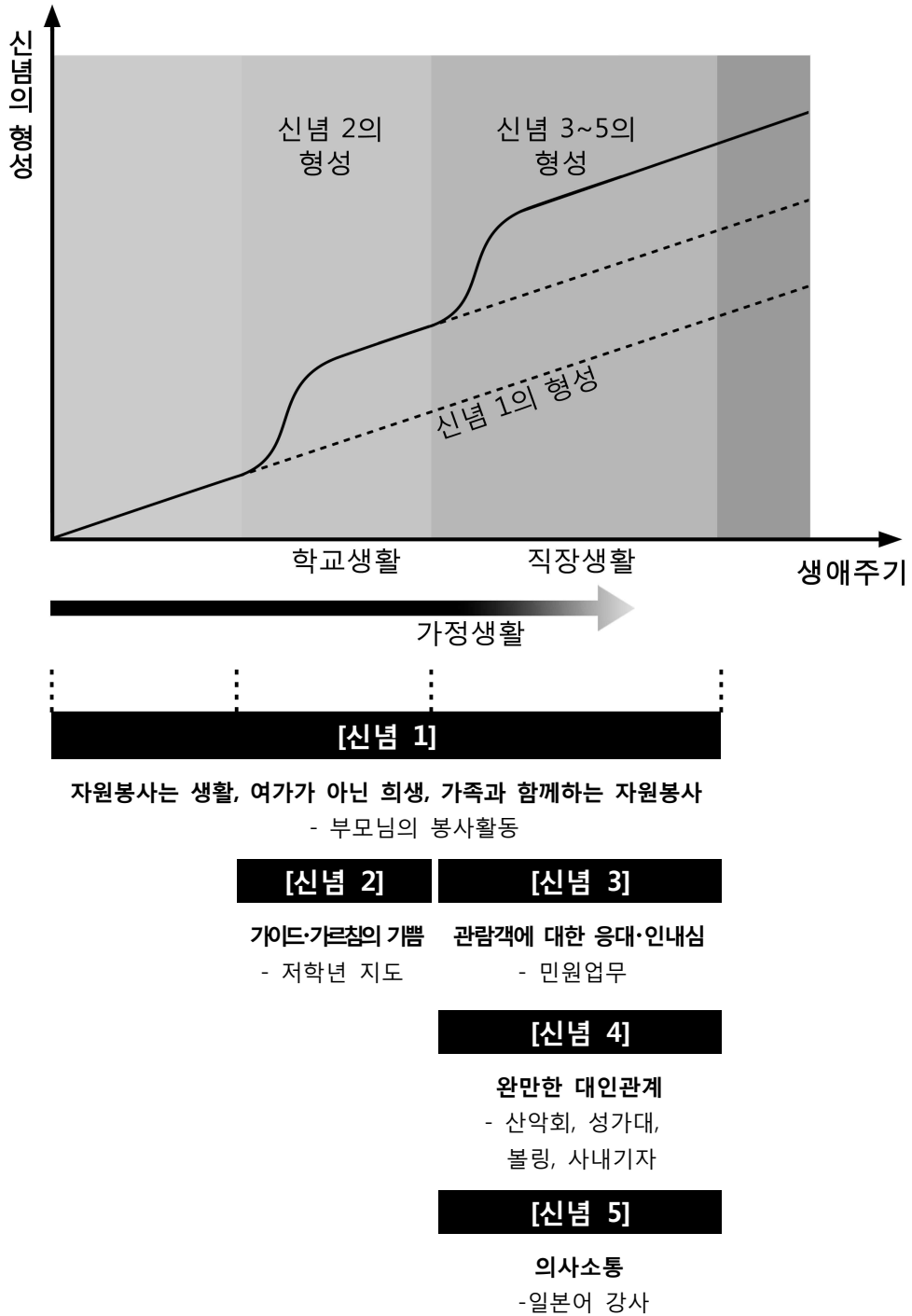


Fig. 14 양 도슨트의 생애주기에 따른 자원봉사[신념1, 3, 4] 및 교육[신념 2, 5]에 대한 신념의 형성

2. 과학관 도슨트 입문에 영향을 미친 생애사적 사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의 행동은 주변에서 받은 많은 영향으로 인해 형성된 신념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특별한 행동이나 활동을 하는 데에는 결정적인 사건이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본 장에서는 양 도슨트가 과학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된 계기와 도슨트로 활동을 하게 된 생애사적 경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과학관에서 도슨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양 도슨트 외 동료들은 어떠한 교육적 신념으로 도슨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기술하고자 한다.

· 과학관에서의 자원봉사

양 도슨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도 결혼을 계기로 접게 되면서, 내조와 육아로 전업주부의 생활을 하게 된다. 근 10년을 전업주부로 가정을 위해 생활을 하던 양 도슨트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할 때 짬 뭇가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인터넷을 살펴게 된다. 그때 양 도슨트는 눈에 띈 ‘박물관 자원봉사자 모집’이란 문구에 클릭하여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 다음은 양 도슨트가 과학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된 계기이다.

S과학관을 제일 처음에 가게된 것은 애들이 유치원에 입학할 때 정도 됐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됐죠. 여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을 때 짬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S과학관이 개관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를 뽑는데요. 그 자원봉사자는 가족이 무료입장 이래, 그래서 처음 시작은 무료입장 때문에 한 거예요. 무료입장하면 좋잖아. 초등학교 1학년 되면 데리고 다녀야 되고 (집에서도) 가깝고... 그래서 시작을 했지

[양 도슨트 인터뷰]

위 인터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양 도슨트는 자녀양육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교육과 잠시 잊고 있었지만 잠재의식으로 남아있었던 자원봉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과학관이라는 과학문화공간을 택하게 된다. 과학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대해서 그녀는 봉사자로서의 자세 즉, 애타심(다른 사람의 안녕을 위해 봉사활동을

한다), 삶의 질(봉사활동이 봉사자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의무감(어떤 이들은 봉사활동을 시민, 국민으로서의 당연히 해야 할 일로 받아들인다), 신앙심(한층 더 높은 영적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등의 의미보다 ‘자원봉사자의 직계가족 무료입장’이란 말이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한다. 양 도슨트의 과학관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의 시작은 단순히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가족 무료입장이라는 약간의 혜택에서 시작됐지만 그 이면에는 양 도슨트의 생애에 걸쳐 형성된 신념의 반영이기도 하다. 즉 양 도슨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봉사활동으로 가정이 2차가 되는 것을 느끼면서 본인은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내가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꺼리를 찾겠노라’라는 자신만의 원칙이 있었다. 이는 활동이 단순히 양 도슨트 본인의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공감대 형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양 도슨트의 기대는 실제 자원봉사 활동(도슨트 활동을 통한 간접적인 보람, IV-B-2)을 통해서 잘 반영되고 있다.

위와 같이 시작된 양 도슨트의 과학관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차후 도슨트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는 큰 계기를 맞으면서, 단순히 질서유지 등을 지원하는 일반자원봉사 활동이 아닌 전시물을 해설하는 자원봉사 즉, 도슨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 도슨트 활동의 계기

양 도슨트는 일반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관람객들이 전시물을 보고 그냥 지나치거나 잘못 알고, 또는 인술교사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돌아가는 관람객들이 안타깝고 좋은 전시물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 학습하여 약간의 설명을 관람객들에게 한다. 다음은 이러한 것에 대한 인터뷰이다.

내가 일반자원봉사 때, 전시실에 엘라스모사우루스가 천장에 매달려 있어서 다 하늘을 날아간다고 설명을 하는 거야 관람객들이 서로. 근데 패널을 보니까 물속에 사는 거야... 공간이 좁아서 매달아 놓은 것뿐인데... 거기다가 전시한 것을 보고 관람객이 잘못알고 가는 게 보이니까. ‘어뤘! 해설이 필요하구나’하고 느꼈지 그래서 (지구탄생 영상관에서) 3D 안경을 나눠주고 영상을 3분 30초보여주는 그 동안 가서 (살며시) “이거 물속에 사는 거예요. 물속에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Fig. 15 천정에 매달린 엘라스모사우루스

재미있더라구... “물속에 사는 거예요” 하면서 (혼자 생각을 했죠) 이름이 뭔데 엘라스모사우루스, 엘라스모사우루스 뜻이 뭔데 리본도마뱀이래, 애 특징이 뭔데 76개의 목뼈가 있데, 그러면 뭔데 막~ 그렇게 파기시작하면서 이렇게 (도슨트 활동을 하게) 됐지요.

[양 도슨트 인터뷰]

위 인터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양 도슨트가 도슨트로서 활동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부여는 전시물을 관람하는 관람객들의 잘못된 정보습득에 대해 바로 잡아 줄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람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가운데 재미를 느끼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지적 호기심이 유발되면서이다. 위 인터뷰를 통해서 양 도슨트의 도슨트 활동은 교육적 신념이 많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도슨트 활동에 따른 교육적 신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양 도슨트 외 동료 도슨트들의 지원 동기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 과학관 도슨트들의 교육적 신념에 따른 지원 동기

도슨트는 일반자원봉사자와는 다른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자원봉사자이다. 따라서 도슨트 지원자들의 지원 성향을 보면 교육적인 신념이 뚜렷이 나타나 있다(박영신, 이정화, 2011).

도슨트 활동에 대한 교육적인 신념 즉, 단순 자원봉사가 아닌 가르침을 위한 도슨트가 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양 도슨트 외 동료 도슨트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신념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자녀 교육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한 마음에서이다. 이는 앞선 양 도슨트의 인터뷰 사례에서 잘 나타 있는 신념에 따른 동기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지원자일 경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엄마가 과학관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과학관을 방문하게 되는 기회가 다른

아이들 보다는 많게 되고 이것은 과학이라는 딱딱하면서 어려울 수 있는 과목에 대해서 더욱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의 제공이 된다. 또한 엄마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그 과목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도 한다.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 자료준비를 가족의 공동 생활공간에서 함으로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데 이러한 노력은 딸아이의 학교 성적향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다음은 양 도슨트 딸아이의 과학학습에 대한 태도이다.

한번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사암 이암 역암 문제를 틀려서 온 거야 엄마가 교육을 시키는 걸 알거든...<중략> 저는 일부러 펼쳐 놓고 해요. 자료 정리를 할 때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보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어디서 보고 갖고 오기도 하거든... (한번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엄마가 암석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봤는데) 근데 그걸 틀린 거야... 자기 만에 틀린 게 나한테 미안 했나봐 엄마가 하는 걸 틀렸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한 번 더 보고... 요즘 중학교 1학년에 생물이 나오잖아 생물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보기 시작해. 그래서 "엄마는 해야 된다."고 내가 설명을 할 때 (학부모 관람객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양 도슨트 인터뷰]

위 인터뷰에서 나타난 자녀교육에 보탬이 되고자하는 양 도슨트의 의도는 도슨트로서 직접 자녀에게 교육을 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인식되는 간접적인 교육효과를 얻고자하는 바가 크다. 다음은 양 도슨트 아들과 딸이 이야기하는 교육적 도움이다.

연구자 : 그럼 엄마가 그런 활동 하시게 되니깐 자기가 느끼기에 본인(=아들)이 느끼기에 진짜 좋은 거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아들 : 거기에 엄마가 있으니깐 자부심 같은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체험학습 갔을 때 도움 되는 것도 있고 했어요. 학교 수업하고 연관되면서 같이 다니면서 미리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효과도 있었구요.

<중략>

연구자 : 그럼 진짜 좋은 거?

딸 : 어..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구요.

연구자 : 관심? ok. 어떤 관심?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봐봐. 구체적으로 뭐

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지.

딸 : **그 쪽 그 자연 쪽으로**

연구자 : 자연 쪽으로 과학적으로... 그럼 엄마가 이쪽 자연이나 과학 관련된 일을 시작하시면서 혹시 어떤 과목에 대해서 관심을 시작하게 된 거 있었어?

딸 : **과학**

연구자 : 과학? 그래서 엄마가 그 쪽에 일하시는 걸 하니깐 과학이 좋아졌어? 혹시?

딸 : **재밌어졌어요.**

[2011. 04. 02. 양 도슨트 아들과 딸 인터뷰]

위 인터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양 도슨트 자녀들은 엄마의 도슨트 활동이 본인의 학습에 도움이 됨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양 도슨트는 도슨트 활동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많은 체험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러한 체험과정에 늘 가족이 함께한다.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하더라도 늘 주변의 자연에 관심을 갖고 사진을 찍거나 냄새를 맡아보고, 만져보고, 들어보고, 맛을 보는 등 과학을 오감으로 느끼면서 그 자체에 즐거움을 갖는다.

도슨트 활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교육적 도움 외에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양 도슨트의 자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 및 교육활동을 하면서 아들, 딸을 교육현장에 보조를 시킴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한다. 한편, 엄마의 도슨트 활동을 지켜보던 아들은 스스로가 전시해설을 실천하기도 한다(Fig. 16). 다음은 이러한 아들에 대한 남편과의 인터뷰이다.

연구자 : 양 도슨트가 이쪽 일을 하게 되면서 좋은 거 하나만 물어보고 싫은 거 하나만 물어 볼게요. 각 각 하나씩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좋은 거?

남 편 : 좋은 거? 저는 애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

연구자 : 애들의 관심?

남 편 : 그러니깐 S과학관에서 처음 집사람이 도슨트 할 때, 쪽~ 걸어서 설명하러 나가잖아요. 뒤에서 아들이 애들을 데리고 따라가는 거죠.

연구자 : 마치 조교처럼?

남 편 : 뒤에 똑같이 설명하면서 따라가더라고요.

연구자 : 몇 학년 때요? 아들이?

남 편 :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언젠지 3, 4학년 됐을라나?

[2011. 04. 02. 양 도슨트 남편 인터뷰]

아들의 이러한 행동은 전시해설을 친구들에게 함으로서 스스로가 리더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양 도슨트 자신의 전시해설하는 모습에 따른 이런 긍정적인 영향은 양 도슨트가 기대하지 못했던 의외의 교육효과라 할 수 있다.



엄마의 전시해설 모습이 아들에게 자연스럽게 학습 되면서 사회성 형성의 기회제공이 되고 있다.

Fig. 16 양 도슨트 아들의 야외 해설하는 모습

둘째, 자기만족을 위한 지식 습득이다. 도슨트는 관람객과의 최접점에서 과학관의 미션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미션 수행을 위해서 도슨트는 과학관에서 제공하는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고, 본인 스스로도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생활 자체로 연결된다. 양 도슨트는 도슨트 활동의 동기가 관람객의 오개념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이를 위해서 학습하는 가운데 즐거움과 흥미를 느끼는 즉, 지식 습득의 만족감을 갖는다. 다음 인터뷰에서 양 도슨트는 과학관에 전시된 공룡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흥미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혼자 생각을 했죠) 이름이 뭔데 엘라스모사우루스, 엘라스모사우루스 뜻이 뭔데 리본도마뱀이래, 애 특징이 뭔데 76개의 목뼈가 있데, 그러면 뭔데 딱 ~ 그렇게 파기시작하면서

[양 도슨트 인터뷰]

위 인터뷰에서 나타난 양 도슨트의 지식 습득에 대한 열정은 단순히 한 가지 사실을 알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깊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호기심의 반영과 이를 알아가는 즐거움이다. 이러한 지식 습득에 대한 즐거움은 양 도슨트의 동료 고, 홍, 김, 정 도슨트들도 강하다.

연구자 : 선생님은 자원봉사를 하게 된 계기라든지 목적이 뭐예요?

동료 고 도슨트 : 저는 이쪽 관련해서 숲해설을 하고 있어요. 이쪽(=I과학관)에 사람을 뽑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관련된 거니까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얻고 싶어서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하게 됐어요. 1차 공고 났을 때 그때 처음으로

동료 홍 도슨트 : 처음 계기는 전문과정을 여기서 교육으로 시켜주니까 뭔가 더 배워볼 수 있겠다.

동료 김 도슨트 :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박사님 그런 분들의 수업도 많이 받았어요. 분야별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생물학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전혀 몰랐지만 여기 와서 하면서 제가 교육 받고 대중매체나 신문, 방송 등등에서 이런 생물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동료 정 도슨트 : 그렇죠. 우선 우리는 여기서 생물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좋으니까 여기 일을 하는 거지... 생물에 대해서 더 접하고 싶고 하다보니까 더 알고 싶고 그래서 하는 거지 우리는

연구자 : 그것이 도슨트 활동으로 얻어지는 거죠?

동료 정 도슨트 : 그렇죠

연구자 : 그러면 도슨트 활동의 1차적 목적은 지식을 얻고자하는 거네요?

동료 정 도슨트 : 그렇죠 저는 그래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아마

[2011. 03. 20. 동료 도슨트들 인터뷰]

동료 고 도슨트와 홍 도슨트는 현재 숲해설사¹⁴⁾로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얻고자 생물을 테마로 하는 I과학관에 도슨트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도슨트는 일반자원봉사자와는 달리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자인 만큼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특히 지적 욕구가 강하다. 과학관 전시물을 통해서 쉽게 전문지

14) 숲해설사 : 각종 수목원, 휴양림, 공원, 체험학습장소, 도시 숲 등에서 국민에게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자원봉사자

식을 얻을 수 있고, 전문인이 상주해 있으므로 언제든지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는 여건이 I과학관에는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 I과학관에 도슨트로 지원하게 된 동기로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과학관에 전문인이 상주해 있는 과학관은 한정 되어 있다. 즉, 극히 일부 국립과학관 정도의 규모에서 기대해 볼 만한 교육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 습득을 추구하는 도슨트 지원자를 위해서 전문인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학문화 활성화 및 지식의 사회 환원이다. 양 도슨트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도슨트 활동이 사회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활동을 시작했지만 양 도슨트의 행동은 충분히 과학지식의 사회 환원에 대한 신념이 바탕이 되었다. 이는 다음 인터뷰 내용에 잘 반영되어 있다.

전시한 것을 보고 관람객이 잘못알고 가는 게 보이니까. ‘어머! 해설이 필요한 구나하고 느꼈지 그래서 (지구탄생 영상관에서) 3D 안경을 나눠주고 영상을 3분 30초 보여주는 그 동안 가서 (살며시) “이거 물속에 사는 거예요. 물속에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재미있더라구 (그래서 활동을 시작했지)

[양 도슨트 인터뷰]

양 도슨트는 단순히 관람객이 잘못알고 가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에 재미를 느껴서 도슨트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지만 양 도슨트의 행동엔 관람객들에게 올바른 과학적 지식의 전달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편, 도슨트 지원자 중 교직에 몸담고 있었던 지원자들은 자신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신념이 강하게 나타난다. 다음은 학예사와 양 도슨트 동료의 이야기하는 지원 동기이다.

60대까지는 계시죠. 지금은 활동을 그만 두셨지만, 교장선생님으로 정년퇴직을 하신분도 계셨고, 방금 오신 제일 나이드신 분은 대학 강사로... 의상전공이시던가? 강사로 활동하시고 정년을 거의 앞둔 분이 활동하기도 하고, 또 화학전공이나 생물학전공, 지질학전공 이런 전공 졸업자들도 조금 있고 아직까지 제일 많은 건 관심이 있거나 아이의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 과학관의 자

료들이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배워서 가르치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2010. 04. 10. 이 학예사 인터뷰]

처음에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75세가 될 때까지 77세가 될 때까지 내 건 강이 허락할 때까지 할 생각이었지만 가끔 만족하지 못 할 때는 이제 그만둬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느끼죠. 근데 왜하느냐 일생을 과학교육에 몸 바친 사람이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가진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전 국민의 과학화, 과학의 생활화 이런 거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시작한 일이에요.

[2011. 03. 20. 동료 신 도슨트 인터뷰]

동료 신 도슨트는 고등학교 과학교사를 거쳐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도슨트로 과학적 신념이 강했다. 그는 과학관의 전시해설에 대해서 “관람객에게 단순한 이야기 위주로 해서는 안 되며, 과학적 사실, 원리, 법칙, 탐구정신 등을 심어주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돋구어주고 탐구력, 창의력을 고양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전 국민의 과학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지원했다고 이야기한다.

본 장에서는 양 도슨트의 과학관 도슨트 활동의 시작과 동료 도슨트들의 교육적 신념에 따른 지원동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양 도슨트는 과학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도슨트 활동을 하게 된 동기가 어릴적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부모님의 영향도 크지만 자녀의 교육과 관람객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한 흥미가 더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된 과학관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은 양 도슨트에게 훌륭한 전시물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제공됨과 동시에 전시물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관람객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키게 한다(Fig. 17). 즉,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을 비롯하여 지식습득, 과학문화 활성화 및 지식의 사회 환원인 교육적 신념이 양 도슨트로 하여금 도슨트 활동을 하게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같은 교육적 신념은 도슨트를 지원한 양 도슨트의 동료 도슨트에게 함께 나타난 신념이자 동기였다. 양 도슨트를 비롯한 동료 도슨트의 활동 동기에서 나타나 바와 같이 도슨트 지원자들은 일반자원봉사자

들과는 다른 교육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다(김효선, 김경훈, 2011; 민수영, 2007; 박영신, 이정화, 2012). 이러한 열정과 관심이 있는 도슨트이기에 전시해설로서 전시물에 대한 관람객의 오개념 형성을 방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전시물해설을 하는 것이 아닌 가 해석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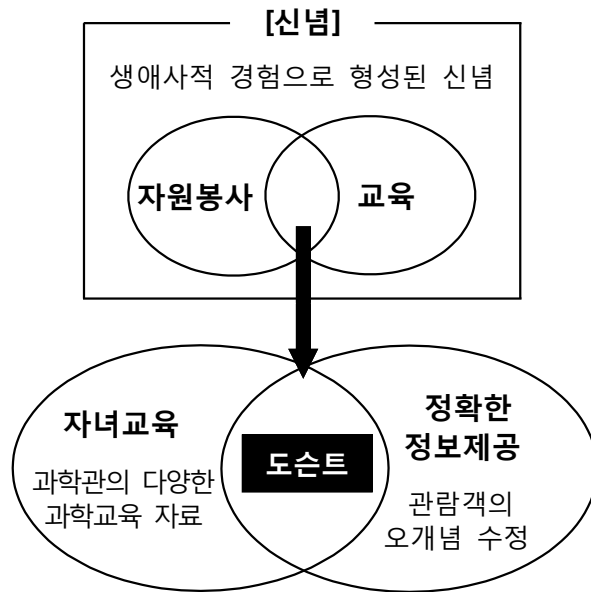


Fig. 17 양 도슨트의 도슨트 활동의 계기

다음 장에서는 양 도슨트가 도슨트에 입문하여 이수하게 된 도슨트 양성과정과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3. 도슨트 양성과정과 운영관리 현황

도슨트는 일반자원봉사자와는 달리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도슨트는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 본 장에서는 양 도슨트가 도슨트에 입문하여 처음 받게 된 양성과정과 도슨트들이 좀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과학관에서의 관리는 어떠한지를 알아보았다.

2000년 ○기 도슨트 교육 계획

구 분	기 간	회 차	제 목	담당자	일 정	비 고
자연사 전문교육 (10회)	2000. 2 ~ 2000. 4	1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및 자연사박물관 개요	○○○ →	기본소양 교육	2시간/회 이상 시 탈락)
		2	지구환경관개요 및 전시물	○○○	2/17, 19 (10:00~12:00)	
		3	생물분야 개요	○○○	2/24, 26 (10:00~12:00)	
		4	고생물학 개요 및 전시물	○○○	3/3, 5 (10:00~12:00)	
		5	식물의 분류 및 전시물	○○○ →	전문지식 교육	
		6	천연기념물 및 보호야생동식물	○○○	- 내용학적 전문지식	
		7	동물의 분류 및 전시물	○○○	3/24, 26 (10:00~12:00)	
		8	표본제작법	○○○	3/31, 4/2 (10:00~12:00)	
		9	곤충의 분류 및 전시물	○○○	4/7, 9 (10:00~12:00)	
		10	전시설명 실습	○○○ →	실 습	
전시장 테스트	2000. 4~5	미 통과 시 재 테스트 (3회 한정)		→	평 가	
수습기간	2000. 5	기존 도슨트 설명 참가 - 월 4회				
예비활동	2000. 6~ 2000.1	8개월의 도슨트 예비활동 평가 (활동비 지급)				
수료식	2000. 1	도슨트 증 발급				

Fig. 18 S과학관의 도슨트 양성교육과정

a. 도슨트 양성과정

도슨트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받은 후 그 자격이 인정될 경우 정식 도슨트로 활동이 가능해진다. 양 도슨트는 2004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의 도슨트 양성교육과정(Fig. 18)을 이수하고 도슨트로서 활동을 시작한다. 그 후 양 도슨트는 활동 범위를 넓혀 3개의 기관에서 실시한 도슨트 양성교육을 이수하여 다양한 지식을 쌓는다. 다음에서는 양 도슨트의 경험을 중심으로 도슨트 양성교육과정을 기본소양 교육, 전문지식 교육, 현장실습 교육, 평가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1) 기본소양 교육

과학관의 도슨트는 과학관에서 전시물과 관람객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자원봉사 자세로 과학을 알기 쉽게 해설(설명)해주는 사람으로 직업인이 아니라 자원봉사자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 양 도슨트는 도슨트 활동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이므로 자원봉사자의 기본소양이 우선 갖춰져야 하는데 동료 도슨트와 자원봉사자들을 보면 과거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젖어 있어 운영에 다소 문제점을 야기 시키기도 한다고 이야기한다. 즉, 현직에 있었을 때 과학관에 미쳤던 영향력이 퇴임 후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 과학관의 직원들에게 업무에 불편을 야기 할 뿐만 아니라 관람객에게도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더라도 기존 과거에 자신이 누려왔던 사회적 대우를 쉽게 잊지 못하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성향은 또 다른 사회 조직 내에 많은 갈등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자원봉사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다.

양 도슨트는 도슨트는 어디까지나 자원봉사자이고 기관에 도움을 주면서 관람객에게는 편익을 제공해야 함을 항상 강조한다. 다음은 양 도슨트가 동료 도슨트에게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세에 대해 인식시키고자 도슨트 활동 카페에 올린 글이다.

우리는 자원봉사자입니다. 본연의 업무인 자원봉사자가 취해야 할 행동은 **관람객이 원하는 관람객의 편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 수가 적든 많은 관계 없이 단 한분의 관람객이라도 적용 대상자가 되어야 하구요. 그 대상자가 어린 아이든 나이가 많은 노년층이든 장애를 갖고 있든 또는 무료 입장자이든 VIP 든 최소한 자원봉사자는 공평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높이 있는 자?를 위함보다 낮은 자?를 위한 활동자임을 상기하셨음** 합니다.

[2010. 11. 15. 양 도슨트 인터넷 카페 게시글]

양 도슨트가 위와 같이 동료 도슨트들에게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세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세가 갖춰 있지 않으면 “활동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 하는 등의 갈등을 겪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다음은 이러한 교육이 지원자들의 기본소양으로 갖춰졌다는 판단 하에 기본소양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례로 주 담당자는 과거 도슨트(=전시해설사) 양성과정에서 기본소양 교육을 소홀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연구자 : 근데 이제 보통 한번정도는 해봤겠지만 하고 나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었어요? 약간 이 사람들이 양성교육과정에 있어서.

주 담당자 : 어... 양성교육과정에 있어서 가장...

연구자 : 어딜 더 해줘야 된다. 강조해줘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주 담당자 :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자원봉사자로서의 그 개념을 정립을 시켜줄 수 있는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연구자 : 그니깐 어떤 소양? 본인들이 가져야 될 소양?

주 담당자 : 네. 기본적으로 소양교육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이미 소양교육은 되어 있다라는 판단 하에 진행을 했지만은 나중에 양성을 하고 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깐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정말 돈벌이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약간 실망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

[2011. 04. 02. 주 담당자 인터뷰]

위 인터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슨트 지원자들이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신념을 갖고 지원을 했을 거라는 인식하에 전시물에 관한 전문이론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으나 지원자들은 전문지식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는 자발적인 의사로 직접적인 보상(급여,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조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도슨트를 일반자원봉사자와 별도로 전문지식이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자로 구별을 하지만 기본은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관람객을 응대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등의 자원봉사자로서의 기본소양 교육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양 도슨트와 주 담당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잘 나타난 것처럼 도슨트에 대해서 자원봉사로서의 인식보다는 개인적 이익이 앞섬으로서 도슨트 활동의 지속성에 대한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2) 전문지식 교육 - 전시물 내용학, 관람객, 전시해설기법

양 도슨트는 도슨트 모집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열정과 지적 호기심이 크게 작용했다. 전시해설을 위해서는 과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만 과학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 이었다. 도슨트 지원자들은 대부분 양 도슨트와 같이 과학에 대해 비전공자들로 주로 도슨트 활동에 대한 열정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과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도슨트는 전문지식 교육내용으로 전시물에 관한

Table 10 자연사를 테마로 한 과학관의 도슨트 양성교육과정 중 전문지식교육 내용

○○○과학관	△△△과학관
1. 생물분야 개요	1. 초본식물 분류, 표본준비과정 및 전시
2. 동물의 분류 및 전시물	2. 목본식물 분류, 표본준비과정 및 전시
3. 식물의 분류 및 전시물	3. 해조류분류, 표본준비과정 및 전시
4. 지구환경관 개요 및 전시물	4. 곤충분류, 표본준비과정 및 전시
5. 곤충의 분류 및 전시물	5. 식물야외조사, 표본제작 및 전시(야외실습)
6. 고생물학 개요 및 전시물	6. 버섯의 분류와 표본제작, 전시
7. 표본제작법	7. 어류분류, 표본준비과정 및 전시
8. 천연기념물 및 보호야생동식물	8. 고생물분류 및 현장실습
	9. 조류분류와 전시
	10. 조류표본준비과정 및 전시이해

내용학적 전문지식(Table 10)에 국한된 교육만을 받고 활동을 하는데(박응희 등, 2009), 실제 현장에서 도슨트는 첫째,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전문지식 외에 둘째, 관람객에 관한 전문지식 셋째, 전시해설기법에 관한 전문지식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연구자는 도슨트의 전문지식 교육 부분을 첫째,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전문지식 교육, 둘째, 관람객에 관한 전문지식 교육, 셋째, 전시해설기법에 관한 전문지식 교육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첫째,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전문지식 교육이다. 도슨트가 전시해설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요로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전문지식은 교육과정 동안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을 모두 전달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주 담당자 : **양성교육이라는 거는 양성교육 안에서 그 사람이 해설사(=도슨트)로서의 활동을 하는 모든 필요한 지식을 물론 100% 다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상 그거는 어려운 거구요. 기본적인 토대라도 다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기본적인 교육을 이뤄주고 활동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인제...**

연구자 : 쌓아 가게끔?

주 담당자 : 네. 해결을 하라고

[2011. 04. 02. 주 담당자 인터뷰]

짧은 교육과정 동안 도슨트 활동에 필요한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전문지식을 모두 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큰 테마위주의 내용학적 전문지식 교육을 실시하고 주 담당자가 이야기 하는 것처럼 도슨트 스스로가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어떤 교재를 참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습방법을 교육시키는 것 또한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전문지식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전문지식은 과학관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도슨트는 그 목적을 과학적 전문지식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잘 전달해야 된다. 다음은 양 도슨트가 전시해설을 하면서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과학관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이다.

‘I과학관이 홍보관이고 생물이 자원이다.’는 개념으로 해설을 해줘야 된다는 걸 깜빡한 거야 그냥 박물관에서 하듯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곳 I과학관에서 재교육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줬어요. “여긴 홍보관이다. 박물관이 아니에요.”라는 설명을 한 타임을 해줬어 그니까 나중에 ‘맞아 내가 그걸 잊어 버렸네’ 그래서 나중에 생물이 자원에 활용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전에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계) 짐게다리를 보고 펜치를 만들고 (알락꼬리마도요) 도요새 부리를 보고 수술용 가위를 만들고 <중략>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내가 재미있어서 들었던 이야기만 했지 ‘그거를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은 안했어요.

[양 도슨트 인터뷰]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전문지식 교육은 도슨트 제도를 시도하는 과학관 모두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전문지식 교육은 모두 과학관의 목적을 잘 반영하기 위한 방향으로 충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최 학예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연구자 : 박물관 미션(=목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떤 거 같아요? 나는...

최 학예사 : 건립목적이요?

연구자 : 네. 그런 거 하는 거 같아요? 양성프로그램에서?

최 학예사 :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양성프로그램에 관한 교육을 의뢰받으면 가자마자 그거부터 물어 보거든요? 혹시 읽어 보셨냐구... 근데 읽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니까 그거를 박물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 안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도슨트하다 보면 사항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여러 사항들이... 왜냐하면 직원도 아니고, 전시해설 하다가 관람객들한테 나오는 질문 인데 그것들을 풀는 게 필요하거든요. 풀고 정리하는 게 필요 한데, 그러려면 미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미션(=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없어요.

[2011. 04. 24. 최 학예사 인터뷰]

위 인터뷰에서 최 학예사는 전시해설이 일관성 있게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도슨트가 과학관의 건립목적에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 전시해설을 듣는 관람객은 단체 관람이 아닌 이상 여가, 자녀 교육, 과학에 대한 지식 습득 등 관람목적이 다양하다. 이러한 자신의 관람목적에 충족시키기 위해 관람객은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슨트가 과학관의 목적에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면 관람객의 질문에 끌려가지 않고 관람객의 관람 목적에 충족시키면서 전시해설은 과학관의 목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관람객에 관한 전문지식 교육이다. 도슨트는 효과적인 전시해설을 하기 위해 관람객의 수, 연령, 관심사, 관람목적 등 관람객의 성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관람객의 성향 파악이 안 되면 도슨트는 어느 수준에 맞춰서 전시해설을 해야 될지 난감해 한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초임 도슨트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다음은 경력 1년 미만인 초임 도슨트가 관람객 성향 파악이 안 되서 겪게 되는 전시해설의 어려움이다.

*주말 같은 경우는 가족단위가 많아요. 이 가족은 어떤 이유로 왔는지 모르지만 애가 가자고 해서 왔는지? 아니면 어른이 가보자고 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가족단위로 오면 해설을 꼭 원하세요. 거의 다 보면 자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른 위주로 해야 될지 어린이 위주로 해야 될지... 아이 위주로 하면 어른에게는 너무 가볍게 느껴져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로 ‘아~ 저 정도 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맡겼나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실 것 같고 또 어른 위주로 하면 아이가 또 막 힘들어하고 하니까 **조울하는 게... 아직 경험이 짧다보니까***

[2011. 02. 19. 동료 조 도슨트 인터뷰]

위 인터뷰에서 초임 도슨트는 전시해설 수준 조절이 어려워 전시해설 진행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따라서 관람객 성향 파악을 위해 양 도슨트는 “관람객의 눈을 마주하고 관람객의 마음을 읽으며 내가 관람객이었을 때를 상기하여 만족할 수 있는 해설을 준비하고 연구한다.”고 이야기한다. 양 도슨트의 관람객 성향 파악은 전시해설 시작에 앞서 관람객과의 가벼운 인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음은 양 도슨트의 관람객과의 첫 대면이다.



Fig. 19 관람객과의 첫 대면

양 도슨트 : 이쪽으로 잠깐 모여 주시겠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관람객(어린이) : 시흥시

양 도슨트 : 시흥시에서 왔어요? 어! 생각 보다는 안 멀다 그치? 선생님은 고양동에서 왔는데, 어디에서 왔어요?

관람객(학부모) : 부천이요.

양 도슨트 : 부천이요? 부천이면 다음 주에도 오셔야 될 것 같아요. (하하하) 여기는 인천시에 계신 분들에게 너무도 좋은 공간이에요. 교과하고도 맞물리구요. 그 다음에 8차 교육 과정(2009 개정교육과정)에 보시면 탐구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유탐구라는 건 요즘엔 ‘꼭 해야 된다.’는 걸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많이 (진행)하구요. 안내테스크 보면 옆에 책자가 하나 누워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어머니께서 가실 때 꼭 가지고 가서서... <중략> 거기에 우리 교과와 관련된 자유탐구라는 것이 연결된 게 너무 많아요.

[2011. 02. 19. 양 도슨트 전시해설 관찰, 과학관에서]

전시해설 시간이 되자 관람객이 서둘러 양 도슨트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 양 도슨트는 이 시간은 어떠한 관람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둘러 본 후 관람객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 관람객의 성향 및 목적을 파악하여 전시해설 방향을 정하는 것 같았다.

[현장노트]

위 관찰에서 양 도슨트는 관람객에게 사는 곳을 물어보고 있었으나 그 짧은 인사 속에서 관람객의 구성을 보고 부모님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 왔음을 파악한다. 관람객의 성향 파악 후 양 도슨트는 부모님의 관심사인 교육과정에 대한 언급을 시작으로 전시물들의 내용이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전시해설의 수준을 조절하여 진행하였다.

셋째, 전시해설기법에 관한 전문지식 교육이다. 도슨트는 과학관의 전시물 해설사로 관람객의 전시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즉 패널을 통해 제공되는 과학적 지식이 관람객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함으로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양 도슨트와 동료 백 도슨트와의 견해를 다음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자 : 근데 그것을 처음 양성교육을 받고나서 현장에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양성교육을 받으셨지만 쉽게 설명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학관 측에서 교육을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동료 백 도슨트 :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초과정에는 필요해요. 전시 도슨트나 해설을 처음하는 특히 과학 쪽의 해설사라고 한다면 시작하시는 분들은 필요하다고

<중략>

연구자 : 그것을 박물관 측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 스스로

동료 백 도슨트 : 네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양 도슨트 :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해줄만한 여력도 없고 (천절교육 정도면 된다고 이해하는 정도의 인식 때문에)**

연구자 : 그런데 저는 그게 많이 필요 할 것 같은데

[2011. 03. 20. 양 도슨트와 동료 백 도슨트 인터뷰]

위 인터뷰를 통해 도슨트 입문자가 과학이라는 전문적 지식을 관람객에게 쉽게 이해시키기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러한 교육은 없었고 도슨트 스스로 방법을 터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시해설기법에 관한 전문지식 교육의 부재에 대해서 양 도슨트는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해줄만한 여력도 없고”라고 이야기 하면서 약간의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었다.

도슨트는 설명문이나 음성시스템과는 달리 관람객에게 학습자의 특성과 연령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수-학습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김효선, 김경훈, 2011; 이병준, 박지연, 2008). 이때 도슨트들이 관람객들의 질문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도록 충분한 배경지식이나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협동학습의 조력자이기 보다는 경찰관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Falk & Dierking, 2000). 따라서 도슨트는 일반자원봉사자와는 다른, 교육을 하는 자원봉사자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 전문적인 지식은 과학관 건립목적이 반영될 수 있는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전문지식은 물론, 관람객의 방문목적, 관심사 등 성향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람객에 관한 전문지식, 쉽게 전시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전시해설 기법에 관한 전문지식이다. 이러한 전문지식에 대해서 도슨트들은 그 필요성을 토로하고 있지만 국내 도슨트 양성교육과정은 단순히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전문 지식에 한정되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3) 현장실습 교육

도슨트의 전문적 지식이 현장에서 잘 발현되기 위해서 도슨트들은 현장실습 교육을 하게 된다. 현장실습 교육에서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세와 전문적 지식이 하나로 융합되어 전시해설로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과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현장실습을 통해서 교육되어야 될 요소를 다음 양 도슨트가 관찰한 야외 전시해설을 통해 알아보았다.

*가리키는 손의 모양엔 공손함이 보였고 서서 맞이하는 자세엔 손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동선을 따라 걸으며 설명 패널 앞에 설 때에도 당신은 땀방울에 서시고 관람객은 그늘로 안내하시더군요. 그래서 어제의 몇 시간에 걸친 대화 속에서 배우고 오늘은 **실전 해설자의 태도와 화법, 몸동작을 보고 다시 배웠습니다.** 마이크는 머리에 쓰는 것으로 활용하며 손동작을 크게 크게, 목소리도 고저를 넘나들며 감성을 싣고 열정을 다하는 해설에 모두 감동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하나라도 더 전달하고자 쟁길음으로 재촉하셨고 종묘의 의미, 문화유산으로의 가치,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 앞으로 나아가갈 방향까지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하시네요.*

[2010. 05. 22. 양 도슨트 인터넷 카페 게시글]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슨트는 전시해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화법, 얼굴표정, 몸동작 등 비언어적인 방법이 사용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관람객을 배려하는 자세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은 현장교육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현장경험이 많은 선배 도슨트들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양 도슨트는 선배 도슨트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학예팀에서는 지식을 체크하고 우리는 노하우를 체크하는 거지 동선부터 해서 자세, 손가락 이런 거부터... <중략> 우리는 그거를... 사실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런 것을 가르친게 정 학예사님이고 그래서 (초창기 때) 정 학예사님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1기는 2기를 양성하고... <중략> 성당에서의 데모, 대부처럼 하는 거지. 2기는 3기를 책임져야하고

[양 도슨트 인터뷰]

위 인터뷰를 통해서 양 도슨트는 선배 도슨트의 역할이 크고, 선배 도슨트의 멘토링이 효과적인 현장실습교육이라고 굳게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 도슨트는 “학예사들은 전문적 지식은 갖추고 있으나 전시해설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현장경험이 풍부한 선배 도슨트가 현장실습을 지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멘토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현재 양성교육과정에서는 막혀 있다고 하면서 아쉬워하고 있었다.

멘토링은 개인의 인성적,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세계에서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것이며, 인격적인 관계 맺음을 통하여 학습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Galbraith & Cohen, 1995). 과학에 비전공자인 도슨트들은 과학이라는 전문지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방법과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관하여 조언을 해 줄 사람을 원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멘토(mentor)이며 그것을 제도화한 것이 멘토링(mentoring)이다(이해주 등, 2006). 따라서 멘토링은 도슨트에게 있어서 중요한 교육방법이 된다. 양 도슨트는 현장실습 교육으로 멘토링에 의한 선배 도슨트의 경험을 중요시 하고 있었다. 선배 도슨트의 다양한 경험은 초임 도슨트도 똑같이 겪게 될 상황으로 전시해설 동안 이루어질 동선, 관람객과의 상호작용, 이해를 돕기 위한 몸짓, 관람객을 배려하는 행동 등이 현장실습에서 교육된다.

(4) 평가

양성교육과정 이수 후 도슨트는 활동의 적합성 여부를 위해 평가의 과정을 거치

게 된다. 평가에서는 양성교육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도슨트의 기본소양, 전문지식, 전시해설 기법 등 다방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다음은 평가에 대한 학예사와의 인터뷰이다.

정량적 기준은 없어요. 기본적인 자격이 인정 되면 통과해요. 뭐 이거이 거이거는 해야 되고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명을 쪽~ 들어 봤을 때, '관람객에게 최소한 이 정도를 하면 문제는 없겠다.'라고 판단되면 견습 도슨트로서의 자격을 주는 거죠. 이 과정을 보고 미흡하다 이리이러한 것이 부족하다싶으면 보충해서 재 테스트 또 부족하면 다시 재 테스트를 거쳐 3회까지는 다시 시험 볼 기회를 드리는 거고

[2010. 04. 10. 이 학예사 인터뷰]

위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슨트 평가는 체크 항목이 있는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전시해설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평가는 도슨트로서 활동 가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하는 목적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한편, 국외 과학관의 평가에 대한 방법은 과학관과 많은 교류가 있는 과학교육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다음은 과학교육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국외 평가 방법이다.

내가 물어봤죠. 거기도 아직까지는 프로그램이 없고, 프로그램들도 들어온다고 그랬어. 프로그램에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이정도면 평가가 끝났다 하는 확실한 거는 없었는데, 어떻게 패스시켰냐고 물어봤을 때 누가 답당을 하나면 위에 있었던 도슨트들이 하는거야. 그 사람들이 OK할 때까지 6개월이 걸린데

[2010 04. 17. 과학교육 전문가 인터뷰]

위 인터뷰를 통해서 국외의 과학관 도슨트 평가도 국내와 같이 정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이할 만한 것은 평가에 있어서 선배 도슨트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그럼 국내의 평가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나? 다

음 양 도슨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제가 회장일 때에는 1기가 참관을 하는 거로 원칙을 정해놨어요. 저하고 저의 나름대로 멘토이신 분이랑 두 사람이 같이 다녔어요. 필 할 때.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저분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어. 그냥 참관해서 자리만 해도 되는 거. 그런데 3기부터는 (담당이 바뀌며) 이런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 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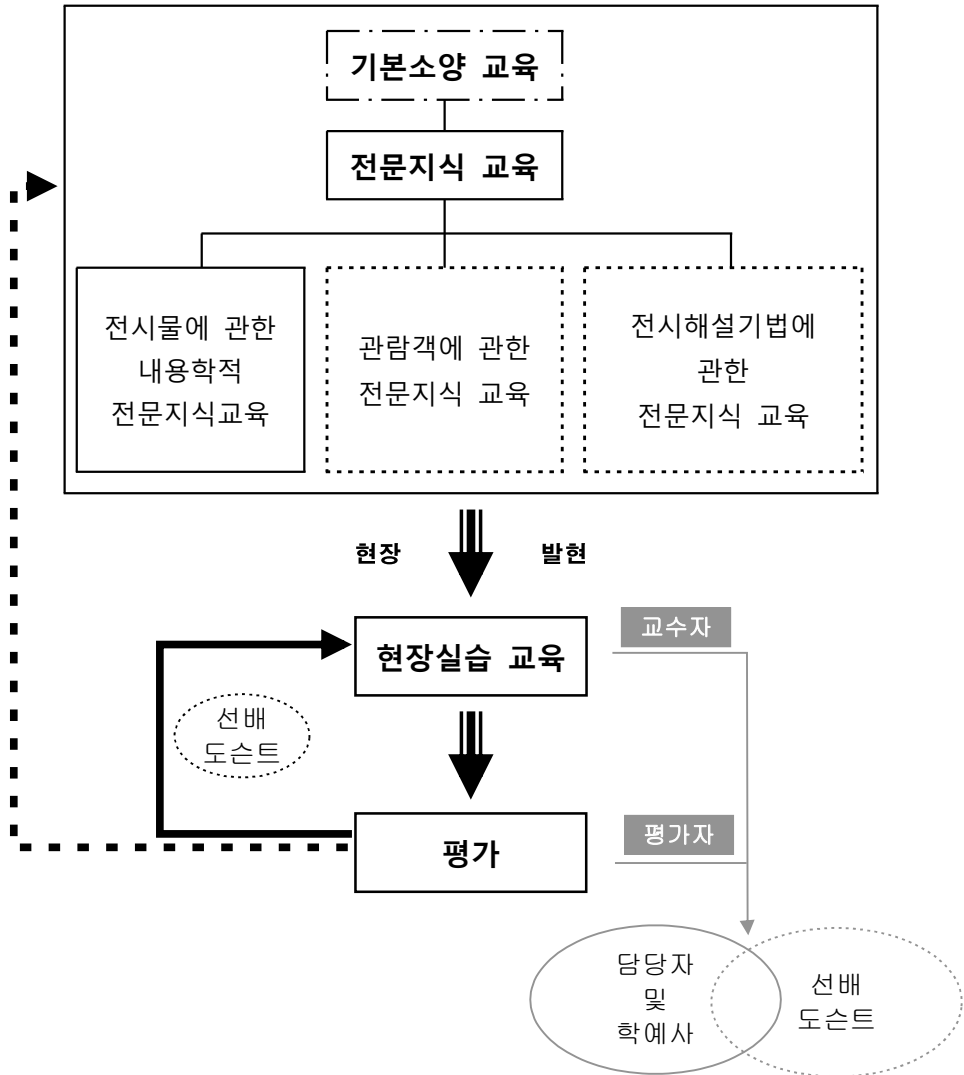
[양 도슨트 인터뷰]

양 도슨트는 평가에 있어서 선배 도슨트의 참관을 원하고 있었다. 선배 도슨트는 선 경험자로서 후배 도슨트들의 실수 혹은 부족한 부분을 이미 경험하고 더 발전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예사들이 놓칠 수 있는 평가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과학관에서는 담당 학예사가 평가하고 통과시키는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평가는 도슨트가 현장에서 활동하기 전에 활동의 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함이다. 그 적합성 측정은 국내외 모두 정량적 측정 보다는 정성적 측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가자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는데, 국내 과학관은 평가에 있어서 학예사의 판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국외 과학관의 경우 선배 도슨트의 평가 참여가 이루어져 있고 그 과정도 선배 도슨트가 활동에 적합성을 인정하기 까지 길게는 6개월이 걸릴 정도로 엄격하다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양 도슨트가 도슨트에 입문하여 도슨트로 활동하기 위해 이수한 도슨트 양성교육과정과 부족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러한 도슨트 양성교육과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Fig. 20과 같다.

도슨트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자로 자원봉사자의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한 교육으로 첫째, 자원봉사자로서의 기본소양 교육을 받게 되는데 기본소양 교육으로 양 도슨트는 관람객을 섬기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었다. 둘째,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전문지식 교육으로 그 분야는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과학관 건립목적이 반영될 수 있는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전문지식,



- : 일부 기관에서 만 편성된 그러나 필요한 교육과정
- ▭ , ○ : 편성된 교육과정 및 교수·평가자
- ▭ (dotted) , ○ (dotted) :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수·평가자
- ≡➡ : 1주기의 양성교육과정 흐름
- ➡ : 교수자에 의한 피드백
- - ■ ➡ : 자체 피드백

Fig. 20 도슨트 양성교육과정 편성

관람객의 방문목적, 관심사 등 성향과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람객에 대한 전문 지식, 쉽게 전시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전시해설기법에 관한 전문지식 교육이다. 이러한 전문지식 교육에 대해서 양 도슨트와 동료 도슨트들은 그 필요성을 토로하고 있지만 국내 도슨트 양성교육과정은 단순히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전문지식 교육에 한정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앞선 기본소양 교육과 전문지식 교육을 통해 습득된 지식이 전시해설로서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교육이 실시된다. 양 도슨트는 현장실습 교육으로 전시해설 동안 이루어질 동선, 관람객과의 상호작용, 이해를 돕기 위한 몸짓, 관람객을 배려하는 행동 등이 교육되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선배 도슨트의 멘토링을 강조하였다.

도슨트는 기본소양 교육, 전문지식 교육, 현장실습 교육을 이수한 후 도슨트 활동의 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받는다. 그 평가자는 현재 주로 담당자 및 학예사로 한정되어 있는데 선배 도슨트를 참관시킴으로서 평가자의 장단점이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즉, 이론과 전시해설 실천 평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해야 될 것이다.

결국, 현재 과학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슨트 양성교육과정은 도슨트가 전문가로 이르는 중요한 첫 입문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과학관의 도슨트의 역사가 짧음으로 인해 정착화가 아직 되어 있지 않고, 과학관의 직원들의 도슨트의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한국기술경영연구원, 2011)으로 인해 정형화된 도슨트 양성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장에서는 도슨트 양성과정 이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b. 도슨트 운영관리 현황

과학관은 그 정의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자연환경과 과학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하는 곳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을 보급한다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과학관은 현 이슈화된 과학적 사건, 홍수·지진 등과 같은 자연 재해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맞춰 전시해설을 하는 도슨트에 대한 심화교육도 계속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도슨트는 다수가 과학에 대해 비전공자이므로 끊임없이 심화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도슨트의 기량이 잘 발휘되기 위한 운영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현 도슨트 관리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과학관으로서는 처음 도슨트제도를 도입하고 양 도슨트가 처음 활동한 과학관의 관리체제를 알아보았다. 다음은 이 과학관에서 도슨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학예사와의 인터뷰이다.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재발급을 하는데요. 도슨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증을 받고 1년 동안 활동에 대해 평가를 했을 때 매년 적절한 시기에 활동을 하고 중간에 하는 지속적인 교육, 세미나, 답사 같은 활동들을 잘 참여 하면 다시 1년 후에 그 해에 해당되는 도슨트증을 드리는 거예요. 임명장과 함께 매년 발급을 해줘요. 1년 단위로 재검증을 매번하는 거고 그때마다 1년씩 성실히 활동을 하면 그 다음해에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죠. 2004년에 한 계 1기인데 지금도 1기분들이 활동을 하세요.

[2010. 04. 10. 이 학예사 인터뷰]

1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해서 도슨트 활동을 관리하고 있다는 이 학예사는 “도슨트 심화교육으로 1년에 5회 외부 강사를 섭외하여 과학적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질적관리와 심화교육은 안이한 생각에 빠질 수 있는 도슨트에게 긴장감을 주게 된다. 이런 관리를 위해 과학관에서는 도슨트 운영관리(Fig. 21)가 마련되어 있었다. 과학관 도슨트 운영관리(Fig. 21)에서는 정기적 심화교육의 실시와 참여권고 및 도슨트 활동 의무시간을 정함으로서 책임감을 부여하고 중도 휴직자 등을 위해서 적절한 보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관이 있는 반면에 아직 많은 과학관이 도슨트 운영에 대한 체계가 잡히질 않아서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슨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음은 도슨트 양성교육과정 이수 후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다소 실망을 안고 있는 도슨트와의

구분	정의	교육내용	기간	비고
신입교육	도슨트 지원신청서를 내고 도슨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육	자연사전문교육 10회(학예사)	3개월	2시간/회 (3회 이상 결석 시 탈락) 미통과 시 재테스트 - 3회 한정
		전시장 테스트		
		수습 기간	1개월	기존 도슨트 설명 참관 - 월 4회
		도슨트 예비 활동	8개월	8개월의 활동 평가 후 도슨트 증 발급
정기교육	대상에 따른 적절한 교육 있는 자에게 매년 실시되는 교육	자연사전문교육 5회	매년	2시간/회, 외부전문가 등
휴직자 복귀교육	도슨트 활동을 휴직 (3개월-12개월 이내)한 자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받는 교육	전시장 테스트	수시	미통과 시 재테스트 - 3회 한정
재교육	도슨트 활동의 부족함을 지적받은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활동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14시 (1회 전시설명시간 약 50분 소요) ⇨2010년 현재 주말 2회 해설운영 - 설명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도슨트 책상(지정장소)에서 대기하여 관람객과의 소통 및 질의문답 형식을 통한 개별적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준다. 			

Fig. 21 도슨트 운영 관리

인터뷰이다.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꾸준히 해주는 것은 없는 것 같구요. 개인적으로 자체적으로 관에서 선생님(=도슨트)들끼리 하시거나... 저희 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2011. 02. 19. 동료 최 도슨트 인터뷰]

동료 최 도슨트는 처음 양성교육과정 이수 후 전시해설에 필요한 정보는 동료 도슨트들이 모여 스터디를 통해서 습득하고, 실제 과학관에서는 심화교육과정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양 도슨트는 “과학관 담당자가 도슨트 운영에 대해서 경험이 없고 과학관 자체에서도 도슨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결국 과학관에서는 18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양성교육의 미흡으로 절반이라는 숫자가 포기했던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도슨트는 과학관의 교육의 일부를 담당하는 교육자이다. 따라서 1회성 양성교육으로 도슨트의 전문지식에 대한 질적관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양성교육 이수 후 꾸준한 심화 교육 등 운영관리가 체계적일 필요가 있는데 일부 과학관을 제외하고는 경험의 부족과 운영관리의 미숙으로 도슨트 지원자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느끼게 하고 있었다. 과학관에서는 도슨트를 활용한 전시해설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양성하고 있다. 필요성을 인식하는 만큼 도슨트가 충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한 심화 교육 등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음 장에서는 양 도슨트가 도슨트에 입문하면서 느끼게 된 도슨트에 대한 인식과 주변인이 인식하는 도슨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4. 초창기 인식된 도슨트 정의 및 역할 - 체계적이지 않은 인식

도슨트(docent)는 라틴어 'docere'에서 파생된 것으로 '가르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1987년도 랜덤 하우스의 영어 사전(The Random Hous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e)에서는 ‘전시회의 설명을 하며, 박물관을 안내하면서 특별히 관람객을 인도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어있고, 외국의 과학관의 경우 다음과 같이 도슨트를 정의하고 있다. 도슨트란 ‘관람객들에게 교육적 정보 제공을 위해 전시해설을 하거나 교육프로그램 및 전시부스 곁에서 고정되어 설명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과학과 그들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잘 하도록 돕는 차원의 역할을 주요활동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National Docent Council, 2001).

도슨트는 1845년 영국에서 처음 생긴 뒤, 1907년 미국의 보스턴 미술관(Boston Museum of Fine Arts)에 이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된 제도이다(이철희, 2009). 국내 도슨트는 1995년 미술관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최근 박물관과 과학관으로 점차 확대 되어가고 있고 과학관의 도슨트 활동은 양 도슨트가 과학관에 도슨트로 입문 후 대도시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 확산속도만큼 도슨트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초기엔 양 도슨트 자신은 물론 관람객 및 동료 도슨트도 도슨트 활동에 대해서 인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전시해설을 하는 자원봉사

다음은 양 도슨트가 이야기하는 그녀의 초창기 도슨트 활동에 대한 생각이다.



Fig. 22 2004년 박물관 대회 참여 명찰

“내가 저걸 어떻게 해” 전혀 모르는 내용이니깐. 하다못해 전문용어 자체를 모르는 상텐데, 전문서적 어떤 걸 봐야하는지도 모르는 거. <중략> 그 다음에 박물관 대회가 있었잖아요. (정 학예사님이) 코엑스로 저희를 데리고 갔어요. (과학관의) 굉장한 반대를 무릅쓰고 비용을 데서. 우리가 뭘 알겠어. 영어의 영자도 모르는데, 줄다가 나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왜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이 분위기를 익혀라. 이 분들이 생각하는 선생님(=도슨트)들은 대단한 거다.” 그런데 정말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들 생각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다른 나라는 대단하구나.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양 도슨트 인터뷰]

양 도슨트는 자원봉사와 교육에 대한 신념에 의해 도슨트로 활동하게 되지만 초창기 그녀 자신도 도슨트 활동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즉, 자신의 활동이 단순히 과학관의 자원봉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물관 종사자들의 세계적인 행사인 박물관 대회의 참여를 계기로 자신의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낸다.

· 생소한 용어

도슨트에 대한 인식은 양 도슨트 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에게도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음이 다음 인터뷰에서도 나타난다.

제가 처음 도슨트라는 것을 시작할 때만 해도 도슨트가 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해설사라면 뭔가 학식이 높고 해설비를 받는 어감이었고, 나레이터나 큐레이터, 가이드 같은 경우엔 직업인이란 인식이 많았었으니 해설에 한계가 있었지요.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자원봉사자로서 해설을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믿기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어느 관람객은 실제 물었어요. **“정이 [도]씨고 이름이 [슨트]예요? 참 특이하 다!”**했지요. 지금에야 어디든 도슨트 또는 전시전문해설사라는 이름으로 해설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으며 없는 곳의 경우 뒤떨어지는 운영이라 여길 정도이지요.

[2010. 05. 22. 양 도슨트 인터넷 카페 게시글]

위 같이 초창기에는 도슨트라는 용어자체도 관람객에게 낯설게 느껴졌을 뿐더러 전시해설을 위한 지식을 갖추고 봉사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여가를 위한 자원봉사

도슨트는 과학관을 방문한 관람객을 자신의 손님으로 여기면서 이들의 편안한 관람을 안내하기 위한 과학관 주인으로서의 인식이 반영되어야 할 자원봉사자이다. 즉, 자원봉사자는 민간기관, 공공기관, 사회행동, 사회복지 문제에 관련된 자조집단 등에 아무런 보상 없이 규칙적으로 자신의 시간, 에너지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Baldock, 1990) 도슨트는 이러한 자원봉사자이다. 도슨트는 일반자원봉사자와는 다른 전시해설이라는 전시물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하지만 그 위치는 자원봉사자이다. 그러나 양 도슨트는, 도슨트는 자원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초임 도슨트를 보면 ‘자원봉사자가 뭐 어렵냐고, 내가 좋아서 나온 걸...’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등 자원봉사자의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다음은 초임 도슨트가 생각하는 자원봉사의 개념을 양 도슨트를 통해 알아보았다.

자원봉사를 되게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거야. 자원봉사는 그냥 자기가 좋으면 나와서, 그냥 자기가 여유시간에 커피한잔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 같아. 그게(=자원봉사자의 인식)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지금 좀 그게 우리나라에서 심각해요 사실은.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러 나왔는데 뭘 규칙이 이렇게 많고... 아니 박물관, 과학관입장에서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약속을 지켜야... 그런데 그 개념이 희미해져 가요. 점점 밑으로(=아래 기수로) 내려 갈수록 (교육 부족과 선배들과의 교류 부족이 원인이 돼서)

[양 도슨트 인터뷰]

위 인터뷰 내용에서와 같이 자원봉사에 대한 안이한 생각에 대해 양 도슨트는 자원봉사를 내가 하겠다고 보통 신청서를 내고 그만 두지 않는 한 그 기관에서 필요한 사람이여야 되고, 여가를 활용해서 자신의 생활에 피해가 안 되는 범위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자원봉사는 자신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투자 하고 자신의 생활에 피해가 안 될 수 없다고 한다. 즉,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 자체가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자신의 휴식시간 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생계를 위한 직업

도슨트는 자원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지식을 요하는 자원봉사자이기에 지원자 중에는 직업의 개념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 과학관협회에서 과학해설사 모집 및 양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던 주 담당자에 따르면 도슨트는 자원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과학해설사(=도슨트) 모집에 지원한 사람들에 대해 적지 않은 수의 지원자가 자원봉사 개념이 약하다고 한다. 즉 도슨트 지원자들을 보면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이를 통해 자신의 경력을 쌓아서 더 좋은 급여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중도 포기자가 많다고 한다. 다음은 도슨트 담당자를 통해서 알아본 도슨트 지원자들의 도슨트에 대한 인식이다.

주 담당자 : 제가 생각하는 도슨트는 과학관에서 아이들에게, 관람객들에게 해설이라 던지 교육을 전담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니깐 물론 봉급을 받고서는 일하는 형태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자원봉사자 형태가 많고요, 자원봉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다 열정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못 받더라도 할 용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자원봉사자라는 생각이 강하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일반 관람객이나 아니면 도슨트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생업으로 생각을 하시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중략>

연구자 : 그런 사람이 도슨트 만약에 한 100%로 치면 그런 사람은 몇 %라고 생각해요?

주 담당자 : 100에 30이면 많겠죠.

연구자 :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주 담당자 :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활동을 안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제 판단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아~ 이게 돈이 될 거 같다 해서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보니까 돈이 되지가 않네. 괜히 받았네. 활동을 안 하거나, 아니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이 활동을 하면서 협회에서 인정을 하는 과학 해설사나 아니면 다른 해설사 과정을 좀 더 하려면 내 급여가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는 거죠.

[2011. 04. 02. 주 담당자 인터뷰]

위 인터뷰에서 나타난 일부 도슨트들의 도슨트에 대한 개념은 전문지식의 활용을 봉사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주 담당자는 도슨트는 자원봉사자라는 생각이 강하고 지원자들이 자원봉사 개념을 갖고 지원을 한 경우 활동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한다.

본 장에서는 초창기 도슨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인식은 잘 정립되어 있지 않았는데 양 도슨트 자신도 도슨트 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고, ‘도슨트’라는 용어 자체부터 낯설게 느낀 관람객, 도슨트 활동을 여가의 한 방법으로 활용한다는 개념과 도슨트의 지식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지원자들이 많았던 것이다. 이러한 도슨트에 대한 미인식이 점차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는 양 도슨트의 본격적인 도슨트 활동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양 도슨트가 진정한 도슨트로 성장해가는 과정과 도슨트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B. 거친 바다로 - 도슨트 활동과 진정한 도슨트로의 성장

양 도슨트는 약 6개월간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격적으로 도슨트 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과학에 대하여 비전공자인 양 도슨트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운영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과학적 지식에 늘 부족함을 느낀다. 과학관에서의 교육지원은 양 도슨트의 생각과는 달리 충분하지 않고 학예사들의 도슨트에 대한 인식도 낮음을 느끼게 된다. 결국 양 도슨트는 도슨트 활동과 효과적인 전시해설을 위해 다양한 지식습득을 위한 거친 바다로 뛰어들게 된다. 본 장에서는 도슨트 활동의 거친 바다에서 양 도슨트가 느끼는 좌절은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게 하는 성공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또한 이러한 경험 속에서 양 도슨트가 과학적 지식의 습득과 성공적인 전시해설을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형성하게 되는 실천적 지식 즉, 경험을 통해 형성된 실천적 지식은 무엇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람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전시해설 전략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확대되어 가는 도슨트 활동 속에서 도슨트에 대한 인식은 점차 어떠한 변화를 거치는지 알아보았다.

1. 좌절 - 도슨트 활동의 시련

열정으로 충만 된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활동은 자신이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 다음에서는 양 도슨트의 활동에 있어서 시련으로 다가 왔던 경험을 중심으로 과학관 내에서 느끼는 좌절과 개인적으로 느끼는 좌절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a. 과학관 내에서 느끼는 좌절

양 도슨트는 도슨트 활동을 하는 가운데 과학관 관계자들의 도슨트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좌절을 느끼게 된다. 이 좌절은 과학관 내의 관리자와 일반자원봉사자와의 갈등 및 부족한 도슨트 활동지원에 대한 것으로 이를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 과학관의 관리자와의 갈등

양 도슨트의 적극적인 도슨트 활동은 과학관에 많은 제안으로도 이어진다. 한때, 도슨트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좌절의 경험을 겪는다. 담당자의 도슨트 관리와 평가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이 없는 운영에 대해 “활동에 적합한 사람을 뽑자 2기를 잘못 뽑으면 그 다음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다.” 강한 어조로 말을 했지만 잘 수용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양 도슨트는 ‘친정 같은 활동지에서 열정적으로 쓴 소리와 옳다 여기는 부분의 강조, 그리고 건의와 개선 요구는 투쟁? 같기도 했다.’고 이야기 한다. 이런 힘든 환경에서 ‘내가 왜 이렇게 까지 해야 하지?’를 계속 반문하기도 하고, ‘그만 두면 되는 것을...’이란 생각도 여러 번 하게 되지만 양 도슨트가 이러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관람객들이 도슨트의 전시해설을 듣고 과학관에서 즐거움을 갖고 돌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과 어려운 많은 시간을 지내고 나니 신의가 쌓이고 보람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한편,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 중에 발견된 전시패널들의 오류에 대한 수정, 학습

지 개발 등에 있어서 과학관 측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의견들이 잘 반영되지 않음에 양 도슨트는 좌절을 느끼게 된다.

· 과학관 내 일반자원봉사자와의 갈등

양 도슨트의 과학관에서의 좌절은 동료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도 느끼게 된다. 즉, 동료 자원봉사자들은 도슨트에 대해 그 전문성을 인식 못하고 그들과 똑같은 개념으로 인식함에 따라 그 갈등은 커져만 간다. 다음은 도슨트의 활동에 대한 일반자원봉사자들의 발언이다.

“당신들이 뭘 한다고 그래?” “하려면 너나 하지? 자원봉사 하러 와서는 왜 그리 나대나?”

“과학관에는 해설이 필요 없어! 그냥 자원봉사자의 숫자만 채우면 보기에 좋지 뭐!”

“하루 온종일 해봐야 1만원의 실비 받는데 무슨 열정을 그리 쏟는가?”

“그냥 와서 시간이나 때우고 서성이다 가면 되지 뭘 그리 하려고 일을 만드나?”

“열정 많은 당신이나 하슈! 누구보고 하라 마라 옳다 틀리다 하는 거야!”

“해설 나도 하겠네... 지금도 우린 해설하고 있는데 뭘 그리 특별한척 하는 거야?”라고들 하십니다.

[2010. 07. 02. 양 도슨트 인터넷 카페 게시글]

일반자원봉사자들의 따가운 시선에 대해 양 도슨트는 과학관에는 여러 분야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고 그중에는 중복되는 업무와 활동으로 인한 오해와 마찰이 불가피 했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 도슨트는 일반자원봉사자들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서로의 활동에 대해 존중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다고 한다.

· 부족한 도슨트 활동지원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을 위한 전문지식을 채우기 위해 주변에 도움을 구하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다음은 양 도슨트의 초창기 지식습득에 대한 어려움이다.

너무 어렵게 배워서... 아무도 가르쳐 주는 게 없었어요. '무슨 책, 무슨 사이트를 봐야지 정확한 내용이다.' 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양 도슨트 인터뷰]

위 인터뷰에서 나타난 것처럼 양 도슨트는 부족한 지식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지만 과학관 내 학예사들의 도움도 받기가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학예사들은 도슨트에 대해 전문지식의 필요성 보다는 단순히 전시물을 설명할 정도의 지식만 갖추면 된다는 인식으로 과학관에서는 도슨트에 대해 심화교육 실시와 전문자료 제공 등 교육지원이 없었다고 양 도슨트는 이야기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양 도슨트는 인근 과학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참가하거나 다양한 과학관을 방문하여 전시물을 관람하는 등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과학관도 마다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는 어려움도 감수한다.

양 도슨트는 관람객과의 소통의 한 방법으로, 도슨트 자신의 전시해설에 대한 마음가짐에 있어서 전시관 내 도슨트 책상 설치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즉, 전시해설 시작 전에 미리 와서 책상에 대기하고 있으면 관람객들이 “아 저건 뭐지?”하면서 쳐다보고 그러다 보면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전시해설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고 전시해설 이후에 이어질 관람객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공간적 배려라고 한다. 또한 때로는 봉사를 하러 나왔는데 하기 싫어질 때, ‘오늘은 해설 좀 없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쉬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희망이 여러 번 반복 되면 최선을 안 하게 되기 쉬운데 관람객의 시선에 놓임으로써 항상 긴장을 하게 되고 전시해설에 좀 더 충실하고자하는 자세를 갖게 된다고 양 도슨트는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책상에 대한 의미를 잘 인식하지 못했던 당시, 설치에 있어서 양 도슨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안내 데스크 옆에 있다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구석구석 왔다갔다 한 거야. 그니깐 화장실 옆에 있다가. “그것 좀 치우지 마세요.” 그런 게(=이유) 뭐냐면.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과학관에 가면 도슨트 책상이 전시관 안에 없어요. 도슨트실 안에 있지.

[양 도슨트 인터뷰]

작은 책상 하나이지만 관람객과 도슨트에 있어서 홍보와 소통이라는 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못 잡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양 도슨트는 과학관 측에 강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 관리자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도슨트 활동을 바라 봤으면 관리자 측에서 먼저 설치하고 자리를 잡게 해줄 수 있었을 것이다.

도슨트 활동지원에는 위 두 사례 외에 활동비 지원이 있다.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교통비 정도의 지원이다. 그런데 활동비 지원이 도슨트가 어느 소속의 지원으로 활동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면서 같은 과학관에서 도슨트 활동을 하면서도 그 활동비가 다르게 지급되고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 도슨트 외 동료 도슨트들은 자신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도슨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지만 같은 전시해설을 하면서 다르게 지급되는 활동비에 대해서는 어느 기준을 정해서 일괄적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한편, 양 도슨트는 활동비 지원 외에도 과학관측이 도슨트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이야기한다. 전시해설 활동시간 만큼은 무료주차를 지원하거나 일반차량 통행제한으로 돌아서 가야되는 부분에 대해서 통행스티커를 발부하는 등의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

b. 개인적으로 느끼는 좌절

양 도슨트의 도슨트 활동에 대한 좌절은 개인적인 심리적 갈등에 의해서도 느끼게 된다. 본 장에서는 실력이 미흡한 도슨트의 활동에 대한 아쉬움과 외래어로 표기된 전문용어의 어려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 실력이 미흡한 도슨트의 활동

과학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과학관 자체교육인 전시해설 및 탐방교육, 주제별 교육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강사들이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과학관에서 교육을 하는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Fig. 23).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양 도

슨트는 우려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즉, 과학관을 비롯해서 박물관, 출판사 등에서 계획성 없는 교사(도슨트, 체험 교사 등) 양성으로 너무 난립해 있고, 심화교육 및 평가 등 관리측면에서도 꾸준히 이뤄지지 않아서 그 결과 전시해설사의 실력에 문제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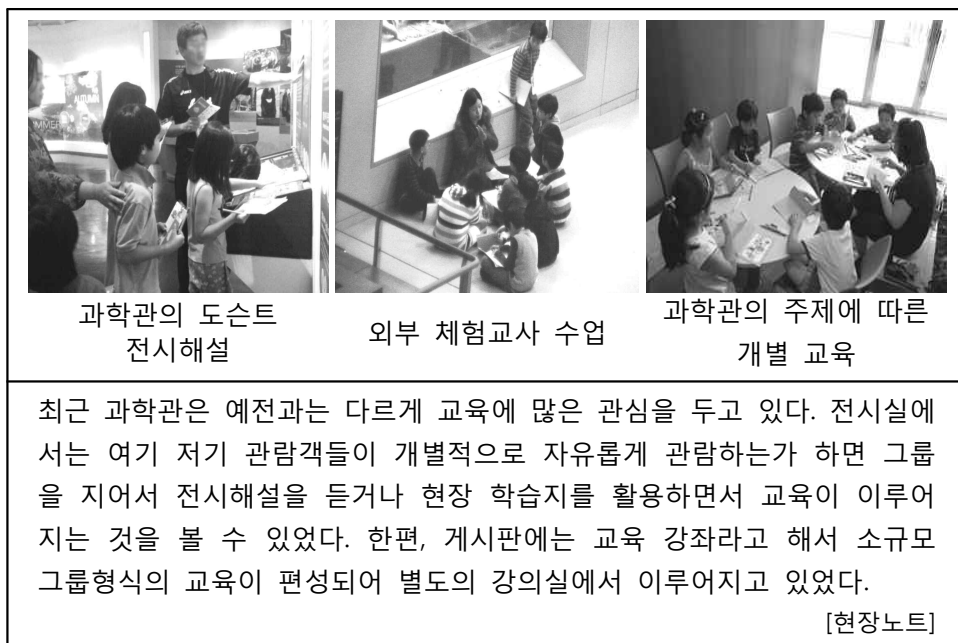


Fig. 23 과학관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학습

선진 사례를 보면 뭐 일정... 어느 정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준다던가 학위를 인정해 준다던가 뭐 어찌고저찌고 하는 부분들이 아~ 우리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사람들, 알짜배기들을 키워 내야 된다고 바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제일 심각한 것은 너무 난립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양성에) 투입이 되어 있어요.** 해설자, 도슨트... 도슨트는 기관에서 뽑으니까 숫자로 파악할 수 있지만 **해설사라는 것과 체험 교사라는 것은 숫자로 (활동자가) 파악이 안 돼요.** 세금을 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관에서 득 되지 않은 것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온갖 교육을 (검증 없이) 하고 다니면서 일부가 물을 흐리는 거죠.** <중략> 그래서 예를 들면 해설사나 체험학습교사를 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는 인증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박물관 도슨트래.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인정을 해

버리니까. 엄마들은... 그게 문제죠.

[양 도슨트 인터뷰]

양 도슨트는 도슨트의 경우 과학관 소속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시해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지만 외부에 의뢰를 받고 모집된 수강생을 대상으로 과학관 전시해설을 하는 체험 교사를 보면 전시해설사로서 지식적인 면이나 자질에 문제를 갖고 있는 교사를 더러 본다고 한다. 따라서 양 도슨트는 난립되어 있는 현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실력 인정제도가 있어야 됨을 이야기한다. 한편 양 도슨트는 동료 도슨트들에게 스스로의 질적관리를 위해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즉, 양 도슨트는 활동하는 과학관에서 전시해설보다는 좀 더 심층적인 교육을 위해 특별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담당 강사로 도슨트를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동료 도슨트에게 실력을 인정받아서 활동을 하자는 제안을 한다.

투어라는 거를 하더라도 우리가 실력이 없는데 도슨트를 열심히 해서 투어를 하는 것과 도슨트를 열심히 했는데, 실력이 출중해져서 투어를 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나는 명분을 주고 싶었어. “선생님들 부담스럽고 힘들겠지만 테스트 다시 받으시다. 그래서 우리 실력을 인정받으시다.” 그래서 테스트과정에 학예사들이 참여 해 준거야. “해주세요.” 해서 했어요. <중략> 그런데 그 중에 내가(당시 도슨트 회장이었음) 정한 원칙이 있었지. 각 4명의 학예사가 모두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였어. 한사람이라도 통과 안 시키면 재차 하는 거고.

[양 도슨트 인터뷰]

양 도슨트는 스스로도 평가 받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실력을 인정받음으로서 도슨트의 질적 관리를 꾀하는 것이다. 양 도슨트가 현재 질적 검증이 안 된 도슨트의 난립을 우려하는 것은 비실력 도슨트의 잘못된 전시해설로 인해 관람객에게 잘못된 지식전달과 혼란의 초래이다.

· 외래어로 표기된 전문용어의 어려움

양 도슨트의 좌절은 전문용어의 외래어 표기에서도 겪게 된다. 즉, 다양한 곳에서 활동은 전시해설에 따른 전문이론지식 외에 영어와 한문이라는 또 다른 지식을 필요로 했다. 영어와 한문은 양 도슨트에게는 커다란 난관으로 다가왔다. 다음은 이에 따른 인터뷰이다.

근데 하다보니까 한계에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과학관에서는) 영어도 (실력이) 안 되니 한계에 부딪힌 거야 <중략> 역사박물관인데 한문도 모르겠지. 정말 나는 영어 피해서 역사박물관에 갔는데 한문이 막히는 거야 관두려고 할 때가 있었는데 아들이 그랬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을 거예요. 허락을 받아야겠더라구 "엄마 관둬야겠다." 그랬더니 조그만 게 정색을 하면서 "엄마 그럼 나도 학원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 둘 거야" 이렇게 애가 딱 한 마디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더 하게 됐죠. (동기) 김 선생님도 관두려고 했는데 애들이 "왜 엄마 관두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이렇게 가족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는 (내 전시해설하는 것을 보고 관람객이 개별적으로 교육을 해달라고) 손님들이 찾아오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고만두려다가 계속하게 됐어요.

[양 도슨트 인터뷰]

전시해설에서 자주 언급되는 영어와 한문 표기는 양 도슨트에게 도슨트 활동 지속 여부를 고민하게 할 정도로 큰 어려움으로 다가 왔다. 영어와 한문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양 도슨트가 굉장히 힘들게 느꼈던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책으로 양 도슨트는 활동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갖기도 하지만 어린 아들의 충고 아닌 충고에 충격을 받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

본 장에서는 양 도슨트가 도슨트 활동에서 느끼는 좌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좌절은 도슨트 활동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관 내에서 느끼는 좌절과 개인적으로 느끼는 좌절로 나타났다. 양 도슨트가 과학관 내에서 느끼는 좌절은 도슨트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발생한 도슨트 활동지원의 미흡함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관은 도슨트의 활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슨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도슨트 활동을 위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김효선, 김경훈, 2011; 박영신, 이정

화, 2012), 이러한 환경 구축은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의 전시해설 환경에 대한 지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양 도슨트가 도슨트 활동에서 느끼는 자신의 내적 갈등은 양 도슨트가 관람객들에게 좀 더 질 좋은 전시해설을 하고자 하는 신념과 자신의 지적 한계에서 느껴지는 좌절로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 형성에 있어서 도슨트 자신에 대한 지식 형성 맥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초임 도슨트 보다는 경력 도슨트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를 극복하고 도슨트 활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도슨트에 대한 열정과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양 도슨트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양 도슨트가 활동의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도슨트 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성공이라는 즐거움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2. 성공 - 도슨트 활동의 즐거움

양 도슨트가 좌절의 경험을 극복하고 도슨트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에 대한 신념뿐만 아니라 도슨트 활동을 통한 성공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양 도슨트가 도슨트 활동을 통해서 느끼는 직·간접적인 보람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a. 도슨트 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보람

양 도슨트는 도슨트 활동을 하는 가운데 전시해설을 통해서 생활의 활력을 느끼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즐거움을 느낀다. 다음에서는 양 도슨트의 직접적인 보람을 전시해설 자체에서 얻는 기쁨, 전시해설을 듣고 만족을 느끼는 관람객들의 반응, 동료 도슨트들과의 교감으로 구분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 전시해설 자체에서 얻는 기쁨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 시작은 관람객이 전시물에 대해 잘 못된 정보를 얻고 가

는 안타까움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을 통해 관람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전시해설을 통해 즐거움을 얻고 있었다. 다음은 전시해설에 대한 양 도슨트의 즐거움의 표현이다.

그 과학의 원리와 가라루과가 왜 닥터피시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를 알려 주고 싶지는 안으신지요? 제 오지랖에는 알려주고 싶어집니다. 해서 저는 해설이 즐겁습니다.

[2010. 05. 01. 양 도슨트 인터넷 카페 게시글]

위 카페 게시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 자체에 대해 즐거워하고 있다.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을 관찰하면 전시해설 속에 양 도슨트는 오직 관람객과 전시해설에 집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전시해설을 하고 나면 양 도슨트는 “기분이 안 좋더라도 풀린다.”고 이야기한다. 즉,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을 통해 생활의 활력소를 얻고 있다. Csikszentmihaly(1997)는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삶에 뛰어드는 사람의 성격을 ‘자기목적성’으로 칭찬해 있다고 말한다. 그 일 자체가 좋아서 할 때, 그 일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를 우리는 ‘자기목적성’이라고 한다. 양 도슨트는 도슨트로서 자기목적성으로 칭찬해있었다. 이러한 전시해설에 대한 즐거움은 동료 도슨트들도 함께 하고 있었는데, 다음은 동료 도슨트가 예비 도슨트들을 대상으로 전시해설을 마치고 도슨트 휴게실에 들어오는 장면이다.

어제는 ○○선생님께서 몇 분의 자원봉사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러 시설물 위치와 전시관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해설을 하시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들어오시는 모습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저까지 행복했습니다. 두어 시간을 웃는 모습으로 해설 하셨을 ○○님의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하셨고 쉽지 않은 내용일진데 해설과 안내를 받으신 선생님들은 고맙고 즐거웠다는 말씀을 반복하시며 또 가득한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는데 느껴지는 엔돌핀과 열정은 젊은이 못지않았습니다.

[2010. 03 21. 양 도슨트 인터넷 카페 게시글]

위 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도슨트들은 전시해설 자체에서 즐거움을 갖는데, 자신들의 열정을 전시해설에 쏟음으로서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자신의 개인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 전시해설을 듣고 만족을 느끼는 관람객들의 반응

양 도슨트가 전시해설에 대해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시해설에 만족을 느끼는 관람객이 있기 때문이다.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을 관찰하면 양 도슨트는 관람객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즐거움을 갖고 있는데 다음은 양 도슨트의 관람객에 대한 배려와 그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관람객과 양 도슨트이다.

이제는 해설 있다 방송하지 않아도 (관람객들이) 물려줍니다. 조금이라도 늦을 수 없을 만큼 일찌감치 오셔서들 기다리기도 하시죠. (저는) 하나라도 더 전하고 싶어 빠른 입놀림을 하고서는 후여 못 알아듣지 않을까 여쭙보면 오히려 맘을 읽고 감사해 하네요. 50분을 기준으로 잡고는 공지하고 시작해도 벌써 1시간을 넘겼냐며 더 요구 하십니다. 그러다보면 “정말 감사했다.” 인사를 하시네요. 그 감사함에 제가 더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2010. 08. 04. 양 도슨트 인터넷 카페 게시글]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양 도슨트는 관람객의 조그마한 마음 표현에도 감사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양 도슨트에게는 즐거움으로 다가온다. 또한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을 듣기 위해 양 도슨트 앞으로 가족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의 단합됨을 느끼기도 하고, 열심히 듣는 부모님과 아이들에게도 감사함을 느낀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관람객들과 함께 양 도슨트는 다음과 같이 전시해설을 즐기고 있었다.

기대에 찬 가족들이 하나 둘 모이고 12명의 아이들과 놀이 하듯 전시장을 돌며 유물을 해설하고 퀴즈도 내보았습니다. 김빠지는 하루의 일부를 채워주는 관람객들의 호응과 반응 속에 피로는 녹아버리네요.

[2010. 03. 24. 양 도슨트 인터넷 카페 게시글]

위 사례처럼 양 도슨트는 관람객들이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에 귀 기울여 들으려 노력하고 호응하는 모습은 자신의 엔돌핀이 되고 더 나은 해설을 위한 열정이란 충전이 이뤄진다고 이야기한다. 한편, 양 도슨트는 관람객의 긍정적인 반응에 대해 전시해설의 성공의 기쁨을 느낀다. 다음은 양 도슨트가 전시해설을 마치고 관람객이 전시해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던 사례에 대한 내용이다.

“아까 한 바퀴 들었어요. 그냥 우리끼리 볼 때는 몰라서 지나쳤는데 해설을 들으니깐 재밌네요. 해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은 일단 성공, 제게는 성공의 결과였답니다. 손에 꼭 쥐고 계시던 캔 커피를 건네주시며 감사의 표현을 하시는데 또 얼마나 감사했던지 제게는 행복입니다.

[2010 .06. 13. 양 도슨트 인터넷 카페 게시글]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관람객은 전시해설을 들음으로서 전시물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되고 이는 곧 전시해설의 목적으로서 양 도슨트는 성공적인 결과라고 표현을 한다. 양 도슨트의 즐거운 전시해설은 관람객의 감사의 말로 마무리 된다. 다음은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을 듣고 난 관람객의 다양한 반응이다.

어찌어찌 해설을 마치고 나면,
“어쩔 그렇게 재미있게, 맛있게 말씀을 잘하셔요?”
“전공이 뭐예요? 어떻게 이 많은 자연사 이야기를 다 알고 계셔요?”
“자연사가 이렇게 재미있는 것인지 정말 몰랐어요!”
“선생님 아이들은 좋겠다! 선생님은 해설 하실 때 정말 행복해 보이셔요. 즐기시는 게 보여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언제 하셔요? 그때 다시 친구랑 올게요.”
이런 인사에 그냥 넉 놓고 행복해 합니다. 진짜 잘했다. 스스로 격려하고 칭찬도 하면서요.

[2010. 07. 02. 양 도슨트 인터넷 카페 게시글]

양 도슨트는 관람객의 전시해설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시해설의 보람을 찾고 있다. 이런 전시해설의 보람에 대해 양 도슨트는 동료 도슨트에게 “우리의 해설을 듣고 정말 고맙고 감사해 하며 감동 받은 표정으로 넉죽 고개 숙여 인사를 나

누는 순간 느껴지는 서로에게의 행복과 보람을 가슴 깊이 새겨두십시오.”라고 격려하고 있다. 이런 관람객과의 1:1대화와 안내를 하면서 양 도슨트는 ‘아! 필요했었구나! 간절했었구나!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편안하고 재밌는 해설이! 우리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구나. 내가 틀리지 않았고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전시해설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고 이야기한다.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 중에 관람객의 작은 반응과 감사의 인사에 행복을 느끼면서 이런 행복에 대해 ‘맛’이라고 표현을 한다. 양 도슨트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과학관에서 도슨트의 전시해설을 듣게 되면 꼭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홈페이지를 들러서 ‘고맙다.’는 후기를 남김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스스로도 되받는다고 한다.

· 동료 도슨트들과의 교감

양 도슨트가 도슨트 활동을 하면서 받는 즐거움은 관람객들로부터 받는 즐거움 외에 동료 도슨트들에게도 받고 있었다. 한 인간의 조직 내 구성원들과의 관계는 조직생활을 계속 유지하는데 있어서 그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양 도슨트는 동료 도슨트와의 관계 속에서 활동의 힘을 얻는다. 다음은 양 도슨트와 동료 도슨트가 자원봉사실에서 담소를 나누는 것에 대한 양 도슨트의 회상이다.

조금 늦게 들어서는 자원봉사 실에서는 밝고 밝게 맞아 주시는 여러 쌤들이 계셨습니다. 먼 길 운전하고 급하게 달려 왔을 저를 안아주시는 넓은 가슴! 주섬주섬 사과랑 먹거리 싸들고 가서는 펼쳐놓고 또 도란도란 나눠 먹었습니다. 나눔이 주는 행복이란 것의 진정한 의미와 매력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저는 즐거운 활동을 이어갑니다.

[2010. 05. 22. 양 도슨트 인터넷 카페 게시글]

위 회상에서와 같이 양 도슨트는 동료 도슨트들과 함께하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 자신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걱정해 주는 동료의 마음 씀씀이에 행복을 느끼고, 혼자 있을 때 힘들 때 같이 하면서 서로가 위로 받으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이런 동료들이 있기에 양 도슨트는 자신이 흔들릴 때 도슨트 활동을 굳건히 할 수 있었고 이의 보답을 위해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b. 도슨트 활동을 통한 간접적인 보람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을 하는 가운데 느끼는 보람 외에 도슨트 활동을 통해서 부차적으로 간접적 보람도 느끼고 있다. 본 장에서는 양 도슨트의 간접적 보람을 자긍심과 가족의 공감대 형성으로 나눠서 서술하고자 한다.

· 자긍심

양 도슨트는 “도슨트 활동은 자원봉사이므로 활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슨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연구자 또한 여러 도슨트들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느끼는 활동에 대한 자긍심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아주 소소한 것에서도 자긍심을 느끼는 실례(實例)이다.

내가 자긍심을 계속 이야기 했거든, 돈이 아니라 자긍심이라고...<중략> 그 래요 선생님 중 한분은 지하에 (학예사)사무실이 있었는데 그땐 내려가는 계 단입구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 딸이 엄마가 관계자 외 출입금지 거길 들어가는 걸 본거야 그 딸이 그때 초등학교 2, 3학 년쯤 됐을 때야 딸이 놀래서 “엄마 관계자 외 들어가지 말래”그러더라고. 선생님은 당연히 들어가도 되는 거지... 선생님이 그랬데 “나 관계자야!” 이런 것처럼 그거 하나인거예요. <중략> 우리 아들이 박물관에 와서 교육프 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우리 엄마가 도슨트 인데”하며 뺨 인줄로 알았던 거야, 그리고 우리 조카가 “우리 고모가 S과학관의 도슨트야” 이려고 다녔 지 선생님들이 나한테 막 인사하고 그러니 자기 땀에는 우리 고모가 관장 인거야 이렇게 아이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 이게 나에겐 또 자긍심이지

[양 도슨트 인터뷰]

위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것들이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으나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부모의 입장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한다고 양 도슨트는 이야기한다. 도슨트가 느끼는 자긍심은 위와 같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느껴지기도 하지만 도슨트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는다. 다음은 소속된 기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동료 흥 도슨트와의 인터뷰이다.

여기가 훌륭한 기관이잖아요? 국가기관이고 그래서 여기서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또 여기에 있으면 뭔가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괜찮게 봐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면도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 다른 사람도 “어! I 과학관에 해설사야 도슨트야 괜찮네.” 그런 것도 나에게 뺄 수 없는 때력이 되는 거죠.(하하하하)

[2011. 03. 20. 동료 흥 도슨트 인터뷰]

위 사례처럼 도슨트들의 소속된 기관에 대한 자부심 또한 활동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외부로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높은 평가도 도슨트 활동에 대한 매력으로 다가온다. 양 도슨트는 이런 기관에 대한 자부심이 크게 작용하여 일부 기관의 경우 도슨트 활동을 위한 연회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슨트들이 긍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이야기한다.

· 가족의 공감대 형성

양 도슨트는 가족이 도슨트 활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갖고 있다.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 자료 준비를 위해 과학관과 박물관 등 답사(Fig. 24)를 자주하는데 여기에는 늘 가족이 함께하면서 즐거움을 함께한다.

(특별히 계획된 탐방이나 답사의 경우) 나는 학교 안보내고 데리고 가버려요. (중학생이 되니) 그날은 결석이 되는 거야. 중학교는 그런 것을 일주일전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결석하면) 봉사활동을 정해진 시간만큼 해야 하고 하루 결석처리 되고... <중략> 근데 그때 그 상황에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데리고 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재미있어하고 신나해 하고 익숙해 있고 인제...

[양 도슨트 인터뷰]

위 사례처럼 양 도슨트의 가족은 현장학습에 익숙해져 있어서 일상에서도 양 도슨트에게 도움이 될 자료를 수집해 주기도 한다. 일례로 양 도슨트가 망태버섯에 대한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것을 본 남편이 등산을 하다 발견한 망태버섯을 사진으로 찍어 주는가 하면, 딸의 경우 씨앗을 주워 오기도 하고 아들은 지나다 매미 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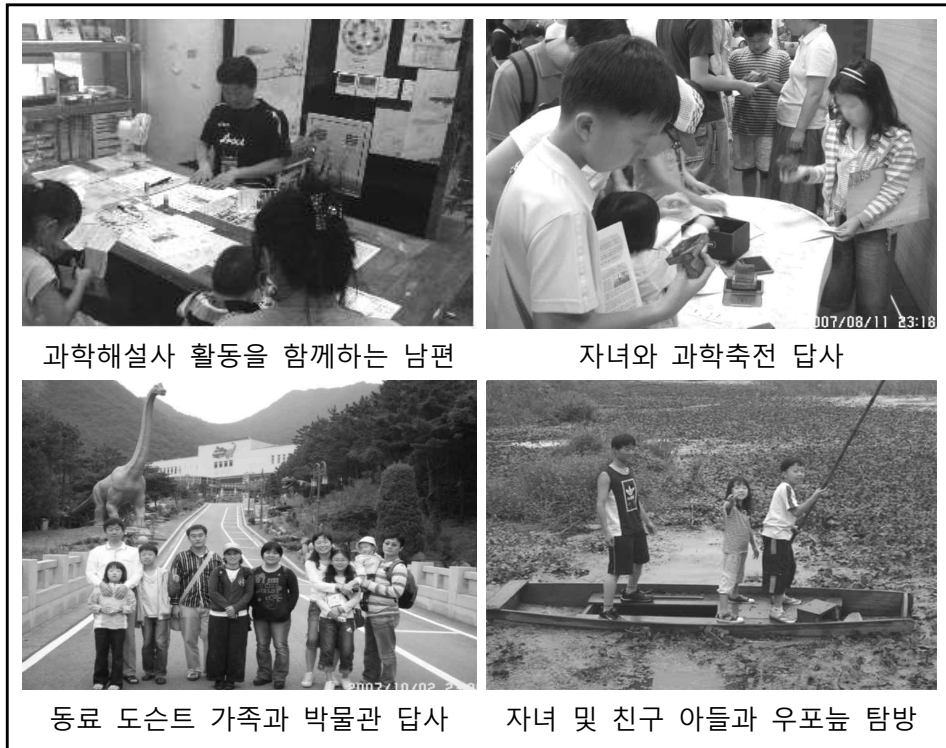


Fig. 24 양 도슨트가 가족과 함께 하는 다양한 모습

모습의 영상을 찍어 오기도 한다. 또한, 양 도슨트가 과학관 등 관람에 즐거움을 갖는 것을 잘 아는 가족들은 양 도슨트가 우울해 할 때 그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남편은 새로운 박물관, 전시관 등으로 안내를 한다. 이런 가족의 모습에 양 도슨트는 행복을 느끼면서 가정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었다. 가족의 협조에 도슨트 활동이 즐겁다는 양 도슨트는 동료 도슨트에게도 활동에 있어서 가족과 함께 하길 늘 권하고 있었다. 다음은 양 도슨트가 추진한 도슨트 가족 답사의 사례이다

저희가 단체로 답사를 갔던 일이 있었는데 <중략>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되도록이면 권장하는 편인데다 이왕이면 아이들이 즐겁고 득이되는 시간이지를 바라는 마음에 동행하는 아이들을 위해 전시장의 전시물을 활용한 미션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 갔었거든요.

[2010. 08. 14. 양 도슨트 인터넷 카페 게시글]

위 사례처럼 양 도슨트는 도슨트 활동이 가족에게 즐겁고 득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양 도슨트는 도슨트 활동을 통해 가족의 공동 관심사가 생기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고, 도슨트 활동에 대한 가족의 배려와 협조가 가능해지는 등 이로 인해서 가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동료 도슨트도 가족이 함께 하길 바라고 있다.

본 장에서는 양 도슨트가 도슨트 활동을 하면서 갖게 되는 성공이라는 보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양 도슨트가 도슨트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보람은 전시해설을 통해서 느끼는 직접적 보람(전시해설 자체에서 얻는 기쁨, 관람객 및 동료와의 관계)과 간접적 보람(자긍심, 가족의 공감대 형성)으로 이는 양 도슨트가 계속적으로 도슨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도슨트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자의에 의해서 활동의 지속성 여부가 자유롭게 결정된다. 따라서 도슨트 활동 자체를 떠나서 활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관계 및 환경이 만족스럽게 느껴져야 도슨트 활동은 계속 유지될 것이고, 이는 곧 실천적 지식의 신념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도슨트 활동의 성공과 좌절 경험을 통해 양 도슨트가 형성한 실천적 지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3. 도슨트 활동을 통한 지식형성 -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

양 도슨트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가운데 처하게 되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즐거움을 찾으면서 스스로 지식을 쌓아가게 된다. 초창기, 어떻게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박물관 등 도슨트들의 해설을 듣고, 많은 체험도 하면서 스스로 전시해설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되고, 전시해설을 함에 있어서 전략을 세우는 기지를 발휘하게 된다. 본 장에서는 양 도슨트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전시해설을 위한 지식을 습득하고 전시해설 활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실천적 지식 구성요소에 따른 지식 형성과정과 형성된 지식을 관람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세우게 되는 전시해설 전략을 기술하고자 한다.

a.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 구성요소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얼마나 많은 전공과목을 이수 했는지 보다는 교과와 관련된 특정 개념이나 절차를 가장 잘 학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교사가 습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Ingersoll & Kralik, 2004). 유능한 도슨트는 전시물에 대한 내용을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키는 기지(機智)를 발휘하게 되는데 비전공자인 양 도슨트는 도슨트 양성교육과정 이수 후 자신의 부족한 전문지식을 채우기 위해 다방면의 경험을 쌓게 된다. 다음에서는 양 도슨트의 전문지식 습득방법을 Elbaz(1981)가 제시한 교사에 대한 실천적 지식의 5가지 내용(교사 자신에 대한 지식,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교수에 대한 지식, 교육 과정에 대한 지식, 교수 환경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재편성한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의 5가지(도슨트 자신에 대한 지식, 전시내용에 대한 지식, 전시해설 방법에 대한 지식, 과학관 건립목적에 대한 지식, 전시해설 환경에 대한 지식)로 분석 및 해석하였다. 이는 비형식기관에서의 도슨트와 형식기관에서의 교사는 교수자라는 같은 맥락으로 교육을 실천하고 있고, 비형식기관과 형식기관이라는 차이로 인해 도슨트와 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차이점을 비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도슨트 자신에 대한 지식 - 신념

연구초기에 양 도슨트의 신념은 Elbaz(1983)가 실천적 지식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을 ‘이미지’라고 본 것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되었다. 즉,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의 전략에 대해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지식을 신념으로 규정하고 “좋은 전시해설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도슨트의 신념은 과학관이라는 여가를 위한 장소, 다양한 관람객, 다양한 경험, 자원 봉사자로서의 자세, 꾸준히 연구하는 자세 등의 측면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형성된 포괄적인 지식으로 구체화되었다. 주로 면담과 인터넷 카페 게시글을 통해 탐구된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에 관한 신념을 제시하면 Table 11와 같이 정리된다.

Table 11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에 관한 신념

<p>신념 1. '좋은' 전시해설은 누구나 편하고 재미있어야 한다.</p> <p>신념 2. '좋은' 전시해설은 관람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관람객을 배려하는 것이다.</p> <p>신념 3. '좋은' 전시해설은 아이들의 학습태도를 함께 지도하는 것이다.</p> <p>신념 4. '좋은' 전시해설은 이를 좋아하면 할 수 있고 경제력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p> <p>신념 5. '좋은' 전시해설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p> <p>신념 6. '좋은' 전시해설은 학예사와 동료가 함께하는 것이다.</p>
--

신념 1. '좋은' 전시해설은 누구나 편하고 재미있어야 한다.

양 도슨트는 '좋은' 전시해설은 “누구나 부담 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Fig. 25). 즉, 관람객은 여가를 즐기기 위한 한 방법으로 과학관을 방문하는 것이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전시해설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양 도슨트가 생각하는 편안하게 듣는 전시해설이다.

특히 역사 같은 경우 이걸 조선 몇 년, 명치 몇 년, 명치가 뭘지 광무가 뭘지 (관람객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 1900년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설을 하면 또 남는 게 없지. 그러면 강의를 들어야지. 제가 추구하는 것은요. 제 색깔은 우선은 '편해야 된다.'라는 것, '즐겁고 재밌어야 된다.'라는 거구요. <중략> 상대에 따라서 해설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니까 일반 관람객들은 별거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거든. 그냥 재미나게 와서 보고 가는데 내가 여기 왔다 가도 **키포인트 한 두 개만 짚어가고 싶지. 전시물을 다 알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중략> 제가 생각하는 도슨트는 말하자면 저는 아이쇼핑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물관이 백화점이라고 친다면 백화점에 갔을 때, 처음부터 뭘 사러 가야지 하는 거는 목적 하에 가는 거지만, 아... 그냥 오늘 옷 사러 가야지 그러잖아요. 무슨 옷이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옷 사러 가야지 했는데 치마도 있고, 바지도 있고, 윗도리도 있어. 그러면 사고 싶어지는 거 사는 거죠. 대부분은 물론 알뜰 구매자들은 다 적어가지만 난 안 적어 가져드요. 식료품대 가서 어! 오늘 이거 신선하니까 (사야지!) 그 신선한 게 그 사람이 그날 느끼는 호감이거든요. 그거를 장사하는 거죠 저희는 장사하는 판매원이죠. **전시물에 대한 판매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양 도슨트 인터뷰]

위 인터뷰에서 양 도슨트는 ‘과학관’을 ‘백화점’이라고 표현하고 ‘도슨트’는 판매원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도슨트는 전시해설을 재미있게 해설함으로써 판매하고 관람객은 그 가운데 호감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즉, 구입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반관람객은 진지한 학문을 깨우치기 위해 과학관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미있게 전시해설을 즐기면서 그 가운데 전시해설 전체를 기억하기 보다는 인상적인 한두 가지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양 도슨트는 이야기한다. 이러한 것은 양 도슨트가 과학관은 여가를 위한 장소라는 신념과 관련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양 도슨트에 따르면 전시해설은 누구나 부담 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도슨트는 전시물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해설을 해야 한다. 전시해설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양 도슨트는 스스로 많은 경험을 한다. ‘경험으로부터 학습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행동하는 것과 그 결과 대상으로부터 받는 즐거움이나 고통 사이의 전·후 관계를 연결하는 것으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행동하는 것은 시도하는 것이 된다. 즉,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한 실험을 하는 것이요, 겪는 것은 배우는 것(instruction)이 된다. 즉 대상들의 관련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Dewey, 1938) 다음은 양 도슨트가 도자기를 굽는 언니를 통해 경험한 사실로부터 깨닫는 도슨트의 자세이다.

도자기도 저는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도자기는 이조백자는 언제부터 시작했고, 어느 마을에서 시작했고, 어느 요라고 하지요? 저는 요도 잘 몰라. 다만 우리 언니가 도자기를 해요. 구경만 해도 10년을 넘게 했는데 그런 풍월로... 이렇게 잘못 구우니까 이런 색깔이 나오구요. 항상 똑같이 나오지 않구요. 크기가 70%정도로 줄구요. 이런 걸 한 거야 실질적인 걸 책보고 한게 아니라 저는 해설사는 경험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선생님 너무 재미있어요.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양 도슨트 인터뷰]

위 인터뷰에서 양 도슨트는 자신이 도자기를 구우면서 느꼈던 신기함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을 관람객에게 그대로 전달하면서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도자기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은 없다고 말하는 양 도슨트는 딱딱한 전문지식보다 경험으로부터 얻은 생생한 정보 전달이 해설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양 도슨

트의 경험에 의한 지식 습득 방식은 전시해설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적용되고 있었다. 양 도슨트는 과학관에서 제공하는 교재를 통한 문제풀이 식 교육에 대해 “문제만 풀어 주는 게 무슨 교육이야”라는 말을 하면서 단순히 교재만을 활용한 교육 방식이 아닌 사물을 한 번 더 만져보고 느껴 보는 체험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다음은 체험교육을 실현한다는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에 관한 인터뷰이다.

얘기를 하는걸 보고... 끝나고 보니까 이 엄마들이 단체로 온 거야 그래서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일산에서 왔네 아~ 이리구저리구 얘기하다가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의뢰를 한 거야 “선생님이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한 게 “박물관에서 정해진 교재를 갖고 한 게 아니라 저는 나름대로 해주고 싶은 방향이 이렇습니다.”라고 했더니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하더라구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주장했던 거 하나? “같이 다니세요.” 였거든요. 그리고 보여주는 것도 같이 보여 줬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더 재미있어 한다니까.

[양 도슨트 인터뷰]

위 같이 양 도슨트가 체험 교육을 중요시 하는 것은 이론적 교육은 학교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론적 지식을 체험을 통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함으로써 확고히 하고자 하는 신념의 반영이다. 이러한 체험 학습은 학생은 물론 부모들이 더욱더 재미있어 한다고 한다.



Fig. 25 “좋은 전시해설은 무엇인가?”에 대한 양 도슨트의 신념 1의 원천

신념 2. '좋은' 전시해설은 관람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관람객을 배려하는 것이다.

전시해설은 도슨트가 관람객을 위해 실천하는 봉사행위라고 할 수 있다. 봉사행위로 양 도슨트는 해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어져야 할 것 중의 하나를 관람객들에 대한 배려로 그 배려의 기본은 바른 자세와 태도, 그리고 미소임을 강조 한다. 이런 자세에 대해서 양 도슨트는 동료 도슨트들에게도 자주 당부한다. 다음은 양 도슨트가 동료 도슨트 전시해설 관찰에서 나타난 관람객과의 대화의 부적절함을 동료 도슨트들이 함께 생각해 보길 바라는 마음에 도슨트 활동 카페에 글을 올린 내용이다.

해설자는 관람객을 섬길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람객을 우습게 보아서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관람객을 향하여 하대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해설을 잘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을 잘한다? 내용 전달을 잘한다? 많은 것을 안다? 예 틀린 것은 아니지요. 다만 저는 관람객을 섬길 줄 아는 겸허한 자세가 모두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 07. 12. 양 도슨트 인터넷 카페 게시글]

양 도슨트의 관람객에 대한 겸허한 자세는 관람객을 배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을 높이는 행위로 연결되고 있다. 양 도슨트는 관람객과 첫 대면인사로 “안녕하세요?”보다는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함으로서 도슨트와 관람객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높이며, 도슨트 스스로를 지나치게 하대하지 않는 해설의 진정성을 두는 시작의 인사라고 이야기한다. 양 도슨트의 관람객에 대한 배려는 언어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전해지고 있다. 양 도슨트는 관람객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것은 감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다음 글에 표현하고 있다.

그저 머리에 든 지식만 전하기를 원치는 않았습니다. 진심어린 마음을 다하여 관람객들에게 필요한 해설. 정성어린 몸동작과 자세는 서로의 존중됨을 느끼게 하며 감동이 전해진다는 조언! 그대로 전해드렸을 뿐인데 그대로 움직여 주시며 또 전달하여 주신 우리 쌤들

[2010. 06. 28. 양 도슨트 인터넷 카페 게시글]

위 두 사례에 대해 양 도슨트는 관람객을 배려하는 언행은 단 한명이라도 해설 한다는 원칙하에 모든 관람객에게 실천해야 하고, 도슨트의 전시해설에는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도슨트가 관람객의 우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양 도슨트는 이런 자세로 마무리되는 전시해설은 마무리 인사말에서 서로의 만족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위한 꼭 채운 1시간의 해설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신념 3. '좋은' 전시해설은 아이들의 학습태도를 함께 지도하는 것이다.

양 도슨트는 과학관의 주 관람객인 아이들에 대한 전시해설 관람태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 시작부터 마무리에 이르기 까지 전시해설과 함께 관람태도에 대해서도 지도하였다. 다음은 양 도슨트가 전시해설을 마치면 그 시간의 전시해설에 대해서 관람객과 함께 반성을 한다는 인터뷰이다.

저 같은 경우도 1월달 내내 매주 수업을 하나 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의 투어하신 걸 보신거야 그러구선 저는 끝나고 나면 꼭 얘기를 해주거든요. 끝나면 안녕 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애는 너무 말을 안 들었어요.”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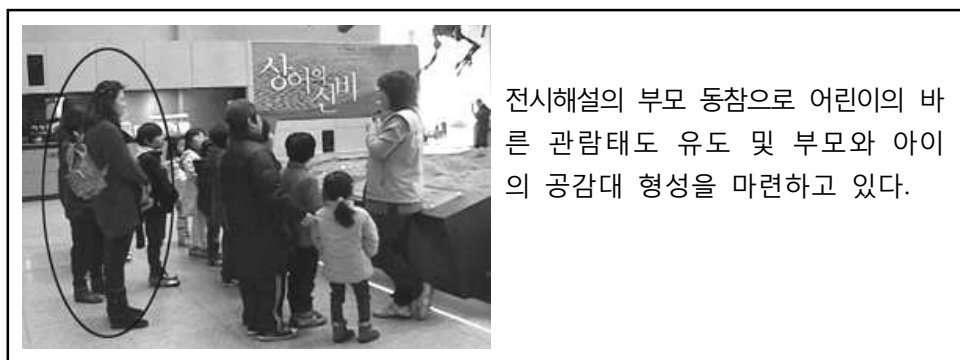
[양 도슨트 인터뷰]

위 인터뷰를 통해서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의 효과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관람의 태도 특히, 아이들의 관람태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아이들의 행동과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전시해설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전시관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가 함께 전시해설을 듣기 때문에 관람예절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상호간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아이들 경우 자기 행동에 대해 반성할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양 도슨트는 이야기 한다. 아이들의 바람직한 관람태도를 위해 양 도슨트는 부모님이 동참하는 전시해설(Fig. 26) 및 교육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양 도슨트와의 인터뷰이다.

어떤 때는 막 저와의 전쟁이죠. 어떤 애는 엄마가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자

기는 듣기 싫어 죽겠는데 엄마가 들으라고... 엄마는 저기서 커피 먹고 있겠다고... 그럼 저는 대놓고 그래요. “어머니 죄송한데요.”해 놓고 기분 나쁘면 또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거(=해설)를 8년을 했는데요. **엄마가 따라다니면 애가 틀리더라구요.** 엄마가 커피 먹고 수다 떨고 있으면 애가 아~ 정말 하기 싫어 하더라구요.” 그냥 그렇게 까지만 더 얘기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빠가 옆에 계시면 “그런데요 아빠가 같이 따라다니는 애치고 나쁘게 되는 애는 못 봤어요.”** 그러면 또 아빠가 따라다녀요.

[양 도슨트 인터뷰]



전시해설의 부모 동참으로 어린이의 바른 관람태도 유도 및 부모와 아이의 공감대 형성을 마련하고 있다.

Fig. 26 부모와 아이가 함께 전시해설을 듣는 모습

양 도슨트는 부모님의 전시해설 및 교육프로그램 동참으로 아이로 하여금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고 과학적 경험을 공유하며 공동의 대화 주제로 자연스러운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양 도슨트는 일부 도슨트 경우 교육프로그램에 부모의 참여를 차단하기도 한다고 하면서 그건 도슨트 개인적 차원의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라고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신념 4. ‘좋은’ 전시해설은 이를 좋아하면 할 수 있고 경제력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은 이를 좋아하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양 도슨트는 과학에 대해 비전공자이고 더욱더 10여 년 동안 그냥 ‘애기 엄마’였다. 그랬기 때문에 양 도슨트는 다음 인터뷰에서처럼 전시해설은 좋아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

저 같은 경우는 (관람객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고 질문한 게 “전공이 뭐예요?”라는 질문을 해요. 그럼 전 “전공한 거 없는데요.” 그러죠, “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설을 잘)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좋아서 합니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던 얘기를 저는 스스럼없이 해요. 자랑은 아닌데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나는.** 그리고 어느 정도 친분이 있으면, “어느 대학 나왔어요?” 그러거든요. 전공이 뭔지 물어 본 다음에 나온 게 “어느 대학 나왔어요?”예요. 그럼 대놓고 그냥 “대학 안 나왔어요.” 정말 친해지면 “야간고등학교 나왔어요.” 까지 얘기를 해요.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그래도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서 해야 된다. 내가 즐기면 할 수 있다.**

[양 도슨트 인터뷰]

위 인터뷰에서 양 도슨트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정주부였지만 자신이 전시해설을 즐기면서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누구나 이 일을 즐길 수 만 있다면 좋은 해설을 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누구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양 도슨트에게 전시해설은 전시해설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이익과 전시해설이 맞물리면서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의 질적 관리에 고민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관람객의 의뢰에 의해서 교육을 했으나 수업료로 한때 고민을 했던 사례이다.

아..너무 불편해요. 근데 누구는 40만원 받고 누구는 20만원 받고 해봤어요. 내가 주고 싶은 만큼 다 못 주겠더라고. 40만원어치만 줘야 되고 20만원어치만 줘야 되죠. 그게 너무 불편한 거야. 안 행복한 거예요. 돈은 막 들어오는데 한 달에 내가 100만원 넘게 벌었거든요? 제가 사무실 보면서 그냥 간간히 나가서 한계. 두어 번 밖에 안했는데. 그래가지고 프린터기 샀죠. 99만원짜리 샀는데 안 행복했어요. 이걸 아니다. <중략> 지금도 (특별히 부탁이 있어 체험학습을 하게 되면 한 강의에 교재비 포함) 10만원 받는 다니까 박 도슨트 선생님은 막 떠라 그래. 선생님정도면 더 받아야지 다른 선생님 욱 먹일라 그런다고... 근데 욕심도 순간 또 내 본적도 있는데 안 행복해요. 준비하는 시간이 즐겁지 않아 요게요게 만원어치 될까. 막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야

[양 도슨트 인터뷰]

위 인터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교육에 따른 수업료는 양 도슨트로 하여금 전시

해설에 대한 즐거움이 아닌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일 뿐이었다. 즉, 같은 내용을 수업하더라도 수업료가 많은 수업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보조자료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고민이 있었던 것이다. 수업료의 형평성을 맞춰야 됨을 고민하게 되는 양 도슨트는 수업의 질적관리에 많은 갈등을 겪었다고 이야기한다.

신념 5. '좋은' 전시해설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양 도슨트는 도슨트 경력 8년차의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도슨트로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부족한 지식을 채우기 위해 꾸준히 학습하고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은 어느새 양 도슨트에게 도슨트로서 입지를 탄탄하게 해준다. 다음은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양 도슨트의 견해이다.

해설하려 공부 시작했을 때 담당 학예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 5년쯤 지나면 저보다 이곳 학예사들 보다 더 잘 아시는 박사급이 될걸요?” ‘설마!’ 했습니다. 지금도 더 잘 안다고 할 수 없지만 전공분야의 박사들보다 넓게는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2010. 04. 12. 양 도슨트 인터넷 카페 게시글]

위 사례에서 양 도슨트가 다방면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활동의 영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양 도슨트는 과학관 및 박물관 등 여러 곳에서 도슨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 도슨트는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이러한 지식은 과학과 생물과 자연사와 역사를 접목하는 해설을 가능케 함으로서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러한 전시해설에 스스로도 만족하고 있었다.

신념 6 '좋은' 전시해설은 학예사와 동료와 함께 하는 것이다.

양 도슨트는 과학에 대한 비전공자임이 자신의 단점일 수도 있지만 이는 곧 장점임을 잘 알고 있다. 즉, 관람객과 똑같이 비전공자이면서 비전공자들이 궁금해하는 일반적인 사항은 거의 비슷하므로 관람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전시해설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이 과학관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과학관의 활동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슨트의 역할에 대한 인터뷰이다.

연구자 : 선생님들이 활동지를 만들잖아요. 그 활동지를 만드는데, 이게 본인이 가르치는 게 있고. 우리 같은 전공자가 아이디어를 주는 게 있어요. 또 이게 다시 연결이 돼서 가야된다고 생각해요?

양 도슨트 :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어떤... <중략> 제가 관람객이라고 보는 거죠. 관람객이 궁금한 거. 내가 궁금한 건 관람객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관람객의 언어, 관람객이 요 단어를 어려워하면 나도 어려워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것들을 짚 수가 있는 거고, 전공자는 전문적인 거, 체계화된 거,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잖아.**

[양 도슨트 인터뷰]

위 인터뷰에서처럼 과학관의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공자 즉, 학예사와 비전공자인 도슨트의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학예사 경우 학문적 지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과학관의 활동지를 만드는데 있어서 용어 선택이나 구성에 있어서 교과서적인 편성에 치우칠 수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은 도슨트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양 도슨트의 이야기처럼 도슨트는 관람객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활동지를 만들 수 있게 한다. Fig. 27은 양 도슨트가 학예사와 함께 만든 활동지로 구성에 있어서 학예사와 도슨트의 의견이 적절히 조화가 되어 있다. 즉, 도슨트의 전시실 현장 경험이 교육자료의 아이디어로 제공되고 학문적으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학예사가 그 내용을 참고로 교육자료를 구성함에 따라 전시물의 내용이 반영된 활동지가 만들어져 있다.

과학관에서 도슨트는 학예사와의 상호보완적 관계뿐만 아니라 동료와의 관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 도슨트는 동료와 관계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따뜻한 동료애를 느낀다. 다음은 서로 협력하는 도슨트의 모습에 대한 양 도슨트의 느낌이다.

정기해설의 공식이 있을 경우 만사제치고 달려갈 것입니다. 다행히 저와 동행하여 주실 선생님(=도슨트)들이 계심에 얼마나 넉넉한 행복을 느끼는



[도슨트의 현장 경험이 반영된 아이디어 제공]

위 그림은 S과학관 3층 전시장 전시물 사진으로 전시물의 내용이 반영된 활동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도슨트가 아이디어 제공

< 응 ↓ 용 >

지구의 탄생과정		태양 주위를 둘러싼 먼지와 가스가 뭉쳐 지체 수 많은 덩어리 (미행성체)를 만들	가스 구름형성
		작은 덩어리들이 충돌하면서 합쳐져서 더 큰 덩어리를 만들어감	미행성 <input type="checkbox"/> 커다
		갓 태어난 지구 표면은 떨어 지는 운석들의 충격으로 매우 뜨거운 마그마의 바다	46억 년 전
		오랫동안의 비로 지표면이 식으면서 지각 형성	<input type="checkbox"/> 700의 바다
		오랫동안의 비로 물이 고여 생명의 터전인 바다 형성	42-40억 년 전
			<input type="checkbox"/> 지구의 형성
			38억 년 전
			바다와 <input type="checkbox"/> 80의 터

[학예사에 의해 구성된 활동지]

학예사의 전문지식이 잘 반영됨으로서 지구의 탄생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성됨

Fig. 27 학예사와 도슨트가 함께 만든 활동지

지 모릅니다. 그렇게 정기해설의 공석을 채우려 노력하는 이유는 관람객과의 약속이자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2010. 11. 15. 양 도슨트 인터넷 카페 게시글]

위 게시글처럼 도슨트 전시해설은 어디까지나 관람객과의 약속이다. 이런 약속은 신뢰와 관람객의 만족으로 표출되는데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료와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전시해설의 공석은 관람객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동료 간의 협조는 관람객과 과학관, 도슨트 등 모두의 만족을 이끌게 된다. 또한, 양 도슨트의 동료에는 연구자의 참여관찰 즉,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서로의 간식을 챙겨주는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양 도슨트는 동료 간의 상호협조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행복함을 느낀다고 한다.

양 도슨트는 도슨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어느 음식점이 허름하다 하여도 맛이 좋으면 손님은 몰리기 마련입니다. 우리 과학관의 좋은 시설에 맛을 내는 사람이 해설자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가족 관람객이나 관심 있어 찾는 관람객의 경우는 맛을 느끼면 평생 드나든답니다. 그 중에는 훗날 과학자가 탄생할지도 모르며 이 나라의 과학발전에 이바지할 인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이런 도슨트가 하는 전시해설에 대해선 “살아가면서 단한번의 만남으로 평가 받기에 30초 광고처럼 많은 것을 함축하여 전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양 도슨트의 평소 생각이 앞서 서술한 ‘좋은’ 전시해설을 위한 6가지 신념으로 나타난다.

(2) 전시내용에 대한 지식

양 도슨트는 도슨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시해설을 시작했을 때를 회상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어떤 방법의 해설이 좋은지, 어떤 책을 보고, 어떤 강의를 듣고, 모르는 것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보이는 데로 자료 수집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안정되기까지 버거운 짐을 지고 성급한 맘에 달리기만 했다.”고 이야기한다. 양 도슨트는 이런 상황에서 전시해설에 관한 지

식을 습득하기 위해 모든 정보원에 대해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학습을 한다. 양 도슨트는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Table 12과 같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관람객이 과학관에서 꼭 알아야 하는 지식은 무엇이고 선택한 내용이 왜 알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Table 12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지식 습득 방법

- 방법 1. 다큐멘터리 등 TV 프로그램, 신문, 인터넷, 전문서적을 통한 정보 습득
- 방법 2. 과학관 및 박물관 관람을 통한 자료 수집
- 방법 3. 다양한 과학관 도슨트 양성과정 이수를 통한 지식 습득
- 방법 4. 동료 도슨트와의 주제 토론
- 방법 5. 멘토링을 통한 간접적 경험 지식 쌓기

다음은 양 도슨트가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한 5가지 방법이다.

방법 1. 다큐멘터리 등 TV 프로그램, 신문, 인터넷, 전문서적을 통한 정보 습득

양 도슨트의 내용학적 지식 습득은 TV, 신문 등 다양하게 일상에서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가까운 서점을 들러 전문서적을 구입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하기도 하고, 직접 자료를 만들어 보고 인쇄하여 크기도 채고 방법도 연구한다. 이는 동료 도슨트들의 일상에서도 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었다. 동료 정 도슨트는 전문다큐멘터리는 내용이 영상과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눈으로 보는 간접 체험을 하게 되고 뉴스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수시로 얻음으로서 관람객들에게 생활 속 정보를 줄 수 있다고 한다. 다음은 양 도슨트 및 여러 동료 도슨트가 함께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동료 고 도슨트가 TV 인기 프로그램에서 얻은 정보를 전시해설에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아침에 TV에서 서프라이즈를 하는데 그 도도새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도도새의 설명을 TV화면으로 해서 쭈우욱~ 나오는

거야...(도슨트 활동을 내가 하고 있으니) 설거지를 하면서도 얼른 가서 보는 거야 오늘 써먹어야지... (다른 도슨트들이 다들 공감하면서...) 설명하면서 오늘 서프라이즈에 이것이 나왔다 하면서 연관지어 설명해 주며는 보고 온 아이들은 이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죠. TV에서 생물 쪽 연관되어서 나오며는 바로 메모해요.

[2011. 03. 20. 동료 고 도슨트 인터뷰]

위 관찰에서의 동료 고 도슨트는 남녀노소가 즐기는 프로그램(Fig. 28)에서 정보를 얻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좀 더 친근하게 전시해설이 이뤄진다고 한다. TV 영상을 통한 정보 입수는 비전공자인 도슨트에게 좀 더 쉽게 지식 전달이 되고 있다.



• 도슨트 지식습득

영상제공으로 전문 이론의 쉬운 이해

• 전시해설에 활용

인기 프로그램을 매개로 관람객과 공감대 형성

Fig. 28 TV를 통한 정보습득의 장점

방법 2. 과학관 및 박물관 관람을 통한 자료 수집

양 도슨트는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다양한 과학관과 박물관을 방문한다. 그곳 전시관의 패널에서 설명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서 스크랩을 하고 과학관에서 제공하는 도록과 자료를 모아서 부족한 지식을 채우고 있다(Fig. 29). 이러한 양 도슨트의 과학관 방문을 통한 자료 수집은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기획된 등 특별 행사와 연계하여 방문을 하기도 한다. 다음은 원거리 답사 계획을 세우는 양 도슨트의 인터넷 카페 게시글이다.

9월 추석 연휴에 ○○○박물관과 △△△박물관 답사 계획이 있습니다. △△△ 박물관에서는 개관기념 습지기획전도 준비되어 있어요. 한번 본 내용이긴 하지만 이왕이면 기획전에 맞춰 가겠다 했답니다.

[2010. 08. 08. 양 도슨트 인터넷 카페 게시글]

양 도슨트는 위 사례처럼 과학관 관람을 하는데 있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방문하게 될 과학관의 일정 등을 꼼꼼히 살핀다.



Fig. 29 과학관 및 박물관 관람을 통한 다양한 자료 수집

양 도슨트는 이런 답사를 통해 얻게 되는 지식에 대해서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지식을 얻기 위해 전문서적을 보자 해도 눈에 안 들어오니 처음엔 무조건 다녀보자 했던 것이 이젠 필수코스가 되면서 이렇게 얻어진 지식은 책 열권 읽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전시해설을 하다보면 “~가보셨어요? 거기는 ~던데, ~하시는데” 경우가 많아진다고 한다. 이는 곧 양 도슨트의 과학관 및 박물관에서 얻어지는 정보가 그 내용에 있어서 전시해설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지식이 될 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에게도 다양한 과학관 관람을 위한 정보제공이 되고 있다.

방법 3. 다양한 과학관 도슨트 양성과정 이수를 통한 지식 습득

양 도슨트는 스스로 지식을 쌓아가면서도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 습득을 위해 전문가에 의한 교육을 찾게 된다. 그 방법으로 양 도슨트는 인근 I과학관에서 실시한 도슨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비로소 전문서적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쌓게 된다. 다음은 양 도슨트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계적인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인터뷰이다.

제가 몇 년 (S과학관에서 도슨트 활동을) 하다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I과학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드나들면서 “언제 뵙어요?” 그리고 (물고) 다녔어요. (전시전문해설자를) 뽑는다는 걸 듣자마자 제가 경기도 (고양동)에서 거기(=인천 경서동)까지 가려면 가는 데만 3시간 오는 데만 3시간이야. 그런데 마을버스타고 지하철타고 서울역 나와서 시외버스타고 가서 거기서 셔틀버스 타고 들어가. 그렇게 하루에 여섯 시간씩 왔다갔다한 거야. 일주일에 한번씩, 그렇게 하면서 배운 교육이 정말 교육이었던 거야. 그래서 거기 갔다 오고 와서는 생물의 5계에 있는... 거기서 본건 알게 되고, 전문서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대부분) 독학으로.

[양 도슨트 인터뷰]

양 도슨트는 자신의 신분 즉, 학회나 기관 등의 정식회원들에 한해서 열리는 포럼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충분히 구성되어 있는 I과학관에 매력을 느끼고 도슨트 양성교육을 받는다. 한 때 양 도슨트는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대학을 진학하기도 했으나 가정과 며느리, 도슨트 활동을 병행하기에는 양 도슨트에게 힘든 상황이었다고 한다. 양 도슨트는 I과학관의 도슨트 양성교육에 대해서 “그곳 I과학관에서 충분한 자료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곳 전문가들은 가르쳐 주는 것을 즐겁게 생각했다.”고 한다. 양 도슨트는 먼 이동거리에도 불구하고 I과학관에서 생물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재미있게 배웠다고 이야기한다. 양 도슨트는 I과학관뿐만 아니라 도슨트 양성교육이 있다는 곳은 지방이라 할지라도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지식을 쌓아갔다.

방법 4. 동료 도슨트와의 주제 토론

전문지식의 습득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외에 그 지식을 동료와 함께 공유함으로써 잘 못 알고 있을 정보를 수정할 수 있고 많은 지식을 쉽게 익힐 수 있는 방법으로 동료 도슨트와의 토론이 있다. 양 도슨트는 동료와 함께하는 세미나에 대해서 활동 초기엔 정 학예사가 멘토링을 해줌으로서 동료 도슨트와 함께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줬다고 한다. 다음은 ‘동료 도슨트와 모여서 세미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자와의 인터뷰이다.

연구자 :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할 기회는 있어요? 모여서?

양 도슨트 : 저희 같은 경우 요즘엔 좀 시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 거구... 전 같은 경우에는 매달 모여서 세미나를 했어요. 모여서 그날 태풍이 났다. 태풍이름이 뭐다 그거에 대해서

[양 도슨트 인터뷰]

양 도슨트는 동료 도슨트들과의 세미나를 통해 사회에서 이슈화된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고 또 자료를 준비하는 가운데 전문지식을 하나하나 익히고 있다. 양 도슨트는 “동료들과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다보면 자신이 갖고 있던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이로 인해 또다시 새로운 정보를 찾기 위해 스스로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즉, 동료 도슨트와의 세미나가 또 다른 학습의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방법 5. 멘토링을 통한 간접적 경험 지식 쌓기

양 도슨트는 자신의 배움에 있어서 늘 적극적이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양 도슨트는 자신의 단점, 약점을 기꺼이 드러내면서 전문적 지식을 쌓아가고 있었다. 다음은 양 도슨트가 생각하는 멘토링에 대한 생각이다.

양 도슨트 : 근데 이게(=멘토링) 그니까 선생님(=다른 도슨트)이 (해설)하는 것을 자꾸 봐야 되는데 <중략> 저는 멘토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이 하는 걸 자꾸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도슨트들은) 부담스러워해. 보는 거 자체를

연구자 : 왜 그렇죠? 보여주는 거는 또

양 도슨트 : 관객에게 보여주는 것은 부담을 덜 가져요. 관객에게 보여주는 건, 그냥 그 사람들이 그게 있어. 관객들은 모른다고 생각을 해. 근데 내가 보면 바로 지적하는 줄 알아. 내가 뭘 짚어 내려고 하는 건 아닌지 부담감이지 선생님이 그러는 거랑 똑같지. 그게 아닌데... 저도 (해설하는 것을) 봐 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물론 떨리지 않겠어요?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지구의 탄생과정)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가 듣는다고 한다면 지구과학 내가 뭘 알겠어. 그렇게 친다면 엄청 떨리는 거거든. 떨리고 창피하고... 솔직히 창피한 거거든요. 나는 학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도 그러면 (선배나 전공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거기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지 않겠어요? “그건 아니야”라고 저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G과학관을 갔는데 지구과학전공을 하신분(=동료 도슨트)이 계셨어 다행히... 우리 자연사관에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시나리오를 적어줬어요. “저는 이렇게이렇게 해설을 하는데 혹시 오류가 있으면 좀 봐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토씨 하나까지다. 보통 우리는 지구 탄생 같은 거 얘기할 때 가스와 뭐... 가스구름과 먼지가 뭐

[양 도슨트 인터뷰]

양 도슨트는 멘토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전시해설 시나리오를 적어서 동료 도슨트에게 보여줌으로서 멘토링을 받는다. 이러한 동료 도슨트(과학교사로 퇴직한 도슨트)의 멘토링을 통해서 양 도슨트는 과학에 대해서 비전공자인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과 오류 등을 적극적으로 수정하면서 자신의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지식을 탄탄히 쌓아가고 있었다. 위와 같은 노력에 의해 습득된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지식을 양 도슨트는 관객에 따라서 적절히 투입하게 된다. 다음은 양 도슨트가 관객에 따라서 선택한 전시내용이 적용되고 있는 전시해설 관찰이다.



Fig. 30 과학관 전시물의 현 교육 과정에 따른 특징 설명

교과하구도 맞물리구요. 그 다음에 8차(여기서는 2009 개정교육과정을 일컬음) 교육과정을 보시면 탐구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유탐구라는 건 요즘엔 ‘꼭 해야 된다.’는 걸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많이 하구요 안내데스크 보면 옆에 책자가 하나 누워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어머니께서 가실 때 꼭 가지고 가셔서 거기에 우리 교과와 관련된

자유탐구라는 것이 연결된 게 너무 많아요.

[2011. 02. 19. 양 도슨트 전시해설 관찰, I과학관에서]

학부모 관람객이 많음을 인지한 양 도슨트는 I과학관 전시물의 교육적 특징과 과학관에서 제공되는 자료들이 2009 개정교육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학부모 관람객의 관심을 이끌고 있다.

[현장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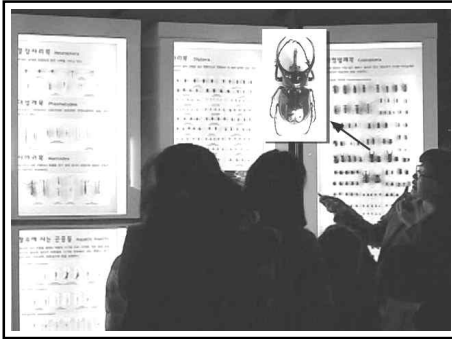
Fig. 31 초등학교 3학년의 교과내용을 반영하는 전시물(참나무)

이쪽으로 오셔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참나무 6가지를 잠깐 설명할게요. 이 참나무는 ‘참 좋은 나무다.’라고 해서 참나무예요 학명으로 참나무라고 되어져 있지는 안구요. 참나무는 종류가 6종류가 대표적인데, 참나무에는 밤나무도 속해요. 너도밤나무 나도밤나무 다 속하는데 이렇게 6가지를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어요.

[2011. 02. 19. 양 도슨트 전시해설 관찰, I과학관에서]

초등학생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현재 설명하고 있는 ‘참나무’에 관한 내용이 교과서에 소개되는 내용임을 언급함으로써 과학관의 전시물들이 학교 교육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현장노트]



여러분들이 곤충을 자세히 관찰하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집게다리가 보이죠. 이걸 보고 뭘 발명했을까? 펜치 있죠. 철사 자르는 거 네 그런 것도 발명합니다.

Fig. 32 곤충의 특징이 생활에 적용된 사례(펜치)

[2011. 02. 19. 양 도슨트 전시해설 관찰, 과학관에서]

곤충의 특징(집게다리)이 생활 용품(펜치)에 적용된 사례를 설명하면서 관람객 전체의 흥미 유발과 과학관의 건립목적(생물이 자원이다)을 실현하고 있다.

[현장노트]

첫 번째 전시해설 관찰에서 양 도슨트는 학부모 관람객의 교육적 관심을 인지하고 방문한 과학관이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는 전시 특징을 갖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전시해설 관찰에서는 설명하는 전시물이 초등학교 3학년 교과과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초등학교 학생 관람객 및 학부모들에게 전시물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 전시해설 관찰에서 양 도슨트는 방문한 과학관의 건립목적(생물이 자원이다)을 전시해설로서 실행하면서 선택한 내용이 관람객에게 있어서 알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 즉, 곤충의 집게다리 특징이 생활 속에서 펜치로 적용되어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과학관의 건립 목적을 실현하고 있었다.

양 도슨트는 위와 같은 노력으로 얻은 지식을 관람객에게 전시해설로서 전달하게 된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에 전시관에 있는 모든 전시물에 대한 해설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의 약 40%정도는 같은 내용으로 전시해설을 하고 나머지 60%는 관람객의 성향을 파악해서 그들의 관심대상이 되는 내용으로 전시해설을 한다. 관람객의 성향에 따른 관심주제에

대해 양 도슨트는 학부모 관람객의 경우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시내용 중 학교교육과정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강조를 하고 해설을 진행한다. 이러한 면을 볼 때 양 도슨트는 관람객이 과학관에서 꼭 알아야 하는 지식은 무엇이고 선택한 내용이 왜 알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전시해설 방법에 대한 지식

양 도슨트는 전시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시해설에 대해서 ‘도슨트는 다중을 대상으로 각양각색의 수준과 관심분야, 관람객의 인원수에 상관없고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 단 한사람, 그 한사람이 어리던 나이가 많던 지식이 없던 많던 원한다면 꼭 해설을 해야 한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중에 관람객의 수준과 원하는 만큼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화법을 동원해야 한다. 학교 교과와 연결된 해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주입식 및 정답 위주의 해설은 조금 피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이런 상황에서 양 도슨트는 자신의 전시물에 대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전시해설 방법을 다각적으로 구상하며 익히고 있다. 그 방법으로 양 도슨트는 Table 13과 같이 5가지 방법을 통해 전시해설 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Table 13 전시해설 방법에 대한 지식 습득 방법

<p>방법 1. 전시해설 관찰 멘토링 방법 2. 전시해설의 반복적 실습 방법 3. 자기 멘토링 방법 4. 곤충 키우기 등 체험 및 실험 실습 방법 5. 자녀를 대상으로 한 예비 해설</p>
--

방법 1. 전시해설 관찰 멘토링

양 도슨트는 활동 초기 전시해설을 위한 지식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전문용어

도 생소하고 어떤 전문서적을 봐야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해설을 해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할 전문가도 없는 상황 등 모든 것이 막막했다. 또한 ‘저걸 내가 어떻게 해’ 하는 두려움에 자신감 또한 없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양 도슨트에게 도슨트 활성화를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었던 정 학예사는 자신감을 불러 일으켜 줬고, 어떤 방향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지 길잡이가 되 주었다. 다음 인터뷰는 정 학예사가 전시해설에 대해 직접 체험을 하고 분위기를 익힐 수 있도록 양 도슨트를 비롯 도슨트들에게 박물관대회를 방문케 했던 회상이다.

정 학예사 같은 경우는 “책100권 읽어봐야 소용없어. (현장에) 나가서 뛰어 봐야지.” 그래서 채집 할 때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 다음에 박물관대회가 있었잖아요. 코엑스로 저희를 데리고 갔어요. 굉장한 반대를 무릅쓰고 비용을 데서... 우리가 필 알겠어. 영어의 영자도 모르는데, 졸다가 나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왜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이 분위기를 익혀라. 이 분들이 생각하는 (도슨트) 선생님들은 대단한 거다.” 그런데 정말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들 생각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다른 나라는 (도슨트의 인식이) 대단하구나.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과학관 학예사들이) 너무 안 가르쳐 줘서 (힘들었는데)

[양 도슨트 인터뷰]

활동 초기 도슨트의 전시해설에 대한 뚜렷한 개념이 없었던 양 도슨트는 세계 박물관인들이 참가하는 세계박물관대회 참여를 통해 도슨트 전시해설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갖으면서 도슨트의 전시해설 관찰을 통해 전시해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조금씩 알게 된다. 즉, 대영박물관, 루브르박물관 등 전세계 박물관, 미술관, 학계에서 2,000명 이상의 관장과 큐레이터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문화계 최고 명성의 국제행사에 구성원이 될 수 있고,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박물관의 기능과 가치를 이해하게 하는데 그 중심에 도슨트가 있고, 그 도슨트의 역할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은 자신들이 국내에서 느꼈던 거와는 다른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또한 다른 도슨트의 전시해설 관찰이 전시해설의 방법적인 면을 익히기에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도슨트 전시해설 관찰을 꾸준히 하면서 전시해설에 대한 방법을 익히게 된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관찰자

는 실질적인 깨달음과 공감대 형성이라는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음은 양 도슨트가 다른 도슨트의 활동을 관찰 하면서 전시해설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저희는 도슨트라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어떻게 하는 지도 몰랐고, 저하고 1기 선생님들하고 (활동 할 초기) 그때는 뭐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000박물관가서 보고, 궁궐지킴이 가서 보고, 어디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깐.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래서 같이 멘토링도 대개 많이 하고 스터디도 많이 하고, 모르니깐

[양 도슨트 인터뷰]

위 인터뷰에서 양 도슨트는 과학관이 아닌 박물관에서 멘토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과학관에서 전시해설의 시도는 양 도슨트가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S과학관이 처음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양 도슨트는 과학관에서의 멘토를 찾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양 도슨트와 동기 도슨트들은 도슨트의 전시해설이 있는 박물관을 방문하여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시해설을 관찰하고 과학관 전시해설에 응용하여 해설 방법을 익히게 된다. 그 후 양 도슨트는 주변 과학관에서 도슨트 제도가 시도됨에 따라 다른 도슨트의 전시해설을 관찰하고 녹음해서 멘토링을 하면서 자신의 해설에 대한 반성과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한다.

방법 2. 전시해설의 반복적 실습

양 도슨트는 멘토링과 함께 스스로 시현해 보기도 한다. 양 도슨트는 초창기 현장 적응 훈련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과학관 운영시간이 끝난 후 전시관을 수차례 돌면서 전시해설 방법을 익혔다.

근데 우리는 선배가 없었기 때문에 정 학예사님하고 같이 한번에 (전시관을) 몇 바퀴를 돌았지. 몇 달을 돌았죠. 그 다음에 불 끄고(=폐관 후) 우리끼리 돌고, 막 지적하고, 그래서 떨리는 가운데 다 같이 그렇게 (피드백)했거든요. 정말 멘토링을 한거죠.

[양 도슨트 인터뷰]

위 같은 현장 실습을 통해 양 도슨트는 전시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광범위한 내용을 한 시간에 추려 알맞은 수준으로 조율하며, 어떤 관람객이 눈앞에 있어도 소화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익힐 수 있었다고 한다. 즉 전시관에서 전시해설을 실제 시현 취득함으로써 현장 경험을 익히게 된 것이다.

한편, 양 도슨트는 초임시절엔 아직 전시해설이 익숙지 않아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전시해설 자체도 자신에게는 실습이 연장된 실전이었다. 다음은 양 도슨트가 실전에서 학습한 전시해설 방법의 일부이다.

그래서 계속 시계 봐가면서 하거든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 이쯤 되면 시간이 얼마나 됐겠구나 해가면서... 처음에는 그 조절이 안 되가지고 알람으로 드르륵 영딩이에 신호가 오게 했었어요. 내가 오버하고 그랬었거든 처음에는... 근데 그런 것도 누가 가르쳐 줬나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양 도슨트 인터뷰]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을 하다보면 관람객의 반응이 좋고 자신도 전시해설에 빠지다 보면 정해진 1시간의 해설시간을 훌쩍 넘기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전시해설의 전체적인 시간 감각을 익혔다고 한다.

방법 3. 자기 멘토링

한편 양 도슨트는 자신의 전시해설을 직접 녹음하여 들음으로서 스스로가 멘토가 되어 멘토링을 한다. 멘토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멘토들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전시해설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양 도슨트는 직접 자신을 멘토링한다. 다음 인터뷰는 양 도슨트가 자신을 멘토링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다.

저는 지금도 제가 하는 것을 가끔 녹음을 해요. (들어보면) 가끔 오버 할 때가 있어요. 반응이 좋으면 내가 오버를 하고 톤이 막 올라가구. 근데 모르는 것을 (관람객이) 물어 봤을 때 이것인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나 막 그런 것들이 보여지죠. 느껴지죠. ‘아~ 이것을 누가 녹음해 봤다.’라고 한다면 이

런 생각하면서... 나는 항상 누가 녹음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설을 하거든요. **저의 행동에 항상 CCTV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젊은 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첫사랑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해설을 하래 그 소리가 살면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저는 자세 같은 것도 딱 허리 필러구 하고, 보고 있을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 거야. 관람객이 어디선가 보고 있고. 요번 목요일 날도 “선생님 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많이 다니니까 나는 모르겠는 거야 그때는 너무 미안해. 그래서 나는 저한테 “안녕하세요.”이러면 나도(목소리 톤을 올리면서, 알았던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반갑게) “어! 안녕하세요.”이러거든 O 박물관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데 내 목소리 듣고 온 거야... 물어보니까 I 과학관에서 나를 본거야

[양 도슨트 인터뷰]

위 인터뷰에서 양 도슨트는 항상 자신이 멘토가 되어 스스로 반성과 긴장을 하며 전시해설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양 도슨트는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 들어보면 많은 생각과 느낌에 발전을 꾀하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즉, 자기반성을 통해 용어선택, 억양, 자세 등을 수정하면서 전시해설에 대해 관람객들에게 신뢰감을 주게 된다.

방법 4. 곤충 키우기 등 체험 및 실험 실습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의 강점은 체험에 의한 지식습득이 강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손쉽게 지식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양 도슨트는 식물을 직접 채집하거나 씨앗들을 직접 모아서 보여줌으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 도슨트와 지식을 공유한다. 또한 양 도슨트는 다음과 같이 직접 곤충을 키워보는 열정도 있다.

키워보라며 주신 애벌레의 크기는 한 2cm 정도나 되었을까? 가져와 그 크기를 가늠하기 위하여 **달력과 동전에 놓고 사진도 찍고 기록도 열심히 했었네요.** 한 마리는 당해 여름에 **우화**하고, 한 마리는 죽은 것으로 알았다가 설명 들었는데 베란다에 놓았기에 추위 동면 들어갔다는...<중략>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사부에게 알렸어요. “우화되었어요. 정말 예쁘다!”

[2010. 07. 22. 양 도슨트 인터넷 카페 게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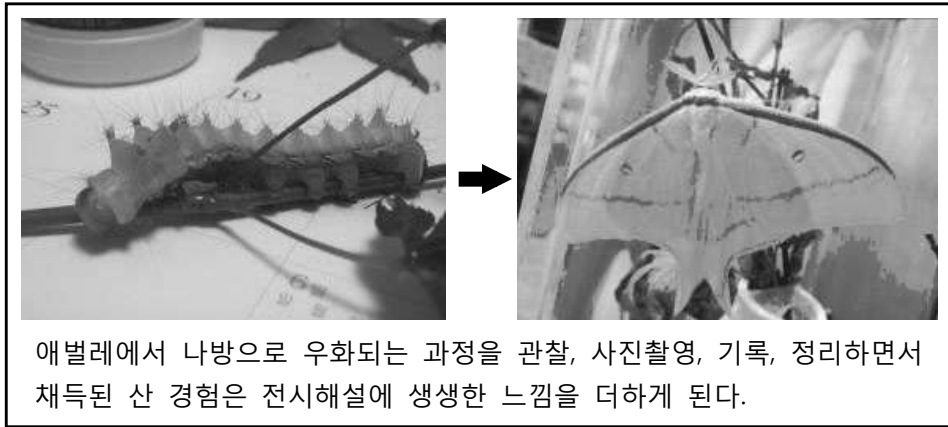


Fig. 33 양 도슨트의 체험을 통한 전시해설 방법 습득 자료

양 도슨트는 체험을 함으로서 느꼈던 그 느낌을 최대한 살려 관람객들로 하여금 지루할 수 있는 전문내용에 생생한 느낌을 전달하고, 이러한 체험에 의한 지식습득은 양 도슨트의 실력을 더욱더 탄탄하게 한다.

방법 5. 자녀를 대상으로 한 예비 해설

양 도슨트는 좀 더 쉽게 관람객들에게 전시해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특히 어린이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는 전시해설을 하기 위해 자녀들을 통해 모색한다고 한다. 다음은 양 도슨트가 딸을 통해서 전시해설 방법을 익히는 것에 대한 인터뷰이다.

*어떻게 외워야 할지 내가 해낼 때 자기만의 스타일로 알려준다는 것 나의
실험무대조 딸내미는 “이게 말 어렵니?”라고 물어봤을 때 딸이 재미없다면
관람객도 재미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뭘 만들었을 때, 나는 오류가 안 보
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협조가 이루어진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강하죠.*

[양 도슨트 인터뷰]

양 도슨트는 아이들의 생각, 아이들의 언어를 딸과 아들에게서 배우고 함께 고민도 하면서 자신의 오류도 수정하고 있었다. 즉, 어른의 눈높이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시해설의 한계를 자녀들을 통해 극복할 수 있게 되면서 어린이 눈높이 맞춤 전시해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양 도슨트는 어린이 눈높이 해설이 가능하게 해주는 자

너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 자신의 강점이라고 이야기한다.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 방법을 익히는데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즉 도슨트의 전시해설 관찰 멘토링과 자신에 대한 멘토링 그리고 직접 실험 등을 해봄으로서 다양한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춘 전시해설 방법을 익히고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전시해설을 이끌기 위한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 경험을 통한 지식은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도슨트에게 생생한 현장감이 있는 전시해설과 전시해설에 자신감을 주는 중요한 교육방법이 된다.

(4) 과학관 건립목적에 대한 지식

과학관은 과학문화 저변확대라는 공통적인 목적과 각 과학관의 건립목적이 관람객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전시내용이 구성된다. 과학관의 목적에 따른 전시내용이 관람객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 위해서, 전시해설을 하는 도슨트는 과학관의 건립 목적을 충분히 숙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양 도슨트는 도슨트 활동 초창기엔 단순히 전시물자체의 전시해설에 치중했지 과학관의 건립목적이 반영된 전시해설을 해야 한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음을 다음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기관 의 건립)목적 이. 그런데 그 목적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해설을 6년 했더라구요. 박물관만 하다보니깐, I과학관을 갔는데, 거기서 한 2년 (건립목적 넣지 않고) 해설을 했는데, 2년 해설을 하고 나서 ‘거기가 참 홍보관이었지.’ 박물관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 참 한심한 건데

[양 도슨트 인터뷰]

위 인터뷰에서는 양 도슨트가 과학관의 목적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전시해설을 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에 있어서 과학관의 건립목적이 반영되어야 함을 인식한 이후로 전시해설에 있어서 건립목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학습하고 있다.

또한 그 학습은 전시해설을 통해서 실천되고 있었다. 다음은 양 도슨트가 전시해설에 있어서 건립목적이 반영되어야 함을 인식한 이후 전시해설을 하는 전시해설 관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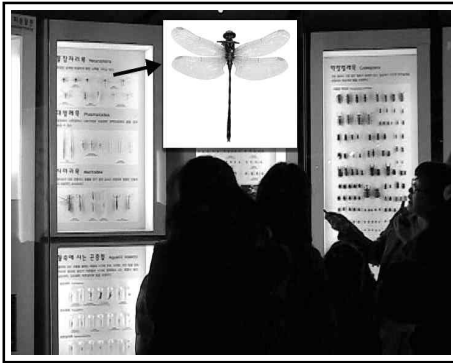


Fig. 34 곤충의 비행 특징 적용사례를 통한 과학관 건립목적 설명

공항이나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들어왔을 때 “잠깐만 서 있어봐 여기 복잡해 나중에 들어와”라고 한다면 비행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회전하지요? 왜? 뒤로 갈 수도 없고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근데 헬리콥터는 “잠깐만 서 있어봐”라고 하면 서지요? 바람만 불뿐... 그래서 애를 보고 발명한 발명품. 여러분들이 곤충을 자세히 관찰하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2011. 02. 19. 양 도슨트 전시해설 관찰, I과학관에서]

양 도슨트의 전시물 설명은 단순히 내용학적 이론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전시물 즉 생물의 다양한 특징들이 우리 일상에서 많이 적용(부채장수잠자리의 정지비행 - 헬리콥터 등)되고 있음을 잊지 않고 설명을 하고 있었다. 관찰을 하는 본 연구자도 I과학관의 건립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다.

[현장노트]

위 과학관은 ‘생물이 자원이다.’는 건립 목적을 가지고 관람객들에게 생물의 다양한 자원으로서의 활용성을 알리는 홍보관으로 양 도슨트는 곤충을 설명하면서 이 곤충의 특징이 헬리콥터라는 발명품의 모델이 되었음을 전시해설하고 있다. 양 도슨트의 사례처럼 과학관 건립 목적을 도슨트가 인식을 해야지 만이 전시해설에 있어

서 과학관의 건립목적이 반영되고, 전시해설의 방향이 설정되면서 일괄적인 전시해설이 이루어지게 된다.

(5) 전시해설 환경에 대한 지식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에 있어서 단순히 과학적 사실을 전달하기 보다는 우리가 무심코 보고 지나치는 것들에는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전시해설을 통해 알리고 있었다. 다음은 양 도슨트가 전시해설을 하는 수업으로 사회적 맥락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Fig. 35 전시물(미쓰김라일락)이 갖는 사회적 의미 설명

(지금은) 로얄티를 주고 사오고 있어요. 우리 거였는데 우리가 학명을 붙이지 못하고 우리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2011. 02. 19. 양 도슨트 전시해설 관찰, 과학관에서]

양 도슨트는 일반 이론 설명 이외에 전시물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우리(양 도슨트 및 관람객)가 쉽게 지나치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었다.

[현장노트]

위 사례처럼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을 통해 과학적 사실을 이해시키고 우리의 것을 지키지 못하여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관람객들로 하여금

우리 것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양 도슨트의 사회적 맥락이 함께하는 전시해설은 관람객에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료 도슨트에게도 그러한 전시해설이 되도록 당부하고 있다. 또한, 과학관 밖의 정보에도 관심을 갖고 특히 자연사에 대한 해설에는 학설의 변화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 및 정보 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편,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 환경에 대한 지식은 사회적 맥락 외에 과학관 내 전시관 및 시설물의 지리적 공간의 인식과 안내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양 도슨트는 자신이 전시해설하는 과학관은 물론이거니와 어느 곳을 가든지 홈페이지와 도록, 리플렛 등 기본적인 정보 외에 편의시설 및 조명, 전시기법 등을 꼼꼼히 살펴본다고 한다. 과학관내 시설물의 위치를 익힘으로서 양 도슨트는 관람객들의 과학관내 시설물 이용에 편의를 제공 하고 있다. 다음은 양 도슨트가 전시해설에 앞서 관람객들에게 편안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안내하는 것이다.



Fig. 36 편의시설을 안내하는 양 도슨트

양 도슨트 : **가방이 무거운 분들**은요. **우측에 보면 보관함이 있어요. 보관하시고** **저랑 한 50분에서 1시간정도 시간을 소요할거기 때문에 화장실** **갔다 오고 싶은 친구들은 다녀올래요? 화장실 안가도 되겠어요?**

관람객 : 네

양 도슨트 : (또 다른 관람객을 향해) **네. 화장실 안가도 되겠어요? 화장실은 뒤를 보면 표식이 있어 보일거야 빨리 갔다 오세요. 오면 시작할거예요.**

[2011. 02. 19. 양 도슨트 전시해설 관찰, I과학관에서]

양 도슨트는 I과학관 편의시설의 위치(물건 보관함, 화장실 등)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서 전시해설 시작 전에 안내를 함으로서 관람객이 좀 더 편안하게 전시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양 도슨트의 안내를 받은 관람객은 낯선 시설물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였다.

[현장노트]

양 도슨트는 과학관내 시설물을 숙지하고 있어서 위와 같이 관람객에게 안내 함은 물론 관람객이 음식물을 엮지르는 등 돌발사항을 바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Table. 23).

본 장에서는 양 도슨트가 전문가로서 전시해설을 위해 형성한 실천적 지식을 Elbaz(1981)가 제시한 교사의 실천적 지식 내용 분석틀을 기초로 분석 및 해석하였다(Table 14).

Table 14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 구성요소에 따른 양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 내용

지식의 구성요소	도슨트 실천적 지식 내용에 따른 양 도슨트의 신념
도슨트 자신에 대한 지식-신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슨트 개인적 가치와 목적에 관한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좋은' 전시해설은 누구나 편하고 재미있어야 한다. 2. '좋은' 전시해설은 관람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관람객을 배려하는 것이다. 3. '좋은' 전시해설은 아이들의 학습태도를 함께 지도하는 것이다. 4. '좋은' 전시해설은 이를 좋아하면 할 수 있고 경제력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 전문인으로서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좋은' 전시해설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 동료 도슨트와 학예사의 관계 속에 놓인 자신을 이해하거나 판단하는 능력에 관한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 '좋은' 전시해설은 학예사와 동료가 함께하는 것이다.
전시내용에 대한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물의 내용학에 관한 지식(습득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다큐멘터리 등 TV 프로그램, 신문, 인터넷, 전문서적을 통한 정보 습득 2. 과학관 및 박물관 관람을 통한 자료 수집 3. 다양한 과학관 도슨트 양성과정 이수를 통한 지식 습득 4. 동료 도슨트와의 주제 토론 5. 멘토링을 통한 간접적 경험 지식 쌓기

Table 14 계속

지식의 구성요소	양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 내용
전시내용에 대한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객이 과학관에서 꼭 알아야 하는 지식은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관의 건립목적이(“생물이 자원이다.”) 반영된 전시해설을 통해 실생활 적용 사례를(집개다리 → 펜치) 설명 • 선택한 내용이 왜 알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관람객의 교육적 관심을 인지하여 현 교육경향을 과학관의 전시물과 연결하여 해설, 초등학교 3학년 관람객의 전시물에 대한 흥미 유발을 위해 교과서와 연결됨을 강조
전시해설 방법에 대한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춘 전시해설 방법에 관한 지식(습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전시해설 관찰 멘토링 2. 전시해설의 반복적 실습 3. 자기 멘토링 4. 곤충 키우기 등 체험 및 실험 실습 5. 자녀를 대상으로 한 예비 해설
과학관 건립 목적에 대한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관의 건립목적을 인지하여 그에 맞게 전시설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건립목적(“생물이 자원이다.”)을 인지하여 전시물 설명시 실생활의 적용사례를(잡자리의 정지비행을 헬리콥터에 적용) 적절히 활용
전시해설 환경에 대한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슨트를 둘러싼 사회, 문화의 이해에 대한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물에 관한 사회적 의미 인식(미스김라일락이 우리 꽃이었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로얄티를 주고 사오고 있어요) • 과학관 내 전시관 및 시설물의 지리적 공간에 대한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편의시설 안내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에 대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평가되고 이는 과학관의 이미지와 직결됨에 따라 늘 관람객을 위한 ‘좋은’ 전시해설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은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에 대한 신념으로 나타났다. 양 도슨트는 ‘좋은’ 전시해설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시내용에 대한 지식과 전시해설 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스스로 관찰하고 체험을 하는 등 주로 체득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있었다.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은 습득된 지식과 전시관이라는 환경, 사회적 이슈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양 도슨트는 자신의 전시해설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관람객의 입장에서 좀 더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전시해설에 치중했지 과학관의 건립목적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과학관의 건립목적을 도슨트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지 전시해설의 방향과 돌발적인 질문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를 할 수 있음에도 양 도슨트는 이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전시해설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에 대한 실천적 지식 구성과 그 인식에 대한 변화를 다음 Fig. 37로 도식화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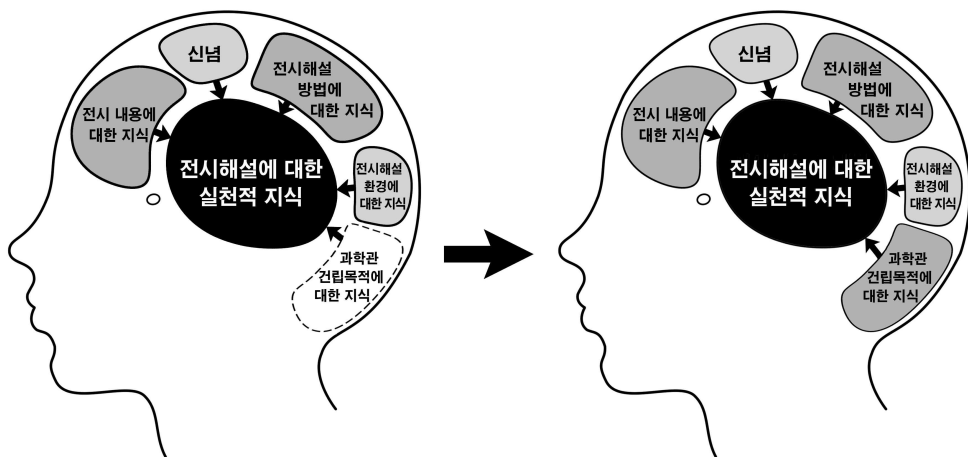


Fig. 37 양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과 그 인식에 대한 변화

양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 형성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중요하지만 간과했던 사항 즉, 과학관의 건립목적은 도슨트가 전시해설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양성교육과정 동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도슨트 실천적 지식의 5가지

구성을 보면 도슨트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념이 생기고 도슨트 스스로가 그 필요성을 느끼면서 형성되는 사항이 다수 이지만 과학관 건립목적에 대한 지식은 과학관에서 강조를 하지 않으면 도슨트 자신도 아무런 의식 없이 과학관의 건립목적이 반영되지 않은 전시해설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슨트 양성교육과정 동안 실천적 지식형성에 대한 모든 지식 영역을 교육시킬 수는 없지만 도슨트가 전시해설을 하는데 있어서 목적의식(과학관에서 추구하는 목적 등)을 갖고 전시해설을 할 수 있도록 양성교육과정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b. 효과적인 전시해설을 위한 전략

주로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실천적 지식을 탐구한 Elbaz(1983)는 ‘실천의 규칙’이란 구체적인 지시들로서 교수 상황에서 교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처방하는 전략과 명백하게 공식화된 진술들이라고 보았다(김자영, 2002). 이러한 개념은 본 연구의 초기 자료수집과 분석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연구과정에서 보다 명료해졌다. 즉, 전략수준의 실천적 지식이 가지는 구체적인 성격이 명확해짐에 따라 면담 보다는 관찰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지식은 전시해설과 관련된 상황에서 양 도슨트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로 나타는 가장 구체적인 지식인 전략으로 개념화되었다. 그리고 전략은 신념이 실제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지식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세분되었다. 본 장에서는 연구를 통해 나타난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에 관한 전략을 전시해설 이전 단계, 전시해설 실행 단계, 전시해설 이후 단계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1) 전시해설 이전 단계 - 전시해설 준비 전략

한 전시관의 전시해설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하다보면 전시물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되면서 전시해설 준비에 부담을 덜 갖게 된다. 특히 다양한 곳에서 전시해설을 하다 보면 변수가 많은 전시관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이 생기게 된

다. 8년 경력의 양 도슨트는 2004년 S과학관에서 도슨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 현재까지 S과학관의 전시관에서 전시해설을 해오고 있는 경력자이다. 또한 양 도슨트는 S과학관의 전시해설 뿐만 아니라 I과학관, G과학관, O박물관의 전시해설도 하고 있다.

양 도슨트는 “이곳은 홍보관으로 생물이 자원에 활용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쪽은 이러한 것에 대해 전시되어 있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시해설을 해야되요.” 등과 같은 말을 함으로써 과학관의 건립목적에 대해서, 전시관의 전시물에 대해서, 관람객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전시해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양 도슨트는 활동하고 있는 과학관의 전시해설에 있어서 능숙하더라도 “저는 과학에 대해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늘 자료를 정리하고 공부한다.”고 이야기 한다. 양 도슨트는 평소 전시해설을 위해 체험 및 전시해설 관찰, 동료 도슨트와의 주제 토론, 전시해설의 반복적 실습, 다양한 과학관 도슨트 양성교육과정 이수, 시나리오 작성을 통한 전문가의 검증, 전시해설 녹음을 통한 역양 등 수정 및 반성, 자녀와 함께 자료 수집, 다큐멘터리 등 TV 프로그램, 신문을 통한 정보 습득, 인터넷을 통한 자료 열람 등을 통해 지식을 얻었다.

양 도슨트는 평소 전시해설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면서도 전시해설에 있어서 “4~50%는 똑같이 하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시해설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양 도슨트의 “4~50%는 똑같이 하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시해설을 한다.”는 것은 이미 사전에 학습된 전시해설에 대한 준비에 기반을 두고 관람객의 전시해설 이해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 도슨트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시해설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수의 경험에 의한 노하우라는 것으로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관람객의 성향은 어떠한지, 어떻게 하면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전시해설을 끝까지 지루하지 않게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것 이었다. 양 도슨트는 관람객과 관련하여 총체적으로 조망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었다. O 박물관에서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해설의 예를 통해 보면, 양 도슨트는 옛 서울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시해설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동의 학습 수준과 신체적·심리적 발달 특성을 고려하였다. 역사에 관해 전시해설 할 때, 양 도슨

트는 Table 15과 같이 아동의 학습 수준을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역사 속 지명과 관직을 아동이 익히기에 어렵다는 점, 다소 어려운 역사를 정적인 상황에서 전시해설을 듣기에 아동은 활동적이라는 신체적 특징이 있다는 점, 전시해설에는 방문경험이 있거나 처음 방문을 한 아동들이 함께 동참을 하기 때문에 처음 방문한 아동의 경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 했을 때 심리적 위축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전시해설을 했다.

Table 15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에 대한 준비

양 도슨트의 준비	역사 전시해설에 대한 교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학습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역사 속 지명을 아동이 익히기에 아직 어렵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 지명들이 한자로 되어 있어 어렵기 때문에 지명이 프린트 되어 있는 스티커와 미션지를 나눠주고 지명을 찾아서 붙여보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해설을 해보니 아동의 경우 활동적이다. 아마 어려운 역사를 해설하는데 정적으로 전시해설을 하면 아동은 집중에 힘들어하고 전시해설을 끝까지 듣지 못할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 지명을 익히기 위해 전시물에 있는 버튼을 조작하게 함으로서 누르는 행동과 전시물에서 반응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다. • 역사적 관직의 상관관계를 익히기 위해 윷(승경도)놀이를 적용하여 게임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해설에는 방문경험이 있거나 처음 방문을 한 아동들이 함께 동참을 하기 때문에 처음 방문한 아동의 경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 했을 때 심리적 위축이 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방문한 아동에게 다른 아이들은 이곳에 여러 번 방문을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한다. • 머리를 쓰다듬는 등 약간의 스킨십을 통해 친근감을 준다.

양 도슨트의 이와 같은 “4~50%는 똑같이 하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하는 전시해설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적 구성주의가 갖는 주요한 특성의 하나인 출현성(emergence)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Prawat & Floden, 1994). 이러한 출현성을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기계적인 적용과정이

아니라 관람객의 반응과 양 도슨트의 대응이 상호작용하면서 빚어내는 사회적 구성물로 본 것이다. 이러한 전시해설의 예측할 수 없는 출현성은 미래에 일어날 실제적인 과정이 전시해설의 예측을 벗어난다면 전시해설계획의 기능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회의를 갖게 한다. 이에 대해 Simon(1995)은 교사가 원하는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계획이라는 말 대신 '궤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수업에 대한 사전 계획과 즉각적인 결정을 동시에 강조하기 위함이다(김자영, 2002). 양 도슨트의 경우 전시해설 상황의 이해에 의거하여 전시해설을 계속적으로 변화시켰는데, 이와 같은 즉각적인 결정은 그녀가 전시해설에 대하여 이미 치밀한 사전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Leinhardt & Smith(1985)에 따르면 경험있는 전문가 교사는 초보 교사보다 더 정교하게 조직된 지식의 망을 이미 형성하고 있어 이를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8년차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있었다.

요컨대,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가? McCutcheon(1995)은 수업의 '계획'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글로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수업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획 세우기를 교사가 가르치는 과정에서 정교화 되어지는 구체적인 사전의 윤곽으로 본다면 교사들은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양 도슨트는 여러 가지 풍부한 전시해설 자료를 통하여 전시해설을 준비하였다. 또한, 전시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을 통찰하여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전준비를 하고 있었다.

(2) 전시해설 실행 단계 -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한 전략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 실행 단계에서 나타난 전략수준의 실천적 지식은 전시해설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하여 전시내용 관련 전략들과 전시내용 외 부차적 전략들로 구별 할 수 있는데, 이때에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에 대한 실천적 지식이 상호관련되어 사용되었다.

1. 전시내용 관련 전략들

전시내용 관련 전략들은 전시물이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를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으로 양 도슨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저도 전공 안했고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 전공하신 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람객 눈높이 언어가 나갈 수 있습니다. 전문용어가 아니라”라고 즉, 전공자들은 전시 설명을 할 때 어려운 전공단어를 사용하여 설명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는데 도슨트는 일상용어를 차용하기 때문에 전시물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한다.

관람객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과학관을 방문한 관람객, 여가를 즐기기 위해 방문한 관람객 등 그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관람객의 흥미를 얼마나 끄느냐에 따라 전시해설을 듣는 관람객의 수는 전시해설 진행 중 유동적이다. 대체로 도슨트들의 전시해설을 관찰하면 전시해설을 시작했을 때와 전시해설이 마무리 될 쯤 관람객의 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을 듣는 관람객들은 진행 중 그 수가 점점 늘고 있었다. 이러한 관람객의 반응은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 기법과 관련된 다양한 전략이 전시해설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그 다양한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을 관찰하였다. 관찰을 통해 나타난 전략은 과학관 건립목적 반응을 기본으로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법을 사용하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실례’와 재미있는 말의 유래 소개 및 다른 곳에서는 듣기 힘든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 전략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과학관 건립목적과 관련된 전략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을 하다보면 관람객에게 과학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단순히 전시물을 관람하는 것에 그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을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과학관에 대한 건립목적에 대해 충분히 인식시키고 그에 맞게 전시해설을 진행한다고 한다. 다음은 이에 따른 인터뷰와 전시해설 관찰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화 다 알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천문대를 갔다 왔는데 그냥 거기서 한두 가지 내가 어디 가서 아는 체 할 수 있을 정도 그렇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너무나 잘난 척하고 싶어 하니깐 그 다음에 갔다 왔을 때 “아 그때 갔는데 그렇더라 너 그거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한두 가지. 그래서 저랑 설명 끝나고 나면, “이것만은 머리에 담아 가세요.”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든... 자연사를 왔다갔는데, 자연사가 뭔지 모르고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디를 갔다 왔는데, 거기가 왜 생겨났는지 의미를 모르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생각보다. <중략> 옛날엔 저도 물론 그랬죠. 지금은 “자연사가 뭐예요?” 항상 그 타이틀부터 얘기를 해줘야 돼 해설할 때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라고 하면 모르는 애들도 많아 그냥 엄마가 가래니까 오는 거야. 지나가다 있으니까 오고, 박물관, 전시관, 체험관, 홍보관 다 다르잖아요. 목적이....

[양 도슨트 인터뷰]



Fig. 38 과학관을 소개하는 양 도슨트

양 도슨트 : 여기는 어디일까요?

관람객(어린이) : 자연수업박물관

양 도슨트 : 자연수업박물관? 아~ 그렇게 알고 왔구나, (다른 어린이에게) 또 여기가 어디 일까요?

관람객(어린이) : 박물관

양 도슨트 : 박물관 또.

관람객 : I과학관

양 도슨트 :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박물관이라는 것은 전시, 수집, 교육,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목적이 홍보관이예요. 무엇을 홍보하기 위한 곳이나면 '생물이 자원이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박물관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011. 02. 19. 양 도슨트 전시해설 관찰, I과학관에서]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에 앞서 과학관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관람객들로 하여금 방문한 과학관이 박물관의 개념과 다름을 정확히 인식시키고 있었다. 실제 방문한 관람객들은 양 도슨트의 질문(이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에 선 듯 대답을 못하고 있었고, 관람객들이 과학관을 방문 하지만 그곳이 실제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고 오지는 않는 것 같았다.

[현장노트]

양 도슨트는 “관람객이 전시해설을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과학관을 방문한 만큼 꼭 기억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시해설 시작 전에 강조를 한다고 이야기한다. 양 도슨트는 과학관의 건립목적이 잘 전달되도록 여러 가지 전시해설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 비유법을 사용하는 전략

과학관은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과학을 좀 더 친근하게,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도슨트의 전시해설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양 도슨트는 전시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용어보다는 일상용어를,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과학적 사실을 일상에서 친근한 사물에 비유하여 그 자체의 성질·모양 등을 뚜렷하고 선명하게 하여 전달하고자하는 내용을 좀 더 생생하게 하거나 쉽게 이해시키고 있다. 이런 비유에 대해서 최경희(2004)는 과학학습과정에서 비유를 이용한 설명은 과학학습의 특성상 불가피한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화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촉진하고, 새로운 개념과 신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 혹은 이전 경험 간의 유사성을 비교하게 하여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서 능동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음에서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에 있어서 전문용어를 대신해서 일상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전시물의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애들한테 자연사(=과학관 전시장 생태코너) 설명할 때 생산자 분해자가 뭔지 물어보잖아요. (대부분) 생산자 분해자가 뭔지 몰라요. 그냥 외우는 거야. 저는 외우는 거 싫거든요. 분해자란 건 말이야 곰팡이 같은 거 있지? 썩히는 거 있지? 이렇게 (쉬운 언어로) 설명하는 게 우리들(=도슨트들) 방법이 짱아요. 그런 방법을 다 빼먹는 게 전공자들의 방법(=학술적 표현, 학문적 표현)이거든요.

[양 도슨트 인터뷰]

다음은 양 도슨트가 양서류와 파충류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 일상생활의 경험을 끌어들이 둘의 차이점을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관심을 갖게 하는 게, 공부하게끔 하는 게 (도슨트 양성교육 및 운영) 당자의 역할이라면, (해설을 위한 실전) 공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만 기본(이론) 지식을 가르쳐 주고 정확한 원리를 알게 하는 거는 양성과정에서 필요한 거구... <중략> 그게(=테스트, 이수) 통과가 됐을 때 그것(=이론)을 가지고 말을 쉽게 번역을 하는 번역기(=도슨트 해설)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요. 이야기꾼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아까 내가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의 차이를 삼투압 어쩌구 저쩌구 그러는데 이 원리는 알겠는데 100%가 내 것이 안 되니까 번역이 안 되는 거야 관람객한테 쉽게 설명해 주는 번역이 그게 참 신경질이 난다. 예를 들어 양서류 파충류를 설명할 때도 양서류가 물과 육지에서 (한살이동안 어느 시기에 오가며) 산다는 걸 설명을 다 하잖아 도슨트가 자기 걸로 만들려면 왜 물에 사는지를 설명해 줘야지요. 그래서 저는 “왜 물에 사냐고” 물어보면 “양서류의 알이 팔랑팔랑하잖아요. 애가 육지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하고 물어 보죠 그러면 “죽어요.” 그래요. 그러면 “왜 죽니?” 그러면 “뱀아서 죽어요.” 그래요 애들이 그러면 저는 “말라서 죽는다.” 그래요 그렇다면 다르게 생각해서 “파충류 알을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은 안 해보더라구 저도 안 해봤어 생각한지 얼마 안됐어. “물에 넣으면 죽지 달걀도 가만히 보면 구멍이 있잖아 공룡알도 숨구멍이 있는데 그 숨구멍을 물로 막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물에 넣을 수 없다.”라고 역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좌심방이 어찌고 심실이 어찌고 그런다는 거지 그건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지.

[양 도슨트 인터뷰]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양 도슨트는 과학적 사실을 이론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 이론을 자신의 언어로 해석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곰팡’이라는 용어대신 ‘씩히는 것’이라는 쉬운 말을 사용하여 어린이 관람객들로 하여금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물속과 육지 환경의 차이점을 빌려와 파충류 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양 도슨트가 많은 사고 과정을 통해 개발한 자신의 언어를 전시해설에 적절히 사용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전략이다. 이런 양 도슨트의 비유적 표현을 통한 전시해설 방법에 대해서 동료 백 도슨트는 학생들이 과학관에서 기대하는 바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전공자가 꼭 정확하게 거의 80% 옳게 설명하고 좋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저희는 중간전달자이기 때문에 모르던 것을 본인이 알았

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하고 나름대로 쉽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특히 전시해설을 하게 되는 대상은 현재 일반인 보다는 특히 과학 쪽은 아마 관람객이 초·중등생 일거예요. 대상이 이런 사람을 위한 전시해설이기 때문에 보통 **중등학교 애들 정도 되면 지식(수준)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전문 이론식 설명) 학생들이 기대하는 바가 아니고 기대하는 것은 좀 더 편안하고 쉽게 학교에서 들었던 것과는 또 다른 것을 보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장점(=쉬운 표현으로 해설하는 것)인 것 같아 비전공자가 자기의 의욕만 있다면

[2011. 03. 20. 동료 백 도슨트 인터뷰]

· ‘실례’를 통한 체득 전략

양 도슨트는 “실물을 보여주고 또 만져보게 함으로서 그 느낌을 직접 느껴보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것은 양 도슨트가 전시해설 준비과정에서 직접 체험해봄으로서 과학적 사실을 쉽게 익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례(實例)’란 어떤 법칙이나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실제 예들을 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류수경, 2005) 다음 인터뷰에서 양 도슨트는 ‘다이아몬드의 원석’은 그냥 돌처럼 보이지만 커팅의 과정을 거침으로서 보석이 되는 개념을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

잃어버리니까 “조심해 조심해” 이려고 엄마들이 더 좋아해 원석은 정말 다이아몬드 같지 않거든요. 그냥 돌 같아 “깎았을 때 이렇게 되고 원래 이거다.”라고 보여주고, 나비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참 순수한 게 만져 보라고 하면 손에 묻잖아 그 (손에 묻은) 인편이 그게 신기해 가지고 엄청 신기해해요. 저도 처음엔 신기했거든요. 상어도...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만져보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 만져보라고 시켜요. 그렇게 저는 수업을 해요.

[양 도슨트 인터뷰]

위 인터뷰에서의 곤충 만져보기와 Fig. 39과 같이 운석 만져보기를 통해 관람객은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내용이 촉각을 통해 느낌으로서 체득된다.

양 도슨트의 비유와 실례(實例)의 사용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하여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서 관람객들의 개념 형성을 돕는 것이었다.



Fig. 39 운석 만져보는 장면

[2011. 02. 19. 양 도슨트 전시해설 관찰, S과학관에서]

양 도슨트는 관람객들로 하여금 실물(운석)을 만져 보게 함으로서 지식을 체득 및 습득하게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실제 손으로 운석을 만져본 아이들은 운석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돌과 같고 다만 표면이 매끄럽다는 차이가 있을 뿐임을 촉각을 통해서 익히고 있었다.

[현장노트]

· 전시물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및 단어의 유래 설명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에 있어서 전시물과 관련된 뒷이야기 및 단어의 유래를 적용하면서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즉, 박제 호랑이가 이 과학관에 전시될 수 있었던 경위, 전시물 즉 식물의 이름이 인명처럼 붙여지게 된 이유 등을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동료 도슨트들도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동료 김 도슨트는 다음 인터뷰에서 속담이나 재미있는 말의 유래를 전시해설에 적용하여 사용한다고 이야기한다.

- 동료 김 도슨트 : 저 같은 경우는 패널에 다(=이론설명) 써져 있잖아요. 그런 내용보다는 재미있게 아이들에게 흥미가 있게
- 연구자 :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 동료 김 도슨트 : 가령 매 같은 걸 보면 매사냥하면서 시치미 뺐다는 우리말 정도... 거기서 그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 이야기라든지 썩 이야기할

때에도 암늬수늬은 알고 있는데 새끼 같은 경우는 다 알고 있는 단
어를 뵈지 모르잖아요? 께병이인데

[2011. 03. 20. 동료 김 도슨트 인터뷰]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구나 단어이지만 미처 몰랐던 그 유래를 앎으로서 관람
객들은 전시물에 더욱 친숙함을 느끼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전시해설에 집중한다고
한다.

·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 전략

양 도슨트는 전시물에 대해 관람객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
용하면서도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해설 방향이 있었다. 즉, 관람객이 궁금해 하
지만 들을 수 없는 특별한 이야기들, 남들이 다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들을 양 도슨
트는 전시해설 등 교육활동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그런데 두루(=자연, 과학, 문화) 저도 다 하잖아요. 늘 그(=학예사, 연구사,
전공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닌 나머지를 저는 해요. 예를 들어서 천문
학 같은 경우도 저는 열두 개의 별자리 외운 게 작년이었던거든요.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어서...) 그 다음에 황도12궁 순서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날정도로,
이야기들 있잖아요. 천문대가면 설명해주는 신화 그것도 몰라요 사실은 머리에
안 담아져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신화 같은 거? 맨 날 복수하고 시기
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학예사, 연구사, 전공자) 사람들
은 다 이야기하잖아. 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을 하는 게 저의 경쟁
력인 거 같아. 그니까 안 하는 거. ‘전우직녀’ 얘기하고, 뭐 ‘지구를 관장한
다.’ 이런 얘기하고 이래요.

[양 도슨트 인터뷰]

위와 같은 전시해설 전략에 대해서 양 도슨트는 자신의 경쟁력이라고 이야기한다.
기본 전시내용 전달에 충실하면서 그 전시내용이 흥미롭게 다가 올 수 있도록 재
미있는 이야기를 곁들이는 전략을 양 도슨트는 구사하고 있다.

2. 전시내용 외 부차적 전략들

전시해설을 하는 동안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내용 외에 관람객의 심리적인 면까지 신경을 쓰고 전시해설을 하였다. 그 소재는 인사를 통한 친밀감 형성, 전체 해설시간 안내, 교육정보 제공, 눈높이 해설, 관람객과의 상호작용, 심리전, 관람예절 안내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소재를 통해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양 도슨트의 전시내용 외 부차적인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논하였다.

· 인사 : 관람객의 기본정보 수집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 시작 전에 관람객과 간단한 인사를 하고 전시해설을 진행한다. 인사를 하면서 양 도슨트는 관람객의 관람 목적, 사는 지역 등 간단한 질문을 통해 관람객과의 친밀감을 형성하여 다소 경직될 수 있는 전시해설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함으로서 편안하게 관람 및 전시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 관찰 중 전시해설 시작 부분으로 관람객과의 인사를 하는 장면이다.

양 도슨트 : (정기해설 시작이 40분) 39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안내사항 잠깐 말씀드리고, 먼저 하라고 허락을 받았으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잠깐 모여 주시겠어요? 어디서 왔어요?

관람객(어린이) : 시흥시

양 도슨트 : 시흥시에서 왔어요? 어~ 생각보다는 안 멀다 그치? 선생님은 고양동에서 왔는데, (다른 관람객에게) 어디서 오셨어요?

관람객(학부모) : 부천이요.

양 도슨트 : 부천이요? 부천이면 다음 주에도 오셔야 될 것 같아요.(하하하) 여기는 인천시에 계신 분들에게 너무도 좋은 공간이에요. 교과하구도 맞물리구요. 그 다음에 8차 교육과정(2009 개정교육과정)에 보시면 탐구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유탐구라는 건 요즘엔 꼭 해야 된다는 걸로

[2011. 02. 19. 양 도슨트 전시해설 관찰, I과학관에서]

관람객과 첫 만남에서 서로 서먹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더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 양 도슨트는 서로의 간단한 질문(사는 지역 등)을 시작으로 전시해설을 이어갔다. 관람객들 또한 처음 모습과는 다르게 긴장을 푸는 것 같았다.

[현장노트]

1-2분 정도의 짧은 인사이지만 양 도슨트는 관람객과의 친밀감 형성 이외에 관람객의 구성을 파악하여 전시해설의 방향을 정하게 된다. 학부모의 경우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크므로 학교 교육과 연계되는 과학관 관람을 안내함과 동시에 전시물을 전시해설에서 자주언급하고 있었다.

· 계획성 있는 전시해설 : 총 전시해설시간 안내

양 도슨트는 계획성 있는 전시해설을 진행하고 관람객들로 하여금 계획성 있는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전시해설의 총 진행시간을 관람객들에게 안내한 후 전시해설이 시작된다. 다음은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 시간에 대한 견해이다.

저는 해설을 시작할 때 “제게 주어진 시간이 50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는 것(=반응)에 따라서 제가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50분이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50분 정도면 끝나겠구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재미있으면 더 듣는 거고, 재미없으면 중간에 빠지는 거고, 자율이니까... 그렇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지 나는... 근데 무조건 하는 도슨트가 있어 말도 안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아직도 3층이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답답한 거지... 그리고 어떤 도슨트는 그냥 가다가 (50분이 됐다고) 중간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제일 싫어요. 그런 사람들... “어 이게 뭐야” 끝나는 사람이 (이러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매뉴얼 같은 거에 늘 하는 얘기가 기준은 50분이다. 50분이 제일 안 피곤한 시간이니까.

[양 도슨트 인터뷰]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에 있어서 주어진 시간에 전시관의 전시물을 전체적으로 해설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전시해설은 계획성 있게 진행을 해야 하고, 전시해설의 총 진행시간 안내를 통해 관람객들이 스스로 관람 스케

줄을 짧 수 있도록 하면서 관람객이 전시해설을 끝까지 듣거나 중간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줘야 된다고 보고 있다. 일부 도슨트는 전시해설의 전체적인 계획 없이 진행하다 정해진 시간이 됐다며 전시해설을 중단하거나 관람시간 안내 없이 전시해설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관람객에게 당혹감을 주는 사례에 대해서 양 도슨트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라며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양 도슨트는 전시내용 전체를 해설할 수는 없으므로 선별적으로 해설을 하되 전시관을 입구부터 출구까지 같이 해야 되고 만약 중간에 끝내더라도 처음에 “제가 여기서 끝낼 겁니다.”라고 예고를 해서 듣는 사람이 언제 끝날지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에 있어 50분이라는 기준을 두면서 이 기준시간이 관람객들이 피곤하지 않고 기분 좋게 전시해설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한다.

· **교육 정보제공 : 학부모의 자녀 교육을 위해**

양 도슨트는 학부모 관람객을 위해 전시물의 교육과정 연계성 외에 다양한 학습 정보를 제공한다. 학부모의 경우 아이들 교육을 위해 참고자료를 메모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시해설 내용 외에 교육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 다양한 과학관의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이야기한다. 다음 전시해설 관찰과 Fig. 40은 양 도슨트가 전시해설 중에 관람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 장면이다.



Fig. 40 전시해설과 연관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

우리 어머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소방방재청 사이트를 한번쯤 보여주세요. 우리는 지진이 일어나면 엄마들은 겁이 나서요 될 못한테요. 실질적으로 위험에 닥쳤을 때 아이들은 한답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중략> 흔들리다가 멈췄다가 흔들리다가 멈췄다가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가스 불을 끈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사이트를 보여 주셔서 안전에 대해서 '우리도 닥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 시켜주시면 위험할 때 엄마가 못 챙기는 것을 아이들이 챙길 수 있으니까 그걸 꼭 한번 들어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1. 02. 19. 양 도슨트 전시해설 관찰, S과학관에서]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 내용(지진)과 관련이 되는 생활 속 유용한 정보(재난 대비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안내함으로서 전시해설 외에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시해설에 동참한 학부모들은 최근 일본 대지진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지진 피해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메모를 하였다.

[현장노트]

위 사례처럼 양 도슨트는 전시관내 전시해설 외에 유용한 정보(지진 발생 시 취해야 할 행동 등)를 제공하면서 전시물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고, 학부모 관람객은 이런 정보를 열심히 메모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도슨트의 전시해설은 단순히 전시물에 관한 '사실'전달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여야 한다. 즉, 과학교육에 있어서 '정의적 영역'이나 'STS(Science-Technology-Society)'의 관계 또는 새로운 관점(경제적, 환경적, 정치적)을 전시해설을 통해 전달될 필요가 있다(김효선, 김형훈, 2011).

· 눈높이 해설

과학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그 구성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에 대한 배경지식 또한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람객의 눈높이 맞춤 전시해설 전략이 필요하다. 이 눈높이 맞춤 전시해설 전략은 연령에 따라서, 배경지식에 따른 단어의 선택이 될 수 있고, 전시물에 따른 적절한 비유가 될 것이다. 양 도슨트는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는 전시해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전문가가 와서 질문을 하면 전문가답게 대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 정말 뭘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 해줘야 되요. 근데 그거는 그게 노하우거든요? 그거는 경력? 경력 이런데서 오는 거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익이나 하면 많이 보고 듣고 역지사지라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이 되어 줘야지 알 수 있는 거. 그니깐은 해설의 기준? 그거는 어쨌든 관람객이예요. 관람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연습? 트레이너? 트레이닝? 뭐 멘토? 보통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들은 세월인거 같아요.

[양 도슨트 인터뷰]

눈높이 맞춤 전시해설은 특히 초임 도슨트에게 큰 고민으로 남고 있는데, 8년 경력의 양 도슨트는 오랜 시간동안 전시해설에 대한 많은 경험과, 멘토링, 꾸준한 지식 습득 등 부단한 노력으로 가능해 졌다. 양 도슨트의 눈높이 맞춤 전시해설은 실제 전시해설 관찰을 통해서 다양하게 반영되고 있었다. 다음은 주부 및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눈높이 전시해설 관찰이다.



Fig. 41 홍조식물의 전시해설

되는 거구요. 초록색은 매생이나 아니면 파래 같은 거, 우리 친구들이 김을 먹었을 때 “파란색 나오 초록색 나오.” 얘기하는 것은 파래가 섞인 가공된 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2011. 02. 19. 양 도슨트 전시해설 관찰, 과학관에서]

관람객을 정확히 파악한 양 도슨트는 전시물(식재료)과 관람객(주부)의 상관관계를 놓치지 않고 그들의 관심을 충분히 끌어내고 있다. 한편 관람객(주부)은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식재료가 과학관에서 전시물로 소개 되고 있음에 신기함을 느끼면서 전시해설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같다.

[현장노트]



Fig. 42 거미 모형의 전시물

제가 유치원들한테는 똥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스파이더 맨은 어디서 거미줄이 나오죠?

[2011. 02. 19. 양 도슨트 전시해설 관찰, 과학관에서]

양 도슨트는 거미에 대한 어린이 관람객의 쉬운 이해를 위해 '똥꼬'라는 용어의 사용, 흥미를 위한 만화영화 주인공(스파이더 맨)의 예, 비언어(제스처)를 취하면서 전시물을 설명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양 도슨트의 설명 방법에 대해서 한바탕 웃고 계속해서 전시해설을 들었다.

[현장노트]

위 두 관찰에서 양 도슨트 전시해설은 관람객의 배경지식을 충분히 활용하는 전시해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전시해설에서는 요리에 활용되는 식재료를 예제로 활용하면서 홍조류와 녹조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는가 하면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전시해설에서는 어린이들의 일상용어와 만화 캐릭터를 연결시키면서 흥미를 유발시키는 눈높이 전시해설을 하고 있다. 눈높이 맞춤 전시해설은 다양하게 구성된 관람객들 속에서 어떠한 대상을 기준으로 전시해설을 하느냐 이기도 하다. 어린이, 학부모, 중등학생, 성인 등 다양한 구성의 관람객을 함께 이끌고 전시해설을 해야 하는 도슨트로서는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다음은 자녀와 부모가 함께 전시해설을 들을 경우 동료 홍 도슨트의 대처 방법이다.

연구자 : 관람객들을 보면 어린 꼬마들도 어른들도 있고 섞여있는데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해주면 좋겠는데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동료 홍 도슨트 : 그때는 이를 태면... 하다보면 이 순간에 어디다 맞출 것 인
가 감이와요. 그러면 애들하고 엄마야빠가 올 때에는 애들한테 수준
을 맞춰 줘야지만 이 엄마들이 '이걸 더 집중을 하는 구나'하고
알 수 있었어요. 만일 어른한테 맞추면 아이들은 다

[2011. 03. 20. 동료 홍 도슨트 인터뷰]

한 대상만을 기준으로 전시해설을 하면 다른 대상은 다소 흥미를 잃을 수가 있는
데, 어린이를 동반한 학부모의 경우 과학관의 관람 목적이 자녀의 학습을 위한 것
이므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전시해설을 함으로서 아이들과 부모들 모두 전시해
설에 만족을 느끼는 것을 위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 관람객과의 상호작용

전시해설을 하면서 양 도슨트는 관람객과의 많은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있다. 특
히, 양 도슨트는 '도슨트는 소통'이라는 말을 강조하는데 관람객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전시해설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도슨트 중에는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 하면서 다 이야기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전시해설 시간
의 배합이 안 된다."고 이야기 하면서 그런 도슨트들에 대해서 양 도슨트는 '초짜'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다음은 양 도슨트가 전시해설을 하면서 관람객과 상호작용
을 유도한다는 인터뷰이다.

(도슨트의 해설은) 질문도 하고 주고받아야 (소통이) 된다고 생각해. 저 같은
경우는 주고받으려고 하거든요. 저는 역사박물관도 해설을 하는데 궁궐을 설명할
때 선배 도슨트는 "궁이 뭐고 궐이 뭐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나는 (유치부와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궁궐은 대통령이 먹고, 자고, 싸고 거기서 다 하는데
나랏일을 하잖니"그러면 관람객이 "아~"이래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되고

[양 도슨트 인터뷰]

도슨트의 일방적인 전시해설은 지루한 해설로 이어질 수 있으면서 관람객의 흥미
도 떨어지게 한다. 따라서 전시해설 중에 가벼운 질문을 하고 관람객의 질문을 유
도하면서 관람객의 관심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 심리전

양 도슨트의 상호작용 전시해설은 양 도슨트의 질문에 따른 관람객의 답변뿐만 아니라 관람객의 질문에 의한 답변으로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관람객의 질문에 의한 답변에 있어서 양 도슨트는 질문을 하는 관람객의 심리와 다른 관람객의 심리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한다. 질문을 하는 관람객들은 자신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함도 있지만 또 다른 내면에는 다음과 같은 욕구가 있다.

그렇게 되면 (해설이) 다 끝나고 나서 오늘은 제가 질문도 다 받았죠. <중략> 한 애가 아니고 여러 애가 그러니까(=말을 시키며 해설을 끊고...) 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너 나중에 면담하자 (우스갯소리로) 웬만하면 제치는데 (오늘은) 다 그러잖아요. 오늘같이 대여섯 명이... 그런 경우에는 다 안 받으면 싫어해요. 기분 나쁘지... 애들도 기분 나쁘고. 나는 척하고 싶은데, 아는 척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는. 칭찬받고 싶은데. 그리고 엄마들도 우리 애 이만큼 아는데. 뭐 그런 게 있어요.

[양 도슨트 인터뷰]

이러한 욕구는 “전체적인 전시해설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질문에 응대 혹은 ‘음~그렇구나! 그랬구나’, ‘어! 너 많이 아는구나’ 식의 호응을 해 줌으로써 욕구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양 도슨트는 이야기한다. 이러한 양 도슨트의 호응은 전시해설에서 잘 반영되고 있었다.



Fig. 43 전시해설 도중 칭찬을 하는 양 도슨트

양 도슨트 : 그 다음에 여기는 종자 식물들 중에서도 속씨와 겉씨로 구분하는 데요 겉씨부터 볼게요. 겉씨는 꽃이 피나요? 안 피나요?

관람객(어린이) : 안 피어요.

양 도슨트 : **와우~똑똑하시네요.** 다 핀다고 생각하시는데... 왜냐하면 송화가루 때문에 햇갈려 해요 소나무가 (겉씨식물에) 속해 있죠.

여기 송화의 ‘화’자가 꽃‘화’자 이잖아요? (그러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 꽃은 아니에요.

[2011. 02. 19. 양 도슨트 전시해설 관찰, 과학관에서]

양 도슨트는 질의응답과정에서 칭찬으로서 어린이 관람객의 사기를 높이고 있었다. 정답을 맞힌 어린이 관람객은 입가에 미소를 띠우며 엄마를 바라보는데 엄마 또한 자녀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다.

[현장노트]

전시해설 중에 이뤄진 질문에 대한 어린이 관람객의 응답에 대해 양 도슨트는 “와 우~뚝뚝하시네요.”라고 칭찬이 담긴 호응을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어린이 관람객으로 하여금 단순히 정답을 맞혔다는 만족감 이외에 전시해설에 동참한 관람객들에게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양 도슨트는 관람객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동안 주변 관람객은 그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심리가 작용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양 도슨트는 규정 전시해설 시간을 다음과 같이 조절하면서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인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들어주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재 저렇게 떠들어서 나 오늘 손해 봤잖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반을 했을 경우에 50분을 한다고 했는데 1시간 반했잖아. 글면 더 한 걸로 치거든 관람객들은. 그게 말하자면 다 심리전이야. 아주아주 웃기지만 그렇게 해 줘야 되.

[양 도슨트 인터뷰]

양 도슨트는 관람객의 심리적 만족감을 충족 시켜주기 위한 전략들을 세우면서 전시해설은 도슨트와 관람객과의 ‘심리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 관람예절 안내

전시해설을 듣고 전시관을 관람한다는 것은 다양한 실물, 디오라마, 전시패널 등이 교육의 도구가 되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관을 방문하게 되면 먼저 관람예절을 숙지하여 전시물 훼손이나 관

람객들 간의 관람에 있어서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내를 받는다. 그러나 관람 중 우리는 관람객의 잘 못된 관람 행동을 보게 된다. 이러한 관람객의 행동에 대해서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 중 수시로 언급하면서 관람객 스스로 관람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전시해설 도중 어린이 관람객에게 하는 관람예절에 대한 양 도슨트의 안내이다.



Fig. 44 전시물에 기대어 있는 어린이와 관람예절을 알리는 양 도슨트

친구야 이렇게 전시물에 가까이 있으면 우리 친구도 전시물을 제대로 볼 수 없고 다른 사람들도 잘 안보이겠지? 뒤로 물러나면 좋겠네요. 이렇게 기대있으면 전시물이 또 파손 되겠죠? 전시물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2011. 02. 19. 양 도슨트 전시해설 관찰, 과학관에서]

전시관은 관람객의 자유로운 행동이 동반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관람객의 다양한 행동이 나타난다. 전시해설 도중 전시물에 기대어 있는 어린이를 본 양 도슨트는 어린이의 행동을 보고 간단히 과학관 관람예절에 대해서 안내하고 전시해설을 계속 이어간다.

[현장노트]

위 사례는 전시패널 앞에 너무 붙어 있음으로서 다른 관람객의 관람 방해 및 전시물에 기대어 전시물을 훼손시키는 것에 대한 양 도슨트의 주의 안내로 이 외에 양 도슨트는 너무 큰 소리로 대화를 함으로서 소란을 초래하는 행위, 음식물을 먹음으로서 전시물에 피해를 주는 것 등에 대해 주의사항을 안내 함으로서 쾌적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요컨대,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 실행 단계에서 나타난 전략수준의 실천적 지식은

전시해설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하여 전시내용 관련 전략들과 전시내용 외 부차적 전략들로 구별된다. 이 전략에 대해서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은 관람객의 전시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람객의 심리적인 면 등 전시내용 외 부차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둘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전략들은 전시해설을 통해 전시물에 관한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면서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한 양 도슨트 전략이다. 전시해설은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도슨트와 관람객과의 교감을 통해서 전시물에 대한 이해를 돕는 행위이다. 따라서 전시해설을 하는 도슨트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전시해설 전략을 세워 성공적인 전시해설을 해야 할 것이다.

(3) 전시해설 이후 단계 - 전시해설 마무리와 반성 전략

전시해설 이후의 단계에서 나타난 양 도슨트의 전략은 전시해설 내용과 관련된 전략과 관람 예절에 관련된 전략, 이후 전시해설을 위한 활동일지 기록으로서 전체 전시해설이 마무리 된다. 이러한 전시해설 이후의 양 도슨트의 전략은 후속전시해설에 관한 대안모색이라 할 수 있었다.

· 전시해설 내용과 관련된 전략

전시해설 내용과 관련된 전략은 어린이 관람객의 과학에 대한 흥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안내와 전시해설에서 다루지 않았던 전시물의 관람안내 및 전시해설 내용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으로 정리된다.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이 끝나면 관람객에게 간단한 정보제공과 마무리 인사로 정리를 한다. 주어진 전시해설 시간이 넘었더라도 양 도슨트는 관람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간을 할애하는 열정을 보인다. 양 도슨트는 어린이 관람객 중 과학에 대해 많은 호기심을 보이면서 전시해설을 열심히 듣고 질문을 하는 등 적극적인 아이에 대해 특히 애착을 갖는데 다음은 양 도슨트가 전시해설을 마치고 과학에 많은 호기심을 보이는 아이의 학부모와의 간단한 면담을 하는 장면이다.



Fig. 45 학부모와 면담 하는 장면

이 친구 엄마가 누구인가요? 엄마 어디 계셔? 여기에 나중에 어린이 도슨트라고 뽑을 거야 그때 와서 해보면 여기서 공부를 가르쳐줘!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여기 엄마인가요? 여기 어린이 도슨트¹⁵⁾라고 뽑아요.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면 고생물 2층에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니까?

[2011. 02. 19. 양 도슨트 전시해설 관찰, S과학관에서]

정해진 시간 보다 더 전시해설을 하고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어린이 관람객에게 과학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어린이 도슨트)을 받을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를 했다.

[현장노트]

위 관찰에서 나타난 것처럼 양 도슨트는 과학적 태도가 남다른 아이에 대해서는 더욱더 과학적 흥미를 갖고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전시해설은 약 50분 내외의 계획된 시간에 관람객들에게 전시내용을 설명을 하게 된다. 이 주어진 시간 내에 과학관의 전시물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양 도슨트는 더 많은 내용을 관람객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늘 주어진 시간 보다 약10~30분 더 전시해설을 하지만 전시물 전체를 해설하기는 역시 힘들었다. 다음은 양 도슨트가 미처 전시해설을 못했던 전시물에 대해 관람을 추천하는 장면이다.

15) 어린이 도슨트 :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전시설명을 제공하기위해 초·중등학생이 한 개의 코너를 전담하여 전시해설을 하는 프로그램. 예)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어린이 도슨트’

나가실 때 도토리과 참나무에 대해서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기획전이 끝나고 해 놓은 거니까 <중략> 거기가 (도토리) 특징이 잘 잡혀 있으니 한번 보시면 3학년 교과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11. 02. 19. 양 도슨트 전시해설 관찰, S과학관에서]

양 도슨트는 관람객에게 미처 설명이 안 된 전시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전시해설을 마쳤다. 한편, 그녀는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전달하지 못한 것에 아쉬워하는 것 같았다.

[현장노트]

위 관찰에서 나타난 양 도슨트의 전시물 관람안내는 관람객 중 특히, 초등학생 및 학부모에게 유익한 정보로 교육과정과 연계가 되므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임을 알 수 있다. 전시해설은 한정된 시간 때문에 전시관 전체의 해설이 불가능 하고, 다양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통의 관심사가 될 전시물을 설명하다보면, 중요하지만 어떤 특정인들의 관심사로 한정될 수 있는 전시물 해설은 제외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 마지막에 전시해설에서 다루지지 않았던 전시물의 관람안내 즉, “2층까지는 시간이 좀 안될 것 같으니 여러분들이 둘러보시고, 이 맞은편에 가면 체험학습장이 있어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곳을 잠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으로 많은 전시물들의 관람을 안내 한다.

한편,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을 마치고 스스로 본 전시해설에 대한 내용을 반성한다. 전시해설 중 사용한 용어는 적절했는지, 자세는 단정하고 신뢰감을 줬는지 되새겨 보면서 차후 이어지는 전시해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관람 예절에 관련된 전략

과학관의 전시물 관람은 공공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개인적으로 과학적 지식을 습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장소에서의 기본 예의도 중요하다. 다수가 함께 참여하여 전시해설을 듣기 때문에 한사람의 무례한 행동은 전시해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와해시키기도 한다. 특히 어린이 관람객들의 행동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일전에 ‘관람 예절 집에 두고 왔나-고장 내고 낙서하고...일

부 어린이로 인해 박물관·과학관 등 몸살'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어린이들이 관람 수칙과 예절을 지키지 않는 탓에 전시·시설물들이 떨어지고 깨지고 고장 난다는 기사였다. 이러한 전시물 훼손뿐만 아니라 어린이 관람객의 경우 전시해설에 집중을 못하고 전시물에 기대거나 장난을 치는 등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행동에 대해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 도중 관람 예절을 수시로 지도하기도 하지만 전시해설이 끝나고 마무리 하면서 함께 반성해 보는 관람 예절에 관련된 전략을 취한다. 다음은 몇몇 아이들로 인해 전체적인 분위기가 흐려지면서 전시해설이 다소 힘들게 진행되었던 전시해설에서 양 도슨트가 전시해설이 끝나고 학부모에게 아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하는 장면이다.



Fig. 46 학습자료를 준비해 온 양 도슨트

다 있어 버렸어요. 제가 (워크지에 스티커를) 붙이게 하려고 일부러 사무실에서 칼라프린트 해가지고 왔는데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다 걸었어요.

[2011. 02. 08 양 도슨트 전시해설 관찰, S박물관에서]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이 다양해 질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람객(학부모)은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이 있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40회 이상 아이와 같이 참여한 아이의 교육에 굉장한 관심이 있는 학부모로 다른 도슨트들이 조금 힘들어 하는 관람객이라고 한다. 오늘은 특히 아이가 전시해설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개인행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시해설을 어렵게 하여 결국 양 도슨트는 학습자료(설명 워크지와 스티커)를 다시 걸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녀는 학부모의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현장노트]

위 관찰에서 알 수 있듯이 양 도슨트는 아이들의 전시해설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힘들었다.’는 표현을 하면서 학부모들이 다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 양 도슨트는 아이들이 전시해설에 집중을 못하고 다른 아이에게 피해주는 행동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고 기분상하지 않도록 우회적으로 말하였다.

· 활동일지 기록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을 마치고 나면 활동일지에 그날의 전시해설 상황을 기록하게 한다. 활동일지는 개인 활동의 기록 측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슨트 동료 간의 유의미한 반응들을 수렴하고, 다음 전시해설 계획에 반영하는 등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Fig. 47은 도슨트들의 활동일지와 각 항목에 따른 필요성을 분석해 놓은 것이다. 예측이 불가능한 전시해설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자료의 통계 즉, 날씨와 요일, 관람객의 수 및 대상, 돌발상황 등 기록을 통해서 간접 경험과 함께 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활동일지 기록을 통해 스스로 전시해설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갖고 더욱 좋은 전시해설을 하게 된다.

요컨대 전시해설 이후 단계에서 나타난 양 도슨트의 다양한 전략들은 전시해설 내용과 관련된 전략과 관람 예절에 관련된 전략, 활동일지 기록으로 구분된다. 양 도슨트는 주어진 시간 내에 전시물 전체해설이 불가능함으로 상황에 따른 관람객의 공동의 관심사가 될 전시물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람객 스스로의 관람이 될 수 있도록 간단한 관람안내를 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관람객들의 관람 예절에 대해서도 지도를 하였다. 또한 관람객과의 마무리를 활동일지를 통해 기록함으로써 더 좋은 전시해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시해설 이후 단계에서 나타난 양 도슨트의 전략은 관람객에 대해서는 과학관에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문화시민으로서 과학관에서의 공공예절을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과, 도슨트 자신에 대해서는 차후 좀 더 향상된 전시해설을 기대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전시해설 이후 단계 전략은 전시해설을 통해 관람객과 도슨트 모두의 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전시해설에 있어서 필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박물관 도슨트 활동 일지						박물관 ()강사 활동 일지																																			
활동 년월일	2010년 월 일 (요일)					수업 년월일	2010년 월 일 (요일)																																		
전시해설자			확 인			()강의명	예 : "고학년 신문" 해석 : 수업 주제 제시																																		
관람 인원	어 른		청소년		어린이	교육대상	오 전	오 후	단 체																																
전시해설시간							저학년	고학년	저학년	고학년	저학년	고학년																													
활동내용	예 : "비가 억수같이 왔던 날에도 불구하고 방학이라..." 해석 : 날씨와 시기를 통해 관람객의 수를 예측케 함					출석부	예 : "고학년 9명" 해석 : 수업 대상에 대한정보 제공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td>1</td><td></td><td></td></tr> <tr><td>2</td><td></td><td></td></tr> <tr><td>3</td><td></td><td></td></tr> <tr><td>4</td><td></td><td></td></tr> <tr><td>5</td><td></td><td></td></tr> <tr><td>6</td><td></td><td></td></tr> <tr><td>7</td><td></td><td></td></tr> <tr><td>8</td><td></td><td></td></tr> <tr><td>9</td><td></td><td></td></tr> <tr><td>10</td><td></td><td></td></tr> </table>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관람객 질문내용	예 : "2층의 동물들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해석 : 질문사항을 기록해 됨으로서 차후 질문을 예측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음					강의 내용	질문																																		
건의사항						강사의견	예 : "세 번째라서 그런지 훨씬 여유롭고" 해석 : 수업 분위기에 대한 정보 제공																																		
						담당자 의견																																			

Fig. 47 여러 가지 활동지

전시해설과 관련되어 나타난 양 도슨트의 전략은 과학관의 건립목적과 관람객의 방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로 정리할 수 있다. 즉, 3단계(전시해설 이전단계, 전시해설 실행단계, 전시해설 이후단계)로 구성된 양 도슨트의 전략은 각 단계에 실천적 지식이 적절히 투입되어 점차 구체적으로 전시해설이 진행되고 마지막 단계에서 정리되면서 차후 이어질 전시해설에 대한 새로운 준비로 이어지고 있었다(Table 16). 다음 장에서는 초창기 도슨트에 대해 체계적이지 못했던 인식이 양 도슨트의 8년간의 활동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양 도슨트 외 주변인들의 도슨트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Table 16 전시해설과 관련된 양 도슨트의 전략들

전시해설 이전단계	전시해설 실행단계		전시해설 이후단계
	1. 전시내용 관련 전략들	2. 전시내용 외 부차적 전략들	
전시해설 준비전략	1. 과학관 미션과 관련된 전략 2. 비유법을 사용하는 전략 3. '실례'를 통한 체득 전략 4. 전시물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및 단어의 유래 설명 5.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 전략	1. 인사 : 관람객의 기본정보 수집 2. 계획성 있는 전시해설 : 총 전시해설시간 안내 3. 교육 정보제공 : 학부모의 자녀 교육을 위해 4. 눈높이 해설 5. 관람객과의 상호작용 6. 심리전 7. 관람예절 안내	1. 전시해설 내용과 관련된 전략 2. 관람 예절에 관련된 전략 3. 활동일지 기록

4. 현재 인식되는 도슨트 정의 및 역할 - 인식의 변화

초창기 도슨트에 대한 인식은 '도슨트'라는 용어 자체부터 낯설게 인식되었으나 현재 도슨트의 많은 활동으로 인해 그 용어와 역할이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현재 인식되는 도슨트 정의 및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양 도슨트를 비롯해서 과학관 내 인력 및 관람객의 도슨트에 대한 인식과 이들이 기대하는 도슨트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3가지 영역(과학관의 주인, 전시해설사, 관람객의 대변인)으로 구분하여 논하고자 한다.

a. 도슨트는 과학관의 주인

과학관에서 양 도슨트의 모습은 과학관을 대표하는 얼굴로 대내적으로는 마치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고 안내하며 대외적으로는 과학관을 홍보하는 것과 같다. 양 도슨트는 과학관을 들어서게 되면 웃는 얼굴로 시작한다. 양 도슨트는 항상 미소를 띠우며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나누고 전시해설을 시작하는데,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는 서로를 존중하는 경어로 해설자가 나이가 많던 적던, 관람객이 나이가 많던 적던 해설자와 관람객이라는 서로의 위치를 고려한 경어사용으로 이로서 해설을 시작한다고 이야기한다. 과학관의 관람객을 마치 자신의 손님으로 맞이한다는 자세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세는 전시해설 관찰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었는데, 양 도슨트의 과학관 편의시설 안내는 약 1시간정도 소요될 전시해설 시간동안 관람객의 편의를 돕고자하는 것으로 손님을 편안히 모시고자하는 주인의 마음과도 같다. 또한,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 중에 “아! 너무 재밌어요.”하는 관람객의 반응에 “제가 제일 재밌게 해요.”라고 대답하는 위트를 보이기도 한다.

양 도슨트는 과학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하는 친절을 베푼다. 다음은 양 도슨트가 관람객의 안전한 엘리베이터 탑승을 돕고 있는 모습과 전시해설을 마치고 관람객들에게 전시장 관람안내를 하는 장면이다.



Fig. 48 엘리베이터 안전한 탑승을 돕는 모습

시간을 보니 딱 11시였어요. 기초과학관간의 연계성을 설명하고 조금 쉬었다가 기초과학관에 가서 관람하시기를 권하며 SOS코너의 개방시간이 되었음을 안내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가우똥~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표정이 읽혀졌습니다. 모두를 이끌고 SOS코너 입구까지 갔습니다. 이미 줄을 서고 계신 관람객들의 뒷전에 줄을 서도록 안내했습니다.

[2010. 06. 13. 양 도슨트 인터넷 카페 게시글]

위와 같은 양 도슨트의 안내는 관람객이 충분히 과학관을 관람하고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이다. 양 도슨트가 관람객에게 보이는 위와 같은 행동과 전시장을 돌며 떨어진 휴지를 줍고 해설이 있음을 관람객에게 알리는 모습은 과학관의 주인 의식의 표현이다.

이외에 양 도슨트는 자원봉사자로서 과학관의 홍보대사 이기도 하다. 자신의 활동을 평소 주변에 자연스럽게 알리면서 과학관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양 도슨트의 O박물관 홍보방송과 주변인들의 과학관의 관심이다.



Fig. 49 O박물관 홍보방송

오늘은 6학년 9반 친구였던 단짝이랑 또 그의 이웃들이 찾아 온다네요. 우리의 활동과 언행은 홍보자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제 지인들은 모두 박물관, 전시관, 과학관에 대한 열정과 지대한 관심에 감염되어 종종에 가 갑니다.

[2010. 08. 10. 양 도슨트 인터넷 카페 게시글]

위와 같이 양 도슨트는 과학관에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지인들에게 또

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스스로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양 도슨트는 자원봉사자로 참된 봉사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오늘도 다짐 하고 활동을 한다.

b. 도슨트는 전시해설사

도슨트는 과학관의 전시내용을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사람이다. 양 도슨트는 “도슨트는 전시해설사로 세상의 많은 변화에 맞춰 꾸준한 연구와 노력으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전시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광범위한 내용을 한 시간에 추려 알맞은 수준으로 조율하며, 어떤 관람객이 눈앞에 있어도 단 한 명이라고 해설 한다는 원칙하에 자신있게 관람객과 해설자의 1:1 소통을 이끌어내는 노련함이 숙달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한편, 교직에서 과학교사로 퇴직한 동료 신, 정 도슨트는 특히 과학관에서의 도슨트는 “아주 진짜, 정확한 것을 짚고 재미나게 하는 해설을 해야”, “과학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상력 창의력 같은 것을 키워야”, “자기가 알고 있는 전공지식을 가르치는 식으로 어렵게 하면 안돼요. 여기는 교육기관이 아니고 일반관람객이니까 관람자를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는 것을 간파를 하고 거기에 눈높이를 맞춰서 해설을 하고 되도록 재미있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정확한 과학적 사실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준비된 도슨트의 전시해설에 대해서 관람객은 다음 인터뷰 내용과 같은 기대를 할 거라고 양 도슨트는 이야기 한다.

관람객들은 백과사전식 지식을 얻기 위해 오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관람객들은 그저 이런 곳이 있다하니 다니러 오는지도 모릅니다. (도슨트는) 관람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이곳에 왜 이런 것들이 있는지와 이것이 무엇인지를 해설하며 (해설을 들은 관람객은) 과학관 현관을 나서실 때 ‘잘 왔어’, ‘또 와 봐야겠는걸’, ‘다음엔 같이 와야지’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2010. 0.5 01. 양 도슨트 인터넷 카페 게시글]

이런 만족감을 관람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중에 관람객

의 수준과 원하는 만큼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화법을 동원하여 재미와 흥미, 유익함이 전제되는 전시해설을 해야 된다고 양 도슨트는 이야기한다.

c. 도슨트는 관람객의 대변인

양 도슨트는 관람객의 대변인으로 과학관의 일반 이용자가 되기도 하고 관람객의 요구사항을 수집 및 분석하기도 하며 전문가로 박물관 측에 고객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양 도슨트는 과학관의 일반 이용자로서 과학관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나 기획전을 참가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관람객이 가질 수 있는 의견을 똑같이 제시할 수 있다.

도슨트는 관람객과의 최접점에서 관람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양 도슨트는 늘 관람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관람객의 입장에서 과학관을 바라본다고 한다. 즉, 관람객들의 불편과 요구 사항을 수집 하여 박물관 측에 전달하는 관람객의 목소리 역할을 하고 있다. 양 도슨트는 관람객의 입장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관람객으로서 모니터링을 타 과학관에서 하고 있었다. 이는 관람 시설물이나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살핌으로서 활동하는 과학관에 좋은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관람객의 요구사항을 수집 및 분석하는 도슨트에 대해서 과학관의 강 담당자는 “피드백을 실제로 관람객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슨트이죠. 그래서 관람객들의 코멘트를 캐치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알아듣고 다른 곳에 접목할 수 있는 사람이 도슨트라는 거예요.”라고 이야기한다. 즉 전시해설을 통한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이나 시설물들에 대한 관람객들의 새로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도슨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도슨트는 전문가로 박물관 측에 고객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관람객의 대변인이 되기도 한다. 해설을 하면서 늘 전시물을 보는 양 도슨트는 과학관 관리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오류나 오래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적극적으로 한다. 일례로, 교과서와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내용이나, 지진 발생으로 인해 기존 전시물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추가에 대해서 과학관

측에 건의 하고 있다. 다음은 과학전공으로 교직 정년퇴임 후 활동을 하고 있는 도슨트와의 인터뷰이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재나 중등학교 교과서에서 수록되어 있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우리 과학관에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림도 있고 설명도 그렇게 써 있다구 그런데 이쪽 거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 건너편 코너에는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발견한 인류 발자국인데 ○○○교수 자료제공 이렇게 써 있다구 거기 모니터에 인류 (설명) 전혀 다르지요 지금... 그런데 이 교수가 틀렸나?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은 논문이야 그것은 반드시 권장해야 되요. 옳건 틀리건 간에 그리고 그 논문을 수많은 학자들이 읽어보고 검토해서 비판을 하겠지 학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옳다 맞다 이렇게 인정해 줄 때 정식학설이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한 교수가 연구한 결과는 논문으로서 는 가치가 있지만은 과학관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전시관에다가 전시할일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불과 4m간격으로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써져 있으면 관람객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요? 대학생이면 설명하기 좋아 그런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요. 저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정설이 아니에요.

[2011. 03. 20. 동료 신 도슨트 인터뷰]

일반적으로 관람객은 과학관의 전시물에 대한 정보를 신뢰하면서 그대로 지식으로서 습득을 한다. 즉, 다수의 관람객은 전문내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학설과 정설을 정확히 구분해서 이해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관람객들이 파악하고 건의하기는 더더욱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 전문지식을 습득한 도슨트가 전문가적 관점으로 관람객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양 도슨트의 과학관 도슨트 활동을 기점으로 약 8년이 지난 현재, 도슨트에 대한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그에 따른 역할도 세분화 되면서 도슨트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즉, 도슨트라는 용어 자체의 생소함, 단순 자원봉사자의 개념이 아닌 과학관의 주인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와 과학관의 전시해설가로서 과학적 교육마인드를 추구하면서 관람객과 과학관의 관리자 사이에 있어서 관람객의 대변인의 역할이 기대 되고 있다. 이러한 도슨트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이상적인 도슨

트의 모델을 정립하는데 필요조건이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8년간 양 도슨트의 도슨트 활동 경험을 근거로 도슨트가 전문가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C. 키를 잡다 - 전문가로서의 도슨트

8년간의 도슨트 활동을 통하여 양 도슨트는 전문자원봉사자로서 도슨트 전문성을 형성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도슨트 전문성의 필요성을 느낀다. 본 장에서는 양 도슨트를 중심으로 도슨트의 전문성은 무엇이고 도슨트에게 있어서 전문성의 필요성을 알아본 후 그 전문성의 내용과 후배 도슨트의 전문성을 위한 선배 도슨트로서 양 도슨트의 활동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기대되는 도슨트 역할의 인식을 토대로 이상적인 도슨트의 역할을 정리해 보았다.

1. 도슨트 전문성의 정의 및 필요성

전문성이란? 어떤 영역에서 보통 사람이 흔히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수행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획득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슨트는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질서유지나 단순 안내와는 다른, 전시물을 관람객에게 설명하는 특별한 능력 즉,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도슨트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도슨트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a. 도슨트 전문성의 정의

박물관교육의 일차적 출발점은 상설전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배봉균(2006)의 연구에서처럼 과학관 전시물을 관람객에게 설명하는 전시해설은 과학관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방법이다. 이러

한 교육을 담당하는 도슨트의 전문성에 대해서 양 도슨트 외 동료 도슨트들,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담당자의 인식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양 도슨트는 도슨트들이 전문성을 갖추기 바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즉, “나눔의 철학”으로 실력을 갖춘 도슨트들이 활동하기를 바란다. 따라서 도슨트의 전문성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는 양 도슨트는 도슨트들의 전시해설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체험학습 선생님한테 멘투맨으로 다 쫓겨버려 그냥 자료를 다 퍼줘. 제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 (제가 이렇게 자료를 주면 선생님은) 그 애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잘 할거 아니야. 이 사회를 위해서 할거 아니야. (그런데 제대로 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선생님이 교육을 한다고 활동하는 걸 보면) 난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그 속상한 걸 가만 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양 도슨트 인터뷰]

실력이 미진한 도슨트들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오면 정보나 자료에 대해서 아낌없이 준다고 이야기한다. 이로서 양 도슨트는 좀 더 실력을 갖춘 도슨트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올바른 교육을 하기 바라고 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양 도슨트는 도슨트를 전문자원봉사자라 일컫고 해설을 위한 꾸준한 학습, 연구, 정해진 시간의 해설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진정한 전문가란 의도적으로 노력하여 성취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일반인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흔히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이론적 지식만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경험적 지식까지를 의미한다. 어떤 지식은 책을 읽거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지만, 어떤 지식은 스스로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다. 이처럼 지식은 이론적 지식과 체화된 지식, 노하우, 직감의 영역까지 포함한다. 전문가란 바로 이렇게 넓은 지식의 영역을 포괄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전문가들의 지식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서로 보완되고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결국

일반인과 전문가를 구별 짓는 특징을 형성하게 한다. 이렇게 형성화된 전문가는 이론적 지식과 경험을 쌓은 뒤에 그 경험적 지식을 이용하여, 더 발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양 도슨트는 이론적으로 알게 된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고민을 하고 직접 실험을 하고 생활 속에서 느끼면서 체화시켜 다양한 스토리가 전개되는 전시해설을 하고 있다. 양 도슨트는 자신의 도슨트 활동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반영하듯 전문가에 대해서 “전시물은 물론 포괄적 내용의 숙지 및 지속적인 연구(교육)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양 도슨트 스스로도 자신이 전시해설 전문가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료 도슨트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

-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연과 지구의 가치를 사람들과 같이 공감하고 느낄 때
-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낄 수 있다는 말을 체감하고 가는 학생들을 볼 때
- ‘내가 사회의 구성원의 일원이구나’라는 만족감을 느낌
- 아이들이 설명을 듣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때
- 본 센터를 일반인들에게 소개한다는 것, 지역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위 같은 동료 도슨트들의 표현을 볼 때 그들은 자신의 활동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고 이를 통해 본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단순 자원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 본인들의 활동이 좀 더 전문화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도슨트 양성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담당자는 과학관의 운영적 측면에 있어서 도슨트의 전문성을 인식하고 있다.

- 박물관 자체가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안 되는 기관으로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배움터이며, 전시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해석해주는 것은 물론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과 가장 가깝게 만나는 사람이 도슨트이므로 단순한 질서유지 이외에도 전시물에 관한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물관은 비영리 기관으로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여느 기관보다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도슨트는 박물관을 단순히 보는 형태가 아닌 전시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해석해주는 설명이 있는 배움터로 이끌고 관람객과 가장 가깝게 만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도슨트 전문성에 대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일부 도슨트 양성교육과정 개발자 및 교육 담당자는 과학관의 운영적 측면에서 도슨트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도슨트는 전시물에 담긴 의미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일반자원봉사자와는 다른 전시해설 교육을 위한 전문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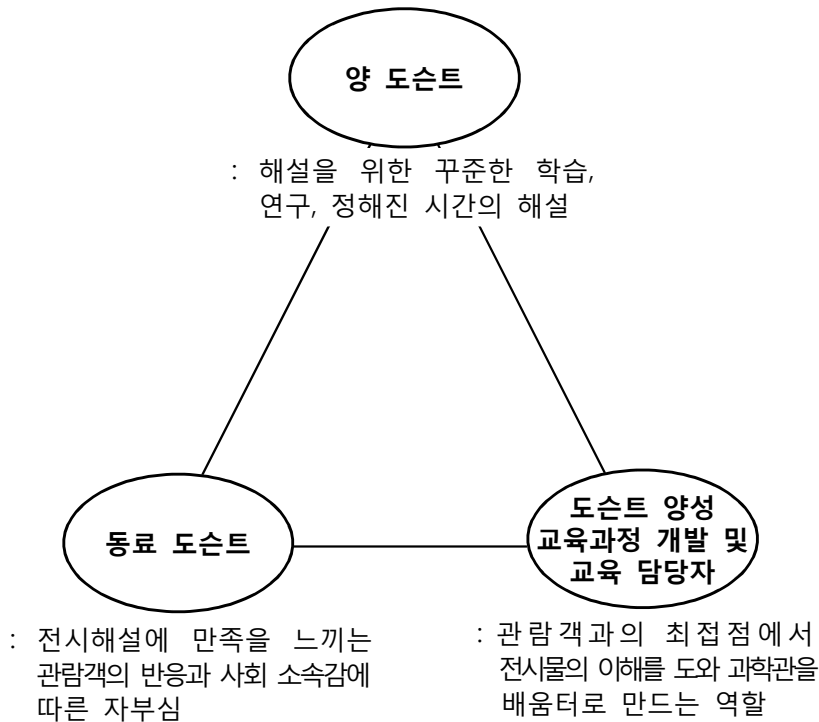


Fig. 50 도슨트 전문성에 대한 인식

도슨트 전문성은 양 도슨트, 동료 도슨트들, 일부 도슨트 양성교육과정 개발자 및 교육 담당자의 인식(Fig. 50)을 바탕으로 전시해설이라는 과학관 교육으로 귀결된다. 도슨트는 관람객에게 전시물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

요한 인력으로 관람객의 전시해설에 대한 만족감에 대한 반응과 자신의 사회 소속감으로 스스로의 활동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 이러한 자부심이 더욱더 확고히 될 수 있도록 양 도슨트는 ‘나눔의 철학’을 갖고 동료 도슨트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도슨트의 전문성이 어떠한 면에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b. 도슨트 전문성의 필요성

과학관의 성공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풍부한 과학적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기관에 얼마나 많은 관람객의 발걸음을 유도하느냐는 건물도 아니고, 전시물도 아닌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슨트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하겠다(박영신, 이정화, 2011). 과학관에서 도슨트의 교육적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만큼 형식기관에서 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듯이 도슨트의 전문성 또한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전문직이 지니는 특징에 비추어 도슨트 전문성의 필요성을 양 도슨트 외 동료 도슨트를 통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Table 17 과학적 전문내용에 대한 전문성의 필요성에 관한 도슨트의 인식

전문내용에 대한 전문성의 필요성	
양 도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객을 실질적으로 직접 대하며 그들의 반응을 살피고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료 백 도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과학이나 과학은 특히나 전문적인 지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문지식이기 때문에 잘못 전달하기 쉽거든요. 도슨트로서 전시에서 요구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또 관람객이 받아들이는 것과의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잘 해 줘야 되거든요. 보다 쉽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근데 그런 것이 안 될 경우에는 잘못된 것을 전달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러면 관람객의 서비스도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교육의 내용도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슨트의 주요 활동은 전시해설이다. 이 전시해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영역에서 도슨트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첫째, 도슨트는 과학적 전문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Table 17은 과학적 전문내용에 대한 전문성의 필요성에 관한 도슨트의 인식으로 과학은 전문지식으로 이를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것은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과학관에서의 전시해설은 과학에 대한 정확한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꾸준한 지식습득을 필요로 한다. 또한 과학은 과학기술로, 기상 및 지질현상 등 자연현상으로 우리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 및 자연의 변화에 맞추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둘째, 도슨트는 관람객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양 도슨트는 Table 18의 인식하에 관람객의 수, 지적수준, 연령 등 관람객의 성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과학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한정된 특정인이 아닌 전 국민이 대상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전시해설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람객의 성향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Table 18 관람객에 대한 전문성의 필요성에 관한 양 도슨트의 인식

관람객에 대한 전문성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중에 관람객의 수준과 원하는 만큼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화법을 동원 • 도슨트는 다중을 대상으로 각양각색의 수준과 관심분야, 관람객의 인원수에 상관없고 남녀노소를 막론한 준비성

관람객에 대한 전문성은 도슨트의 세 번째 전문성인 효과적인 전시해설 기법에 대한 전문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관람객의 성향이 충분히 파악됨으로서 어린이 관람객에게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언어선택이 되고, 학부모 관람객에게는 자녀의 학교교육과정과 연결시킨 전시해설 전략을 세우는 기지를 발휘하게 된다. 한편 여가 활용차원에서 방문한 관람객에게는 과학에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변과 연결된 과학적 지식을 설명하는 전시해설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셋째, 도슨트는 효과적인 전시해설 기법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Table 19에서 양 도슨트는 한정된 시간에 관람객과 소통을 이끌어내어 과학적 전문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함을 이야기 한다.

Table 19 전시해설 기법에 대한 전문성의 필요성에 관한 양 도슨트의 인식

전시해설 기법에 대한 전문성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사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광범위한 내용을 한 시간에 추려 알맞은 수준으로 조율하며, 어떤 관람객이 눈앞에 계셔도 소화 해 낼 수 있는 남녀노소를 막론한 학습범위 • 단 한명이라도 해설 한다는 원칙하에 관람객과 해설자의 1:1소통을 이끌어 내는 노련함

과학적 지식은 고도의 사고력을 요하는 지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지식이 관람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전문용어 사용에 있어서 관람객에 따른 적절한 그리고 친근한 용어를 선택하거나 일상의 경험을 예시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도슨트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Table 20에서 양 도슨트는 관람객을 응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공손과 정중, 바른 자세를 강조한다. 도슨트는 자원봉사 형태의 봉사적 기능을 띠고 있다. 따라서 도슨트는 개인적 성장이나 영달보다는 남을 위한 봉사의 직업으로 관람객 보다는 낮은 자세로 자신의 손님을 맞이한다는 생각으로 관람객에게 응대를 해야 한다.

Table 20 자원봉사자로서 전문성의 필요성에 관한 양 도슨트의 인식

자원봉사자로서 전문성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설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 되어져야 할 것 중 하나는 관람객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 배려의 기본은 바른 자세와 태도, 그리고 미소임을 잊지 마시고 실천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단 한사람, 그 한사람이 어리던 나이가 많던 지식이 없던 많던 원한다면 꼭 해설을 해야 한다. • 미리 나아가 준비하며 맞이하고 최대한의 존중과 공손함으로 안내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갖춰야 한다.

도슨트는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아닌 위와 같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전문자원 봉사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성이 갖춰짐으로서 ‘재미와 흥미, 유익함이 전제되고 관람객으로 하여금 다시 찾아 올 수 있게’, ‘마무리 인사말에 서로의 만족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위한 짝 채운 1시간의 해설’이 이뤄진다는 양 도슨트의 이야기처럼 관람객과 도슨트 자신이 만족하는 전시해설이 완성된다. 다음 장에서는 도슨트가 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2. 도슨트 전문성의 내용

도슨트가 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전문성 형성과 이를 위한 환경의 지원이 중요하다. 따라서 도슨트의 전문성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은 전시해설 동안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개인적인 전문지식 습득의 내적영역과 도슨트의 전문성이 잘 발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외적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도슨트가 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의 내용을 전시해설 과정 중에 표현되는 내적영역과 전시해설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 지원되어야할 주변 환경의 외적영역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a. 도슨트 전문성을 위한 내적 영역

도슨트가 전문가로서 내실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내적 영역은 전시해설 대상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와 함께 관람객의 성향 파악 및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세가 하나로 융합되어 표출되는 전시해설 전략 기법 마지막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있다. 다음에서는 위 세가지(전시해설 대상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전시해설 전략 기법,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를 도슨트 전문성을 위한 내적 영역으로 구분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 전시해설 대상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 SMK(Subject Matter Knowledge)

양 도슨트는 도슨트로서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도슨트 활동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에 많은 노력과 시간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즉, 양 도슨트는 자료 습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습득된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차후 전시해설에 있어서 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항상 연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양 도슨트는 먼저 자료 수집을 위해 과학관의 자료, 교육, 체험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Fig. 51).




		
<p>【과학관의 자료】</p>	<p>【교육 및 전문서적】</p>	<p>【체험, 실험, 실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종합) • 리플렛, 브로셔 • 관람학습지 • 도록이나 발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참여 • 전문서적, 인터넷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집, 표본, 박제, 탐구, 실험 등 • 타 기관의 견학
<p>양 도슨트는 자신은 과학에 대해서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취한다고 늘 이야기한다. 실제 양 도슨트의 이러한 자세는 그녀의 서재에 정리되어 있는 자료와 사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p>		
<p>[현장노트]</p>		

Fig. 51 내용학적 전문지식 습득 방법(예; 양 도슨트의 방법)

과학관에서 수집된 자료는 양 도슨트에게 전시해설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과학관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전시해설을 이끌어 가면서 그 외 필요한 지식은 교육 참여 및 전문서적을 통해서 습득하고 있었다. 한편, 양 도슨트가 습득한

지식의 가장 큰 강점은 실험, 체험 및 다양한 과학관 견학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이다. 오감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은 양 도슨트로 하여금 전시해설에 있어서 생생한 현장감을 살리게 하고 있었다.

한편, 양 도슨트는 수집한 방대한 자료에 대해서 수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면서 정리를 한다. 이러한 자료 정리에 대해서 양 도슨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일의 종류는 매우 많다, • <u>어떤 종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료가 집이 되느냐 유익함이 되느냐의 차이는 크다,</u> • 자료 정리 시 지속적 사용과 간헐적 사용으로 분류하여 정리 • 편집 할 수 없는 경우 지퍼파일 사용권장! ※ 편집 할 수 있는 여백 필수! • 일반적으로 모든 학습자는 자료욕심이 무척 많아 많은 수집을 하면서도 정리에 매우 취약하다, • <u>정리는 최소크기이면서 잘 보이고, 정리도 편리하며 공간도 적게 드는~</u> • <u>※ 많은 자료와 지식의 양이 비례하지 않으나 자료 정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 습득되어지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u>
<p>양 도슨트는 자료 수집도 중요하지만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자료를 수집한다고 해서 그 자료가 자신의 지식이 될 수 없고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됨으로 차츰 자신의 지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현장노트]</p>

2011. 09. 17. 양 도슨트 워크샵 발표

자료 정리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양 도슨트는 실제로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정리를 하고 있다.

양 도슨트는 먼저, 현장 답사의 사진 기록에 있어서는 실물의 크기를 추측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척도계와 함께 촬영을 하였다. 또한 교육 참여나 타 과학관의 견학을 할 때는 녹음장치와 카메라를 준비해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녹음된 교육 내용은 반복 듣기로 활용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자료의 일시, 장소, 주제가 포함된 라벨이 붙게 된다(Fig.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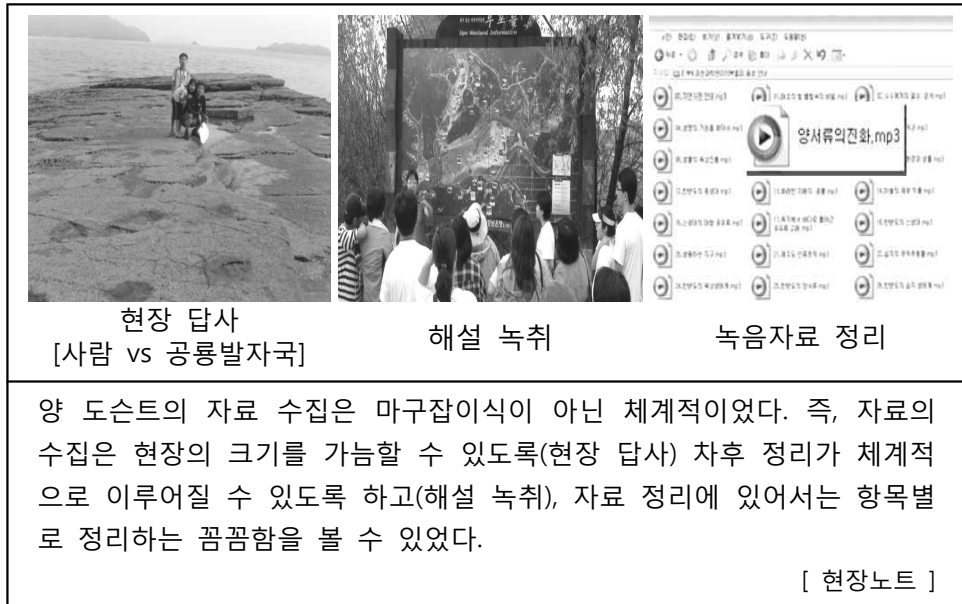


Fig. 52 자료 수집 방법과 정리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정리한다. 즉, 양 도슨트는 촬영된 전시패널에 있어서 그림과 내용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그림에 직접 내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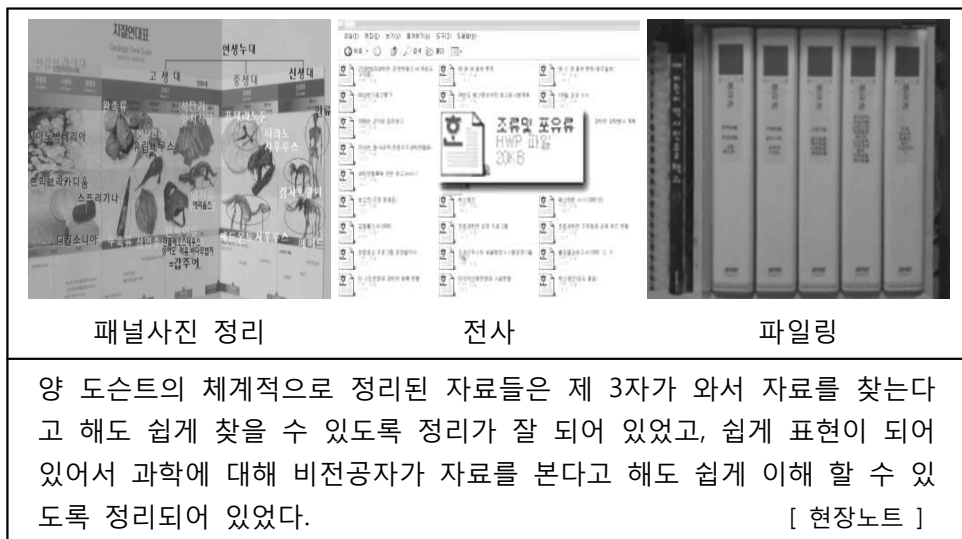


Fig. 53 수집된 자료의 정리

메모 해 둔다. 또한, 녹취된 강의나 해설에 대해서는 반복 듣기를 하면서 필기를 하고 필기된 내용에 포함된 전문용어는 다시 정리하여 각 폴더에 정리를 한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토대로 양 도슨트는 각 코너별, 패널별 전시해설 시나리오를 작성해 봄으로서 ‘소요시간을 추정’한다고 이야기한다. 다음, 개별 정리된 자료는 주제별로 파일링 과정을 거친다(Fig. 53).

마지막으로 양 도슨트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자신의 전시해설을 위한 학습지 및 체험활동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한다(Fig. 54). 예를 들어 지루해 질수 있는 자연학습에 관한 내용을 사진과 쉬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학습지를 개발한다든지 학습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재미와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퍼즐 식 내용 채우기, 체험학습의 방법으로 표본제작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을 한다.



Fig. 54 정리된 자료의 다양한 응용

양 도슨트는 이렇게 개발된 교육 자료는 다음과 같은 큰 의미를 갖게 된다고 이야기 한다.

-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시나리오까지 마무리 되면 응용!
- 단순히 말로만 하는 해설이나 교육이 아닌 간단한 메모지 정도 크기부터 다양한 활동지를 사용함으로써 배가 되는 유익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한장~한권, 체험물~실험, 탐구!
- 마무리 보고서까지~
- 응용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 응용은 샘플과 같아 자주 샘플고 발전시키게 되는 마력이 있다.
- 현재에 만족하지 않으며, 탐구와 연구함에 있어 게으름을 필수 없는 나와 경쟁이자 도전일 것이다.

양 도슨트는 정리된 자료를 현장에서 충분히 응용(명칭 스티커 붙이기, 괄호 안에 단어 넣기 등)하고 있다. 그 응용된 자료를 본 연구자는 현장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음을 느꼈고, 관람객들이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에 만족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현장노트]

[2011. 09. 17. 양 도슨트 워크샵 발표]

도슨트는 단순 자원봉사자가 아닌 과학관 교육의 일부를 담당하는 교육자이다. 따라서 전시해설에 필요한 내용학적 전문지식 습득은 도슨트가 전문가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역으로 내용학적 전문지식의 탄탄함은 도슨트로 하여금 자신감을 부여케 한다.

• 전시해설 전략 기법 - PK(Pedagogical Knowledge)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습득된 전문지식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전시해설 대상에 대한 전문지식 외에 관람객의 성향 파악과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세가 하나로 융합되어 표출되는 전시해설의 전략이 필요하다.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의 전략을 다음 3단계로 나누고, 전시해설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람객과의 소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첫째, 현장에서 전시해설은 주인 의식과 관람객과의 친근감 형성이 우선시 되면서 이게 바로 전시해설의 시작이다.

즉, 전시해설의 도입부에 있어서 도슨트 자신은 과학관의 주인 의식을 갖고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 주인 의식을 가짐으로서 도슨트는 관람객에게 충실해지고 편안한 분위기와 관람객과 친근감이 형성되면서 과학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관람요령 등 전시해설의 시작을 이끌 수 있다. 이 친근감 형성의 방법으로 양 도슨트는 Fig. 55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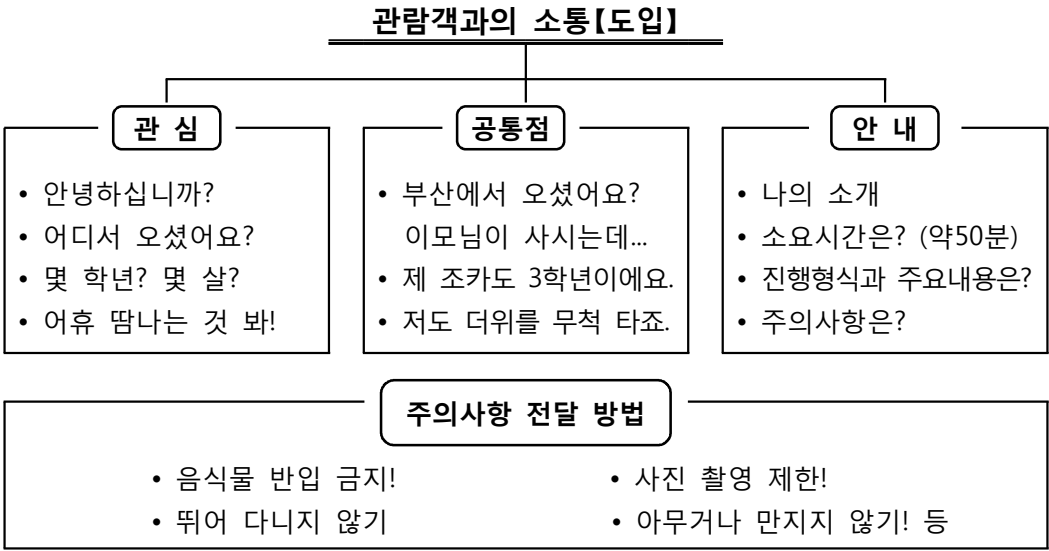


Fig. 55 전시해설의 시작 방법

관람객과의 첫 대면에서 도슨트는 간단한 인사와 사는 지역, 나이 등을 물어봄으로써 자신이 관람객에게 관심이 있음을 보이고 자신은 관람객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 이로서 관람객은 도슨트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 이어서 도슨트는 관람객과 자신이 어떠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시해설을 위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Fig. 56). 이러한 분위기에서 도슨트는 자신의 소개와 전시해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및 주의사항을 인지시킨다.



Fig. 56 전시해설의 시작(도입)

•양 도슨트 자세

양 도슨트 : (자신의 손님을 맞이하
듯이 관람객에게 공손한
모습을 보임)

•양 도슨트의 관심, 공통점, 안내

양 도슨트 : 어디에서 오셨어요? 저는
고양동에서 왔어요.<중략>

양 도슨트 : 저도 초등학교 자녀가
있어요.<중략>

양 도슨트 : 관람시간은 약 50분입
니다.

[2011. 02. 19. 양 도슨트 전시해설 관찰, [과학관에서]

10분 후 도슨트 전시해설이 있다는 과학관내 안내 방송이 있자 양 도슨트는 미리 나가서 바른 자세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나 둘 관람객이 모이자 양 도슨트는 먼저 온 관람객과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담소(어디에서 오셨어요? 등)를 나누고 전시해설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

[현장노트]

둘째, 본격적인 전시해설에 들어가서 도슨트에게 중요한 것은 전시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해설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관람객과 상호작용의 전제하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상호작용을 위해 양 도슨트는 Fig. 57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Fig. 58은 전시해설 진행 중 양 도슨트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응대로 관람객의 입장을 배려한다. 즉, 관람객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하기 보다는 “그럴 수 있다.”는 관람객을 존중하는 응대, 어떤 사실이나 경험에 대해서 같은 입장이라는 공감의 표현, 관람객으로부터 알게 되는 사실에 대해서 감동을 하는 적극적인 표현을 통해서 관람객은 전시해설에 더욱더 몰입하게 되고 도슨트와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은 더욱더 활발히 이뤄진다. 한편,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 중에 자신이 모르는 사실에 대한 응대나 관람객의 지식오류수정 과정에 따른 주의사항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되 존중, 공감, 감동을 적절히 사용하길 권하고 있었다.

관람객과의 소통【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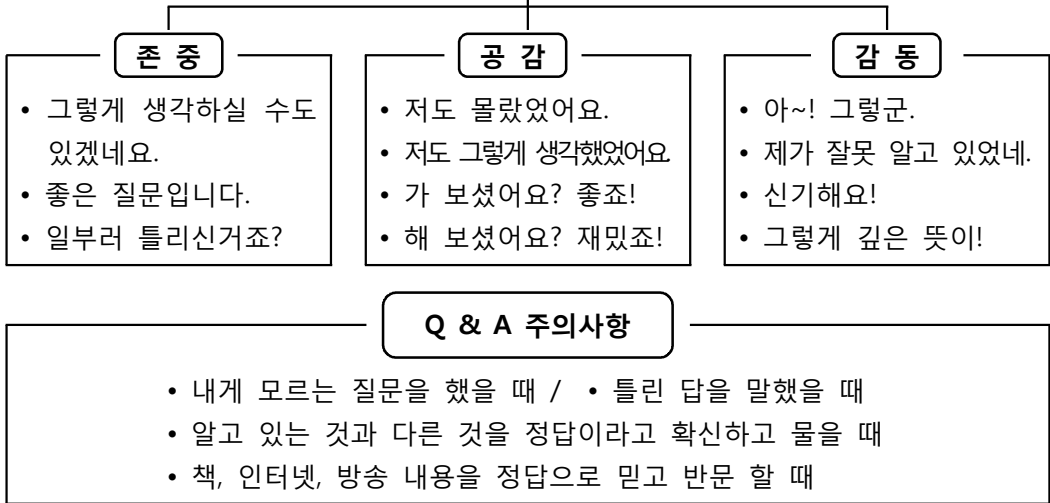


Fig. 57 전시해설의 진행 방법



Fig. 58 전시해설의 진행(해설)

양 도슨트 : *이건 겉씨식물일까요? 속씨식물일까요?*

관람객 : *속씨식물*

양 도슨트 : *(오답에 대해)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 양 도슨트는 관람객과 같은 입장이었다는 것을 전시해설 도중에 표현하고 있다(공감)

양 도슨트 : *저도 이걸 외우는데 무척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엄마 이걸 이렇게 외우면 돼요” 하고 가르쳐주더라고요..*

<중략>

[2011. 02. 19. 양 도슨트 전시해설 관찰, I과학관에서]

전시해설 도중에 양 도슨트는 현재 자신이 도슨트 입장에서 전시해설을 하고 있지만 자신도 관람객과 같이 모르는 것이 있고 특별하지 않으며 관람객과 같은 입장이다라는 것을 수시로 언급하였다. 또한, 질문에 대한 관람객의 오답에 대해서는 직설적으로 틀렸다는 말보다는 관람객이 무안해 하지 않도록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현장노트]

셋째, 주어진 시간 내에 과학관 내 모든 전시물을 해설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따라서 전시해설 마지막 단계에서 도슨트는 미처 전달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전달 등을 하는 정리의 시간을 갖는다.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 마무리 단계에서 언급해야 될 사항으로 Fig. 59과 같은 항목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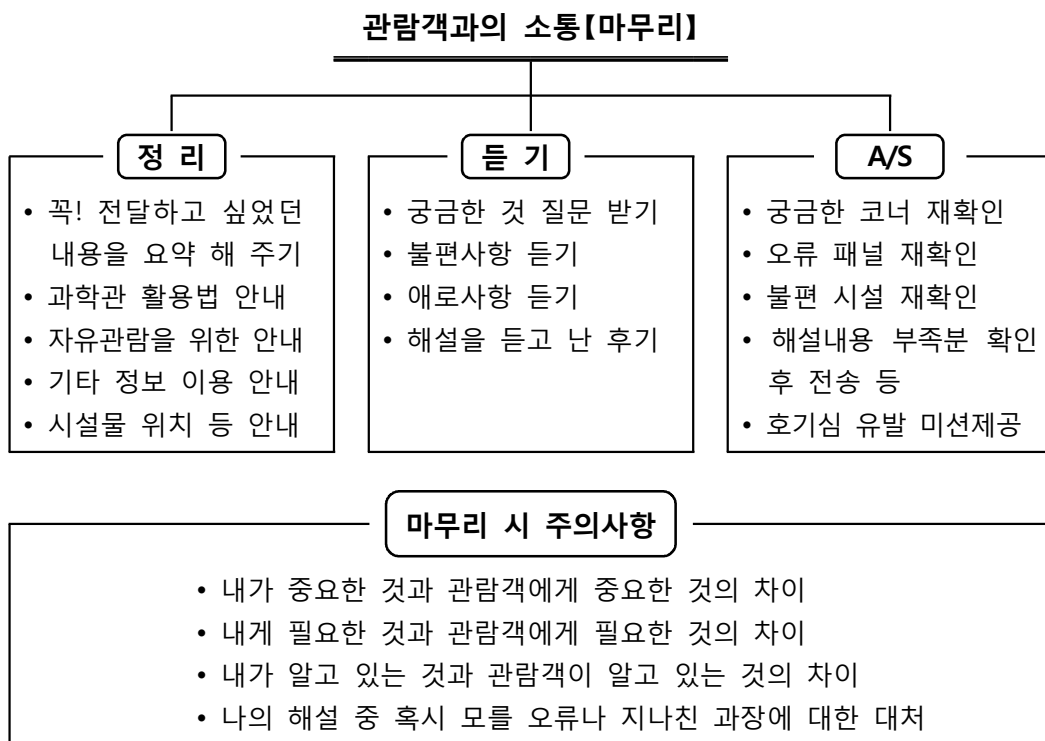


Fig. 59 전시해설의 마무리 방법

전시해설 마무리 단계는 더 낫은 서비스를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항목을 양 도슨트는 정리, 듣기, A/S로 구분하고 있다. 정리는 과학관의 관람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 내용 중 관람객에게 기억시키고 싶은 내용을 강조하고 전시해설 이후 이어질 관람객의 자유 관람을 위해 과학관의 시설물·다양한 정보 등을 안내하는 등 과학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듣기는 관람객의 의견 수렴으로 관람객의 궁금한 사

항을 해결해 주고 관람의 불편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과학관측에 관람객의 목소리 역할을 한다. 또한 관람객의 전시해설에 대한 후기를 통해 자신의 전시해설에 대한 반성과 함께 좀 더 좋은 전시해설을 위한 발전을 모색하게 된다. A/S는 전문가의 식견으로 박물관 측에 고객의 목소리 전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과학관의 시설물에 대한 패널의 오류·불편사항 등을 과학관에 알림으로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듣기 항목에서 관람객의 후기를 통해 반성과 발전을 모색했다면 A/S에서는 전시해설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을 통해 전시해설의 발전을 모색하게 된다(Table 21).

Table 21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의 마무리와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도 전시해설을 마치고 자료 찾고 정리하고 습관처럼 그렇게 보냈습니다. • 오늘도 저는 관람객들과 내 아이들이 함께 살아갈 동무들이 즐겁고 흥미롭게 체험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고민했네요. 그래서 인터넷도 열심히 보고 자료도 만들어 보고 인쇄하여 크기도 제고 방법도 연구해 보았어요. • 나름의 성과에 스스로 만족하며 나름의 새로운 지식에 행복해 하며 그렇게 또 하루도 정리했습니다. • 해설을 마치며 관람객과의 1:1대화와 안내를 하면서 느껴지는 확신, 아! 필요했었구나, 간절했었구나, 우리 도슨트들의 편안하고 재밌는 해설이 • 정확히 50분 해설을 마쳤습니다. 기초과학관과의 연계성을 설명하고 조금 쉬었다가 기초과학관에 가서 관람하시기를 권하며 SOS코너의 개방시간이 되었음을 안내 했습니다. • 해설이 끝나고 나면 저는 저의 자세가 어땠나하고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허리는 펴고 바른 자세로, 나의 행동은 전시해설에 빠져서 너무 흥분된 모습은 보이지 않았나...
<p>전시해설을 마치고 나서 양 도슨트는 중요하지만 미처 설명이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관람안내를 하고 관람객과 함께 했음에 행복감을 느끼면 더 낫은 전시해설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현장노트]</p>

위 3단계를 걸친 전시해설 전략 기법은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에 잘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 관찰이다.

일 자 : 2011년 2월 19일

장 소 : I 과학관

관람객과의 소통【도입】

【장면 1】

양 도슨트 : 가방이 무거운 분들은요. 시성물 안내
편의 제공

우측에 보면 보관함이 있어요. 보관하시고

【장면 2】

양 도슨트 : 어디서 왔어요?

관람객(어린이) : 시흥시...

양 도슨트 : 시흥시에서 왔어요? 어~ 생각보다는 안 멀다 그치?
선생님은 고양동에서 왔는데...

【장면 3】

양 도슨트 : 여기는 너무도 좋은 공간이에요. 교과하구도 맞물리구요 그 다음에 8차
교육과정(=2009 개정교육과정)에 보시면 탐구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많이 하구요. 과학관 전시물에 따른 교육정보 제공

【장면 4】

양 도슨트 : 여기는 어디일까요?

관람객(어린이) : 자연수업박물관

양 도슨트 : 자연수업박물관? 아~ 그렇게 알고 왔구나, (다른 관람객에게) 또
여기가 어디일까요?

관람객(어린이) : 박물관

양 도슨트 : 박물관 또.

관람객 : I 과학관

양 도슨트 :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박물관이라는 것은 전시, 수집, 교육,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목적이 홍보관이에요.
홍보 뭐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냐면 생물이 자원이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박물관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관람객과의 소통【해설】

【장면 5】

양 도슨트 : 네, 여기는 뒤로 두발자국 세발자국 뒤로 물러서주세요. 모든 전시물은 세발자국 물러서 보시는 게 가장 잘 보입니다. 그리고 제 등이 안 보이는 곳에서 계셔야 제가 뭐를 잡는지가 보이겠죠?

관람객(어린이) : 여기 지금 전시관을 둘러보시다보면 이렇게 모형이 있거나 그림이 있는 걸 보시면 아~ 확대경이나 현미경이 있어요. 이것들은 전시물이 너무 작아서 확대해 놓은 것 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시관을 쪽~ 보실 때 모형과 그림이 있으면 확대해 놓은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머리에 담아두시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장면 6】

양 도슨트 : 세 번째 지나서 네 번째입니다. 식물계입니다.
지금 날아가는게 보였어요. 뭘까요?

관람객(어린이) : 포자?

양 도슨트 : 어! 포자. 몇학년 일까요?

관람객(어린이) : 이제 4학년

양 도슨트 : 어.. 이제 4학년 많이 아네요. (하하하). 4학년이 선생님은 제일 어려웠던거 같아요 수업할 때 공부할 때...

직의 응대와
적절한 보상

【장면 7】

양 도슨트 : 여기는 어떻게 번식하느냐에 대한 방법이에요. 민들레는 바람에 후~
비유 설명 불어서 날아가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노래 있죠? 손대면 특 하고
터질것만 같은 봉선화의 봉선화 연정에 나오는 봉선화예요. 이렇게 하면 특 하고 터져요. 그래서 멀리 날아 가구요.

【장면 8】

양 도슨트 :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아이들이 들은 게 있어서 자꾸 질문이 들어오죠?
엄마들이 긴장하죠? 저도 정말 긴장하거든요. 관람객과 같은 입장

관람객과의 소통【마무리】

계속적인 관념을
위한 전시관 안내

【장면 9】

- 양 도슨트 : 사실은 2층으로 올라가셔야 여러분들이 오신 정말 정확한 의미가 되요.
여기는 홍보관이다라는 개념으로 아~ 이렇게 자원이라는게 로얄티를
주지 않아도 되는 건데 지키지 못했구나 2층은 이런 개념으로...
이와 관련된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전시되어 있어요.
- 양 도슨트 : 맞은편 가면 체험학습장이 있어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를 잠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양 도슨트 : 다음에 오시면 또 좋은 인연으로 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면 1 ~ 장면 4까지는 도입단계로 도슨트와 관람객의 첫 대면에서 이루어지는 전시해설 관찰이다. 도입단계에서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은 과학관의 미션과 과학관의 시설물 안내, 관람객의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예: 사는 지역) 등이 반영되어 있다. 도입부에서 양 도슨트는 가방을 들고 있는 관람객을 인지하고 보관함의 위치를 안내, 사는 지역의 질의응답을 통해 관람객에 대해 자신이 관심이 있고 한편으로는 자신과의 공통점을 찾으려하고 있다. 또한 과학관의 교육적 특징을 안내하고, 과학관의 건립목적 등을 통해 전시해설의 방향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장면 5 ~ 장면 8까지는 해설단계로 전시해설의 본문부분의 관찰이다. 해설단계에서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 기법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었는데, 질문에 대한 관람객(어린이)의 응답에 적절한 보상, 일상에서 친숙한 것에 비유를 하는 설명 기법, 학부모 관람객에게는 “저도 정말 긴장하거든요.”와 같은 말을 함으로서 같은 학부모 입장으로 전시해설을 하는 자신이 특별하지 않음을 인식 시키고 있다. 한편,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 도중에 본 과학관에서의 특징적인 관람방법(확대경이나 현미경이 있어요. 이것들은 전시물이 너무 작아서 확대해 놓은 것 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도 잊지 않고 안내하고 있었다.

장면 9는 마무리 단계로 전시해설에 대한 관람객의 반응과 도슨트의 반성에 대한 관찰이다. 양 도슨트는 한정된 시간으로 전시해설이 이뤄지지 않은 곳에 대해선 자세한 관람 안내를 하여 관람객의 과학관 관람에 만족을 기하고 있다.

도슨트의 전시해설은 동질의 관람객이 아닌 다양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체계적이고 적절한 전시해설 전략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도슨트는 전시물의 전문적 지식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도슨트가 전문가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술한 전시물에 대한 내용학적 전문지식과 이 전문지식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한 전시해설의 전략 외에 현장에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대한 발 빠른 대처 능력 또한 필요하다.

Table 22 여러 가지 돌발 상황

질 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룡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과학관에 왜 가짜가 전시 돼있어요? · 왜 동물을 죽여서 저렇게 잔인하게 박제해 놓은 것인가요? 청딱따구리가 불쌍해요. · 전문가 맞아요? 전공이 뭐예요? 이거 알아요? · 고생대 시작이 교과서에는 5억7천만 년 전이라고 돼있는데 여기는 5억 4천3백만 년 전이라고 틀리게 되어 있네요? · 실험이 잘 안되잖아요. 잘 못 된 거죠? 고장 났어요?
상 황	<p>[상황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내부의 관상용 벽걸이 어항이 깨졌어요. · 그 앞을 지나가던 아빠와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어린이가 많이 놀랐지요. · 어린이의 옷은 젖었고 아빠는 화가 많이 났어요. <p>[상황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살 꼬마 어린이는 박물관에 들어서며 이것저것을 만졌습니다. · 주변에 계시던 자원봉사 선생님이 주의를 주셨습니다. · 전시장을 관람하던 엄마는 화를 못 참고 자원봉사 선생님께 항의 했습니다. <p>[상황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과 도슨트 해설을 듣던 엄마는 중간도 못가서 해설 듣기를 포기했습니다. · 도슨트의 해설 내용 중에 오류가 많았습니다. · 또한 도슨트는 중간 중간에 “이건 몰라도 되구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Table 22 계속

	[상황 4]
상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정해진 시간 11시) 해설을 위해 도슨트는 시작 장소에서 기다립니다.· 단체 인솔자는 시간이 없다며 10분 일찍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중간쯤 해설 도중에 단체 관람객은 빠지고 개인, 개별 관람객만 남았습니다.

돌발 상황(Table 22)은 도슨트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나 관람객들의 돌발 행동으로 최 학예사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

[상 황]

- 왜 동물을 죽여서 저렇게 박제해 놓은 것인가요?
- 새들이 저렇게 죽어있는데... 너무 잔인해요
- 저건 진짜가 아니잖아? 박물관에 왜 가짜가 전시됐죠?

[관람객분석]

- 관람객들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가?
 - 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관람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대처 방안 모색]

-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의미, ‘진짜’와 ‘가짜’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 유물과 자연환경의 관계 생각하기
- ‘현장재현’을 구현한 전시의도 파악하기
- 모사품에 담긴 의미 파악하기

[대처방안 - 대화의 기술]

- 자연에는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양성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이러한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 일반인들의 박제는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박물관은 허가를 받고 박제를 하는 것입니다. 박물관에서 박제를 하는 이유는?

한편, 돌발 상황에 대해 양 도슨트는 대처 방안으로 자신의 오랜 경력동안 쌓인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양 도슨트는 스스로 반문을 하라고 이야기한다. 과학관의 건립목적은? 전시의 기획 의도는? 전시물에 담긴 의미는? 관람객은 전시물을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일까?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가? 나는 전시물에 대하여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전시물의 특징과 의미를 ‘객관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가? 내가 계획한 안내의 테마(목적, 스토리텔링)는? 나는...? 등 다각도로 반문을 하면서 돌발 상황에 대해서 옳은 판단을 하고 빠른 수습을 하는 양 도슨트의 모습을 연구자는 전시해설 관찰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

Table 23 돌발 상황을 수습한 양 도슨트의 사례

상 황	분 석
관람 시 물 등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나인 소녀는 알고 있었나봐요. 한참 설명하는데, 순간 사내아이가 물을 들이켰습니다. 누나인 소녀는 동생의 행동이 맘에 들지 않았는지 물병을 뺏으며 강한 눈빛으로 화를 내더군요. 엄마가 지켜보며 난감해 하셨고 사내아이의 웃옷은 모두 젖고 말았습니다.	돌발 상황
우선시 되어져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옷이 젖은 사내아이? 화가 나서 동생을 나무라는 소녀? 난감해 하는 두 아이의 엄마? 아니면 그 외의 관람객?	우선순위 정하기
제게는 첫째가 사내아이 였습니다. 젖은 옷은 화장실이나 안내 데스크 쪽을 가리키며 화장지로 꺾 누르면 물이 흡수되니 다녀오라 했습니다.	
제게 있어서는 둘째가 소녀 였습니다. 혼이 날 짓을 했다기보다 관람 에티켓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예뻐서요.	
그리고 무안했을 엄마가 셋째 입니다. 호기심 많은 아들 녀석을 칭찬하고 에티켓을 지키고 싶었던 소녀를 칭찬하고 그런 아이들을 두었음이 나쁘지 않은 것이란 느낌을 전달하며 무안함을 줄여드렸습니다.	상황대처
그 다음이 지켜보고 계셨던 관람객 입니다. 물을 마신 것은 분명 옳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니까 그런 잘못 된 행동을 저지하고 싶었던 소녀의 기특함에 포인트를 맞추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돌발 상황에 대한 수습으로 양 도슨트는 우선순위[관람객 → 전시물 → 설립취지 및 목적 → 도슨트]를 정해서 지혜롭게 해결하는데, 그 모습을 Table 23에 제시하였다. Table 23 돌발 상황은 양 도슨트의 실제 경험 사례로 무척이나 당황스런 상황이나 전시해설에 동참한 관람객 모두가 이해하고 무안해 하지 않게 최선의 방법으로 상황을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전시실에서 어떠한 음식물도 반입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아이의 물을 들이키는 행동에 누나가 제제를 가함으로서 사내아이의 옷이 젖어버리는 상황에서, 양 도슨트는 가장 당황해 했을 사내아이, 누나, 이 남매의 엄마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함을 볼 수 있다. 첫째 사내아이가 젖은 옷을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줌으로서 어수선허 질 수 있는 상황을 정리하고, 둘째 상황을 크게 만든 누나의 행동보다는 누나의 입장에서 그런 행동을 한 이유를 이해하고 누나의 관람 예절을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셋째, 이런 남매의 행동에 누구보다도 무안해 했을 어머니에게는 두 아이의 행동보다는 사내아이의 호기심과 누나의 관람 예절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부각 시킴으로서 어머니의 무안함을 줄여주고, 마지막으로 관람객들에게 과학관의 관람 예절과 소녀의 관람예절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 관람예절의 인지와 돌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함으로서 관람에 참여한 관람객 모두가 이의 제기 없이 상황이 잘 마무리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돌발 상황은 초임이나 경력 도슨트에게 무척이나 당황스럽게 다가온다고 도슨트들은 이야기한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한 간접경험은 도슨트에게 실제 현장에서 좀 더 침착하게 해결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b. 도슨트 전문성을 위한 외적 영역

도슨트가 전문가로서 내실을 키우고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을 위한 외적 영역 또한 중요하다. 도슨트의 전문성을 위한 외적 영역은 교육자라는 같은 맥락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위한 외적 영역과 비유할 수 있는데, 그 외적 영역은 동료 도슨트와 상호작용(Socio-professional context), 전문가와 의사소통(Supervisory context), 실질적인 상황에서 학습·환경적인 맥락(Action context)의 3가지(Fang,

1996)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도슨트가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기 위한 환경인 외적 영역의 내용을 위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 동료 도슨트와 상호작용(Socio-professional context)

도슨트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도슨트 스스로의 학습도 중요하지만 동료 도슨트와의 상호작용도 중요하다. 동료 도슨트와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양 도슨트는 개인적으로 동료 도슨트의 멘토링을 받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 교환을 한다. 이어지는 인터뷰에서는 양 도슨트가 지구과학 교사로 퇴직한 동료 도슨트에게 자신의 전시해설 시나리오에 오류가 있는지 혹은 조언을 듣고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는 학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도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거기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저한테 얘기 해주지 않겠어요? 저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G과학관을 갔는데 지구과학 전공을 하신분이 계셨어 다행히. 우리 자연사관에 (도슨트 활동을 하시는 분 중에).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시나리오를 적어 주었어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설을 하겠다. 하는데 혹시 오류가 있으면 좀 봐주세요.

[양 도슨트 인터뷰]

양 도슨트는 과학에 대해서 비전공자 이므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시해설 시나리오를 동료 도슨트와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좀 더 지식을 탄탄히 한다. 양 도슨트는 동료 도슨트와의 이러한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료 도슨트들은 자신의 전시해설을 동료 도슨트에게 보여주는 것을 꺼려한다고 이야기한다.

한편, 양 도슨트는 동료 도슨트와의 개인적인 상호작용 외에 정기적인 도슨트 모임에 대해서 중요함을 강조한다. 다음은 이에 대한 양 도슨트의 생각이다.

*지금은 한 달에 한번 모이는 거 (회의 때 모아진 의견이) 두 달에 한번 모이
자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안 돼요. 한 달에 한번이 맞아 두 번은 (교육 및 멘토*

링한다는 것이) 힘들어 친목회 같은 경우는 다르지... 근데 이거(=도슨트 정기 모임)는 교육이잖아 지식이고 그래서 한 달에 한번은 모여서 변화하는 결



Fig. 60 동료 도슨트의 정기모임

(멘토링과 피드백으로) 해야 되요. 12달을 쳐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쓰나미 등 얼마나 공부해야 될 것이 많아요? 사람들이 일본 쓰나미 일어나고 지진 일어나는 거 물어 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나도 지금 공부해야 되는 판인데 그런 거(=새로운 현상과 발생)를... 그렇게 태풍이 왔으면 태풍에 대해 자 연사라면 더 공부를 해야 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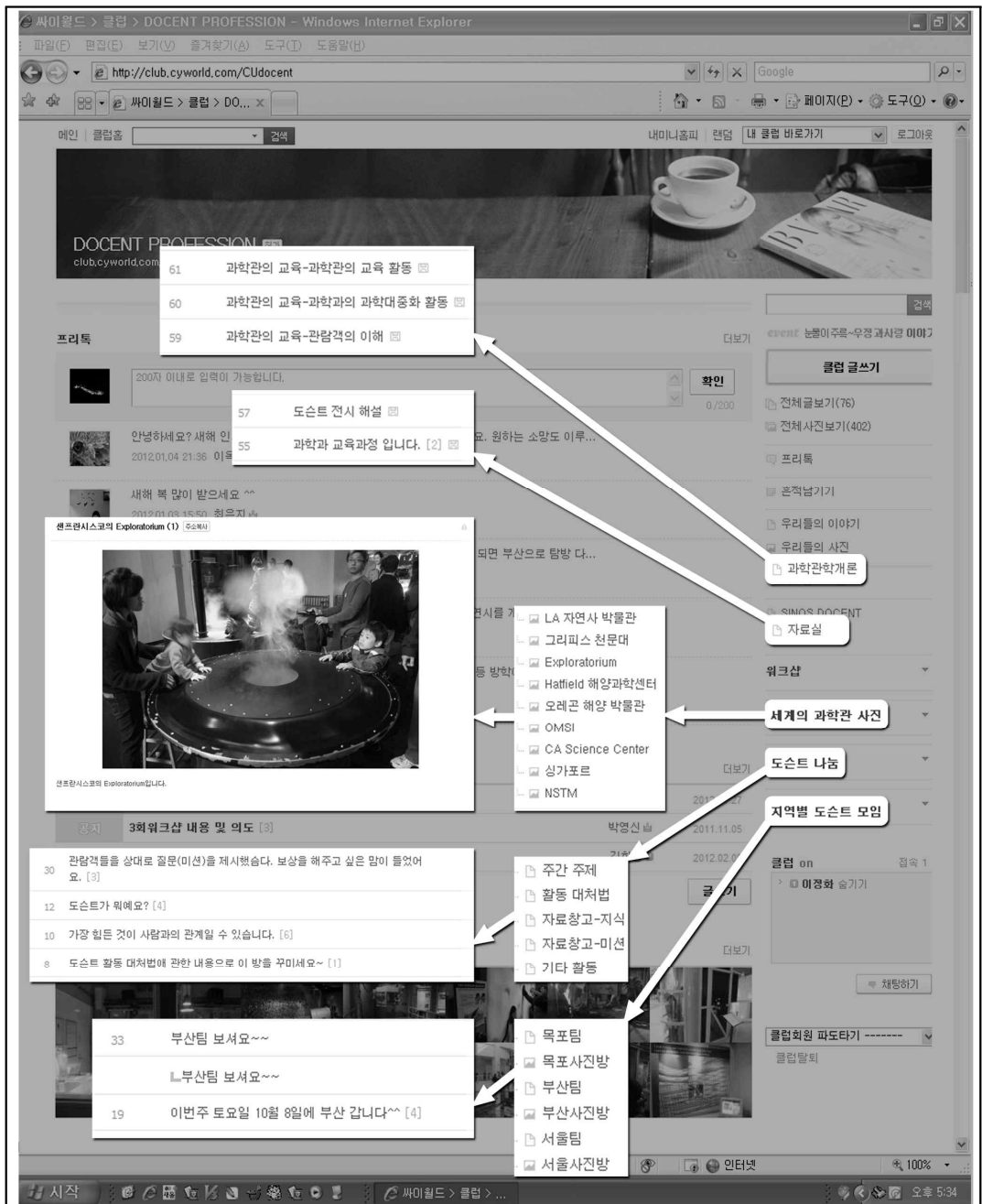
[양 도슨트 인터뷰]

양 도슨트는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보에 관심을 두고 관람객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과 꾸준한 연구는 이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정보를 한 개인이 수집과 자료정리를 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동료가 함께 스터디를 함으로서 그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스터디 활동에 대해서 양 도슨트는 한 달에 한번을 추천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생활과 정보의 주기성을 고려한 양 도슨트의 경험에 의한 판단이다.

· 전문가와의 의사소통(Supervisory context)

도슨트는 주로 비전공자로 구성되는 자원봉사자로 도슨트에게는 무엇보다도 전문가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즉, 전시물에 관한 이론 및 효율적인 전시해설 방법 등에 대하여 서로 논의 하면서 전시해설의 교육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양 도슨트는 전문가와의 의사소통으로 온라인(on-line) 및 오프라인(off-line)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온라인(on-line)상에서는 전문가의 블로그를 활용하여 전문지식 및 전시해설의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 블로그(Fig. 61)는 크게 과학관개론, 자료실, 세계의 과학관, 도슨트 나눔, 지역별 도슨트



과학교육 전문가는 블로그를 과학관에 대한 전문지식, 세계적인 과학관의 교육활동, 도슨트 활동, 소통의 공간 등으로 구성함으로써 도슨트가 비형식교육기관의 교육을 책임지는 전문가로 활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Fig. 61 과학교육 전문가가 운영하는 블로그

모임 외에 우리들의 이야기와 우리들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는 도슨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관 개론에는 관람객의 이해, 과학관의 교육 활동 등 과학관 교육의 전문이론에 대한 내용이 올려져 있어서 도슨트들로 하여금 전문가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자료실에는 전시해설 경험에 바탕을 둔 자료가 올려져 있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세계의 과학관에는 세계적으로 규모면, 인지도 면에서 유명한 과학관의 다양한 사진과 설명이 올려져 있다. 이 코너에서는 국내 활동에 국한되어 있는 도슨트에게 국내 과학관 전시물의 구성과는 다른 외국 과학관의 사례 즉, 핸즈온(hands-on) 위주의 전시물 구성과 거기에 따른

SINOS DOCENT
권한보기 · 글쓰기

부산
홈
샘 편
주소록사

2012.01.30 15:58
조회 19 | 스크랩 0



아침 9시 15분에 도착. 20명 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보라색옷을 입고 나타난 샘은 머리를 단아하게 돌려서... 분위기가 한층...보라색 한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 여러개의 관을 돌면서 설명을 하고 체험을 그 후에 하는... 오랫동안의 노하우가 보이는 해설시간이었다.

댓글 12
스크랩 | 답글 | 인쇄

새벽부터 출발하셔서 8개관 1시간 45분 투어 너무 힘들셨나하는 생각을 했어요~ 정확한 피드백 잘 부탁드립니다. ♡

12.02.05 19:09

샘에게 단점을 찾으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느끼는 단점은 노련미입니다. 너무 노련하셔서 약간 부담감이 느껴진다고나 할까?? 관람객에게는 전문성으로 비춰지며 믿음을 주는 해설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봐도 선하네요. ㅋㅋ

확인

목록
글쓰기

전문가에 의한 도슨트 전시해설에 대한 평가에 이어서 도슨트는 자신의 전시해설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갖고자 전시해설에 대한 피드백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동료 도슨트에 의한 피드백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련한 해설'에 대해서 도슨트로서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음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고 있다.

Fig. 62 온라인(on-line) 상에서 전문가와 도슨트의 상호작용

활동을 올려놓음으로서 도슨트의 세계적인 활동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넓은 시야를 갖게 해주고 있다. 한편 블로그에는 도슨트들의 공간으로 도슨트 나눔과 도슨트 활동 코너를 두어 도슨트들이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돌발사항과 이에 대한 대처법 및 활동사진들을 올려둠으로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방대한 자료에 대해 각각의 코너에서는 전문가와 양 도슨트 외에 도슨트들이 함께 의견 교환을 함으로서 전시해설에 관한 더 넓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다(Fig. 62).

한편, 양 도슨트는 오프라인(off-line) 상 전문가와 만남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전시해설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서로 의논한다(Table 24, Fig. 63, Fig. 64). 즉,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주제 토론 및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좀 더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갖추게 된다.

Table 24 전문가와 도슨트의 오프라인(off-line) 의사소통 - 워크샵 일정

일 시		내 용	진 행
11/12	09:30~10:50	- 일정 안내 - 활동지 개발 건 및 멘토링 토의	○○○
	11:00~11:50	- 전문해설자원봉사자 해설 시연 (정기 해설의 실전 참관)	○○○
	12:00~12:30	- 중식	
	12:30~13:50	- G 과학관 ○○○ 연구사 (전시기획 및 전시물 관련)	○○○
	14:00~15:30	- 각자 원하는 코너의 미션 수행 (미션과제 제시 및 수행)	○○○
	15:00~17:30	- 부산3명, 목포2명, 서울2명=7명 - 도슨트 7명+학생시연3명=10명 - 해설시연 및 현장 멘토링	○○○

전문가는 과학에 대해 비전공자인 도슨트를 위해 전문가에 의한 강의와 현장에서의 해설시연을 병행하는 일정을 세움으로서 궁금증 해소와 자신의 전시해설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과학교육의 전문가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현장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문내용을 어떻게 표출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인 것에 대한 토론

Fig. 63 전문가와 도슨트의 오프라인(off-line) 의사소통 - 1:1 토론

전시해설탐구 과정안 순서		
탐구순서	내용	시간배정
탐구 들어가기	-관람객들과의 rapport형성을 위한 warming up 등등 탐구해설 시작전에 체크해야 할 것들	예를 들면 3분
동기부여	-간단한 POE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시나리오를 통한 동기부여, 시범이나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할 탐구활동에 대한 흥미를 고조시키는 활동	5분
탐구활동	-구체적인 탐구활동이 포함된다. 실험이 주활동이 될 수 있으나 토론수업이 될 수도 있다.	20분
정리	-탐구활동과 동기부여시간에 했던 활동을 연결을 하면서 탐구학습목표가 달성되도록 마무리하는 단계이다.	5분
응용	-탐구목표를 이 단계에서도 이뤄질 수 있게 앞서 배	5분

전시해설 각 단계에 따른 활동과정이 분석되어 있어 이를 참고하는 도슨트로 하여금 전체적인 전시해설이 과학적 탐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Fig. 64 전시해설 과정에 대한 메뉴얼

· 실질적인 상황에서 학습·환경적인 맥락(Action context)

도슨트가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전문지식

습득, 전시해설의 전략 기법,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동료 도슨트와의 상호작용, 전문가와의 의사소통을 통한 실력향상 외에 이러한 실력이 잘 발휘되고 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위한 환경의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환경 기반 조성으로 도슨트들의 활동 및 경력이 인정될 수 있는 운영관리, 도슨트 활동지원 마련, 도슨트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

- 운영관리-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 도슨트 운영관리는 기대만큼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로 인해 양 도슨트를 비롯하여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도슨트들은 지식을 습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도슨트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는 도슨트 운영관리에 있어서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도슨트 운영관리의 체계화 방안을 과학관 내 도슨트 운영 관리 방향과 국내 도슨트 운영관리 구축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과학관 내 도슨트 운영 관리 - 방향]

최근 대도시에 있는 대규모 과학관은 도슨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현 과학관의 도슨트 관리 및 운영은 기대만큼 이뤄지고 있지 않다.

다음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뷰에 참여한 도슨트와 박물관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먼저, 양 도슨트는 과학관 관리자의 도슨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한국기술경영연구원, 2011) 즉, 도슨트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자원봉사자의 활동 수칙 및 개념에 도슨트를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고 이야기한다. 다음은 현재 도슨트 관리에 대한 인터뷰이다.

가장 큰 문제는 그건 거 같아. 일반자원봉사라는 자원봉사 개념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니까 너무 무리가 많은 거야 우선은 분리를 해서 일반자원봉사자라는 사람은 공무원들이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말 지금 말하는 프로그래머 밑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맞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양 도슨트 인터뷰]

위 인터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슨트 운영 및 관리 해결책으로 양 도슨트는 일반자원봉사자와 도슨트를 분리하여 일반자원봉사자는 운영팀(공무원)에서 관리하고 도슨트는 교육팀(프로그래머)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양 도슨트의 생각은 동료 도슨트들도 같은 맥락이었다. 동료 박 도슨트는 6년차 경력 도슨트로 어느 정도 도슨트 운영체계가 갖춰져 있다할 수 있는 과학관에서 전시해설을 하고 있으나 그곳 과학관의 도슨트 관리에 있어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동료 전 도슨트는 2년차 초임 도슨트로 아직 그 경력은 짧지만 대학시절 사범대학에서 과학을 전공한 교육적 마인드가 강한 도슨트이다. 그녀는 도슨트 경력이 비록 짧다고는 하나 도슨트 경력 8년차의 멘토로부터 다양한 간접경험을 접함으로써 경력 3, 4년차 정도의 도슨트가 경험하고 갈등하게 되는 문제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도슨트 관리에 대한 동료 도슨트와의 인터뷰이다.

동료 박 도슨트 : 자원봉사는 행정팀에서 맡고 도슨트는 학예팀에서 맡아야 하는데...

양 도슨트 : 그게 맞아요.

연구자 : 근데 G과학관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동료 전 도슨트 : 대부분의 출발이 자원봉사 안에서 도슨트가 치고 나오거나

연구자 : 치고 나온 것은 S과학관이고 G과학관은 아직 인가요?

동료 전 도슨트 : 네

[2011. 02. 08. 양 도슨트 및 동료 도슨트들 인터뷰]

위 인터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자원봉사자와 도슨트는 분리 관리 되어야 되고 동료 전 도슨트는 일반자원봉사자와 도슨트는 그 개념을 달리해야 됨을 인식하고 있고 도슨트가 출발은 일반자원봉사자와 같이 하더라도 결국에는 도슨트가 분리됨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되어야 됨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위 사례는 양 도슨트를 비롯해 동료 전, 박 도슨트 즉, 도슨트가 말하는 운영체제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견은 실제 도슨트를 담당하는 담당자도 동의하고 있다. 신 담당자는 직접 도슨트를 관리 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일반자봉

사자와 도슨트를 같은 개념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운영, 교육 등 모든 게 상충되었다.”고 한다. 한 예로, 그녀는 일반자원봉사는 친절교육과 상황에 따른 질문과 답변의 매뉴얼을 숙지시키면 되는데 도슨트 전시해설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므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다음은 신 담당자와의 인터뷰이다.

신 담당자 : 정말 일반자원봉사자랑 도슨트랑은 별개인거 같애.

양 도슨트 :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신 담당자 : 같이 가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자원봉사의 개념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니 모든 게 안 맞는 거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직접 해 보지 않으면. 그렇게 인지를 안 하죠. 그냥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별개가 아니라... 왜냐면 같이 자원봉사라고 생각을 하죠. 그니깐 자원봉사자랑 이렇게 나뉘어 져야 되요. 일반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친절하면 되 시키면되요. 모든 경우 수의 Q&A를 만들어서 그 Q&A를 계속 숙지를 시키면 되거든요?

양 도슨트 : 이렇게 물어 볼 때 이렇게 대답해라 하고.

신 담당자 : 그걸 매뉴얼로 만들어 주면 되는데 도슨트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거랑 저 사람이 대답하는 거랑 틀릴 수 있거든요.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2011. 03. 20. 양 도슨트 및 신 담당자 인터뷰]

위 인터뷰에서 신 담당자는 도슨트를 관리해본 경험으로 도슨트는 일반자원봉사자와 별개로 관리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 도슨트 제도를 도입하는 다수의 과학관 관리자는 일반자원봉사자와 도슨트를 같은 개념으로 관리 및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과학관 내 도슨트 운영 관리 실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향에 대한 인식을 요약해 보면, 과학관의 도슨트 관리운영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과학관의 경우 도슨트 스스로 책임감 있는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의무 조항과 질적관리를 위한 심화교육 및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체계를 못 잡고 도슨트 관리에 미흡함을 보이고 있는 대부분의 과학관의 경우 일반자원봉사자와 도슨트를 같은 개념으로 관리운영 함에 따라 운영에 차질이 발

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 도슨트를 비롯해 동료 도슨트, 일부 도슨트 담당자는 도슨트의 전시해설에 따른 교육을 강조하면서 일반자원봉사자와 도슨트는 별개로 관리 운영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Fig.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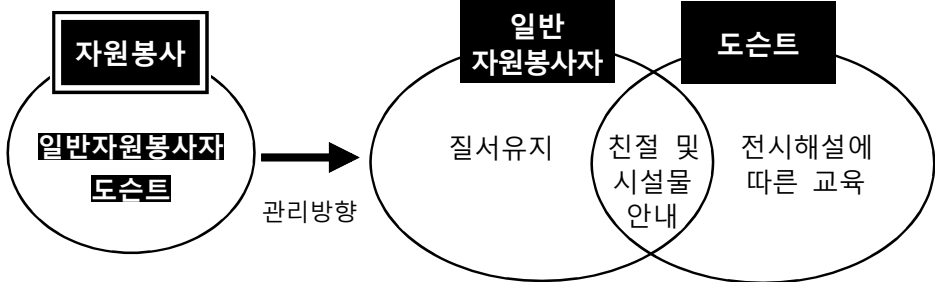


Fig. 65 국내 과학관 내 도슨트 관리 현 상황과 효율적 관리방향

[국내 도슨트 운영관리 구축]

국내의 현 도슨트 운영관리는 아직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김효선, 김경훈, 2011; 박영신, 이정화, 2012). 이러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양 도슨트는 도슨트가 전문가로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도슨트들의 활동 및 경력이 인정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됨을 강조한다. 도슨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양 도슨트 외 동료 도슨들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다음은 양 도슨트가 동료 도슨트와 함께 의견을 나누었던 것에 대한 인터뷰이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하죠. 의견이 분분하면서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 ○○ 대장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략> 선생님 제가 사단법인을 만들면 정족수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 이름 좀 넣어줄 수 있겠냐고 해서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의 아이디어는 이거야. 경기도가 A라고 하고 경상도가 B라 한다면 경기도와 경상도 해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명칭에다가 주민등록번호 넣듯이 A, B를 넣는대든가, 색깔을 달리한다든가...

[양 도슨트 인터뷰]

도슨트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활동과 경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안 되

고 있는 상황에서 도슨트 자체 내부에서는 그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 도슨트는 도슨트의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시급’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대도시 같은 경우 전시해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관리 시스템 구축의 미흡으로 도슨트의 질적 자질에 우려됨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정말 할 수 있는 사람들, 알짜배기들을 키워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제일 심각한 것은 너무 난립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되어 있어요. <중략> 예를 들면 해설사 체험학습을 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는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박물관 도슨트래.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인정을 해버리니까. 엄마들은 그걸로 인정해버리니까 그게 문제죠. 그니까 제가 우선은 제일 급한 것은 급한 거라기보다 뭘 먼저라고 할 수 없어 진짜. 뭐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너무 좋겠지만... “도슨트를 이렇게 양성해야 됩니다.”라는 거는 분명히 납득시킬 기준점이 나와 줘야 되는 것과 그게 급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단시간 안에 되지는 않겠지만. 추려야 되요. 어떠한 그래서 해설사 인증이 아닌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양 도슨트 인터뷰]

양 도슨트는 도슨트 관리에 있어서 그 실력 또한 검증할 수 있는 인증이 아닌 자격증이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학부모들은 과학관의 전시해설 경력을 실력으로 인정함으로써 도슨트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도슨트 관리 시스템에서 검증된 도슨트가 활동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양 도슨트는 강조한다.

- 도슨트 활동지원 마련 -

우리나라의 과학관에서 도슨트 활동 시작은 2004년 S과학관으로 그 역사가 길지 않고, 일반자원봉사 활동의 기반에서 출발하였기에 도슨트가 전문가로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원체계는 아직 미흡하다. 이는 박영신, 이정화(2011)연구에서도 알 수 있다. 양 도슨트는 도슨트 활동을 위한 기반 형성과 의견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먼저 양 도슨트는 도슨트는 전시해설도 중요하지만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는 자

리마련 또한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즉, 전시해설 동안에 개인적 질문과 답변은 다른 관람객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시실에 관람객의 시야범위에 책상을 설치해 둠으로서 전시해설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질문을 해결 할 수 있고 도슨트에 의한 전시해설이 있음을 홍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처음 이 책상을 설치하기 까지 양 도슨트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추가질문은 (그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제가 <중략> 여기 저기 끌고 다니면서 유지를 한 거야. 안내 데스크 옆에 있다가 여기 있다가 구석구석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니깐 화장실 옆에 있다가. 그것 좀 치우지 마세요. 그런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작은데 가면 도슨트 책상이 전시관 안에 없어요. 도슨트 실 안에 있지. 그러면 끝나고 딱 가버린다고 자기 자리로 방에 들어가서 책 보다가.

[양 도슨트 인터뷰]

작은 책상하나의 설치 일수도 있지만 이 책상의 의미는 양 도슨트의 이야기처럼 그 역할이 관람객의 만족으로 이어지고, 관람객과 도슨트의 나눔과 공유의 공간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양 도슨트는 “도슨트 활동은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자원봉사 활동이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보조적 지원은 과학관측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한다. 다음은 양 도슨트가 활동을 하고 있는 과학관의 지원에 대한 의견이다.

아무나 못 가요 원래는. (일반 차들은 못 가는데) 이 길이 빨라. 우리는 I 과학관에서 이 마크를 봤어요. 차에다 달아뒀. 이 길이 빠른데 아니면 돌아 가야 하니까. 그런 지원. 주는 건 없어서 그런 지원. 그 다음에 인제 사고가 나면 보상해주고. 보험이 되. 자원봉사자들. 그런 것들 이죠. 돈으로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다니는데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

[양 도슨트 인터뷰]

양 도슨트는 도슨트 활동을 하는데 최소한의 보장은 해줘야 됨을 이야기한다. 즉 도슨트는 금전적 요구가 아닌 자원봉사이므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지원체계가 마련 될 필요성이 있다.

- 도슨트 주변인들과의 관계 -

도슨트가 전문가로서 꾸준히 활동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된 전문성을 위한 내용 외에 도슨트 주변인들과의 관계는 중요한 요소이다. 즉, 가정에서는 가족의 협조, 과학관에서 관리자의 지원과 우호적인 관계는 도슨트 활동의 지속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양 도슨트는 무엇보다도 가족의 지원과 협조가 없이는 도슨트 활동은 어렵다고 이야기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 도슨트는 동료 도슨트에게 도슨트 활동에 있어서 가족이 함께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이는 양 도슨트 자신이 가족의 협조로 인해 도슨트 활동을 즐겁게 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잘 나타난다(IV-B-3 참고).

양 도슨트 : 가족 공동의 대화에 소재가 있고요 우선은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어디를 애들이 다녀도 자기네들도 우리 엄마는 항상 나가는 사람 항상 이리지만. 어디를 가도 항상 박물관이 여행 코스고, 그러지만 자기네들도 모르게 씨앗도 주어오고, 돌도 주어오고, 동영상도 찍어오고 딱 이래요. 그리고 (내가) 딱 해매면 우리 아들이 엄마 그건 이렇게 외우는 거야. 가르쳐줘요. 정말로. 그래서 그렇게 외운 것들도 많고. 그래서 노하우도 많이 배워 아들한테. 아들이 가르쳐줘.

<중략>

양 도슨트 : 내가 활동이나 일이 있을 때 시댁이 일이 있어도 저는 시댁을 안가도 되게끔 (신랑이) 해줘요.

연구자 : 그게 크죠.

양 도슨트 : 그런 게 굉장히 크죠. 만약에 못하게 했다고 한다면 불화가 있었겠죠.

[양 도슨트 인터뷰]

위 같은 가족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양 도슨트는 8년이라는 세월동안 도슨트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양 도슨트는 도슨트 활동에 대한 가족의 협조와 지원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도슨트 과학관 탐방 등을 계획할 때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는가 하면 늘 동료 도슨트에게 가족이 함께하기를 권하고 있다.

과학관에서는 관리자의 지원과 우호적인 관계 또한 가정에서 가족의 협조만큼 중요하다. 연구자는 과학관의 관리자와의 갈등으로 도슨트 활동에 회의감을 갖고

있는 일부 도슨트를 만남으로서 그 중요성이 활동의 지속성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전시패널의 오류에 대한 수정 요구, 활동지 개발에 대한 현장 의견 등이 잘 조율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도슨트들은 좌절을 느끼곤 한다고 이야기한다.

도슨트가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전문가의 내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잘 발휘되기 위해서 과학관의 관리자, 도슨트, 가족이 함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함을 양 도슨트는 특히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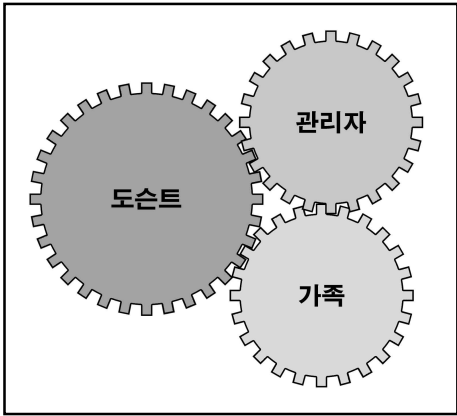


Fig. 66 도슨트 활동의 삼위일체 (도슨트, 관리자, 가족)

처음에는 도슨트만 접목을 하다가... <중략> 제가 생각하는 도슨트는 가족의 협조가 없으면 나처럼 못하고, 관리자의 협조가 없으면 아무리 도슨트가 좋아도 바람직한 도슨트 운영이 안 된다는 거. 몇 분 관리자들을 봐도 그렇고, 도슨트 선생님들의 가족들을 봐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관리자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도슨트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같이 맞춰 줘야 된다는 거.

[양 도슨트 인터뷰]

도슨트 활동은 무엇보다도 자원봉사 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슨트 자기 자신, 과학관의 관리자, 가족 중 어느 하나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활동이 어려워진다. 먼저 도슨트 자기 자신이다. 도슨트 활동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도슨트 자신은 도슨트 활동의 실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둘째, 과학관 관리자이다. 도슨트와 과학관의 1차적 소통 통로는 관리자다. 도슨트 활동에 대한 과학관의 지원 등은 관리자에 의해서 전달되고 도슨트의 과학관에 대한 건의 사항 또한 관리자에 의해서 접수된다. 따라서 관리자는 도슨트와 과학관의 소통자로서 그 역할이 크다. 마지막, 가족의 도슨트 활동에 대한 지원이다. 도슨트 활동이 가족과의 갈등 요인이라면 활동의 유지는 불가능 하다. 반면 도

슨트 활동이 가족 공동의 관심사와 대화의 소재가 된다면 도슨트 활동으로 가족의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결국 도슨트 운영에 있어서 체계화된 운영도 중요하지만, 도슨트, 과학관 관리자, 가족 이 세 가지가 잘 조화(Fig. 66)가 이루어 졌을 때 도슨트 활동은 완성된다.

도슨트는 비급여의 자원봉사자들이다. 그러나 도슨트는 일반자원봉사자와는 다른 전시해설이라는 과학관의 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게 된다. 즉, 효과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을 위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 전문성은 도슨트 자신의 내적영역(전시물에 관한 전문지식, 전시해설 전략 기법,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과 외적인 상호작용 및 지원(동료 도슨트와의 상호작용, 전문가와의 의사소통, 실질적인 상황에서 학습/환경적인 맥락)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발휘될 것이고, 도슨트의 전문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이를 보장해 주기 위한 도슨트 양성교육과정 및 운영 관리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될 것이다(김효선, 김경훈, 2011; 박영신, 이정화, 2012). 다음 장에서는 도슨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선배 도슨트로서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3. 도슨트 전문성을 위한 선배 도슨트로서의 역할

후배 도슨트의 전문성을 위한 선배 도슨트로서의 양 도슨트 역할은 양 도슨트의 ‘나눔과 공유’의 철학으로 표현된다. 그녀의 이러한 철학은 동료 도슨트들 뿐만 아니라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도슨트에게 도움이 된다. 도슨트가 전문성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양 도슨트는 자신이 어렵게 성취한 전문성을 여러 도슨트들과 공유하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될 거라고 이야기한다. 한편, 공유는 전시해설 연구에서 시너지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후배 도슨트의 전문성 형성을 위해 선배로서 양 도슨트는 어떠한 ‘나눔과 공유’를 실천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즉, 어떠한 신념으로 선배 도슨트의 역할을 하고 그 실천으로 오프라인(off line) 방법과 온라인(on line)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 후배양성에 대한 신념

양 도슨트는 현재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다방면에서 지식이 풍부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지식을 쌓기까지 양 도슨트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즉, “무슨 책, 무슨 사이트를 봐야지 정확한 내용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가르쳐 주려 하지 않고, 무슨 뜻인지도 모른채 하나하나 더딘 방법으로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후배 도슨트에게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5년 넘으니까 (해설 잘 하는 방법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5년 전에는 정말 나도 (짧은 지식만 믿고) 나 잘난 줄 알았어. 그니까 선생님들이 저러는 게(= 잘못된 해설 방법) 그냥 조금 부족하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내가 안타까워서 이런 걸(=멘토링과 피드백, 심화 워크샵) 좀해보자고 하는 이유는 내가 5년 걸린 걸 (선배가) 얘기 해주면 4년 걸릴 수도 있고 3년 걸릴 수도 있잖아요. 단축시켜주고 싶은 거지.

[양 도슨트 인터뷰]

양 도슨트는 도슨트 활동을 시작하는 후배들을 보면 자신이 어렵게 공부했던 것이 생각나고 후배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이 보인다고 이야기한다. 후배들의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게 여겨져서 양 도슨트는 “안주면 막 잠을 못자요.”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모든 자료를 후배 도슨트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다. 양 도슨트의 끊임없는 배움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 오프라인(off line) 방법 - 멘투맨식 자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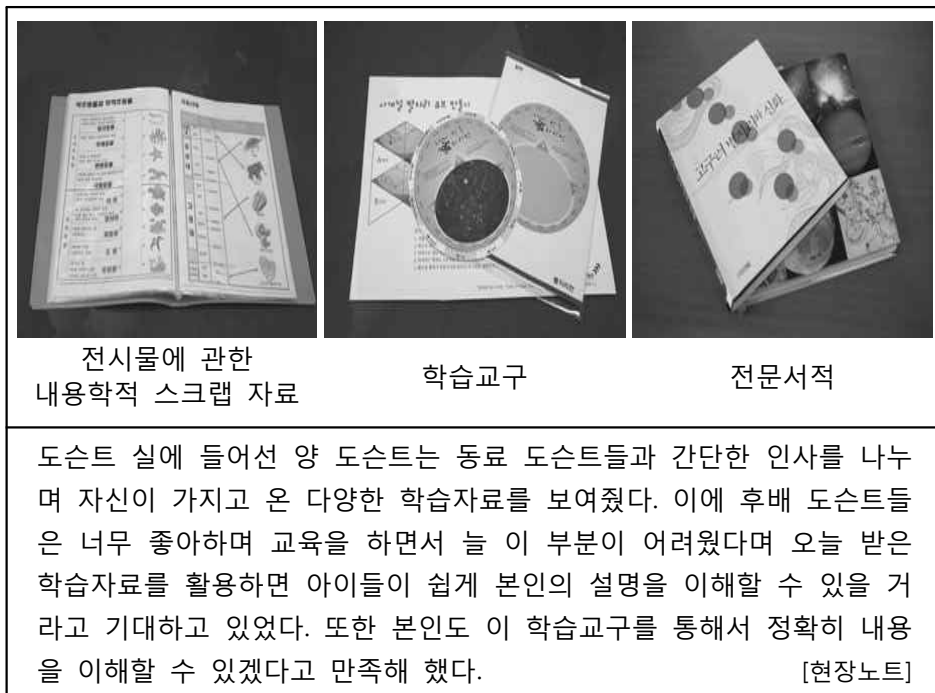
양 도슨트는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준다. 다음은 신입 도슨트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양 도슨트가 도움을 주는 장면이다.

새로운 선생님들이 오면 저는 직접말해요. 나 이런 사람이고 <중략> 그니까 나 이런 사람(=선배)이라고 직접적으로 (위압감을 주는 언행은) 하지 않지만 내가 먼저 얘기를 해요. 그냥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저 1기인데요. 아~(새로) 오셨군요. 뭐에 관심이 많으세요? 아 그건 이렇게 하시면 되요. (관

련) 자료 필요하세요? 드릴까요?”왔다 주고, (지금) 있는 거 딱 가방에서 꺼내다 주고, 저는 매일 그래서 가방에 뭔가를 들고 다녀요. 뭔가 꺼내 줄려고... “선생님 가방은 늘 보물 창고예요.”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지금 차도 트렁크니 뭐니 뒤져 보세요. 뭐든지 꺼내 주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무슨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은.

[양 도슨트 인터뷰]

양 도슨트는 신입 도슨트를 만나면 과학관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낯설지 않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아낌없이 준다. 즉, 양 도슨트가 그림과 내용을 꼼꼼히 정리한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스크랩 자료, 교육활동 중에 활용하게 되는 학습자료, 자신이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참고한 전시물에 관한 전문서적에 대한 정보 등을 후배 도슨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Fig. 67).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스크랩 자료

학습교구

전문서적

도슨트 실에 들어선 양 도슨트는 동료 도슨트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며 자신이 가지고 온 다양한 학습자료를 보여줬다. 이에 후배 도슨트들은 너무 좋아하며 교육을 하면서 늘 이 부분이 어려웠다고 오늘 받은 학습자료를 활용하면 아이들이 쉽게 본인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본인도 이 학습교구를 통해서 정확히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다고 만족해 했다. [현장노트]

Fig. 67 후배 도슨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양 도슨트의 자료 제공

양 도슨트로 부터 학습교구를 받은 후배 도슨트들은 평소에 보지 못했던 학습교구에 대해서 많은 흥미를 보였고, 별자리에 관한 교육을 하면서 좀 더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며 별자리를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에 너무 좋은 자료를 얻게 되었다고 흡족해 했다. 위와 같은 자료 제공은 후배 도슨트와 선배 도슨트로서의 양 도슨트 사이에 효과적인 피드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양 도슨트는 이 외에도 그녀가 가지고 있는 도록이나 도슨트 교육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슨트 실에 비치하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료 도슨트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동료 도슨트에게 자료를 주고 나면 양 도슨트는 또 다른 새로운 수업자료를 찾고 개발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료 도슨트에게 나눔과 스스로의 지식 채움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 온라인(on line) - 인터넷을 통한 자료 제공

양 도슨트의 자료에 대한 ‘나눔과 공유’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양 도슨트는 이메일(E-mail)을 활용하여 후배 도슨트와 소통하고 있었는데 그 소통을 통해 그녀는 전시해설의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실천하고 있었다(Fig. 68). 양 도슨트의 이메일(E-mail)을 통한 전시해설 내용에 대한 피드백은 각각의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다. 전시해설 이전에 갖추어야 할 자세로 관람객을 맞이하는 장소에 관람객보다 먼저 도착하여 바른 자세로 관람객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친근감을 형성하고 전시해설 시작 부분에서는 자기소개, 전시해설에 대한 총 소요 시간과 전반적인 전시실 구성을 안내한다. 본격적으로 전시해설에 들어가서는 전시해설자로서의 자세와 관람객의 관심을 파악하면서 전시해설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 자연사관 전시 해설 시나리오 -

20100501 현재

[해설시간 10분 전, 시작 장소에 대기하며 관람객을 맞이한다. 미소를 머금고~]

[해설시간 정시가 되기 전, 미리 도착하신 관람객에게 정시에 시작할 것을 안내하며,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도록 방문 이유와 관심 분야 등에 대하여 이야기 나눈다.]

-해설 공지 시간 정시에 시작-

안녕하십니까? 자연사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사말]**
오늘 여러분과 약 1시간 가량을 함께하게 될 전시해설 자원봉사자 []입니다.
[자기소개 및 소요시간 안내]

우리 자연사관은 크게 나누어

- 탄생의 장(우주 및 원시지구의 탄생과 진화, 실물운석 등),
- 변화의 장(한반도의 지질여행 드라마빙 시뮬레이터),
- 진화의 장(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 생명의 장(한반도의 육상 및 해양생태계 디오라마, 수족관)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설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한 내용에 한하여 답변하여 드리고 긴 설명이 필요한 경우엔 해설을 마친 후 질.문답하는 것으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관람 대상의 관심도 탐구]**

아! 멋진 친구는 공룡에 관심이 많군요!^^
우리 전시장에는 실물 공룡 화석도 있으니 함께 찾아가 볼까요?
이제 자연의 역사 속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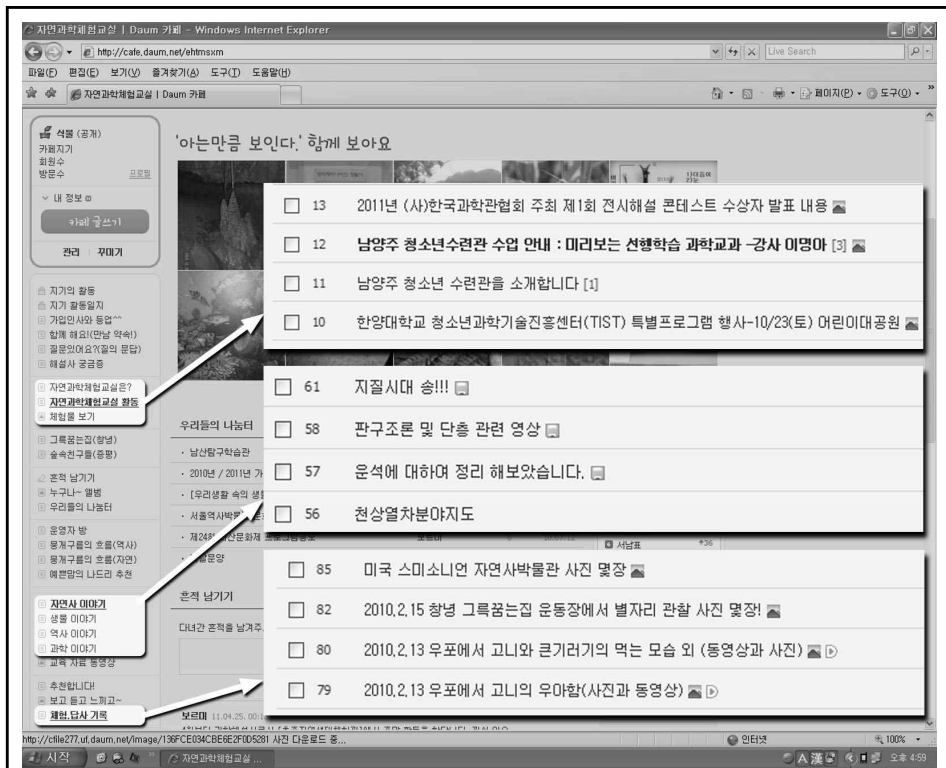
이 코너는 밤하늘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어둡죠? 이쪽 자리에 누워 천정의 영상을 보시면 우주에 대하여 조금 더 알게 되시겠지만 지금은 왜 밤하늘이 어두운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후 첫 번째 패널 앞에서~)
전시물에서 세 발만 물러서서 보시면 더 잘 보인답니다.^^
**[관람객에게 주의 사항 및 전달사항을 이야기 할 때는 최대한 정중하게~
주입식이거나 강압적이지 않은 이해를 구하는 어법으로~]**

자연사관의 전시해설 내용에 관하여 단계별로 스토리를 보면서 흐름을 정리하고 있다. 즉, 관람객과 만날 장소에 미리 나가 준비하고 전시해설에 대한 소요시간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시해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면서 전시해설 방법적인 부분도 잊지 않고 조언을 하고 있다.

Fig. 68 이메일(E-mail)을 통한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 내용에 대한 피드백

양 도슨트의 온라인(on line) 상의 또 다른 나눔과 공유는 블로그 활용이다. 양 도슨트는 블로그(Fig. 69)를 만들어 자신의 다양한 교육활동 사진과 체험학습자료 등을 수시로 올림으로서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활동 전반(교육활동, 수집된 학습자료, 체험·답사)에 관한 사항을 항목별로 구분해 정리함으로써 블로그를 방문하는 네티즌들로 하여금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간접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Fig. 69 양 도슨트가 운영하는 블로그

양 도슨트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들어가게 되면 양 도슨트의 교육활동에 따른 자료, 전시해설에 관한 내용학적 전문자료, 양 도슨트가 현장답사를 하면서 찍은 사진과 과학관을 방문하면서 얻은 자료 등 방대한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블로그 방문자는 간접경험의 기회를 갖게 된다. 즉, 양 도슨트의 교육

활동에 따른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 ‘자연과학체험교실 활동’ 코너를 통해서 블로그 방문자들은 여러 과학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정보를 얻고 이를 도입 및 응용할 수 있다. 전시해설에 관한 내용학적 전문자료가 정리되어 있는 ‘자연사 이야기’ 코너에는 전시해설에 필요한 기본적인 전문지식이 다량 수록되어 있어 과학에 대한 비전공 도슨트들에게 전문지식 습득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양 도슨트가 현장답사를 하면서 찍은 사진과 과학관을 방문하면서 얻은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 ‘체험·답사기록’ 코너는 블로그 방문자(도슨트)들에게 간접 경험을 체득하게 해주고 있다. 즉, 미처 현장을 방문하지 못한 블로그 방문자(도슨트)들은 다양한 현장 사진을 통해서 현장의 분위기 등 사진 정보를 얻게 된다. 실제 양 도슨트의 블로그를 방문한 한 도슨트는 “한정된 시간에 많은 곳을 답사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체험·답사기록’ 코너를 통해 새로운 현장체험학습장소 물색은 물론이거니와 사진과 함께 제시된 정보가 있어서 사전답사에 대한 수고로움을 조금은 덜 수 있다.”고 말을 한다. 양 도슨트의 블로그 운영은 일방적인 자료 제공이 아닌 실제 블로그 방문객(도슨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자료 제공은 블로그 방문자들(도슨트)에게 간접경험의 기회가 되고 이를 통해 그들이 조금 더 빠른 적응과 활용의 민첩성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고 양 도슨트는 이야기한다.

도슨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방법은 전문가에 의한 강의, 전문 서적 등 다양하다. 그 중 선배 도슨트로서 후배 도슨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영향력은 다른 어떠한 교육 방법보다도 그 효과성은 크다 할 수 있다. 선배 도슨트로 부터 제공되는 정보 즉, 선배 도슨트의 멘토링은 선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교수방법으로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할 지에 관하여 조언을 바로 해줄 수 있고 후배 도슨트가 전문성을 갖기 위해 차후에 밟게 될 과정으로 도슨트 활동에 실질적인 지식이 되기 때문이다. 양 도슨트의 선배로서의 역할은 차후 후배들이 선배가 되었을 때 또 다른 후배에게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도슨트에 대해 이상적으로 내릴 수 있는 정의와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4. 전문가로서의 도슨트 정의 및 역할 - 인식의 정착

도슨트에 대한 인식이 점차 형성되면서 도슨트의 역할은 교육 부분에 있어서 특히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슨트에 대한 인식의 정착을 전시해설을 하는 교육자 관점으로 양 도슨트를 비롯하여 과학관 담당자, 학부모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 후배 양성을 위한 교육자

먼저 8년의 경력을 이어온 양 도슨트는 선배 도슨트 및 경력 도슨트로서 그 교육적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도슨트에 입문했을 당시 담당 학예사의 말(1기는 2기의 ‘대모’역할을 해야 한다.)을 기억하면서 그 역할이 중요함을 충분히 인식 및 실천하고 있다. 즉, 신입도슨트의 양성교육과정 이후 실시되는 평가에 있어서 선배도슨트의 참관의 필요성(앞장 ‘도슨트 양성과정의 평가’ 참고)을 역설하고 후배도슨트에게 충분한 교육자료를 제공(앞장 ‘도슨트 전문성을 위한 선배 도슨트로서의 역할’ 참고)함으로 후배도슨트의 ‘대모’역할을 하고 있다.

· 교육프로그램 개발자

양 도슨트는 현장에서 쌓아온 지식을 기반으로 이제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지(앞장 ‘도슨트 전문성의 내용-도슨트 전문성을 위한 내적 영역’ 참고) 등을 개발하는데 열정을 쏟고 있다. Fig. 70은 선배 도슨트가 개발하고 양 도슨트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양 도슨트는 교육현장(전시실)의 경험을 살려 관람객에게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박물관의 교육과정 편성에 참여하고 있다. 즉, 어린이 관람객의 관람예절과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동참 여하에 따라 어린이 관람객의 자세는 많은 차이가 있고 학습효과도 달라짐을 알게 된 양 도슨트는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편 및 교육 활동지를 직접 만들어서 교육과정에 투입하고 있다.

· 과학관의 리더

전시해설사로서 기대되는 도슨트의 역할로 양 도슨트는 ‘과학관의 전시해설은 어떠한 박물관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현재 과학관의 전시물은 한정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1차적인 교육의 실현으로 도슨트의 전시해설은 꼭 필요한 교육방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인식은 과학관 운영자 및 관람객(학부모)도 함께하고 있다.

강 담당자가 근무하는 과학관은 소도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의 과학관이다. 이곳에서는 대도시 과학관에서 도입되고 있는 도슨트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인력이나 예산의 부족으로 시도를 못하고 있으나 강 담당자 스스로가 해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접 관람객들을 위한 전시해설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강 담당자는 관람객이 전시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해설을 시작했다고 한다. 다음은 강 담당자와의 인터뷰이다.

비가오거나 구름이 끼면 그날 오신 분들은 "이게 뭐야 별 효과 없네"이럴 수는 있지만 저는 그걸 보고 해설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실제적인 데이터를 계속 쌓고 있거든요. 오늘 15도에서 하루 종일 구름이 거의 없었고 이럴 때는 100도까지 올라갔다. 가스레인을 켜었을 때 700°까지 올라간다. 라이터는 350°까지 올라간다. 이런 설명을 해주고 오늘은 구름 때문에 아쉽게도 적외선 파장이 많이 반사돼서 지구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25°밖에 안 올라간다. 근데 오늘 날씨를 생각해 보세요. 기온이 15도밖에 안되지만 물은 25도까지 올라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맑은 날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어요.

[2011. 04. 20. 강 담당자 인터뷰]

위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실험장치의 정확한 인식 즉, 실험장치에서 나오는 결과치가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나오면 그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설이 꼭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강 담당자와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부 박물관이나 과학관은 현재 전시해설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해 운영 측면에서 적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전시해설

에 대한 과학관의 긍정적 인식으로부터 이어진 전시해설의 제공은 관람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음은 과학관의 전시해설을 처음 경험한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1, 2로 학교교육 외에 과학관에서 접하는 간접 교육도 상당히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아이들과 종종 과학관에 방문한다는 학부모 1, 2는 과학관의 전시물에 대한 정보 및 설명은 주로 패널에서 제공되는 정도로 정확히 이해하거나 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전시해설을 경험하고 나서 과학적 지식의 이해를 돕는데 전시해설이 많은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한다. 다음은 전시해설을 경험하고 있는 학부모와의 인터뷰이다.

연구자 :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 분. 저분 보신지는 꽤 됐어요? 저기 설명하시는 분

학부모 1 : 저는 처음이에요. 저번엔 없었고

연구자 : 없었으면 어떻게 보고 가시는데요? 계시니까 어때요?

학부모 1 : **좋죠.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해주시고 질문에 대답해주고 모르는 것도 알려주시고**

연구자 : 젊은 분이 학생들을 다룰 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더 관심이 많아서 더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과학관이나 체험관에 많이 가보셨어요? 그런 곳에 가면 저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많죠?

학부모 1 :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니까 더 좋죠.**

<중략>

연구자 : 인상적이거나 애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학부모 2 :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연구자 : 태양에너지? 이거 이분들이 만들었어요.

학부모 2 : 아까 계단에 써져 있는 것도 눈여겨 봤구요.

연구자 : 전시해 놓는 거 보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대답해주고 설명해 주는 게 좋겠죠?

학부모 2 : **이런 부분들이 과학관에 많아야 되는데**

[2011. 03. 02. 학부모 1, 2 인터뷰]

위 인터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학부모 1, 2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접하게 된 전시물 해설에 대해서 어려운 과학 전시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상당한 만족감을 표현하면서 아직 전시물 해설에 대해서 보편화되어 있지 않음에 아쉬

움을 나타내고 있었다. 학부모 1, 2는 지방 거주자로 인근 소규모 과학관에서 전시물 해설에 대해서 처음 경험을 한 사례이다. 그러나 이미 대도시의 대규모 과학관은 2006년, 2007년부터 상당수가 전시관마다 도슨트 제도를 도입하여 관람객에게 전시해설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전시해설에 대해 대도시 거주자들은 익숙해져 있어서 과학관을 방문하면 도슨트 전시해설을 듣기 위해 “도슨트 있어요?”라고 먼저 문의를 하고 있다고 양 도슨트는 이야기 한다.

앞서 기술한 결과를 다시 정리하면 도슨트에 대한 인식 및 역할이 초창기엔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으나 점차 도슨트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거쳐 현재 단순히 전시해설에 그치는 것이 아닌 후배 양성을 위한 교육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자 및 과학관의 리더로 도슨트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도슨트를 정의하면, 도슨트는 전문지식을 갖고 교육을 실행하는 전문자원봉사자이자 관람객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도슨트는 과학관에서는 관람객으로 한편으로는 전문가적 식견으로 관람객의 목소리가 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자로 활동하며 후배를 양성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관람객에게는 전문지식을 갖고 진심어린 봉사정신으로 전시해설을 하는 과학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교육실행자의 리더로서 역할을 기대해 본다(Fig. 71). 이러한 도슨트에 대해서 양 도슨트는 “살아가면서 단한번의 만남으로 평가받기에 30초 광고처럼 많은 것을 함축하여 전달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도슨트의 역할



【과학관의 주인】

- 박물관의 얼굴
 - 깔끔한 복장
 - 예의바른 행동
 - 위트와 유머
- 박물관 건물 구조 파악
- 박물관 교육·문화·행사 정보습지
- 박물관의 홍보 대사



【교육자】

- 전시해설사 -
- 박물관의 건립목적 이해
- 박물관의 기능·역할 이해
- 전시물 및 소장품에 대한 이해
- 연구 및 학습에 대한 습관
 - **후배 양성을 위한 멘토** -
- 교육자료 제공
- 전시해설에 대한 조언
 - **교육프로그램 개발자** -
- 현장의 경험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교육 활동지 개발



【관람객의 대변인】

- 관람객의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
- 과학관의 이용자(관람객)
- 전문가로서 박물관 측에 고객의 목소리 전달
 - 전시물 오류 수정
 - 시설물보수·보완 요청

Fig. 71 도슨트의 역할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과학교육에 있어서 비형식교육기관인 과학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관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도슨트 전문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자는 질적연구의 한 분야인 생애사적 방법으로 경력 도슨트의 삶을 조명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도슨트 활동 이전의 생애사적 경험은 무엇인가?

1-1. 도슨트 이전의 생애사적 경험은 도슨트에게 어떠한 신념으로 작용하는가?

도슨트는 전시해설로서 과학관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이다. 따라서 일반 자원봉사자와는 다른 교육적 신념이 특히 필요로 하고 이는 양성교육과정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지만 생애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신념이 도슨트 활동 특히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2. 도슨트는 어떠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는가?

도슨트에 지원하게 되면 지원자들은 양성교육과정을 받게 되는데 그 교육내용은 기본소양 교육, 전문지식 교육(전시물 내용학, 관람객, 전시해설기법), 현장실습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교육의 미흡함을 알 수 있었는데, 첫째, 기본소양교육이 미 실시되고 있는 기관이 있었고 둘째, 전문지식 교육은 주로 전시물 내용학에 치중되고 있었으며 셋째, 현장실습교육의 교수자가 주로 학예사에 한정됨으로서 선배 도슨트의 다양한 경험 제공이 신입 도슨트에게 제한되어 있었다.

2. 도슨트 실천적 지식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2-1. 실천적 지식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는 어떠한 맥락으로 형성되는가?

도슨트는 일정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활동을 통해서 전시해설에 관한 실천적 지식은 형성된다.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은 교사와 비슷한 맥락으로 구성되지만 비형식기관의 교육자로서 교사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었다. 즉, 전시해설 방법에 대한 지식과 전시해설 환경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었다. 도슨트의 전시해설 방법에 대한 지식은 교사의 교수에 대한 지식과 상응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지식의 내용에 있어서 교사는 동질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형성되는 지식임에 반해 도슨트는 연령, 관람목적 등이 상이한 이질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지식이 형성되었다. 한편, 전시해설 환경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교수 환경에 대한 지식과 비교 할 수 있는데 교사의 교수 환경은 교실이라는 폐쇄적 공간인 반면 도슨트의 전시해설 환경은 전시실이라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전시해설을 듣는 관람객 외에 개인적으로 관람하는 관람객이 공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 대한 도슨트의 지식은 다양한 돌발 상황에 따른 대처 방안과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지식 등으로 교사와는 차별되는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2-2. 실천적 지식의 적용 전략은 무엇인가?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은 전시해설을 실행하는 가운데 좀 더 체계화 되는데, 전시해설 실행은 전시해설을 위한 전략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양 도슨트의 전략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전시해설 이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풍부한 전시해설 자료를 통하여 전시해설 상황을 예측하면서 전시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을 통찰하여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전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시해설 실행 단계에서는 전시내용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관람객의 심리적인 면 등 전시내용 외 부차적인 전략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었다. 전시해설은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도슨트와 관람객과의 교감을 통해서 전시물에 대한 이해를 돕는 행위이다. 따라서 전시해설을 하는 도슨트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전시해설 전략을 세워 성공적인 전시해설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전시해설 이후 단계에서는 전반적인 전시해설에 대한 내용 정리와 미처 해설을 못했던 분야에 대한 안내, 과학관에서의 관람예절을 한 번 더 인지도킴으로서 마무리 된다. 한편, 도슨트 스스로는 그날의 활동일지를 기록함으로써 더 좋은 전시해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시해설 이후 단계에서 나타난 양 도슨트의 전략은 관람객에 대해서는 과학관에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문화시민으로서 과학관에서의 공공예절을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과, 도슨트 자신에 대해서는

차후 좀 더 향상된 전시해설을 기대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전시해설 이후 단계 전략은 전시해설을 통해 관람객과 도슨트 모두의 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전시해설에 있어서 필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3. 도슨트의 전문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3-1. 도슨트가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은 무엇인가?

도슨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자원봉사자와는 다른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 도슨트는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 전시해설을 위한 내적 영역(전시해설 대상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전시해설의 전략 기법,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의 전문성을 기르고 이를 좀 더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적 영역(동료 도슨트와 상호작용, 전문가와의 의사소통, 실질적인 상황에서 학습·환경적인 맥락)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었다.

3-2. 후배 도슨트의 전문성을 위한 선배 도슨트의 역할은 무엇인가?

도슨트의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선배 도슨트의 역할을 좀 더 잘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도슨트는 주로 전시실이라는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교육자로 현장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선배 도슨트의 멘토링이 후배 도슨트에게 큰 교육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양 도슨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즉, 직접 후배 도슨트에게 다가가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등 나눔과 공유를 실천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 도슨트는 일반자원봉사자와는 다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전문자원봉사자로 선정부터 관리에 이르기 까지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과학관에서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김효선, 김경훈(2011)의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다.

위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도슨트 활동에 신념으로 작용하는 도슨트 이전의 생애사적 경험

첫째, 도슨트는 가르침에 대한 교육의 봉사 신념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도슨

트는 일반자원봉사자와는 달리 과학관 전시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원봉사자이므로 자원봉사자로서의 신념과 교육자로서의 신념이 필요하다. 이러한 신념은 한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 즉, 생애사적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다. 연구 참여자인 양 도슨트의 도슨트 입문이전의 생애사적 경험을 보면, 유년시절 부모님의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 모습을 통해서 자신도 남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과 봉사는 여가가 아닌 다소 희생이 뒤따르지만 자원봉사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자원봉사에 대한 신념, 학교에서 선생님을 도와 저학년 지도를 하면서 느꼈던 가이드역할과 가르침의 즐거움을 통해 교육자에 대한 신념, 직장생활에서의 민원인을 상대하는 업무를 통해 관람객에 대한 응대·인내심의 형성,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통한 완만한 대인관계, 일본어 강사 경험을 통한 활발한 의사소통 등이 자원봉사자와 교육자로서의 기본자세로 체득되고 결정적으로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정확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념이 작용하면서 양 도슨트로 하여금 도슨트 입문에 이르게 한다. 도슨트가 전문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후천적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꾸준한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이 활동의 지속성에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지원자의 성장배경 및 생애사적 경험에서 형성된 신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전문성이 형성된 도슨트를 양성하기 위해서 도슨트 선정 시 지원자의 신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 성장배경 및 생애사적 경험이 어떠한지를 고려해서 분야별 선정(교육담당, 교재 개발 지원, 사무 업무 지원 등)에 차별을 두어 도슨트가 적재적소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양교육을 통해서 도슨트 활동에 따른 신념을 형성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도슨트는 교육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일반 서비스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와는 역할이 다르므로 그 기대 되는 역할이 충족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과학관이나 협회에서는 도슨트 선정부터 차별화될 수 있도록 도슨트의 역할(과학관의 주인, 전시해설사, 관람객의 대변인) 중 전시해설사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즉, 응시자격을 과학에 관한 배경지식의 여부를 위해 과학관련 전공자 및 과학관련 기관의 직무경험자, 전문지식의 전달을 위한 교육(가르친 경험)의 유경험자로 한정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과학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 즉, 관람객이 이제는 과학관에서 단순히 전시물을 둘러보는 형태가 아닌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인식의 전환에 따른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1차적인 채 역할임과 동시에 도슨트의 전문성을 위한 첫 단계일 것이다.

도슨트 활동을 위한 양성교육과정의 체계화

도슨트는 자원봉사자이기는 하나 일반자원봉사자와는 달리 교육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함으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받은 후 그 자격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정식 도슨트로 활동해야 한다. 도슨트 활동을 위한 그 기본적인 과정으로 도슨트 양성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데, Table 25는 현재 과학관에서 구성되어 있는 도슨트 양성교육과정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통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식되어지는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재구성한 도슨트 양성교육과정이다.

Table 25 도슨트 양성교육과정

분 야	내 용
기본소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세 : 지속적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신념이 드러나는 교육 • 과학관의 도슨트란? : 과학관의 특수성이 반영된 교육
전문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전문지식 : 과학관의 미션과 도슨트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본 토대 마련이 병행되는 교육 • 관람객에 관한 전문지식 : 관람객의 성향에 따른 적절한 전시해설이 이루어지기 위한 교육 • 전시해설기법 관한 전문지식 : 쉬운 이해, 흥미유발을 위한 교육
현장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소양과 전문지식이 하나로 융합되어 전시해설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되면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예사 :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전문지식 평가 • 도슨트 : 현장에서 요구되는 도슨트로서의 역할 평가 <p>※ 학예사와 선배 도슨트가 함께 평가함으로써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p>

첫째, 도슨트 양성교육과정에서 기본소양 교육은 지원자가 꾸준히 도슨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신념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교육 분야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기본소양 교육은 과학관에서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고,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곳도 간단히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도슨트 스스로 활동의 지속성에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즉, 도슨트 활동에 따른 전문지식을 봉사가 아닌 자신의 직업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지원자가 있으면서 중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관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본소양 교육을 통해서, 도슨트의 전문지식이 자원봉사 활동으로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그 개념을 정확히 인식시켜줘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지식 교육은 단순히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전문지식에 한정시키기 보다는 관람객에 관한 전문지식, 전시해설기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함께 교육되어야 한다. 먼저 전문지식 교육은 과학관의 건립목적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병행이 되면서 실시되어야 한다. 현재 과학관에서 미 실시되고 있는 과학관의 건립목적 숙지와 스스로 학습방법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과학관 관계자들은 “도슨트하다 보면 사항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여러 사항들이... 왜냐하면 직원도 아니고, 전시해설 하다가 관람객들한테 나오는 질문인데 그것들을 끊는 게 필요하거든요. 끊고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미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은 100% 다 전달 할 수 없으므로 차후 도슨트 스스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 습득 방법 등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 줘야”한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전문지식 교육은 단순히 내용학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짧은 교육시간 동안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전문지식을 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도슨트 스스로 학습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과학관의 건립목적 숙지와 충분한 전문서적의 비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방법 등 기본 토대마련이 병행 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미 실시되고 있는 관람객에 관한 전문지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시해설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게 됨으로 그 대상에 따라서 전시해설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관람객의 수, 연령, 관심사, 관람목적 등에 맞춰 전시해설이 진행되어야 성공적으로 전시해설을 끝마칠 수 있다고 양 도슨트는 이야기

한다. 양 도슨트는 관람객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시해설 전에 관람객과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관심사 및 목적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전시해설의 방향과 전시해설을 하게 될 대상들을 선택함으로써 주어진 전시해설 시간 내에 전시해설을 마무리한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경력 1년 미만인 초임 도슨트는 관람객의 성향 파악이 안 돼서 전시해설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도슨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관람객에 관한 전문지식 교육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성교육과정에서는 관람객에 관한 전문지식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고 전시해설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도슨트 스스로 익히고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시해설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행위이다. 따라서 관람객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전시해설을 위해서는 전시해설을 듣는 대상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대상에 따른 전시해설을 위한 교육이 양성교육과정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람객에 관한 전문지식과 같이 미 실시되고 있는 전시해설기법에 관한 전문지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과학관은 이론 위주의 학교교육과는 달리 과학적 전문지식을 모형이나 실물을 이용함으로써 좀 더 쉽고 흥미롭게 과학적 사실을 전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도슨트의 전시해설은 다양한 전시해설기법이 필요하게 된다. 즉, 어려운 전문용어나 이론을 일상용어나 생활에 쉽게 비유할 수 있는 방법, 이해를 돕기 위한 적절한 자료제시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또한 관람객에 관한 전문지식 교육의 부재와 같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교육의 부재에 대해서 양 도슨트는 현재 교육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고, 해줄만한 여력도 없다고 한다. 한편, 과학교육 전문가와 최 학예사(외국 박물관 도슨트 양성교육에 대해 유경험자)에 따르면 외국 과학관은 전시해설기법 교육에 소홀한 국내와는 다르게 담당이 구성되어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최 학예사는 도슨트 양성교육과정이 개발되면 전문분야의 지식에 따른 해설기법은 담당 에듀케이터가 있어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사례를 이야기 하면서, 전시물에 대해 그 의미가 정확하게 관람객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므로 ‘해설을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관람객에게 더 유익한가? 어떤 방법으로 해설을 해야 전시내용이 관람객에게 더 의미 있게 전달되느냐?’ 막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의미를 찾아가게 하는 소통의 방법을 계속적으로 배워

야 됨을 강조하고 있었다. 전시해설기법은 타 교육자와 구별되는 도슨트의 전문성 발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전문성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본 연구자는 과학관의 인력에 있어서 학예사 뿐만 아니라 교육경력이 있는 과학교육 전공자를 채용함으로써 체계적인 전시해설기법 전문지식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셋째, 현장실습 교육이다. 현장실습 교육에서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세와 전문적 지식이 하나로 융합되어 전시해설로서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도슨트 양성교육과정에서 현장실습 교육은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도슨트들은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수자에 있어서 현장교육의 경험이 다소 부족한 학예사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양 도슨트는 현장실습 교육으로 현장경험이 많은 선배 도슨트의 멘토링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였다. 현장실습 교육은 전문지식이 전시해설로서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므로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전문지식 부분에 있어서 학예사의 지도와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전문지식 외의 몸동작이나 동선, 억양, 시선 및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은 선배 도슨트의 지도가 병행 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과학관은 비 영리기관으로 제정이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를 채용해서 도슨트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 방법으로 선배 도슨트의 멘토링은 후배 도슨트가 활동을 하게 될 전시관에서 형성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기에 선배 도슨트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교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멘토링은 멘토나 멘티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멘토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 전반에도 도움이 된다. 즉, 성공적인 멘토링¹⁶⁾은 멘티 뿐만 아니라 멘토에게도 이익이 되며 나아가 집단내

16) Schulz(1995)에 따르면, 멘토링제도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멘토링은 멘티에게 도움을 준다. 멘티는 멘토로부터 인간관계, 조직의 관습 및 규칙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멘토의 리더십을 관찰함으로써 멘티 역시 리더십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또한 멘토링 과정을 통하여 멘토는 자신들의 기술이나 지식을 시험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멘토로서 부상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의 의사소통,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상호신뢰의 분위기를 만듦으로써 사회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이해주 등, 2006; Schulz, 1995).

넷째, 평가이다. 양성교육과정 이수 후 도슨트는 활동의 적합성 여부를 위해 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평가에서는 양성교육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도슨트의 기본소양, 전문지식, 전시해설 기법 등 다방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그 적합성 측정은 국내외 모두 정량적 측정 보다는 정성적 측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가자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는데, 국내 과학관은 평가에 있어서 학예사의 판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국외 과학관의 경우 선배 도슨트의 평가 참여가 이루어져 있고 그 과정도 선배 도슨트가 활동에 적합성을 인정하기 까지 길게는 6개월이 걸릴 정도로 엄격하다는 것이다. 도슨트는 자원봉사자이기는 하나 일반 자원봉사자와는 다른 전시해설이라는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활동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평가는 다소 엄격하고 정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도슨트의 전시해설에 요구되는 다양한 부분을 학예사 뿐만 아니라 현장경험이 많은 선배 도슨트가 함께 평가함으로써 학예사와 도슨트의 장단점이 보완된 평가가 되길 기대해본다.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 형성을 통한 전문성 형성 확립

둘째, 멘토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멘티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거나 비판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동시에 리더십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멘티를 통하여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된다. 또한 이러한 봉사 활동은 궁극적으로 자아 성취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 멘토링은 멘토링이 이루어지는 집단이나 조직에도 도움이 된다. 즉, 멘토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조직 내의 인간관계가 순화될 수 있으며 신뢰의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는 조직 내 인간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넷째, 멘토링은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 멘토링이 잘 이루어지게 될 경우, 그 사회는 개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멘토와 멘티 간의 신뢰와 연대감이 형성 되면 이는 이른바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사회발전의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결국 성공적인 멘토링은 멘티 뿐만 아니라 멘토에게도 이익이 되며 나아가 집단내의 의사소통,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상호신뢰의 분위기를 만듦으로써 사회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은 전시실이라는 현장에서 전시해설이라는 교육을 통해 자신의 신념과 전문지식,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복합·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된다. 즉,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은 (1) 도슨트 자신에 대한 지식-신념 (2) 전시내용에 대한 지식 (3) 전시해설 방법에 대한 지식 (4) 과학관 건립목적에 대한 지식 (5) 전시해설 환경에 대한 지식의 맥락적 요소에 의해서 형성되었다(Table 14). 이러한 결론은 교사의 실천적 지식을 ‘교사 자신에 대한 지식’,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 ‘교수에 대한 지식’,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교수환경에 대한 지식’이라는 다섯 가지로 분류한 Elbaz(1981)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과 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있어서 전시해설 방법에 대한 지식/교수에 대한 지식과 전시해설 환경에 대한 지식/교수환경에 대한 지식에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 전시해설 방법에 대한 지식/교수에 대한 지식 부분에서, 교사의 교수는 동질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반면 도슨트는 이질 즉 남녀노소 각양각색 혼재된 관람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대상을 초점으로 하는 해설이 아닌 두루 공감할 수 있도록 전시해설을 해야 한다. 전시해설 환경에 대한 지식/교수환경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전시해설의 장소는 교실이라는 폐쇄적이며 정적인 공간과는 다르게 이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진행이 되는 개방적이며 동적인 공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시해설에 참여하지 않는 관람객이 공존하고 돌발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잘 정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사와 도슨트는 공통점을 가질 수 있으나 위의 두 가지 실천적 지식의 맥락은 교사와는 다른 도슨트만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일 것이다.

위에 제시한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 5가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다음 양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1) 도슨트 자신에 대한 지식-신념

도슨트에 대한 신념은 개인별 차이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좋은 전시해설을 통해 관람객과 도슨트 자신의 만족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좋은 전시해설이란 관람객의 과학관 관람목적에 인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차후 계속해서 관람이 이어지도록 하고, 이 가운데 관람객의 전시해설에 대한 만족스러운 반응을 느낄 때 도슨트 자신 또한 만족을 얻는다. 이러한 신념은 “대상에

대하여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Fishbein & Ajzen, 1975) 이 신념은 외부로부터 수용된 정보, 직접적인 관찰, 추론에 의해 형성된다. 이는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양 도슨트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녀는 자신의 전시해설에 대해 “좋은 전시해설은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좋은 전시해설을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양 도슨트는 좋은 전시해설에 대해서 ‘좋은’ 전시해설은 누구나 편하고 재미있어야 한다, ‘좋은’ 전시해설은 관람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관람객을 배려하는 것이다, ‘좋은’ 전시해설은 아이들의 학습태도를 함께 지도하는 것이다, ‘좋은’ 전시해설은 이를 좋아하면 할 수 있고 경제력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전시해설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좋은’ 전시해설은 학예사와 동료와 함께 하는 것이라는 6개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에 대한 신념이 활동을 통해서 점차 확립된 것처럼 도슨트에 대한 신념은 그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새롭게 변하고 발전하여 결국 도슨트 자신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신념의 체계를 확고하게 확립시킬 것이다.

(2) 전시내용에 대한 지식

도슨트는 주로 과학에 대한 비전공자들로 전시내용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시내용에 대한 지식의 교육 및 학습은 무엇보다도 꾸준히 이뤄져야한다. 교육은 기관 내에서 추진되어야 될 부분으로 도슨트 양성교육과정에서는 물론 이뤄져야 할 것이고, 차후 정기적인 심화교육, 충분한 전문서적이 비치됨으로서 체계적인 지식 형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습은 도슨트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다양한 전문서적 및 언론 매체, 전시해설 내용에 대한 멘토링 등으로 전시내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이 지식 습득을 위해 양 도슨트는 도슨트 양성교육과정 이수 후 모든 정보원에 대해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었다. 즉, 다큐멘터리 등 TV 프로그램 · 신문 · 인터넷 · 전문서적을 통한 정보 습득, 과학관 및 박물관 관람을 통한 자료 수집, 다양한 과학관 도슨트 양성교육과정 이수를 통한 지식 습득, 동료 도슨트와의 주제 토론, 멘토링을 통한 간접적 경험 지식 쌓기를 통해서 양 도슨트는 전시내용에 대한 지식을 탄탄히 쌓아가고 있었다.

(3) 전시해설 방법에 대한 지식

전시해설 방법에 대한 지식은 교사와는 구별되는 도슨트만의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도슨트의 전시해설 대상자는 동질의 관람객이 아닌 연령, 관람목적, 지식의 정도가 상이한 이질적인 관람객으로 어느 한 부류의 관람객에게 한정시켜 전시해설을 할 수 없다. 관람객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더라도 적당한 합의점을 도슨트 스스로 찾아 전시해설을 이끌어 가야 한다. 전시해설 방법에 대한 지식 습득을 위해 양 도슨트 각각적으로 구상하고 익히고 있다. 그 방법으로 양 도슨트는 전시해설 관찰 멘토링, 전시해설의 반복적 실습, 자기 멘토링, 곤충 키우기 등 체험 및 실험 실습, 자녀를 대상으로 한 예비 해설을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양 도슨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시해설을 위해서 자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양 도슨트는 어린이 눈높이 해설이 가능하게 해주는 자녀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 자신의 강점이라고 이야기한다. 성공적인 전시해설을 위한 방법의 일례로 도슨트는 관람객의 구성을 파악하여 학부모와 자녀들로 구성된 관람객일 경우 자녀들의 쉬운 이해를 돕는 설명을 하되 해설 중간중간 교과와 맞물리거나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전시물을 가볍게 언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시해설 방법에 대한 지식은 단순히 강의식 교육을 통해서 습득하기 어려우므로 많은 현장 경험과 체험, 멘토링을 통해서 습득하여야 할 것이다.

(4) 과학관 건립목적에 대한 지식

과학관은 과학문화 저변확대라는 공통적인 목적과 각 과학관의 건립목적이 관람객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전시내용이 구성된다. 과학관의 건립목적에 따른 전시내용이 관람객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시해설을 하는 도슨트가 과학관의 건립에 대한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학관의 건립목적에 대해서 일부 학예사 및 도슨트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양 도슨트 또한 초창기엔 단순히 전시물자체의 전시해설에 치중했지 과학관의 건립목적이 반영된 전시해설을 해야 한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다가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서야 본인의 전시해설에 과학관의 건립목적이 전달되어야 함을 깨달았다고 한다. 즉, 과학관 건립목적에 대한 미 인식에서 인식의 전환으로 양 도슨트는 기관에 따른 전시해설에 목적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최 학예사는 과학관의 건립목적은 인식해야지 만이 전시해설 중 다양하게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과학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성향을 보면 그 관심사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질문 또한 다양하다. 이런 예측불허의 상황에서 도슨트가 관람객의 질문에 빠지지 않고 일관성 있는 전시해설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건립목적에 충분히 인식하고 과학관의 건립목적이 반영된 전시해설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전시해설 환경에 대한 지식

전시해설 환경에 대한 지식 또한 전시해설 방법에 대한 지식과 같이 교사와는 구별되는 도슨트만의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전시해설은 교실처럼 폐쇄적이며 정적인 공간이 아닌 과학관이라는 전 건물을 무대로 하는 개방적이며 동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전시물들은 과거 과학의 반영임과 동시에 현재 과학의 이해(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과학적 사실 및 현상의 이해)를 위한 것으로 이러한 특수한 상황은 도슨트에게 더욱 전문성을 필요케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전문성 부분에서 도슨트는 전시해설 환경에 대한 지식은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에 있어서 전시물에 관한 과학적 사실과 사회적 맥락, 과학관의 편의시설물에 대한 안내로 반영되어 있었다. 즉, 양 도슨트는 전시물의 과학적 사실에 그 전시물의 사회적 의미를 추가 설명함으로써 관람객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실의 전달과 단순히 지나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과학관 건물의 구조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서 관람객들에게 적절한 편의 시설을 안내하여 즉, 휴게실, 물건 보관함 등을 안내함으로써 좀 더 편안한 관람을 돕고 있었다. 결국, 도슨트의 전시해설은 단순히 전시물에 대한 ‘내용’ 전달이 아닌 돌발 상황에 따른 빠른 대응과 그 전시물을 통해서 더 많은 과학적 이해와 다양한 지식의 ‘의미’를 포함하게 된다(김효선, 김경훈, 2011). 따라서 관람객이 전시물을 통해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과학관의 시설물에 대한 지식으로 과학관 시설물의 위치 및 활용성, 각 전시실에 대한 특징, 전시물의 조작 방법, 과학관의 관람예절, 교육현황과 사회·자연에 대한 지식으로 과학기술의 발달, 과학 이슈, 지진·홍수 등 자연 재해에 관한 지식 습득을 제안해 본다.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은 5가지 맥락적 요소로 형성되고 있되 그 방법은 스스로의 터득 및 노력에 의해서 주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시내용에 대

한 지식은 도슨트 양성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진 이후 꾸준한 심화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과학관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전시해설 방법에 대한 지식은 도슨트 스스로 습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실천적 지식의 습득은 도슨트 스스로의 몫이지만 도슨트가 좀 더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관 내에서도 체계적인 심화교육 및 교육환경에 따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즉, 분기별 전문가 특강이나 현장 답사, 전문서적의 비치 등이 지원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성공적인 전시해설을 위한 실천적 지식의 전략 형성

도슨트가 전시해설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시해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도슨트 스스로가 습득한 내용에 대하여 실행하고 반성하는 기회 또한 중요하다. 도슨트들은 반복되는 해설활동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해설활동을 반성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도록 자극 받는다. 그들은 공부뿐만 아니라 관람객들과의 의사소통에서 오는 부족함과 어려움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또한 해설시 스스로 겸손해져야함을 느끼고, 보다 나은 설명을 하기 위한 고민을 하게 된다(민수영, 2007). 결국, 도슨트의 전시해설 이전의 전략과 전시해설 실행 전략, 전시해설 이후에 나타나는 전략이 계속적으로 순환됨으로서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은 더욱 정련되고 이로서 도슨트의 전문성은 향상될 것이다(Fig. 72).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에 대한 실천적 지식의 전략은 첫째, 전시해설 이전에는 전시해설을 위한 실천적 지식 습득 및 전시해설에 대한 구성으로 나타나고 둘째, 전시해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전시해설 상황과 내용에 따라 효과적인 전시해설을 완성하기 위한 실천적 지식의 적절한 투입으로 전시해설이 진행됨과 동시에 구체화된다. 셋째, 전시해설 이후에는 전시해설 내용정리 및 관람안내, 관람예절에 따른 전략과 활동일지 기록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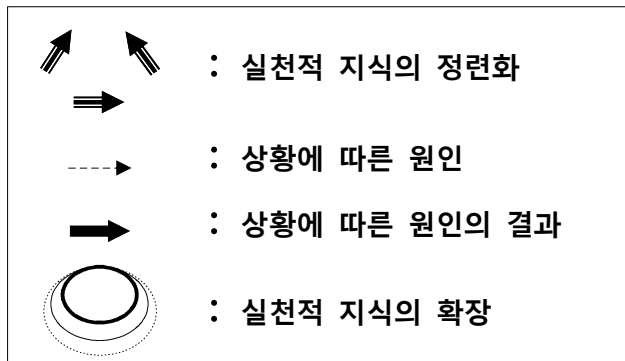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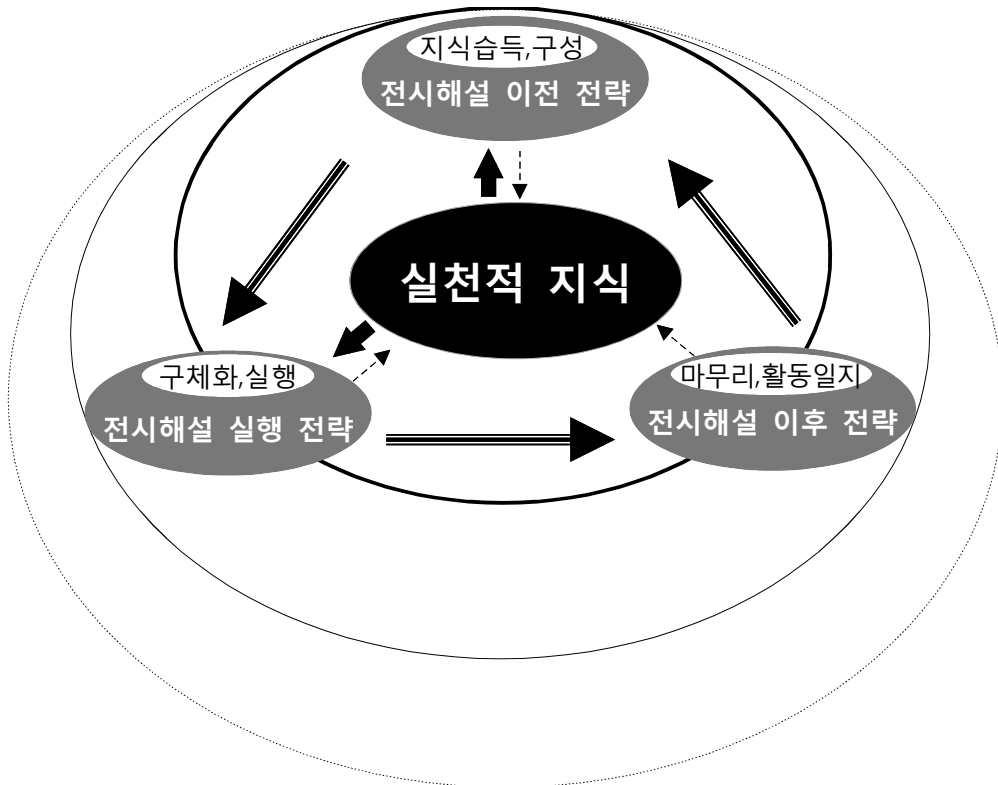


Fig. 72 도슨트 전문성 발달의 순환 모델

효과적인 전시해설을 위해 단계별로 실천적 지식이 어떠한 전략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양 도슨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시해설 이전 단계에서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에 대한 실천적 지식 전략은 전시해설을 위한 다양한 지식 습득과 본 전시해설 진행에 따른 대략적인 계획 구

성으로 나타났다. 즉, 양 도슨트는 비전공자로 부족한 전문지식을 체험 및 전시해설 관찰, 동료 도슨트와의 주제 토론, 전시해설의 반복적 실습, 다양한 과학관 도슨트 양성과정 이수, 시나리오 작성을 통한 전문가의 검증, 전시해설 녹음을 통한 역양 등 수정 및 반성, 자녀와 함께 자료 수집, 다큐멘터리 등 TV 프로그램, 신문을 통한 정보 습득, 인터넷을 통한 자료 열람 등을 통해 지식을 얻었고 있었다. 이렇게 형성된 실천적 지식은 과학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건립목적에 따라서 전시해설로 적절히 구성되고, 관람객의 성향과 도슨트 자신의 기호나 장점을 관련지어 전시해설상황을 미리 재현해 보는 과정에서 이와 상호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2) 전시해설 실행 단계에서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에 대한 실천적 지식 전략은 전시해설 상황과 내용에 따라 성공적인 전시해설을 완성하기 위한 실천적 지식의 적절한 투입으로 나타났다. 즉, 양 도슨트가 감지한 전시해설상황의 이해에 의해 전시해설의 처방이 이루어짐으로서 전시해설이전에 구성된 전략이 구체화 되었다. 전시해설을 하게 될 대상, 관람객에 따른 비유·실례 사용, 동선 조절, 개별적 수준에서 관람객이 필요로 하는 교육적 배려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실천적 지식이 상호 관련되어 사용되는 전략을 볼 수 있었다.

(3) 전시해설 이후 단계에서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에 대한 실천적 지식 전략은 전시해설 내용정리 및 관람안내, 관람예절에 따른 전략과 활동일지를 기록하는 전략으로 이는 본 전시해설에 대한 해석이고 후속전시해설에 관한 대안 모색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활동일지를 기록하는 구체적이고도 치밀한 양 도슨트의 반성 전략은 후속 전시해설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으로 이로서 전시해설을 위한 실천적지식의 순환은 다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전시해설 이후의 이러한 반성의 과정은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에 있어서 실천적 지식이 사용되는 과정인 동시에 더욱더 정련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은 양 도슨트의 전시해설능력을 개발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

전문성은 단순히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형성된다. 따라서 도슨트 또한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꾸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은 물론 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전시해설을 위한 사전 전략, 실행을 통한 적절한 전문지식(연령에 따른 해설방법, 용어 선택, 관람객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식 선택 등)의 투입, 스스로 반성을 통한 지식의 보강 및 불필요한 행동·언어선택 등을 제거함으로써 전문가로서 지식을 탄탄히 하여야 할 것이다.

도슨트 전문성을 위한 영역 형성

도슨트가 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도슨트의 특수한 교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한 전문성을 위한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 구성은 내적 영역과 외적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적 영역으로는 전시해설 대상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전시해설의 전략 기법,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와 도슨트가 내적 영역을 좀 더 전문적이면서 체계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제시라고 할 수 있는 외적 영역인 동료 도슨트와 상호작용, 전문가와의 의사소통, 실질적인 상황에서 학습 환경적인 맥락으로 세분화 시킬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양 도슨트는 다음과 같이 실천하고 있었다. 내적 영역으로 첫째, 전시해설 대상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을 전문서적, 현장 체험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전문지식을 쌓아 감은 물론 차후 전시해설을 위한 현장학습지 개발에 응용하고 있었다. 둘째, 전시해설의 전략 기법에서는 도입, 해설, 마무리 3단계에 걸친 전략기법을 적용하여 전시물의 전문적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셋째,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는 당황하지 않고 상황 수습을 위한 우선순위[관람객 → 전시물 → 설립취지 및 목적 → 도슨트]를 정해서 해결하는 기지를 발휘하였다. 전문성 형성을 위한 내적 영역의 지식 형성은 도슨트 양성교육과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전문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양 도슨트의 실천처럼 스스로도 꾸준히 노력과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외적 영역으로는 첫째, 동료 도슨트와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동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서로 교환하고 매일 쏟아지는 정보에 대한 학습을 함께한다. 둘째, 전문가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 및 전시해설 방법을 체계화 하면서 지식을 탄탄히 하고 있었다. 셋째, 실질적인 상황에서 학습·환경적인 맥락에 대해서 양 도슨트는 현 운영관리와 물질적인 지원 등이 도슨트 활동에 기본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도슨트 주변인 즉, 가족, 과학관 관리자의 협조가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도슨트가 함께 잘 조화를 이뤄야 됨을 강조하였다. 도슨트가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을 도울 수 있는 외적 영역의 환경이 마련된다면 도슨트 자신은 좀 더 쉽게, 활발히 전문성을 쌓으면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선배 도슨트의 적극적인 멘토링 활용

도슨트는 교사와 같은 교육자이지만 차별이 있는 고유의 전문성(결론,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 형성을 통한 전문성 형성 확립’의 내용 참조)을 필요로 한다. 이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교육방법으로 선배 도슨트의 멘토링은 그 효과가 크다 할 수 있다. 즉, 전시실이라는 개방적인 현장에서 전시해설이라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풍부한 현장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지식 및 교육방법인 선배 도슨트의 멘토링은 후배 도슨트에게 직접적인 교육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 따라서 선배 도슨트의 멘토링 활성화를 위해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본 연구자는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선배 도슨트의 후배양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형성이다. 아무리 선배 도슨트의 멘토링이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하여도 선배 도슨트 스스로가 그 필요성을 못 느끼면 선배 도슨트의 멘토링은 이루어 질 수 없다. 양 도슨트는 그 신념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녀는 선배 도슨트의 멘토링을 통해서 지식 습득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고 좀 더 시간을 단축하여 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후배 도슨트가 좀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선배 도슨트의 후배 도슨트 양성에 대한 신념 형성이 먼저 형성되어 멘토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선배 도슨트와 후배 도슨트와의 소통의 장 마련이다. 국내 과학관의 도슨트 운영과 활동에는 선후배 도슨트의 공식적인 소통의 공간이 없다. 따라서 선배 도슨트가 그의 노하우를 후배에게 전달하고 싶어도 또는 후배 도슨트가 선배에게 정보를 얻고 싶어도 소통 공간의 부재로 개별적으로 서로에게 정보를 전달할 뿐 활발히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관 측에서는 선배 도슨트의 멘토링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양성교육 과정이나 심화교육 과정 편성에 있어서 선배 도슨트의 멘토링 과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적극적인 멘토링 형성이다. 단순히 1:1 대면에서 벗어나 주변 환경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양 도슨트는 멘토링 방법으

로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시물에 관한 스크랩 자료, 학습교구, 전문서적 등을 후배 도슨트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양 도슨트는 후배 도슨트에게 직접 다가가서 주거나 도슨트실에 비치하여 여러 도슨트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오프라인(off-line) 상의 방법 외에 양 도슨트 온라인(on-line) 상의 방법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이메일(E-mail)을 통해선 자료를 전달하거나 전시해설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피드백을 하고 있었다. 또한 블로그를 만들어서 자신의 활동을 수시로 올림으로서 블로그 방문자들이 손쉽게 교육자료를 다운 받거나 다양한 체험현장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 선배 도슨트가 후배 도슨트를 위해서 멘토링을 하려고 해도 그 방법을 몰라서도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멘토링 방법으로 양 도슨트의 실천을 참고하여 오프라인(off-line) 방법으로 1:1 대화, 도슨트실의 자료 비치, 선배 도슨트 멘토링 교육과정 편성, 온라인(on-line) 방법으로 이메일(E-mail) 활용, 인터넷 카페 활용, 개인 블로그 설정 등을 제안해 본다.

앞서 서술한 결론에 따르면 도슨트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활동을 하지만 일반자원봉사자와는 다른 전시해설이라는 과학관 교육을 실현하는 전문가이다. 따라서 도슨트는 전시해설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해 전문가로서 활동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본 연구자는 6가지 결론을 토대로 다음을 제안한다.

도슨트 전문화를 위한 도슨트 제도 정착 및 개선 제언

첫째, 체계적인 도슨트 제도의 구축이다. 도슨트 지원자 선발에 있어서 그 대상을 과학관련 전공자 및 과학관련 기관의 직무경험자, 전문지식의 전달을 위한 교육(가르친 경험)의 유경험자로 한정시키고 지원자들의 교육활동 동기와 열정을 본다. 구체적인 도슨트 양성교육과정도 필수적이다. 도슨트로서의 신념을 갖고 꾸준한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본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도슨트만의 전문성이 잘 발휘되면서 전문지식(전시물, 관람객, 전시해설기법) 교육이 하나로 융합되어 전시해설로서 표현될 수 있도록 이론과 현장실습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평가에 있어서도 학예사와 경력 도슨트가 함께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상호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효율적인 도슨트 제도의 운영이다. 도슨트 전시해설에 대한 진행시간, 활동 횟수, 활동시각, 전시해설의 범위, 전시해설 대상 등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편성되고 그 근거로 활동 수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자체적인 도슨트 스스로의 질적 관리도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 도슨트 활동을 통해서 전시해설을 위한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고 동료 도슨트와의 소통의 공간에서 자신의 지식을 서로 교환하면서 더욱 더 탄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심화교육 실시를 통한 질적 관리 또한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심화교육 실시와 타 과학관 등 탐방, 그 외 도슨트 자체적으로 워크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도슨트로 하여금 긴장감을 갖게 하고 스스로 꾸준히 학습을 하게하는 동기부여를 줌으로서 도슨트의 질적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슨트 활동에 따른 지원 구축이다. 환경적 지원에 있어서는 도슨트 실, 전문서적 및 자료 제공, 유니폼, 마이크, 레이저포인터, 교통비 및 식사비 지급, 무료주차, 연말 포상 등이 될 것이다. 심리적 지원에 있어서는 도슨트들이 그들의 활동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과학관 관리자, 동료, 가족의 이해와 지원이 충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적 및 심리적 지원 외에도 가능하다면, 교통비 및 식비 외의 교육활동비에 대한 완벽한 지원이 주어진다면 좀 더 효과적인 도슨트 활동이 보장될 수 있음은 틀림이 없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이면서 전문적인 도슨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학관 내 자체적 교육에 전적으로 책임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대학 내의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으로 양성하거나, 외부기관의 평생교육원에서 양성하면 교사가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학교에 배정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준비된 도슨트가 과학관에서 그 위치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이러한 체계적인 도슨트 제도의 정착은 우리나라의 과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요건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도슨트 활동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도슨트의 체계적 관리뿐만 아니라 도슨트 전문성 향상을 위한 도슨트 관리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본 연구의 결론이 후속연구 도슨트 교육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강묘숙 (2007). 초등 교사의 표현활동에 관한 실천적 지식 형성과정의 생애사적 접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상원 (1998). 과학관 육성발전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2008). 국가차원의 과학전시 인력양성 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 정책연구 2008-19.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09-41.

교육과학기술부 (2010). 2009 과학기술연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2012). 지역별 국공사립과학관 현황. <http://www.mest.go.kr/web/1009/ko/board/view.do?bbsId=85&boardSeq=27846>(검색일 : 2012. 3. 18)

교육인적자원부 (2007).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 총론 특별활동.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

김경훈, 박정희 (2006). 과학문화정책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디자인포럼, 13, 7-16.

김도희 (2009). 과학교육자료로서 자연사 박물관 전시물의 특성 및 활용방안: 생물교과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소희, 송진웅 (2003). 과학관 전시물의 특징과 학생들의 전시물에 대한 인식 : 서울시 소재 3개 과학관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3(5), 544-560.

김영수 (2009). 국립민속박물관 전시해설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역량 개발을 위한 운영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애련 (2004). 대학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 인식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자영 (2002). 초등 교사의 수업 속에 나타난 실천적 지식에 대한 이해-초등 수학수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종안 (2007). 과학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및 의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찬중, 신명경, 이선경 (2010). 비형식 과학학습의 이해. 서울: (주)도서출판 북스힐.

김태형, 이창진, 신명경 (2005). 과학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따른 과학관 비교 분석-패널전시 설명문을 중심으로. 한국지구과학학회 추계학술발표회, 291-301.

김항목 외 28 (1996). 자연사 박물관 건립을 위한 한국의 자연사 연구. 자연사·미래환경학회지, 79-102.

김현빈, 김찬중 (2005). 자연사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 실태 조사 및 중등 학생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지구과학회 추계학술 발표회 및 정기총회, 302.

김현정, 김창희 (2005). 도슨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도슨트 양성교육 프로그램. 월간미술세계 8월, 249.

김효선, 김경훈 (2011). 국내 과학관 도슨트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9, 1-12.

김혜원 (2004). 과학관의 교육활동과 학교 교육의 연계성.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과학관 육성법 (2008). 법률 제10766호.

권대봉 (1999). 성인교육방법론. 서울: 학지사.

권영훈 (2008). 박물관 전시공간의 구조론적 분석법에 관한 비교 고찰.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나유미 (2008). 박물관 및 전시해설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나장함 (2006). 질적 연구의 다양한 타당성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 교육평가연구, 19(1), 265-283.

류수경 (2005). 과학 교수-학습에서 사용되는 비유 분석과 비유를 활용한 수업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류태호 (2000). 체육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공주 (2009). 과학교사 교수내용지식(PCK)의 구조와 형성과정 탐색-근거이론

에 의한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성채 (2007). 과학관의 평생교육 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민수영 (2007). 성인학습자로서 박물관 도슨트의 경험 의미. 평생교육학연구, 13(3), 143-168.

박상달 (1983). 학생과학관 운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성희 (2003). 평생교육으로서의 연구방법론: 생애사 분석법. 한국성인교육학회, 6(1), 29-57.

박성희 (2004).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생애사 연구를 중심으로. 서울: 원미사.

박승재 (2006). 과학관 육성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 연구. 과학기술부, 정책연구 2006-33.

박승재, 강호감, 김희준, 송진웅 외 (2000). 청소년 학교 밖 과학활동 진흥방안 연구. 과학기술부, 정책연구 2000-18.

박승재, 박신의, 박현주, 신수현, 오원근, 유준희, 윤혜경, 이석희, 이효녕, 임종덕, 전태일 (2005a). 과학관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수익모델 개발. 과학문화교육연구소.

박승재, 박신의, 박현주, 신수현, 오원근, 유준희, 윤혜경, 이석희, 이효녕, 임종덕, 전태일 (2005b). 외국의 과학관 정보 자료. 과학문화교육연구소.

박승재, 신수현, 유준희, 윤성규, 전태일, 정인경 (2007). 과학관 육성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 연구. 과학기술부, 정책연구 2006-33.

박승재, 유준희 (1999). 형식적 과학교육의 부각점에 따른 비형식적 과학교육 매체로서의 과학보도 수용 태도 연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19(2), 275-292.

박영신, 이정화 (2011). 과학관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의 실태 분석 및 발전 방향 모색. 한국지구과학회지, 32(7), 881-901.

박영신, 이정화 (2012). 과학관 활성화를 위한 도슨트 제도 개선 연구. 한국지구과학회지, 33(2), 200-215.

박응희, 이병준, 박지연, 최유주 (2009). 박물관 교육방법으로서의 '해설'에 대한 교육학적 논의. 교육사상연구, 23(1), 97-111.

박은경 (2009). 생태체험교육에서 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은혜 (1999). 유아교사교육에서 수업사례 활용에 대한 고찰. 유아교육연구, 19(1), 61-78.

배봉균 (2006). 박물관교육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성화 연구. 경주사학, 24·25, 449-482.

배소연 (1993). 유아교사의 실천적 지식과 교사교육의 방향. 한국교육학연구, 31(5), 153-171.

백 령 (2004). 미술관 교육의 이론과 실제-국립 현대미술관의 『청소년을 위한 현대미술 체험교실』. 미술교육논총, 8(1), 227-268.

백 령 (2005). 멀티미디어 시대의 박물관 교육. 서울: 도서출판 예경.

성태제 (2010). 교육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송기혜 (2010). 전시커뮤니케이션 효과 증진을 위한 최적화 연출에 관한 연구: 자연사박물관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성수 (2009). 과학기술과 문화가 만날 때. 과주: 한울.

송한나 (2010). 박물관의 이해. 대구: 형설.

신명경, 이창진 (2003). 자연사 박물관 전시물의 특성 분석. 한국지구과학회지, 24(4), 281-289.

신응철 (2008). 해석학적 관점에서 본 도슨트의 위상. 철학탐구, 24, 221-244.

안예진 (2009). 테마박물관 소장품전시의 스토리텔링 적용에 관한 연구: 아프리카박물관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희수, 박성혜, 이창진 (1993). 세계의 주요 자연사박물관의 조직 및 운영. 한국지구과학회지, 14(1), 135-151.

양지연 (1999). 박물관 전시물 개념변화와 전시물 기반학습의 적용. 미술교육논총, 20(2), 285-309.

유은정, 이선경, 최종립, 김찬중 (2010). 과학 교사의 실천적 지식 탐색: 생애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0(8), 971-987.

윤소현 (2008). 자연사박물관에서 활용 가능한 생물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

발과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아연 (2008). 과학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본 과학 전시 콘텐츠 기획 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윤현진, 김영준, 이광우, 전제철 (2007).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 연구(I)-핵심 역량 준거와 영역 설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7-1.

이기연 (2006). 성인여성의 학습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병준, 박지연 (2008). 박물관·미술관 도슨트의 직무분석 연구. 미술교육논총, 22(1), 379-396.

이보아 (2002). 박물관학 개론. 서울: 김영사.

이선경, 최지은, 신명경, 김찬중, 이선경, 임진영, 변호승, 이창진 (2004). 세계 주요 자연사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의 유형 및 특징.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4(2), 357-347

이선경, 오필석, 김혜리, 이경호, 김찬중, 김희백 (2009). 과학 교사의 교수내용 지식과 실천적 지식에 관한 연구 관점 고찰. 한국교원교육연구, 26(1), 27-57.

이운경 (1990). 체험학습을 위한 과학관 전시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용남 (2002). 자연사 박물관 고생물 분야의 전시 기본방향: 한국 지질자원 연구원 지질박물관의 예. 고생물학회지, 24(1), 35-46.

이지혜 (2000). 성인의 학습자 성장과정 연구: 미용인의 직업발달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창진 (1999). 국립 자연사 박물관 설립을 위한 이상적 모델. 박물관학연구, 4, 21-28.

이철희 (2009). 박물관 도슨트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집, 4, 113-136.

이춘자 (2003). 웹 토론방의 수업사례 토론에 나타난 유아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전략 분석. 한국교육연구, 9(2), 40-65.

이효은 (2007). 과학교육원 부설 전시관 생명 영역 전시물의 오류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해주, 이해숙, 권진희 (2006). 원격·성인학습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요구 분석과 모형 개발. 평생교육연구원, 12(4), 279-306.

이희원, 김영수 (2004). 과학 교사의 가르치는 능력에 관한 평가 준거 개발. 한국생물교육학회지, 32(4), 348-359.

임경미 (2000). 문화교육으로서의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성택, 이병훈 (1978). 한국의 과학관의 교육사업에 관한 연구: 그 현황과 개선책을 중심으로. 전문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과학교육논총, 3, 25-36.

임칠성 (2002). 국어선생님 듣기 수업 어떻게 하십니까? 서울: 역락출판.

임현숙 (2007). 두 초등교사의 평생학습 생애사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현숙, 최경희 (2006). 현장학습을 통한 중학생들의 과학관 선호도 및 인식변화.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6(3), 330-341.

전은주 (1999). 말하기 듣기 교육론. 서울: 박이정.

정기주 외 17 (2010). 과학관학개론.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정세진 (2003). 현장체험활동에 관한 교사 인식과 적용-전기박물관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원식 (1990). 교육환경론. 서울: 교육출판사.

조숙희 (2006). 자연사 박물관을 활용한 환경교육-우석헌 자연사박물관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희형, 박승재 (1994). 과학론과 과학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최경희 (1996). STS 교육의 이해와 적용. 서울: (주)교학사.

최경희 (2004). 전기 관련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비유 개발 수업의 효과. 새물리, 48(5), 401-410.

최경희, 장현숙 (2005a). 과학관 전시물의 분석을 통한 국내외 주요 과학관의 STS교육 실시 현황 파악.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5(3), 336-345.

최경희, 장현숙 (2005b). 초등 과학교과서에 제시된 현장학습의 분석. 초등과학

교육, 24(4), 337-344.

최경희, 장현숙, 이현주 (2006). 과학관 교육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초등과학교육, 25(3), 331-337.

최선영 (2009). 박물관 전문 인력확보를 위한 학예사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9 p.

최영신 (1999). 질적 자료 수집: 생애사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2(2), 1-22.

최운실, 이지혜, 정민승, 최윤선, 김호선 (2005). 평생학습 참여성과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5-13-1.

최정숙 (2003). 여성의 이혼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주영 (2009). 외국인관람객 개발을 위한 박물관 교육서비스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지은 (2004). 자연사 박물관 관람객의 관람유형과 관람만족도의 관계. 한국지구과학회지, 25(5), 315-326.

최지은, 이선경, 신명경, 임진영, 변호 (2004). 자연사박물관의 예비 관람객의 요구 연구. 한국생물교육학회지, 32(2), 91-106.

한국기술경영연구원 (2011). 국립과천과학관 자원봉사. 연구팀 워크숍 자료.

한국인 (2007). 과학관 현장학습을 활용한 수업이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과학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문정, 양찬호, 노태희 (2010). 과학관을 활용한 교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교육 요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0(8), 1060-1074.

한은희 (2007). 자연사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주연 (2002). 도슨트 전시의 스토리텔러. 삼성미술관연구논문집, 3, 89-108

허미애 (2007). 유아교사의 이야기나누기에 대한 실천적 지식탐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미화 (2005). 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사회과 수업을 중심으로

로-. 사회과교육, 44(1), 101-124.

홍용희 (1998).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교육연구의 질적 접근, 그 방법과 쟁점. 교육인류학연구회 1998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3-53.

황지영 (2004). 박물관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nne El-Omami (1989). Education the Art Museum Educator. MUSEUM EDUCATION: History, Theory and Practice. NAEA.

ASTC: Association of Science Technology Centers Incorporated (2004). Sourcebook of Science Center Statistics 2004.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Science Technology Centers.

Baldock, Cora Vellekoop (1990). Volunteers in Welfare. Sydney: Allen & Unwin.

Beetlestone, J. G., Johnson, C. H., Quin, M., & White, H. (1998). The science center movement: Contexts, practice, next challenges.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7(1), 5-26.

Bell, P., Lewenstein, B., Shouse, A. W., & Feder, M. A.(Eds) (2009). Learning science in informal environments: People, places, and pursuit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c Press.

Bernard, H. R. (1994). Research Methods in Anthropology(2nd ed.). CA: AltaMira Press.

Bogdan, R. C., & Biklen, K. S. (1982).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 신옥순 역, 1991, 교육연구의 새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Bullough, R. (2001). Paul Klohr: A hermeneutic Portrait. Journal of curriculum Theorizing, spring 2001, 85-92.

Burcaw, George Ellis (1997). Introduction to museum work. CA: Rowman Altamira.

Burgess, R. G.(de.) (1982). Field Research: A Source Book and Field

Manual. London: Allen & Unwin.

Carter, K. (1990). Teachers' knowledge and learning to teach. In W. R. Houston(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er education(pp.291-310). New York: Macmillan.

Caston, E. B. (1989). Museum Education; A Model for teaching in a museum setting. Museum Education History, Theory and Practice. 90-108 p. The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Rest on, Virginia.

Cho, S. (2003). Science culture centers: It's history, concepts and functions. Proceedings in Joint Seminar under the Ja pan-Korea Basic Scientific Cooperation Program. Kobe, Japan, 31-36.

Connelly, F. M., & Clandinin, D. J. (1987). On narrative method, biography and narrative unities in the study of teaching. The Journal of Education Thought, 21(3), 130-139.

Cox-Peterson, A. M., Marsh, D. D., Kisiel, J., & Melber, L. M. (2003). Investigation of guided school tours, student learning, and science reform: Recommendations at a museum of natural history.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 40(2), 200-218.

Crane, V., Chen, M., Bitgood, S., Serrell, B., Thompson, D., Nicholson, H., Weiss, F., & Campbell, P. (1994). Informal science learning: What the research says about television, science museums, and community-based projects. Washington, D.C.: National Science Foundation.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조홍식, 전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 2005, 질적 연구와 교육. 서울: 학지사.

Cross, K. (1981). Adults as Learners: increasing participation and facilitating learning. San Francisco, CA: Jossey-Bass.

Csikszentmihaly, M. (1997). Finding flow. 이희재 역, 2001, 몰입의 즐거움. 서울: 해냄.

Denzin, N. K., & Lincoln, Y. S. (2005).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London: Sage Publications.

Dewey John (1938). *Experience & Education*. London: Collier-Macmillan.

Elbaz, F. (1981). The Teachers' practical knowledge. *Curriculum Inquiry*, 11, 43-71.

Elbaz, F. (1983). *Teachers' thinking: A study of practical knowledge*. New York: Nicholas.

Falk, J. H., & Dierking, D. (2000). *Learning from museums: Visitor experiences and the making of meaning*. New York: Altamira Press.

Fang, Z. (1996). A review of research on teacher beliefs and practice, *Educational Researcher*, 38, 47-65.

Fenstermacher, G. D. (1994). *Approaches to Teaching 2nd*, 이지현 역, 1994, 가르치는 일이란 무엇인가? 서울: 교육과학사.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Fraser, B. J. (1981). *Test of Science-Related Attitude(TOSRA)*. 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15 p.

Galbraith, Michael W., & Cohen, Norman H. (1995). *Mentoring in the learning society*, Galbraith, M. W. & Cohen, N. H. ed. *Mentoring: new strategies and challenges*. New directions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Number 66.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

Glaser, Jane R., & Zenetou, Artemis A. (1996). *Museum:A Place to Work Planning Museum Careers*, London: Routledge.

Glesne, C. (1999).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 New York: Longman.

Glesne, C. (2006).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 (3rd ed.). Boston: Allyn & Bacon.

Glesne, C., & Peshkin, A. (1992).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 White Plains, New York: Longman.

Goetz, J., & LeCompte, M. (1984). *Ethnography and Qualitative design in education research*. Orlando Fla: Academic Press.

Hammersley, M. (1978). Some notes on the terms 'validity' and 'reliability'.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3(1), 73-81.

Holisti, O. R. (1969).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ading, MA: Addison-Wesley.

Hooper-Greenhill, E. (1992). *Museum and the shaping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Ingersoll, Richard & Kralik, Jeffrey M. (2004). *The Impact of Mentoring on Teacher Retention: What the Research Says*.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hnson, B., & Christensen, L. (2004). *Educational research: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mixed approaches*. Boston, MA: Pearson.

Kelchtermans, G. (1993). Getting the story, understanding the lives: from career stories to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Teaching & Teacher Education*, 9, 443-456.

Knowles, M. S. (1984). *The Adult Learner: A neglected species*(3rd ed.). Houston: Gulf.

Lee, E. (2007). Literature review: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s specialized knowledge for teaching.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for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27(8), 699-710.

Leinhardt, G., & Smith, Donald A. (1985). Expertise in mathematics instruction: Subject matter knowledg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7(3), 247-271.

Marland, P. (1997). *Practical theory of teaching: Towards more effective open and distance teaching*. London: Kogan Page.

Maxwell, J. A. (1996). *Qualitative research design: An interactive approach*. Thousand Oaks, CA: Sage.

McCutcheon, Gael (1995). *Developing the curriculum, solo and group deliberation*. Longman publishers, USA, 231 p.

McLean, K. (1993). *Planning for People in Museum Exhibitions*. Association of Science-Technology Centers, DC: Washington.

Melber, L. M., & Abraham, L. M. (2002). Science education in U.S. natural history museums: A historical perspective. *Science & Education*, 11, 45-54.

Merriam, S. B. (1988).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허미화 역, 1994, *질적 사례연구법*. 서울: 양서원.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Revised and expanded from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Merriam, S. B., & Caffarella, R. S. (1991/1999). *Learning in adulthood: A comprehensive guide*(1st ed/ 2n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Miller, J. L. (1995). Biography, education, and questions of private voice. In Craig Kridel(Ed.). *Writing educational biography*. NY: Garland Publishing Inc.

Nation Docent Council (2001). *The docent handbook*. USA: National Docent Council.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6). *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ndard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Osborne, J., & Dillon, J. (2007). Research on learning in informal contexts: Advancing the field?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29(12), 1441-1445.

Patton, M.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3rd ed.). Sage Publications, CA: Thousand Oaks.

Pinar, W. F. (1978). Life history and curriculum theorizing. *Review Journal of Philosophy and Social Science*, 3(1), 92-118.

Polettini, A. F. F. (2000). Mathematics teaching life histories in the study of teachers' perceptions of change.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6, 756-783.

Prawat, R. S., & Floden, R. W. (1994).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constructivist views of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y*, 29, 37-48.

Rennie, L. J., Feher, E., Dierking, L. D., & Falk, J. H. (2003). Toward an agenda for advancing research on science learning in out-of-school settings.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40(2), 112-120.

Roberts, R. (2002). *Biographical Research*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Schauble, L., & Glaser, R.(Eds.) (1996). *Innovations in learning new environments for educa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Schulz, S. F. (1995). "The Benefits of Mentoring", in Galbraith, M. W. & Cohen, N. H. *Mentoring: New Strategies and challenges*. New directions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Number 66, Summer,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

Sikes, P. J., Measor, L., & Woods, P. (2001). Critical phases and incidents, in J. Soler, A. Craft & H. Burgess (Eds.), *Teacher Development: Exploring Our Own Practice*(pp. 104-115). London: Paul Chapman Publishing.

Simon, M. A. (1995). Reconstructing mathematics pedagogy from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Journal for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 26(2) 114-145.

Song, J., & Cho, s. K. (2004). Yet Another Paradigm Shift?: From Minds-on to Hearts-o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24(1), 129-145.

Spradley, J. P.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이희봉 역, 1988, 참여관찰방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Sue Mccoy (1989). *Docent in Art Museum Education*. MUSEUM.

The Science Times (2005). 과학과 예술의 극적인 만남 '라 빌레트 과학관'. <http://www.postvillage.net/sian/science/sub.html>(검색일 : 2011. 3. 12).

van Driel, J. H., Beijaard, D., & Verloop, N. (2001).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reform in science education: The role of teachers' practical knowledge.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8(2), 137-158.

Watson, L. C., & Watson-Franke, M. B. (1985). *Interpreting Life Histories: An Anthropological Inquiry*. New Brunswick,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Weil, Stephen E. (1990). *Rethinking the Museum and Other Meditation*. Washington: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Weiss, J. (1992). *The Muse as Educator*, Paper presented as part of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San Francisco, CA, April 20-24.

Zana, B. (2006). *Seeing ourselves through their eyes: How do teachers regard science centres?* Proceedings of the European Network of Science Centers and Museums Conference. Belgium: Mechelen.

부 록

부록 1 박물관 전문직의 직종(Glaser & Zenetou, 1996)

Museum professional position	
1. 소장품 등록관(Archivist)	16. 재정 담당직원(Financial officer)
2. 법률고문(Attorney)	17. 의료 담당직원(Health officer)
3. 소장품 관리관(Collection manager)	18. 정보담당 매니저(Information manager)
4. 보존처리과학자(Conservation scientist)	19. 사서(Librarian)
5. 보존처리담당자(Conservator)	20. 마케팅 매니저(Marketing manager)
6. 큐레이터(Curator)	21. 미디어 매니저(Media manager)
7. 부관장(Deputy Director/Vice president/ Assistant director/ associate director)	22. 멤버쉽 담당자(Membership office)
	23. 인력관리 담당자 (Personnel (human resources) director)
8. 개발관리임원(Development officer)	24. 사진사(Photographer)
9. 박물관 관장(Director)	25. 섭외 담당직원(Public relations officer)
10. 도슨트(가이드)(Docent(guide))	26. 수장품등록관(Registrar)
11. 편집자(Editor)	27. 안전 담당소장(Security chief)
12. 교육담당자(Educator)	28. 뮤지엄 샵 매니저 (Museum shop manager)
13. 전시디자이너(Exhibition designer)	
14. 전시개발자(Exhibition planner(developer))	29. 자원봉사관리자(Volunteer coordinator)
15. 전시작성자(Exhibition preparator)	

부록 1 계속

Assistant and support positions(17)	Other support positions(5)
1. 소장품 매니저(Art or objects handler)	1. 경호인(Guard)
2. 예술가(Artist)	2. 관리인(Custodian)
3. 카드 등록자(Gataloguer)	3. 정원사(Gardener)
4. 보존처리 보조(Conservation aiad)	4. 기계공(Mechanic)
5. 개발 보조(Development assistant)	5. 목조부(Woodwork)
6. 전시 보조(Exhibitions assistant)	
7. 재무직원 또는 행정 보조 (Financial clerk or administrative assistant)	
8. 해석자 또는 통역자 (Interpretor or explainer)	
9. 도서관 기능공(Library technician)	
10. 물품 가공담당(Objects processor)	
11. 교정원(Proofreader)	
12. 연구원(Researcher)	
13. 비서(Secretary)	
14. 샵 보조(Shop assistant)	
15. 기능공(Technician)	
16. 투어 일정담당자(Tour scheduler0)	
17. 보조자를 위한 보조자 (Assistant to assistant)	

감사의 글

저를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학문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모르던 철부지 저를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이 논문이 나오는 마지막까지 함께 고민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박영신 지도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제자가 이 논문을 쓰면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교수님의 덕분이고 교수님의 은혜는 잊지 못할 것 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시작하는데 큰 동기를 주신 박종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진심어린 걱정은 학문에 안이해진 저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늘 인자하신 모습으로 저를 지켜봐 주신 김희남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늘 저에게 학자로서의 자세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늘 제자의 모습을 예쁘게 봐주시고 염려를 아끼지 않으신, 류찬수 교수님, 신인현 교수님, 안건상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포근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교수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천문학을 접할 수 있게 해주신 안경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도슨트, 학예사 및 과학관 담당자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의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터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장거리 이동의 어려움을 아시고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인터뷰 자리 마련과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김희경 선생님(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계셨기에 제가 이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늦은 시간 인터뷰에 홍쾌이 응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명아(소속,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외 가정주부로 별도의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을 텐데도 틈틈이 시간을 할애해 주신 모든 도슨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관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관한 많은 자료 수집에 도움을 주신 학예사 및 과학관

담당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직장동료와 연구실에서 함께했던 후배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딸로서 며느리로서 부족한 저를 대견하게 여기시고 모든 측면을 챙겨주신 부모님, 이 논문은 부모님의 것입니다. 논문에 열중한 나머지 태교에 신경을 못써준 미래 우리 아가에게 미안하구나 엄마는 우리 아가에게 포기하는 엄마보단 노력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건디기 힘들었을 텐데도, 무던히 참아주고 물심양면으로 밀어준 신랑 김형진에게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과 사랑을 전합니다.

2012년 6월 마지막 수정을 마치고...